셜록 홈즈의 회상록

The Memoirs of Sherlock Holmes

아서 코난 도일 (1859–1930)

1894년 발표 · 한국어 번역 · 2026-10-09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책 정보

원전

Arthur Conan Doyle, "The Memoirs of Sherlock Holmes" (The Strand Magazine 1892–93)

저자

아서 코난 도일 (Sir Arthur Conan Doyle, 1859–1930)

원전 출처

Project Gutenberg #834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GB10 로컬)

발행

sosig.shop/book · 2026-10-09

번역 정책

> 가독성을 우선해 옮기되 빅토리아 시대 추리소설 특유의 격조와 긴장을 살렸습니다. 고유명사·핵심 표현은 작품 내내 일관되게

> 옮겼습니다.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으니, 정식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쉽게 읽는 한 편"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실버 블레이즈

"유감스럽지만 왓슨, 아무래도 떠나야 할 것 같네."

어느 날 아침, 함께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았을 때 홈즈가 말했다.

"가시오! 어디로 가려는 거요?"

"다트무어로, 킹스 파일랜드로 가야 하네."

나는 놀라지 않았다. 사실, 오히려 의아한 점은 그가 왜 아직 이 기이한 사건에 발을 들이지 않았느냐는 것이었다. 이 사건은 현재 영국 전역에서 유일한 화젯거리였다. 내 동료는 온종일 턱을 가슴에 묻고 미간을 찌푸린 채 방 안을 서성였다. 그는 아주 독한 검은 담배를 파이프에 계속해서 채워 넣으며, 내가 던지는 질문이나 말에는 전혀 대꾸도 하지 않았다. 신문 배달원이 매일같이 신문들을 새로 가져다주었지만, 그는 그저 훑어보기만 할 뿐 구석으로 던져버렸다. 하지만 그가 침묵을 지키고 있을 때에도, 나는 그가 무엇을 골몰하고 있는지 아주 잘 알고

있었다. 대중 앞에 놓인 문제 중 그의 분석력을 시험할 만한 사건은 단 하나뿐이었다. 바로 웨섹스 컵의 우승 후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사건과, 그 말의 조련사가 비극적으로 살해된 사건이었다. 그러니 그가 갑자기 사건 현장으로 떠나겠다고 선언했을 때, 나는 그저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바라던 대로 일이 진행되었다고 생각했다.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도 기꺼이 함께 내려가고 싶습니다." 내가 말했다.

"여보게, 왓슨. 자네가 와 준다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거네. 자네의 귀한 시간을 결코 헛되게 만들지 않을 테니 걱정 말게나. 이번 사건에는 아주 독특하고도 흥미로운 구석이 있거든. 패딩턴역에서 기차를 타기 전까지 시간이 조금 있으니, 이동하는 동안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네. 아, 오는 길에 자네가 가진 그 훌륭한 망원경도 꼭 챙겨와 주게나."

한 시간쯤 지났을까, 나는 엑서터로 향하는 1등석 객차 구석에 앉아 있었다. 열차는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었다. 셜록 홈즈는 귀덮개가 달린 여행용 모자를 눌러쓴 채, 날카롭고 열띤 표정으로 패딩턴 역에서 산 신문 뭉치를 빠르게 훑어 내려갔다. 홈즈가 마지막 신문을 좌석 밑으로 밀어 넣고 내게 시가 케이스를 건넸을 때, 우리는 이미 레딩을 한참 지나쳐 온 뒤였다.

"잘 가고 있군." 그는 창밖을 내다보며 시계를 슬쩍 확인하고는 말했다. "현재 속도는 시속 53.5마일이야."

"4분의 1마일마다 세워진 이정표는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말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전신주 사이의 거리는 60야드씩 떨어져 있으니 계산은 간단합니다. 아마 존 스트레이커의 살인 사건과 실버 블레이즈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이미 알아보셨겠지요?"

"텔레그래프지와 크로니클지가 뭐라고 보도했는지 이미 확인했네."

"이번 사건은 새로운 증거를 찾아내기보다, 이미 드러난 세부 사항들을 걸러내는 데 추론의 기술을 써야 하는 경우 중 하나입니다. 비극의 규모가 워낙 이례적이고 참혹한 데다, 워낙 많은 이에게 개인적인 영향을 미친 사건이라 사람들은 온갖 추측과 짐작, 가설을 쏟아내며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론가들과 기자들이 덧붙인 미사여구 속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의 골격을 분리해 내는 일입니다. 일단 이 견고한 토대 위에 자리를 잡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추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미스터리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지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화요일 저녁, 저는 말의 주인인 로스 대령과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그레고리 경위로부터 각각 전보를 받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제 협조를 요청해 왔더군요."

"화요일 저녁이라니요!" 내가 외쳤다. "벌써 목요일 아침입니다. 어제는 왜 내려가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실수를 저질렀네, 왓슨. 자네의 회고록을 통해서만 나를 아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난다는 사실을 모를 테지만, 안타깝게도 내게는 꽤 흔한 일이라네. 사실 나는 영국의 그 유명한 말이 다트무어 북부처럼 인구도 적은 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숨겨져 있을 수 있다고는 믿기 어려웠네. 어제는 매시간 그 말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나, 말을 납치한 자가 바로 존 스트레이커를 살해한 범인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기만을 기다렸지.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젊은 피츠로이 심슨을 체포한 것 외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이제는 내가 직접 나서야 할 때라고 느꼈네.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어제가 아주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생각하네."

"그럼, 가설을 세운 건가?"

"적어도 사건의 핵심적인 사실관계는 파악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죠. 누군가에게 사건을 설명하다 보면 머릿속이 명료해지는 법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는지 보여드리지 않는다면, 당신의 협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테니 말입니다."

나는 쿠션에 몸을 기대고 앉아 시가에 연기를 내뿜었다. 그사이 홈즈는 몸을 앞으로 기울인 채, 길고 가느다란 검지로 왼손바닥을 짚어가며 사건의 요점을 하나씩 짚어 나갔다. 그는 우리가 이번 여정을 떠나게 된 경위가 어떠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다.

"실버 블레이즈는 아이소노미 혈통이라네." 홈즈가 말했다. "그 유명한 조상만큼이나 눈부신 전적을 쌓아왔지. 이제 5년 차에 접어든 이 말은, 운 좋은 주인인 로스 대령에게 경마장의 온갖 상을 차례로 안겨

주었네. 비극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실버 블레이즈는 웨섹스 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였고, 배당률도 3대 1이었지. 하지만 이 말은 언제나 경마 팬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왔다네. 단 한 번도 팬들을 실망시킨 적이 없었기에, 그 낮은 배당률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액수의 돈이 실버 블레이즈에게 걸렸지. 그러니 다음 주 화요일, 경기가 시작되는 순간 실버 블레이즈가 출발선에 서지 못하게 막으려는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는 건 자명한 사실이라네."

당연히 그 사실은 대령의 훈련 마구간이 있는 킹스 파일랜드에도 알려졌다. 경주마를 보호하기 위해 온갖 예방 조치가 취해졌다. 조련사 존 스트레이커는 은퇴한 기수였다. 그는 몸무게가 너무 늘어 기수직을 그만두기 전까지 로스 대령의 마구 색깔을 달고 경기에 출전하곤 했다. 그는 5년 동안 대령의 기수로, 이후 7년 동안은 조련사로 일하며 언제나 열성적이고 정직한 종복임을 증명해 왔다.

그의 밑에는 세 명의 마부 조수가 있었다. 마구간 규모가 작아 말도 모두 네 마리뿐이었기에 조수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 마부 중 한 명은 매일 밤 마구간에서 밤을 지새웠고, 나머지 두 명은 다락방에서 잠을 잤다. 세 명 모두 평판이 아주 좋았다. 기혼자인 존 스트레이커는 마구간에서 약 200야드 떨어진 작은 빌라에 살았다. 그는 자식은 없었지만 하녀 한 명을 두고 있었으며, 형편도 넉넉했다.

주변 지역은 매우 외딴곳이었다. 다만 북쪽으로 약 0.5마일 정도 가면 작은 빌라 몇 채가 모여 있는 마을이 나왔다. 타비스톡의 한 건설업자가 환자나 다트무어의 맑은 공기를 즐기려는 사람들을 위해 지어 놓

은 곳이었다. 타비스톡 자체는 서쪽으로 2마일 거리에 있었고, 황무지를 가로질러 약 2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는 더 큰 규모의 훈련 시설인 메이플턴이 있었다. 그곳은 백워터 경의 소유였으며 실라스 브라운이 관리했다. 그 외 다른 모든 방향은 떠돌이 집시들만이 드문드문 사는 완전한 황무지였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지난 월요일 밤의 상황이 바로 이러했다.

그날 저녁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말들에게 운동을 시키고 물을 먹인 뒤, 9시가 되자 마구간 문을 잠갔다. 일꾼 세 명 중 두 명은 조련사의 집으로 올라가 주방에서 저녁 식사를 했고, 나머지 한 명인 네드 헌터가 마구간을 지켰다. 9시가 조금 지나자 하녀 에디스 백스터가 커리 양고기 요리를 담은 저녁 식사를 들고 마구간으로 내려갔다. 마구간 안에 수도꼭지가 있었고, 당번인 일꾼은 물 외에 다른 음료를 마시지 않는 것이 규칙이었기에 그녀는 따로 마실 것을 챙기지 않았다. 마구간으로 가는 길은 탁 트인 황무지를 가로질러야 했고 워낙 어두웠기에, 하녀는 랜턴을 들고 길을 나섰다.

에디스 백스터가 마구간에서 30야드도 채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 있었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나타나 그녀를 불러 세웠다. 남자가 랜턴이 비추는 노란 불빛 안으로 걸어 들어오자, 그녀는 그가 회색 트위드 슈트에 헝겊 모자를 쓴, 신사다운 풍채를 지닌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게이터를 신고 있었고, 끝이 뭉툭한 묵직한 지팡이를 들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길을 가장 강렬하게 사로잡은 것은 남자의 창백하다 못해 질린 듯한 얼굴과 초조해 보이는 태도였다. 그녀는 그의 나이가 서른 살을 갓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여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가 물었다. "당신의 랜턴 불빛을 보기 전까지는, 그냥 이 황야에서 밤을 지새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킹스 파일랜드 훈련 마구간 바로 근처랍니다." 그녀가 말했다.

"오, 세상에! 정말 운이 좋군요!" 그가 외쳤다. "듣자하니 마구간 소년이 매일 밤 그곳에서 혼자 잠을 잔다고 하더군요. 당신이 가져가는 것이 아마 그 소년의 저녁 식사겠지요. 자, 새 드레스를 살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자존심을 조금은 내려놓을 수 있겠지요?" 그는 조끼 주머니에서 접힌 흰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오늘 밤 그 소년에게 이 종이를 꼭 전달하십시오. 그러면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드레스를 갖게 될 겁니다."

그의 태도가 너무나 진지한 나머지 그녀는 겁을 먹고 말았다. 그녀는 평소 식사를 전달하던 창가 쪽으로 그를 지나쳐 달려갔다. 창문은 이미 열려 있었고, 그 안쪽 작은 탁자에는 헌터가 앉아 있었다. 그녀가 방금 일어난 일을 그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낯선 남자가 다시 다가왔다.

"안녕하신가." 창밖을 내다보며 그가 말했다. "잠시 이야기 좀 나누고 싶군." 그가 말을 건네는 순간, 소녀는 그의 꽉 쥔 손가락 사이로 작은 종이 꾸러미의 모서리가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보았다고 맹세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소년이 물었다.

"돈을 좀 만져볼 만한 사업 이야기야." 상대방이 말했다. "자네, 웨섹스 컵에 말 두 마리를 내보내지 않았나? 실버 블레이즈와 바야드 말이야. 나한테 확실한 정보를 좀 주게. 그러면 자네도 손해 볼 일은 없을 테니까. 바야드가 무게를 맞춘 뒤 5펄롱을 달릴 때 실버 블레이즈를 100야드나 따돌릴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 그래서 마구간 사람들이 바야드에게 돈을 걸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이런, 당신도 그 빌어먹을 호객꾼 중 하나였군!" 소년이 소리쳤다. "킹스 파일랜드에서는 그런 놈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소년은 벌떡 일어나 마구간을 가로질러 달려가 개를 풀어놓았다. 소녀는 집을 향해 달아났지만, 도망치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자 낯선 남자가 창문 너머로 몸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잠시 후 헌터가 사냥개를 데리고 급히 밖으로 뛰어나왔을 때, 남자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헌터가 건물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잠시만요." 내가 물었다. "마구간 소년이 개를 데리고 밖으로 뛰어나갈 때, 문을 잠그지 않고 그냥 나갔습니까?"

"훌륭해, 왓슨, 정말 훌륭해!" 동료가 나직이 중얼거렸다. "방금 그 점이 너무나 결정적이라서, 어제 이 문제를 확실히 매듭짓고자 다트무어로 특별 전보를 보냈네. 그 소년은 방을 떠나기 전 문을 잠갔더군. 덧붙이자면, 창문은 성인 남자가 빠져나갈 만큼 크지도 않았네."

헌터는 동료 마부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련사에게 메시지를 보내 방금 일어난 일을 전했다. 스트레이커는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했으나, 사건이 지닌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는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휩싸였다. 새벽 한 시쯤 잠에서 깬 스트레이커 부인은 남편이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부인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그는 말들이 걱정되어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다며 마구간에 내려가 모든 것이 괜찮은지 직접 확인하고 오겠다고 답했다.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리니 제발 집에 있어 달라고 부인이 간곡히 만류했지만, 그는 부인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커다란 맥킨토시 우비를 걸친 채 집을 나섰다.

스트레이커 부인은 아침 일곱 시에 잠에서 깨어났으나, 남편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는 서둘러 옷을 입고 하녀를 불러 마구간으로 향했다. 마구간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헌터는 의자에 몸을 웅크린 채 완전히 정신을 잃은 듯 깊은 혼수상태에 빠져 있었고, 애마의 마구간은 비어 있었으며, 조련사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마구간 위, 건초 절단기 보관실에서 잠을 자던 두 소년은 금세 잠에서 깨어났다. 두 소년 모두 워낙 잠귀가 어두운 편이라 밤사이에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헌터는 분명 강력한 약물에 취해 있는 상태였다. 그에게서 어떤 말도 끌어낼 수 없었기에, 두 소년과 두 여성이 사라진 이들을 찾아 밖으로 달려 나가는 동안 그는 약 기운이 가실 때까지 그대로 잠든 채 남겨졌다. 그들은 조련사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말을 데리고 이른 아침 훈련을 나갔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하지만 집 근처 언덕에 올라 주변 황무지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까지

갔을 때, 그들은 사라진 경주마의 흔적을 찾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비극이 닥쳤음을 알리는 불길한 징조를 목격하고 말았다.

마구간에서 약 4분의 1마일 떨어진 곳, 가시덤불 사이로 존 스트레이커의 오버코트가 너풀거리고 있었다. 그 바로 너머 황무지에는 사발 모양으로 움푹 팬 지형이 있었는데, 그 바닥에서 불운한 조련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그의 머리는 무거운 둔기에 맞아 처참하게 부서져 있었고, 허벅지에는 아주 날카로운 도구로 길고 매끄럽게 베인 상처가 있었다. 하지만 스트레이커가 습격자에게 격렬히 저항했다는 사실은 분명해 보였다. 그의 오른손에는 손잡이까지 피가 엉겨 붙은 작은 칼이 쥐어져 있었고, 왼손에는 적색과 흑색이 섞인 실크 넥타이가 움켜쥐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마구간 하녀의 확인에 따르면, 이 넥타이는 전날 저녁 마구간을 방문했던 낯선 남자가 매고 있던 것이었다.

헌터는 정신을 차린 뒤, 그 크라바트가 자신의 것이라고 확신했다. 또한 그는 창가에 서 있던 그 낯선 사람이 자신의 커리 양고기 요리에 약을 탔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그 약 때문에 마구간의 파수꾼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사실 또한 그는 의심치 않았다.

"사라진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구덩이 바닥의 진흙 속에서 결정적인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은 다툼이 벌어지던 바로 그 시각에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이후로 말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거액의 현상금까지 걸었고 다트무어의 집시들도 모두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마구간 소년이 남겨둔 말의 저녁

식사를 분석해 본 결과, 상당한 양의 가루 아편이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밤, 저택의 사람들은 똑같은 음식을 먹었음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모든 추측을 걷어내고 가능한 한 건조하게 정리한, 이 사건의 핵심 사실들입니다. 이제 경찰이 이 사건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요약해서 말씀드리죠."

이 사건을 맡은 그레고리 경위는 매우 유능한 경찰관이다. 그에게 상상력만 조금 더 있었다면, 아마 직업적으로 아주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을 것이다. 그는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의심을 살 만한 인물을 즉시 찾아내 체포했다. 그를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그가 내가 앞서 언급했던 빌라 중 한 곳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이름은 피츠로이 심슨으로 밝혀졌다. 그는 가문도 좋고 교육도 잘 받은 인물이었으나, 경마에 빠져 막대한 재산을 탕진하고 말았다. 지금은 런던의 스포츠 클럽에서 조용하고 품위 있게 배당률을 책정하는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의 베팅 장부를 조사해 보니, 그는 경주 승리 후보를 상대로 5,000파운드에 달하는 판돈을 걸어둔 상태였다.

그는 체포되자마자 자발적으로 진술을 내놓았다. 킹스 파일랜드의 말들에 관한 정보를 얻으러 다트무어에 왔으며, 메이플턴 마구간에서 사일러스 브라운이 관리하는 두 번째 인기마 데스버러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싶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전날 저녁에 묘사된 대로 행동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려 들지는 않았다. 다만 불순한 의도는 전혀 없었으

며, 그저 직접 정보를 얻고 싶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신의 크라바트가 발견되자 그는 안색이 급격히 창백해졌고, 살해된 남자의 손에 왜 그것이 들려 있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못했다. 젖은 옷차림을 보니 그는 전날 밤 폭풍우 속을 돌아다녔던 것이 분명했다. 또한 그가 들고 있던 지팡이는 내부에 납을 채운 페낭 로이어(Penang-lawyer)였는데, 이는 반복해서 내리쳤을 경우 조련사가 입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기에 충분한 무기였다.

"반대로, 그의 몸에는 상처 하나 없었네. 하지만 스트레이커의 칼 상태를 보면, 습격자 중 적어도 한 명은 반드시 칼에 베인 흔적이 남아 있어야만 하지. 자, 왓슨, 상황은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네. 자네가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찾아준다면 정말 고맙겠군."

홈즈는 특유의 명료한 어조로 사건의 전말을 설명해 나갔고, 나는 그 이야기에 깊이 몰입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사실들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그리고 각각이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혹시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내가 제안했다. "뇌 손상 직후에 일어나는 경련성 발작 중에, 스트레이커가 자기 칼에 스스로 베인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단순히 가능성이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충분히 일어날 법한 일이지요."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던 핵심 증거 중 하나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내가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찰이 대체 어떤 이론을 세우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우리가 어떤 가설을 세우든, 그에 반하는 아주 중대한 반론들이 있을 것 같군." 동행인이 대답했다. "경찰의 생각은 이렇겠지. 피츠로이 심슨이 소년에게 약을 먹인 뒤, 어떤 식으로든 복제 열쇠를 구해서 마구간 문을 열고 말을 끌고 나갔다는 거야. 목적은 아마도 말을 통째로 훔쳐 달아나려 했던 모양이지. 말의 굴레가 사라진 걸 보니 심슨이 이걸 채웠음이 분명해. 그러고는 뒤에 남겨둔 문을 열어둔 채 황무지를 가로질러 말을 끌고 가다가, 조련사와 마주쳤거나 혹은 조련사에게 뒤쫓혔을 테고. 당연히 싸움이 벌어졌겠지. 심슨은 자신의 묵직한 지팡이로 조련사의 머리를 내리쳐 죽였을 거야. 스트레이커가 방어 차원에서 휘두른 작은 칼에는 상처 하나 입지 않은 채 말이지. 그 후 도둑은 말을 은밀한 은신처로 끌고 갔거나, 아니면 싸움 도중에 말이 놀라 달아나 지금쯤 황무지를 헤매고 있을 수도 있어. 이게 경찰이 파악한 정황이야. 믿기 힘들겠지만, 다른 설명들은 이보다 더 말이 안 되거든. 어쨌든 현장에 도착하면 곧바로 확인해 보겠네. 그때까지는 지금 상태에서 더 나아갈 방법이 없을 것 같군."

타비스톡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다. 그곳은 거대한 다트무어 평원의 한가운데에 방패의 중심점처럼 자리 잡고 있었다. 역에는 두 신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 명은 사자 같은 머리카락과 수염을 가졌으며, 기묘할 정도로 날카로운 빛을 띠는 연한 푸른 눈을 가진 키 크고 금발인 남성이었다. 다른 한 명은 프록코트와 게이터를 갖춰 입은, 작지만 기민하고 깔끔하며 세련된 인상의 인물이

었다. 그는 잘 다듬어진 구레나룻에 단안경을 쓰고 있었다. 후자는 유명한 스포츠맨인 로스 대령이었고, 전자는 영국 수사 기관에서 빠르게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레고리 경위였다.

"홈즈 씨, 와 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로스 대령이 말했다. "여기 계신 경위께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주셨지만, 저는 불쌍한 스트레이커의 원수를 갚고 제 말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새로운 진전이 좀 있었나?" 홈즈가 물었다.

"진척된 사항이 거의 없어서 유감입니다." 경위가 말했다. "밖에 마차가 대기 중입니다. 해가 지기 전에 현장을 직접 보고 싶으실 테니, 가는 길에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잠시 후, 우리는 모두 안락한 란도 마차에 올라탔다. 마차는 고풍스러운 데번셔의 옛 도시를 가로지르며 경쾌한 소리를 내며 달렸다. 그레고리 경위는 사건 생각에 정신이 팔려 쉴 새 없이 말을 쏟아냈고, 홈즈는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거나 추임새를 넣었다. 로스 대령은 팔짱을 낀 채 모자를 눈 위로 눌러쓰고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나는 두 탐정의 대화를 흥미롭게 경청했다. 그레고리 경위는 나름의 가설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것은 기차 안에서 홈즈가 예견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했다.

"피츠로이 심슨을 향한 그물이 꽤 촘촘하게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레고리 경위가 말했다. "제 생각에 그는 분명 범인입니다. 하지만 증거

가 전적으로 정황 증거뿐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상황이 뒤집힐 수도 있겠지요."

"스트레이커의 칼은 어떻습니까?"

"그가 추락하면서 스스로 상처를 입었다는 결론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내려오던 길에 내 친구 왓슨 박사가 그런 제안을 하더군.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심슨이라는 이 남자는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될 걸세."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에게선 칼도, 상처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를 향한 증거는 확실히 매우 강력합니다. 그는 경주마가 사라진 사건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고, 마부에게 독을 먹였다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에 분명 밖에 있었던 데다, 묵직한 지팡이까지 들고 있었죠. 결정적으로 죽은 이의 손에서 그의 크라바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배심원단 앞에 세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홈즈가 고개를 저었다. "영리한 변호사라면 이 모든 증거를 갈기갈기 찢어놓을 걸세." 그가 말했다. "그가 왜 굳이 말을 마구간 밖으로 끌고 나왔겠나? 말을 해치고 싶었다면 마구간 안에서 해도 충분했을 텐데 말이야. 그의 소지품 중에서 복제된 열쇠가 발견되었나? 가루로 만든 아편을 판 약사는 누구인가? 무엇보다도, 이 지역 사정도 모르는 외

지인이 어떻게 이런 귀한 말을 숨길 수 있겠나? 하녀를 통해 마구간지기에게 전달하려 했던 그 쪽지에 대해, 본인은 뭐라고 설명하던가?"

"그의 말에 따르면 10파운드 지폐였다고 합니다. 그의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이 발견되었고요. 하지만 당신이 겪고 있는 다른 난관들은 보기만큼 그리 대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는 이 지역 지리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지난여름에 타비스톡 숙소에 두 번이나 머물렀으니까요. 아편은 아마 런던에서 가져왔을 겁니다. 열쇠는 용도를 다했으니 내버렸겠지요. 말은 황무지에 있는 구덩이나 오래된 광산 중 한 곳에 빠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넥타이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그것이 자기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잃어버렸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에 새로운 국면이 나타났는데, 그것을 보면 그가 왜 마구간에서 말을 끌고 나왔는지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홈즈가 귀를 쫑긋 세웠다.

"월요일 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1마일 이내에 집시 무리가 야영했다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화요일에는 이미 떠나고 없었고요. 만약 심슨과 이 집시들 사이에 어떤 내통이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심슨이 붙잡힐 당시 말을 몰고 그들에게 가던 중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그 말을 그들이 데리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분명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 집시들을 잡으려고 황무지를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 타비스톡에 있는 마구간과 부속 건물은 물론이고, 반경 10마일 이내의 모든 곳을 다 조사했습니다."

"듣기로는 이 근처에 훈련용 마구간이 하나 더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 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지요. 그들의 말인 데스버러가 배당률 2위였으니, 우승 후보가 사라지는 데 이해관계가 걸려 있었을 겁니다. 조련사인 사일러스 브라운이 이번 경기에 거액을 걸었다는 사실도 알려져 있지요. 더군다나 그는 불쌍한 스트레이커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요. 하지만 마구간을 조사해 본 결과, 그를 이번 사건과 연결 지을 만한 증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심슨이라는 자가 메이플턴 마구간 측과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혀 없습니다."

홈즈는 마차 등받이에 몸을 기댔고, 대화는 멎었다. 몇 분 뒤, 마부가 길가에 자리 잡은 깔끔하고 작은 붉은 벽돌 빌라 앞에 마차를 세웠다. 처마가 길게 돌출된 모양의 집이었다. 마당 너머 멀찍이 떨어진 곳에는 회색 기와를 얹은 긴 부속 건물이 보였다. 그 외의 모든 방향으로는 시들어가는 고사리 때문에 구리빛으로 변한 황야의 완만한 능선이 지평선까지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그 풍경을 가로지르는 것이라곤 타

비스톡의 첨탑들과, 서쪽 멀리 메이플턴 마구간을 알리는 집 몇 채뿐이었다.

홈즈를 제외한 우리 모두 마차에서 뛰어내렸다. 홈즈는 여전히 몸을 뒤로 기댄 채 눈앞의 하늘을 응시하며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내가 그의 팔을 살짝 건드리고 나서야, 그는 깜짝 놀라며 정신을 차리고 마차에서 내렸다.

"실례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던 로스 대령을 향해 몸을 돌리며 말했다.

"잠시 딴생각을 좀 하느라 그랬습니다."

그의 눈에는 번뜩이는 빛이 서려 있었고, 태도에는 억누를 수 없는 흥분이 묻어났다. 평소 그의 습성을 잘 알고 있던 나는, 그가 대체 어디서 무엇을 찾아냈는지는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는 사실만큼은 확신할 수 있었다.

"홈즈 씨, 지금 바로 사건 현장으로 가보시는 게 좋으시겠지요?" 그레고리가 물었다.

"여기 좀 더 머물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한두 가지 더 짚어보고 싶군요. 스트레이커는 이곳으로 다시 실려 온 것이 맞습니까?"

"네, 위층에 누워 있습니다. 검시 절차는 내일 진행될 예정이고요."

"로스 대령님, 저 친구가 대령님 밑에서 일한 지 벌써 몇 년이나 되었습니까?"

"그는 언제나 훌륭한 하인이었습니다."

"경위님, 그가 사망했을 당시 주머니에 들어있던 물건들을 목록으로 작성해 두셨으리라 믿습니다만, 맞습니까?"

"원하신다면 거실에 있는 물건들을 직접 보여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군요."

우리는 모두 앞방으로 들어가 중앙 탁자 주위에 둘러앉았다. 그사이 경위가 사각형 양철 상자의 잠금장치를 풀더니, 그 안에 든 물건들을 우리 앞에 한데 모아 놓았다.

상자 안에는 성냥갑 하나와 2인치 길이의 양초, A.D.P. 문양이 새겨진 브라이어 나무 파이프, 반 온스 정도의 길게 썬 캐번디시 담배가 담긴 물개 가죽 파우치가 있었다. 그 외에도 금색 체인이 달린 은시계, 금화 다섯 소버린, 알루미늄 연필 케이스, 종이 몇 장, 그리고 '런던, 바이스 앤 컴퍼니(Weiss & Co., London)'라고 정교하게 새겨진 아주 가늘고 단단한 칼날의 상아 손잡이 칼이 들어 있었다.

"참으로 기이한 칼이군."

홈즈가 칼을 들어 올려 세밀하게 살피며 말했다.

"칼에 혈흔이 묻어 있는 걸 보니, 죽은 이의 손아귀에서 발견된 바로 그 칼이겠지. 왓슨, 이 칼은 자네 전문 분야 아닌가?"

"백내장 수술용 칼입니다." 내가 말했다.

"내 생각이 맞았군. 아주 섬세한 작업을 위해 고안된, 아주 정교한 칼이야. 거친 탐험을 떠나는 사람이 몸에 지니고 다니기에는 참으로 이상한 물건이지. 특히 주머니에 들어갈 만큼 작지도 않은데 말이야."

"칼날 끝은 코르크 마개로 막혀 있었습니다. 시신 옆에서 그 마개를 발견했지요." 경위가 말했다. "아내의 말에 따르면, 남편이 방을 나서면서 화장대 위에 놓여 있던 칼을 집어 들었다고 합니다. 형편없는 무기였지만, 당시로서는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최선의 도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럼 이 서류들은 어떻습니까?"

"세 건은 건초 상인에게 받은 영수증이에요. 한 건은 로스 대령이 보낸 지시서고요. 이 영수증은 본드 스트리트의 르쉬리에 부인이 윌리엄 더비셔에게 청구한 모자 가게 장부인데, 금액은 37파운드 15실링입니다. 스트레이커 부인 말로는 더비셔가 남편의 친구였고, 가끔 그가 보낸 편지가 이 주소로 오기도 했다더군요."

"더비셔 부인은 취향이 꽤나 고급스러우셨군요." 홈즈가 장부를 훑어보며 말했다. "의상 한 벌에 22기니라니, 꽤 큰 금액입니다. 하지만 더 알아낼 내용은 없는 것 같으니, 이제 사건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우리가 거실에서 나오자,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한 여인이 한 걸음 다가오더니 경위의 소매를 붙잡았다. 여인의 얼굴은 수척하고 야위었으며,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했다. 그 얼굴에는 최근에 겪은 공포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다.

"찾았나요? 그들을 찾아냈느냐고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아닙니다, 스트레이커 부인. 하지만 홈즈 씨가 우리를 돕기 위해 런던에서 이곳까지 와 주셨으니,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스트레이커 부인, 얼마 전 플리머스에서 열린 가든 파티에서 뵌 적이 있지 않습니까?" 홈즈가 말했다.

"아닙니다, 선생님. 오해하셨습니다."

"세상에! 분명히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비둘기색 실크로 만든 의상에 타조 깃털 장식까지 달고 계셨잖아요."

"제게 그런 드레스는 없었습니다, 선생님." 여인이 대답했다.

"아, 이제 확실히 알겠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러고는 경위에게 양해를 구한 뒤 밖으로 따라 나갔다. 황무지를 가로질러 조금 걷자 시신이 발견되었던 구덩이가 나타났다. 구덩이 가장자리에는 코트가 걸려 있던 가시덤불이 있었다.

"그날 밤은 바람이 불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비가 아주 세차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트는 가시덤불 쪽으로 날아와 부딪힌 게 아니라, 누군가 그곳에 가져다 놓은 것이겠군요."

"네, 덤불 위를 가로질러 놓여 있었습니다."

"흥미롭군요. 땅이 아주 심하게 짓밟혀 있는 걸 보니, 월요일 밤 이후로 이곳을 드나든 발길이 예사롭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옆에는 깔개 한 조각이 놓여 있군요. 우리 모두 그 위에 서 있었습니다."

"훌륭하군."

"이 가방 안에는 스트레이커가 신었던 장화 한 짝과 피츠로이 심슨의 구두 한 짝, 그리고 실버 블레이즈의 편자 본이 들어 있습니다."

"경위님, 정말 대단하시군요!"

홈즈가 가방을 받아 들고는 움푹 파인 곳으로 내려갔다. 그는 깔아 둔 매트를 중앙 쪽으로 더 밀어 넣었다. 그러고는 바닥에 엎드린 채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눈앞에 짓밟힌 진흙을 세심히 살피기 시작했다.

"어라!"

갑자기 홈즈가 소리쳤다.

"이게 대체 뭐죠?"

그것은 절반쯤 타버린 왁스 성냥이었다. 진흙이 너무 두껍게 묻어 있어서, 처음에는 작은 나무 조각처럼 보였다.

"도대체 왜 그걸 놓쳤는지 모르겠군요." 경위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다.

"진흙 속에 파묻혀 있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었기에 겨우 발견한 것이지요."

"뭐라고요! 그걸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라도 하셨단 말입니까?"

"그럴 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장화를 꺼내더니, 장화 바닥의 자국을 지면에 남은 흔적들과 하나씩 대조해 보았다. 그러고는 구덩이 가장자리로 기어 올라가 고사리와 덤불 사이를 헤치며 살피기 시작했다.

"안타깝게도 발자국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경위가 말했다. "사방 백 야드 안쪽의 지면을 아주 샅샅이 뒤져보았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 다시는 그런 무례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가 지기 전에 황야를 잠시 산책하고 싶군요. 그래야 내일 지형을 익혀둘 수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행운을 빌 겸, 이 편자를 주머니에 넣어 가야겠습니다."

내 동료의 차분하고 체계적인 작업 방식에 다소 조바심을 내던 로스 대령이 시계를 슬쩍 확인했다.

"경위님, 저와 함께 가주셨으면 합니다." 로스 대령이 말했다. "조언을 구하고 싶은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경주마의 이름을 이번 컵 경주 출전 명단에서 빼는 것이 대중을 위한 도리가 아닐지 꼭 여쭙고 싶군요."

"절대 안 됩니다." 홈즈가 단호하게 외쳤다. "그 이름은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대령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의견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산책을 마치시면 불쌍한 스트레이커의 집으로 오십시오. 거기서 저희를 만나 뵙고, 함께 마차를 타고 태비스톡으로 가시지요."

그는 경위와 함께 발길을 돌렸고, 홈즈와 나는 황야를 가로질러 천천히 걸었다. 태양은 메이플턴의 마구간 뒤편으로 저물기 시작했다. 우리 앞에 펼쳐진 길고 완만한 평원은 금빛으로 물들었고, 저녁 빛을 머금은 빛바랜 고사리와 가시덤불이 있는 곳은 짙고 붉은 갈색으로 변해갔다. 하지만 깊은 생각에 잠긴 내 동료에게는 이 장엄한 풍경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이쪽이라네, 왓슨." 마침내 그가 말했다. "존 스트레이커를 누가 죽였는지는 잠시 미뤄두기로 하지. 우선은 그 말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아내는 데만 집중하세. 자, 만약 그 말이 비극이 일어나는 도중이나 그

직후에 탈출했다고 가정해 보게. 그렇다면 말이 어디로 갔겠나? 말은 아주 무리 지어 다니기를 좋아하는 동물이라네. 만약 말 혼자 남겨졌다면, 본능에 따라 킹스 파일랜드로 돌아가거나 메이플턴 쪽으로 갔을 걸세. 왜 하필 황량한 무어(moor)로 도망쳐서 야생마처럼 떠돌겠나? 그랬다면 벌써 누군가에게 발견되었을 거야. 그리고 집시들이 왜 말을 납치하겠나? 그 사람들은 문제가 생겼다는 소문만 들려도 경찰의 귀찮은 추궁을 피하려고 항상 자취를 감추는 사람들이라네. 그런 말을 팔아넘길 수도 없을 테고 말이야. 말을 납치해 봤자 얻는 건 없으면서 위험만 감수할 이유가 없지. 이쯤 되면 확실해지지 않나."

"그렇다면 그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킹스 파일랜드나 메이플턴 중 한 곳으로 갔음은 이미 말했습니다. 킹스 파일랜드에는 그가 없으니, 그렇다면 메이플턴에 있다는 뜻이겠지요. 일단 이 가설을 세워두고, 이것이 어떤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봅시다. 경위가 언급했듯이 이쪽 황무지는 매우 단단하고 건조합니다. 하지만 메이플턴 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낮아지죠. 저 너머를 보면 길게 파인 분지가 하나 보이는데, 지난 월요일 밤에는 그곳이 아주 축축했을 겁니다. 만약 우리의 추측이 맞다면, 말은 반드시 그 분지를 가로질러 갔을 것이고,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말의 발자국을 찾아야 할 곳입니다."

대화를 나누며 활기차게 걷다 보니, 몇 분 지나지 않아 문제의 움푹 팬 지점에 도착했다. 홈즈의 요청에 따라 나는 오른쪽 언덕 아래로 내려갔고, 홈즈는 왼쪽으로 내려갔다. 하지만 내가 채 쉰 걸음도 채 떼기

전에 홈즈가 외치는 소리가 들렸고, 그가 나를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다. 홈즈의 앞쪽 부드러운 흙 위에는 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홈즈가 주머니에서 꺼낸 말 편자는 그 자국에 꼭 들어맞았다.

"상상력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보게나." 홈즈가 말했다. "그레고리에게 결여된 유일한 자질이 바로 그거라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했고, 그 가설에 따라 행동했지. 그리고 결국 우리의 판단이 옳았음이 증명되었네. 자, 계속 진행하세."

우리는 습지 저지대를 가로질러, 마른 땅이 단단하게 굳은 터프 위를 4분의 1마일가량 걸어갔다. 지형은 다시 경사졌고, 우리는 다시 발자국을 발견했다. 그러다 반 마일 정도 발자국이 끊겨 보이지 않았으나, 메이플턴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다시 발자국이 나타났다.

가장 먼저 발자국을 찾아낸 것은 홈즈였다. 그는 승리감에 도취한 표정으로 그곳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멈춰 섰다 말이다. 말의 발자국 옆으로 한 남자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말은 전에는 혼자였어요!" 내가 외쳤다.

"맞습니다. 전에는 혼자였죠. 어라, 이게 뭐지?"

두 갈래로 나뉜 발자국은 급격히 꺾이더니 킹스 파일랜드 방향으로 이어졌다. 홈즈가 휘파람을 불었고, 우리 둘은 그 뒤를 따라갔다. 홈즈는 발자국을 쫓는 데 온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지만, 나는 문득 옆을 슬

쩍 보았다가 깜짝 놀라고 말았다. 방금 지나온 발자국과 똑같은 흔적이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네 덕분에 하나 해결됐군, 왓슨." 내가 그 점을 지적하자 홈즈가 말했다. "자네 덕분에 먼 길을 돌아가지 않아도 되겠어. 그대로 갔다면 우리가 남긴 발자국을 다시 밟으며 되돌아와야 했을 테니까. 이제 돌아온 흔적을 따라가 보세."

멀리 갈 필요도 없었다. 목적지는 메이플턴 마구간 정문으로 이어지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였다.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자, 마구간에서 마부 한 명이 급히 달려 나왔다.

"이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사람은 아무도 원치 않소." 그가 말했다.

"그저 질문 하나만 드리고 싶었습니다."

홈즈가 조끼 주머니에 손가락과 엄지를 끼워 넣은 채 말했다.

"내일 아침 5시에 방문한다면, 당신의 주인이신 실라스 브라운 씨를 뵙기에 너무 이른 시간일까요?"

"천만예요, 선생님. 누가 근처에 있다면 금방 나타날 겁니다. 그 친구는 워낙 부지런히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선생님. 직접 질문을 던지시지요. 아닙니다, 선생님,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 친구가 보는 앞에서 제가 당신의 돈에 손을 대는 건 제 목숨을 거는 일이나 다름없으니까요. 정 원하신다면,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하시지요."

셜록 홈즈가 주머니에서 꺼냈던 반 크라운 동전을 다시 집어넣을 때였다. 사나운 인상의 한 노인이 손에 사냥용 채찍을 휘두르며 대문 밖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도슨, 이게 무슨 짓인가!" 그가 외쳤다. "수다 떨지 말고 가서 네 일이나 보게! 그리고 자네는, 대체 여긴 무슨 일로 온 건가?"

"친애하는 선생, 딱 10분만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홈즈가 더없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가하게 돌아다니는 뜨내기들하고 일일이 상대할 시간 없으니 당장 꺼지게. 여긴 외부인을 받지 않네. 당장 물러가지 않으면 사나운 개가 뒤를 쫓게 될 줄 알게나."

홈즈가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조련사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자 조련사는 몸을 크게 움찔하더니, 관자놀이까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거짓말이야!" 그가 외쳤다. "지독한 거짓말이라고!"

"좋습니다. 여기서 공개적으로 논쟁을 벌일까요, 아니면 손님방으로 가서 차분히 이야기를 나눌까요?"

"아, 들어오고 싶다면 들어오게나."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왓슨, 몇 분이면 되네. 오래 붙잡아 두지 않겠네.” 홈즈가 말했다. “자, 브라운 씨, 이제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20분 정도가 흘렀을까, 홈즈와 조련사가 다시 나타났을 때 붉은 빛은 이미 모두 흐릿한 회색으로 변해 있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실라스 브라운에게 일어난 변화는 내 생전 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의 얼굴은 잿빛처럼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손은 어찌나 떨리는지 그가 든 승마용 채찍이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처럼 휘청거렸다. 기세등등하고 거만하던 태도 또한 온데간데없었다. 그는 내 동료인 홈즈의 곁에서 마치 주인 뒤를 따르는 개처럼 잔뜩 움츠러든 채 쫄래쫄래 따라오고 있었다.

“지시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전부 다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했다.

“틀림없어야 해.”

홈즈가 그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 서린 위협을 읽어낸 상대방은 움찔하며 몸을 떨었다.

“오, 아닙니다, 실수는 없을 겁니다. 반드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제가 먼저 바꿔 놓을까요, 아니면 그대로 둘까요?”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아니, 그러지 마세요." 홈즈가 말했다. "그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편지로 쓰겠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장난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러면 —"

"오, 절 믿으셔도 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소식을 전해 드리지요." 그는 상대방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몸을 돌렸다. 그러고는 우리는 킹스 파일랜드로 향했다.

"악당과 겁쟁이, 그리고 비겁한 기회주의자의 성질을 이토록 완벽하게 버무려 놓은 자는 실라스 브라운 도련님 말고는 좀처럼 보기 드물 것 같군." 함께 터벅터벅 걸어가던 중 홈즈가 말했다.

"그럼, 그자가 말을 가지고 있다는 말인가요?"

"그는 호기롭게 큰소리를 치며 빠져나가려 했지만, 제가 그날 아침 그가 한 행동을 아주 상세히 설명하자 결국 제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확신하더군요. 당신도 발자국에서 유독 네모난 발가락 모양을 발견하셨을 테고, 그의 장화 모양이 그 발자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도 아실 겁니다. 게다가 부하 직원이 감히 그런 짓을 저지를 리도 없지요.

저는 그에게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소 습관대로 그가 가장 먼저 내려왔을 때, 황량한 무원을 배회하는 낯선 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된 경위를 말입니다. 그가 말에게 다가갔을 때, 그 말이 이름의 유래가 된 하얀 이마를 가진 말이라는 것을 알아보고 얼마나 경악했는지도 설명

했지요. 운 좋게도 자신이 돈을 건 말보다 더 빠를 수 있는 유일한 말을 손에 넣게 된 순간이었으니까요.

이어서 저는 그가 처음에는 말을 킹스 파일랜드로 데려가려 했으나, 악마의 유혹에 빠져 경주가 끝날 때까지 말을 숨길 방법을 떠올렸고, 결국 말을 데려가 메이플턴에 숨겼던 과정까지 낱낱이 읊어주었습니다. 제가 모든 세부 사항을 말하자, 그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하며 오로지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마구간은 수색해 보았습니까?"

"오, 저런 노련한 말 사기꾼이라면 수법이 아주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그가 말을 해치려는 목적이 분명한데, 이제 그 사람의 손에 말을 맡겨두는 게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이보게, 그는 그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처럼 애지중지하며 지킬 걸세. 그걸 무사히 가져가는 것만이 자비에 기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도 잘 알고 있으니까."

"로스 대령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비라는 걸 베풀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다."

"이 일은 로스 대령의 소관이 아니네. 나는 나만의 방식을 따를 뿐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만큼만, 혹은 말하고 싶지 않은 만큼만 정보를 흘릴 뿐이지.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이런 점이 좋단 말이야. 왓슨, 자네도 눈치챘는지 모르겠지만 로스 대령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약

간 거만하더군. 그래서 이제는 그를 좀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드네. 그 말에 대해서는 대령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게."

"당연히 당신의 허락 없이는 안 될 일이지요."

"물론 존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이 누구인가라는 문제에 비하면, 이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문제일 뿐입니다."

"그 일에 전념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오히려 우리 둘 다 야간열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갑니다."

친구의 말에 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멍해졌다. 데번셔에 도착한 지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그토록 명석하게 수사를 시작해 놓고 이제 와서 그만두겠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다시 조교사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나는 친구에게서 단 한 마디의 말도 더 끌어낼 수 없었다. 응접실에는 로스 대령과 경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친구와 나는 야간 급행열차를 타고 런던으로 돌아갈 걸세." 홈즈가 말했다. "자네의 아름다운 다트무어 공기를 마시며 아주 즐거운 휴식을 보냈어."

경위가 눈을 떴다. 그러자 로스 대령의 입술이 비웃듯 말려 올라갔다.

"그럼 불쌍한 스트레이커를 죽인 범인을 잡는 건 이제 가망이 없다는 뜻인가?" 그가 말했다.

홈즈가 어깨를 으쓱했다. "분명 앞길에 험난한 난관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화요일에는 귀하의 말이 반드시 출발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기수가 바로 준비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실례가 안 된다면, 존 스트레이커 씨의 사진을 한 장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경위는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다.

"친애하는 그레고리, 자네는 내게 필요한 걸 미리 다 알고 있군.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겠나? 하녀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서 말이야."

"런던의 그 자문가는 정말 실망스럽군." 내 친구가 방을 나가자 로스 대령이 직설적으로 내뱉었다. "그가 온 이후로 진전된 게 하나도 없지 않은가."

"적어도 당신의 말이 출전할 거라는 확답은 받지 않았소." 내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확답은 받았지요." 로스 대령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하지만 저는 그런 확답보다는 차라리 말 자체를 갖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내 친구를 변호하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가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왔다.

"자, 신사 여러분." 그가 말했다. "이제 태비스톡으로 떠날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차에 올라타자 마구간 소년 중 한 명이 문을 잡아주었다. 그때 홈즈에게 갑자기 무엇인가 떠오른 모양이었다. 그는 몸을 앞으로 숙이더니 소년의 소매를 툭 건드렸다.

"목장에 양을 몇 마리 키우고 계시는군요." 그가 말했다. "그 양들은 누가 돌봅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최근 들어 그들에게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한 건 없습니까?"

"글쎄요, 주인님.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그중 세 마리가 다리를 절기 시작했습니다."

홈즈가 무척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 수 있었다. 그는 낄낄거리며 웃더니 양손을 맞비벼 비볐다.

"희박한 가능성이에요, 왓슨.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라고요."

그는 내 팔을 꼬집으며 말했다.

"그레고리, 양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기이한 전염병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자, 가자꾸나, 마부!"

로스 대령의 얼굴에는 여전히 내 동료의 능력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했다. 하지만 경위의 표정을 보니, 그 역시 사건에 깊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듯했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나?" 그가 물었다.

"매우 그렇습니다."

"제가 특별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한밤중에 일어난 개의 그 기묘한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밤사이에 개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기묘한 사건이었네." 셜록 홈즈가 말했다.

나흘 뒤, 홈즈와 나는 다시 기차에 몸을 실었다. 웨섹스 컵 경주를 보기 위해 윈체스터로 향하는 길이었다. 약속대로 로스 대령이 역 밖에서 우리를 맞이했고, 우리는 그의 마차를 타고 마을 너머에 있는 경주장으로 이동했다. 대령의 얼굴은 침울했으며, 태도는 더할 나위 없이 냉담했다.

"제 말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직접 마주치면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겠소?" 홈즈가 물었다.

대령은 몹시 화가 난 기색이었다. “나는 이 바닥에서 20년 동안 굴러먹은 사람인데, 살다 살다 그런 질문은 처음 듣는군.” 대령이 말했다. “이마가 하얗고 앞다리에 얼룩이 있는 실버 블레이즈라면 어린애라도 다 알 수 있는 법이야.”

“내기 판세는 좀 어때?”

“글쎄요, 바로 그 점이 기묘한 부분입니다. 어제만 해도 배당률이 15대 1까지 올라갔는데, 그 뒤로 배당이 점점 줄어들더니 이제는 3대 1조차 받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흠!” 홈즈가 말했다. “누군가 무언가를 알고 있군. 그건 확실해.”

마차가 대관람대 근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출전 명단을 확인하려 카드를 슬쩍 훑어보았다. 명단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웨섹스 플레이트. 각 50소버, 4세와 5세 말에게는 1,000소버가 추가로 지급됨. 2위 300파운드, 3위 200파운드. 새로운 코스(1마일 5퍼롱). 1. 히스 뉴턴 씨의 더 네그로(빨간 모자, 시나몬색 재킷). 2. 워들러로 대령의 퍼질리스트(분홍색 모자, 청색과 흑색 재킷). 3. 백워터 경의 데스보로(노란색 모자와 소매). 4. 로스 대령의 실버 블레이즈(검은 모자, 빨간 재킷). 5. 발모럴 공작의 아이리스(노란색과 검은색 줄무늬). 6. 싱글포드 경의 래스퍼(보라색 모자, 검은색 소매).

"우리는 다른 말은 출전을 취소하고, 오로지 당신의 말만 믿고 걸었습니다." 로스 대령이 말했다. "아니, 이게 뭡니까? 실버 블레이즈가 우승 후보라니요?"

"실버 블레이즈에 5대 4의 배당!" 경기장의 함성이 울려 퍼졌다. "실버 블레이즈에 5대 4! 데스버러에 5대 15! 필드 배당 5대 4!"

"숫자가 올라갔어!" 내가 외쳤다. "전부 6이야!"

"여섯 마리가 다 들어왔단 말인가? 그렇다면 내 말은 지금 달리고 있는 중이군!" 로스 대령이 몹시 동요하며 외쳤다. "하지만 보이지 않아. 내 색깔의 깃발은 아직 지나가지 않았는데."

"이제 다섯 마리만 지나갔어. 틀림없이 이게 그 말이야."

내가 말을 마치는 순간, 건장한 갈색 말 한 마리가 계량 구역에서 튀어나오더니 우리 곁을 지나 달려갔다. 그 말의 등 위에는 로스 대령의 그 유명한 검은색과 붉은색 기수복이 선명하게 보였다.

"그건 내 말이 아닙니다!" 주인이 외쳤다. "그 짐승은 몸에 흰 털 한 가닥도 없단 말입니다. 홈즈 씨, 대체 무슨 짓을 하신 겁니까?"

"자, 자,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내 친구가 태연하게 말했다. 그는 몇 분 동안 망원경으로 멀리 있는 풍경을 응시했다. 그러더니 갑자기 외쳤다. "훌륭해! 시작이 아주 좋아! 저기 온다, 곡선 구간을 돌아 나타나고 있어!"

우리가 탄 마차에서는 말들이 직선 주로를 달려 올라오는 모습을 아주 멋지게 내려다볼 수 있었다. 여섯 마리의 말은 마치 카펫을 덮어놓은 듯 촘촘하게 붙어 달렸으나, 경주가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메이플턴 마구간의 노란색이 선두로 나섰다. 하지만 말들이 우리 쪽에 다다르기도 전에 데스버러는 뒷심이 다했고, 로스 대령의 말이 무서운 기세로 치고 나가 라이벌보다 무려 여섯 마신이나 앞서 결승선을 통과했으며, 발모럴 공작의 아이리스는 아쉬운 3위로 들어왔다.

"어쨌든 이 경주는 내가 이긴 거군." 로스 대령이 눈가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솔직히 말해, 도무지 앞뒤를 분간할 수가 없군. 홈즈 씨, 이제 신비주의 놀이는 충분히 즐기지 않았소?"

"물론입니다, 대령님. 모든 것을 전부 알려드리지요. 자, 다 함께 가서 그 말을 직접 살펴봅시다.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인과 그 지인들만 출입할 수 있는 계량 구역으로 들어서자 그가 말을 이었다.

"그저 말의 얼굴과 다리를 와인 스피릿으로 닦아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의 그 실버 블레이즈와 다를 바 없다는 걸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군요!"

"말이 어느 위조꾼의 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내져 온 모습 그대로 결례를 무릅쓰고 경주에 출전시켰습니다."

“여보게,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군. 말이 아주 건강하고 좋아 보여. 살면서 이보다 더 상태가 좋았던 적은 없었을 거야. 자네의 능력을 의심했던 것에 대해 천 번이라도 사과하고 싶네. 내 말을 되찾아준 것만으로도 큰 은혜를 입었네만, 만약 존 스트레이커를 죽인 살인범까지 잡아준다면 내게는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가 될 것이네.”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대령과 나는 경악하며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를 잡았단 말인가! 대체 어디에 있지?”

“그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요! 어디 말입니까?”

"지금 이 순간, 제 일행 가운데 있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홈즈 씨, 당신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방금 하신 말씀은 아주 질 나쁜 농담이거나, 아니면 저를 모욕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군요."

셜록 홈즈가 웃음을 터뜨렸다. "로스 대령, 당신을 범인으로 의심한 적은 결코 없다고 단언하죠." 홈즈가 말했다. "진짜 살인범은 바로 당신 뒤에 서 있습니다." 그는 대령의 곁을 지나가며, 윤기가 흐르는 서러브레드의 목에 손을 얹었다.

"말이라니!" 로스 대령과 나는 동시에 외쳤다.

"맞습니다, 바로 그 말입니다. 게다가 만약 그 일이 정당방위였고, 존 스트레이커라는 자가 당신의 신뢰를 받을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이었다고 말한다면 그의 죄가 조금은 가벼워질지도 모르겠군요. 하지만 벨이 울리는군요. 마침 다음 경주에서 제가 돈을 좀 딸 것 같으니,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적절한 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런던으로 돌아가는 열차 안에서 우리는 풀먼 칸의 한 구석을 통째로 차지하고 있었다. 우리의 동행인 홈즈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나뿐만 아니라 로스 대령에게도 그 여정이 유난히 짧게 느껴졌던 것 같다. 홈즈는 지난 월요일 밤, 다트무어의 훈련 마구간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자신이 그것을 어떻게 풀어냈는지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고백하건대," 그가 말했다. "신문 기사만 보고 세웠던 내 모든 가설은 완전히 틀렸었네. 하지만 신문 기사 속에도 분명 단서가 있었어. 다른 세부 사항들에 묻혀 그 진짜 의미가 가려지기 전까지는 말이야. 나는 피츠로이 심슨이 진범이라는 확신을 품고 데번셔로 향했네. 물론 그에 대한 증거가 결코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지만 말일세. 그런데 마차를 타고 조교사의 집에 막 도착했을 때, 카레 양고기가 가졌던 엄청난 의미가 문득 떠올랐다네. 자네도 기억하겠지? 내가 정신이 팔려 있어서 자네들이 모두 내린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을 말이야. 나는 속으로 경탄했네. 어떻게 그토록 명백한 단서를 놓칠 수 있었는지 말이야."

“솔직히 고백하건대,” 모런 대령이 말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게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군.”

"그것이 내 추론의 첫 번째 고리였네. 가루로 만든 아편은 결코 맛이 없는 것이 아니야. 맛이 아주 불쾌한 건 아니지만, 분명히 느껴지지. 만약 아편을 일반적인 음식에 섞었다면 먹는 사람이 틀림없이 알아챘을 것이고, 아마 더 이상 먹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커리는 그 맛을 감추기에 아주 적절한 음식이었네.

어떤 가설을 세워보더라도, 피츠로이 심슨이라는 이 낯선 이가 그날 밤 조교사 가족의 식사로 커리가 나오도록 만들 수는 없었네. 그렇다고 해서, 하필이면 아편의 맛을 가려줄 음식이 나온 바로 그날 밤에 그가 아편 가루를 들고 나타났다고 가정하는 건 너무나 터무니없는 우연이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네.

따라서 심슨은 이번 사건에서 제외되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스트레이커 부부에게 집중되어야 하네. 그날 저녁 식사로 양고기 커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사람은 오직 그들 둘뿐이니까. 아편은 마구간 소년을 위해 따로 떼어놓은 음식에 들어갔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은 커리를 저녁으로 먹었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었거든. 그렇다면 하녀의 눈을 피해 그 음식에 손을 댈 수 있었던 사람은 과연 누구였을까?"

그 문제를 결론짓기 전, 나는 이미 개가 짖지 않았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고 있었다. 하나의 확실한 추론은 언제나 다른 추론들을 필연적으로 불러오기 때문이다. 앞서 일어난 심슨 사건을 통해 나는 마구간에 개 한 마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누군

가 마구간에 들어와 말을 끌고 나갔음에도, 개는 다락방에 있던 두 소년을 깨울 만큼 짖지 않았다. 분명 한밤중에 찾아온 방문객은 개가 아주 잘 아는 사람이었으리라.

"존 스트레이커가 한밤중에 마구간으로 내려가 실버 블레이즈를 끌고 나갔다는 사실을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아니, 확신에 가까운 상태였다.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랬을까? 부정직한 목적임이 분명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자기 마구간 소년을 약물로 잠재울 이유가 없지 않은가. 하지만 구체적인 이유는 알 길이 없었다. 이전에도 조교사가 대리인을 통해 자기 말이 지는 쪽에 돈을 걸어 거액을 확보한 뒤, 사기를 써서 그 말이 우승하지 못하게 방해한 사례들이 있었다. 때로는 기수가 고의로 속도를 늦추기도 하고, 때로는 그보다 더 확실하고 교묘한 수법을 쓰기도 한다. 이번에는 어떤 수법이었을까? 나는 그의 주머니 속에 든 물건들이 결론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죽은 이의 손에서 발견된 그 기묘한 칼을 여러분도 잊지 못하실 겁니다. 제정신인 사람이라면 결코 무기로 선택하지 않을 그런 칼 말입니다. 왓슨 박사가 설명했듯이, 그 칼은 외과 수술에서 가장 정교한 작업에 쓰이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그 칼은 정교한 수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지요. 로스 대령님, 경마계의 풍부한 경험을 가진 당신이라면 잘 아시겠지만, 말의 뒷다리 힘줄에 아주 미세한 상처를 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도 피부 아래를 파고들어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그렇게 처리된 말은 약간의 절뚝거림을 보이겠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운동 중

근육이 놀랐거나 가벼운 류머티즘 때문이라고 생각할 뿐, 결코 누군가의 악의적인 방해 때문이라고는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악당! 비열한 놈!" 대령이 외쳤다.

"존 스트레이커가 왜 굳이 그 말을 끌고 황무지까지 나가려 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밝혀졌습니다. 그토록 기운찬 짐승이라면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순간, 아무리 깊이 잠든 사람이라도 분명히 깨어났을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탁 트인 야외에서 일을 저질러야만 했던 것이지요."

"내가 눈이 멀었었군!" 로스 대령이 외쳤다. "그놈이 왜 양초를 켜고 성냥을 그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소지품을 조사하면서 저는 운 좋게도 범행 수법뿐만 아니라 범행 동기까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로스 대령님도 세상 물정에 밝으시니 잘 아시겠지만, 사람들은 남의 청구서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 몫의 청구서를 처리하기에도 바쁘니까요. 저는 그 즉시 스트레이커가 이중생활을 하며 별도의 거처를 두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구서의 내용을 보니 사건에 연루된 여성이 있었고, 그 여성은 꽤 사치스러운 취향을 가진 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었죠. 대령님께서 하인들에게 후하게 대하신다 해도, 하인들이 안주인을 위해 20기니짜리 외출용 드레스를 사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저는 스트레이커 부인이 눈치채지 못하게 그 드레스에 대해 슬쩍 물어보았습니다. 그 옷이 부인에게 전달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저는 모자 가게의 주소를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스트레이커의 사진을 들고 찾아가면, 실체 없는 가공의 인물 '더비셔'에 관한 의문을 쉽게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스트레이커는 자신의 불빛이 보이지 않도록 움푹 파인 곳으로 말을 끌고 나갔습니다. 심슨은 도망치던 중에 넥타이를 떨어뜨렸고, 스트레이커는 그것을 주웠습니다. 아마도 말의 다리를 묶는 데 쓸 생각이었겠지요. 움푹 파인 곳에 도착한 그는 말의 뒤로 가서 불을 켰습니다. 하지만 말은 갑작스러운 불빛에 놀랐습니다.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한 동물의 기묘한 본능 때문이었는지, 말은 뒷발질을 했습니다. 그 바람에 말의 편자가 스트레이커의 이마를 정면으로 강타했습니다. 스트레이커는 정교한 작업을 하려고 빗속에서도 이미 외투를 벗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면서 칼에 허벅지를 베이고 만 것입니다. 제 설명이 충분히 이해가 되십니까?"

"놀랍군요!" 대령이 외쳤다.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이 직접 거기 있었던 것과 다름없군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마지막 추측은 꽤나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스트레이커처럼 영리한 사람이 이런 섬세하고 위험한 작업을 아무런 연습도 없이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을 대상으로 연습했을까요? 제 시선이 양들에게 머물렀고, 저는 질문 하나를 던졌습니다. 놀랍게도 제 추측이 맞았다는 사실이 그 질문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뒤 나는 모자 가게를 찾아갔네. 그곳 주인은 스트레이커를 더비셔라는 이름의 우수 단골손님으로 알아보았는데, 그에게는 값비싼 드레스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아주 멋쟁이 아내가 있었다더군. 내 생각에 그 여자가 남편을 빚더미에 앉혔고, 결국 그를 이런 비참한 음모로 몰아넣은 것이 분명하네."

"당신은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설명했소!" 로스 대령이 외쳤다. "그 말은 대체 어디에 있었단 말이오?"

"아, 그놈이 도망치는 바람에 이웃 중 한 사람이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이해해 주셔야 할 것 같군요.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은 클래펌 준션 역이고, 10분 안에 빅토리아 역에 도착할 겁니다. 대령님, 괜찮으시다면 저희 숙소에서 시가라도 한 대 태우시겠습니까? 그러면 흥미로워하실 만한 다른 세부 사항들도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지 상자

II. 판지 상자의 모험

내 친구 셜록 홈즈의 놀라운 지적 능력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건들을 선정하면서, 나는 가능한 한 자극적인 요소는 덜어내되 그의 재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사건들을 고르려 애썼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범죄 사건에서 자극적인 요소를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기록자로서 나는 딜레마에 빠지곤 한다. 사건의 핵심적인 세부 사항을 생략하여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것인가, 아니면 선택이 아닌 우연에 의해 주어진 소재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이다. 이제 짧은 서문을 마치고, 기이하면서도 유독 끔찍했던 일련의 사건들에 관한 나의 기록을 시작하려 한다.

8월의 어느 무더운 날이었다. 베이커가는 마치 가마솥처럼 달아올랐고, 길 건너편 노란 벽돌집에 내리쬐는 햇빛은 눈이 시릴 정도로 강렬했다. 겨울 안개 속에서 그토록 침울하게 서 있던 벽들이 바로 이 벽들이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우리는 블라인드를 반쯤 내려두

었다. 홈즈는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아침 우편으로 받은 편지를 읽고 또 읽고 있었다. 인도에서의 복무 경험 덕분에 나는 추위보다 더위에 강한 편이었기에, 화씨 90도의 기온도 그리 힘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아침 신문은 딱히 읽을 만한 내용이 없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간 탓에 사람들은 모두 도시를 떠나 있었다. 나 역시 뉴 포레스트의 숲이나 사우스시의 자갈 해변이 간절히 그리웠다. 다만 텅 빈 은행 계좌 때문에 휴가를 미룰 수밖에 없었다. 내 동료인 홈즈에게는 전원도 바다도 전혀 매력적이지 않았다. 그는 500만 인구가 북적이는 도시 한복판에 누워, 마치 미세한 촉수를 뻗어 사람들 사이를 누비는 것을 즐겼다. 그는 아주 작은 소문이나 미해결 사건의 낌새에도 즉각 반응했다. 홈즈의 수많은 재능 중 자연을 감상하는 능력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가 유일하게 기분 전환을 하는 방법은 도시의 악당에게서 관심을 돌려 시골에 숨어든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뿐이었다.

홈즈가 대화에 집중할 수 없을 만큼 무언가에 몰두해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나는, 아무런 소득도 없는 종이를 옆으로 밀어 두었다. 그러고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때 갑자기 동료의 목소리가 내 생각을 깨뜨리며 끼어들었다.

"자네 말이 맞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치고는 참으로 터무니없군."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외쳤다. 그러다 문득 홈즈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생각을 그대로 읊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의자에 몸을 일으켜 세운 채,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이게 대체 뭡니까, 홈즈?" 내가 외쳤다. "이건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는 당혹해하는 나를 보며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기억하시겠지요." 홈즈가 말했다. "얼마 전 제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중 한 구절을 읽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치밀한 추리력을 가진 인물이 동행자의 말하지 않은 생각까지 꿰뚫어 보는 내용이었지요. 그때 당신은 그저 작가가 보여주는 화려한 기교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셨습니다. 제가 평소에도 늘 그와 똑같은 일을 한다고 말하자, 당신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으셨고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아마 말로는 아니었겠지만, 왓슨 박사, 눈썹만큼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었네. 자네가 신문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 나는 그 생각의 흐름을 읽어낼 기회를 얻어 아주 기뻤다네. 그리고 결국 자네의 생각을 맞힘으로써, 내가 자네와 마음이 통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만족할 수 없었다.

"방금 읽어준 사례를 보면," 내가 말했다. "추론가는 관찰 대상이 하는 행동을 보고 결론을 끌어냈잖아. 내 기억이 맞다면, 그 남자는 돌무더기에 걸려 넘어졌고, 그다음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봤지. 하지만 나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었을 뿐이야. 내가 대체 어떤 단서를 자네에게 주었단 말인가?"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군. 인간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얼굴을 갖게 된 것이네. 자네의 얼굴은 그 감정들을 아주 충실하게 전달해주고 있어."

"제 얼굴만 보고 제 생각의 흐름까지 읽어내신다는 말씀입니까?"

"당신의 이목구비, 특히 그 눈빛 때문입니다. 아마 본인조차도 어떤 생각에 잠겨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으시겠지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럼 말씀드리죠. 우선 당신은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동작 때문에 제 눈길이 당신에게 머물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당신은 약 30초 동안 멍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새로 액자에 넣은 고든 장군의 초상화로 시선이 향하더군요. 그때 당신의 표정이 변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당신이 어떤 생각을 시작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리 멀리 이어지지는 않더군요. 당신의 눈길은 책장 위에 놓인, 아직 액자에 넣지 않은 헨리 워드 비처의 초상화로 옮겨갔습니다. 그러고는 벽 쪽을 슬쩍 올려다보더군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명백했습니다. 비처의 초상화도 액자에 넣는다면, 저기 있는 고든 장군의 그림과 어울리면서 벽의 빈 공간을 딱 채워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정말 대단한 추적 실력이군요!" 내가 감탄하며 외쳤다.

"지금까지는 제가 짐작한 것이 거의 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금 전, 당신의 생각은 비처에게로 향했습니다. 마치 그의 얼굴에 나타

난 성품을 살피려는 듯 당신은 한참 동안 허공을 응시했지요. 그러다 미간의 주름이 펴졌지만, 시선은 여전히 먼 곳을 향한 채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은 비처의 생애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비처를 생각할 때, 그가 남북 전쟁 당시 북부 측을 위해 수행했던 임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민족 중 격동적인 이들이 그를 대했던 방식에 대해 당신이 얼마나 격렬하게 분노했었는지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 문제에 대해 워낙 강한 감정을 품고 있었기에, 비처를 생각하면 자연히 그 사건도 함께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잠시 후 당신의 시선이 초상화에서 멀어지는 것을 보고, 저는 당신의 마음이 남북 전쟁으로 향했음을 짐작했습니다. 이어 당신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지고 눈이 번뜩이며 두 주먹을 꽉 쥐는 것을 보고, 저는 당신이 그 처절한 투쟁 속에서 양측 모두가 보여주었던 용맹함을 떠올리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곧 당신의 얼굴은 다시 슬픔에 잠겼고,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당신은 그 전쟁이 초래한 슬픔과 공포, 그리고 무의미하게 낭비된 생명들에 대해 곱씹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다 당신의 손이 당신의 오래된 상처 쪽으로 슬그머니 움직였고, 입술에는 미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국제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 당신이 깨달았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이 방식이 터무니없다는 당신의 생각에 동의했고, 저의 모든 추론이 정확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 이제야 좀 알 것 같으면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전히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정말 아주 피상적인 수준이었네, 왓슨 박사. 장담하건대 말이야. 자네가 요전 날 의구심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굳이 꺼내지도 않았을 걸세. 하지만 지금 내 손에 아주 흥미로운 문제가 하나 들어있네. 지난번 내가 보여준 그 하찮은 독심술 시도보다 훨씬 풀기 까다로운 문제일지도 모르겠군. 혹시 신문에서 크로이던 크로스 스트릿에 사는 커싱 양에게 우편으로 배달된 소포 속 내용물이 아주 기묘하다는 짧은 기사를 본 적이 있는가?"

"아니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 그럼 분명 못 보고 지나치셨을 겁니다. 그냥 저에게 넘겨 주시지요. 여기 있습니다, 재무 항목 아래에 있군요. 괜찮으시다면 소리 내어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가 내게 다시 던져준 신문을 집어 들고, 그가 가리킨 단락을 읽어 내려갔다. 그 기사의 제목은 '끔찍한 소포'였다.

크로이던 크로스 스트리트에 사는 수잔 커싱 양이 끔찍한 사건의 희생자가 되었다. 만약 이 사건에 더 불길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는 매우 역겨운 장난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어제 오후 2시경, 우체부가 갈색 종이로 포장된 작은 꾸러미 하나를 전달했다.

그 안에는 거친 소금이 가득 담긴 판지 상자가 들어 있었다. 상자 안의 소금을 비워낸 커싱 양은 그 안에서 갓 잘라낸 듯한 사람의 귀 두 개를 발견하고 경악했다. 상자는 전날 아침 벨파스트에서 소포로 발송되었다.

보낸 이가 누구인지는 전혀 알 길이 없다.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하다. 쉰 살의 미혼 여성인 커싱 양은 매우 은둔적인 생활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녀는 지인이나 편지를 주고받는 이가 거의 없어, 우편물을 받는 일 자체가 드문 경우였다. 하지만 몇 년 전 펜지에 거주할 당시, 그녀는 자신의 집에 방 세 칸을 내주어 세 명의 젊은 의대생을 살게 한 적이 있다. 당시 그들이 소란을 피우고 생활 방식이 불규칙했던 탓에 그녀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보내야 했다.

경찰은 이 만행이 당시 그 학생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이 커싱 양에게 원한을 품고, 해부실에서 가져온 듯한 이 유해들을 보내 그녀를 겁주려 했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는 학생 중 한 명이 아일랜드 북부 출신이며, 커싱 양의 기억에 따르면 그가 벨파스트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 사건은 활발히 조사 중이며, 우리 수사관 중 가장 유능한 인물 중 한 명인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사건을 맡고 있다.

"《데일리 크로니클》지는 이쯤 해두지." 내가 읽기를 마치자 홈즈가 말했다. "이제 우리 친구 레스트레이드 차례군. 오늘 아침 그에게 쪽지가 한 통 왔는데, 내용은 이렇네. '이 사건은 자네 전공 분야와 아주 잘 맞을 것 같네. 사건을 해결할 희망은 충분히 있지만,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는 데 약간 애를 먹고 있네. 물론 벨파스트 우체국에 전보를 보내긴 했지만, 그날 접수된 소포가 워낙 많아서 이 특정 소포를 식별하거나 보낸 사람을 기억해낼 방법이 없네. 소포 상자는 0.5파운드짜리 허니듀 담배 상자인데, 이게 단서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군. 의대생 이론이 여전히 가장 타당해 보이지만, 혹시 몇 시간 정도 여유가 있다면 이곳으로 와주면 좋겠네. 나는 하루 종일 그 집이나 경찰서 중 한 곳에 있을 것이네.' 자, 왓슨, 어떻게 생각하나? 이 무더위를 뚫고 나랑 같이 크로이던까지 가보겠나? 혹시라도 자네 기록에 남길 만한 사건이 터졌을지도 모르니 말이야."

"무언가 할 일이 간절히 필요하던 참이었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지. 벨을 울려 우리 구두를 가져오라고 하고, 마차도 한 대 불러달라고 전하게. 나는 잠시 가서 가운을 갈아입고 시가 케이스를 채워 오겠네."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소나기가 내렸다. 크로이던은 런던 시내보다 열기가 훨씬 덜해 견딜 만했다. 홈즈가 미리 전보를 보내둔 덕분에, 레스트레이드 경위는 평소처럼 날렵하고 깔끔한 모습으로, 마치 족제비 같은 눈빛을 한 채 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역에서 5분 정도 걸어가니 커싱 양이 사는 크로스 거리에 도착했다.

그곳은 2층짜리 벽돌집들이 늘어선 아주 긴 거리였다. 집들은 깔끔하고 단정했으며, 하얗게 칠해진 돌계단 앞에는 앞치마를 두른 여인들이 무리 지어 서서 수다를 떨고 있었다. 거리 중간쯤 이르렀을 때, 레스트레이드가 걸음을 멈추고 어느 집 문을 두드렸다. 곧 작은 하녀가 문

을 열어주었다. 우리가 안내받아 들어간 앞방에는 커싱 양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온화한 인상의 여인이었는데, 크고 부드러운 눈망울을 가졌고 양쪽 관자놀이 위로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무릎 위에는 자수가 놓인 안티마카사(등받이 덮개)가 놓여 있었고, 옆에 놓인 스툴 위에는 색색의 실이 담긴 바구니가 있었다.

"그 끔찍한 것들이 바깥 창고에 있어요." 레스트레이드 경위가 들어서자 그녀가 말했다. "제발 그것들을 전부 치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커싱 양. 제 친구인 홈즈 씨가 당신이 있는 자리에서 그것들을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만 이곳에 보관해 두려 했을 뿐입니다."

"어째서 하필 제가 있는 자리에서 그러시는 겁니까?"

"혹시라도 그가 질문을 하고 싶어 할 경우를 대비해서 말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에게 계속 질문을 던져서 무엇 하시려는 겁니까?"

"그렇고말고요, 부인." 홈즈가 달래듯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이번 일로 이미 충분히 마음고생을 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경위님. 저는 조용히 은둔하며 살아가는 여자예요. 신문에 제 이름이 실리고 경찰이 집까지 찾아오는 일은 제게 너무나 낯선 일입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님, 제 집 안에서는 이런 소란을

용납할 수 없어요. 만약 확인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저기 바깥 창고로 가시죠."

집 뒤로 길게 이어진 좁은 정원에는 작은 창고가 하나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그 안으로 들어가더니 갈색 종이와 노끈이 든 노란색 판지 상자를 가지고 나왔다. 오솔길 끝에는 벤치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모두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홈즈는 레스트레이드가 건네준 물건들을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았다.

"이 실은 아주 흥미롭군."

홈즈가 실을 빛에 비추어 보고 냄새까지 맡으며 말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 자네는 이 실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나?"

"타르가 칠해져 있군요."

"정확합니다. 이건 타르를 먹인 노끈이에요. 그리고 의심치 않겠지만, 커싱 양이 가위로 줄을 끊었다는 사실도 눈치채셨겠지요. 양쪽 끝이 이중으로 해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뭔지 모르겠군."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중요한 건 매듭이 풀리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게다가 이 매듭은 아주 특이한 형태를 띠고 있지요."

"매듭이 아주 깔끔하게 묶여 있군요. 저도 이미 그 점을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자만심 가득한 말투로 말했다.

"그럼 실에 대해서는 이쯤 해두죠."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제 상자를 감싼 포장지를 살펴봅시다. 갈색 종이인데, 커피 향이 확연히 나네요. 왜, 눈치채지 못했습니까? 제 생각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주소는 다소 삐뚤삐뚤한 글자로 적혀 있군요. '크로이던, 크로스 스트리트, S. 커싱 양.' 아마도 끝이 뭉툭한 펜, 대략 J형 펜을 사용한 것 같고 잉크의 질도 아주 떨어집니다. 'Croydon'이라는 단어는 원래 'i'로 쓰려다가 'y'로 고쳐 쓴 흔적이 있군요. 그렇다면 이 소포를 보낸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지 않고 크로이던이라는 동네에도 익숙하지 않은 남성임이 분명합니다. 글씨체가 아주 남성적이거든요.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상자는 노란색 반 파운드짜리 허니듀 멜론 상자인데, 왼쪽 아래 모서리에 엄지손가락 자국 두 개가 찍혀 있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상자 안에는 가죽을 보존하거나 다른 거친 상업적 용도로 쓰이는 거친 소금이 가득 들어 있군요. 그리고 그 소금 속에 바로 이 아주 기이한 봉투들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는 말을 이어가며 귀 두 개를 꺼냈다. 그러고는 무릎 위에 판자를 걸쳐 놓은 뒤, 그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다. 레스트레이드 경위와 나는 그의 양옆에서 몸을 굽힌 채, 그 끔찍한 유물과 깊은 생각에 잠긴 동료의 열띤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마침내 그는 귀를 다시 상자 안에 넣고는, 한동안 깊은 명상에 잠긴 듯 가만히 앉아 있었다.

"물론 당신도 눈치챘겠지만," 마침내 그가 말했다. "귀 모양이 양쪽이 서로 다르더군."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눈여겨보았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부실에 있는 학생들이 장난을 치려는 것이라면, 이상한 귀 두 개를 보내는 것이나 한 쌍을 보내는 것이나 그들에게는 똑같이 쉬운 일일 겁니다."

"정확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확신하는 건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해부실에 있는 시신이라면 보존액을 주입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 귀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게다가 아주 신선하기까지 하죠. 게다가 무딘 도구로 잘려 나간 듯한데, 의대생이 저질렀다면 결코 이런 식의 흔적이 남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 하나, 의료진이라면 당연히 석탄산이나 정제된 알코올을 보존제로 썼을 겁니다. 거친 소금을 썼을 리가 없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중대한 범죄를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동료의 말을 듣고 그 엄숙한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지켜보자, 내 안에서 막연한 전율이 일었다. 이 잔혹한 전조는 앞으로 닥쳐올 기이하고도 설명할 수 없는 공포를 암시하는 듯했다. 하지만 레스트레이드는 마치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처럼 고개를 가로저었다.

"농담이었다는 가설에도 분명 반론이 있겠지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다른 가설에 반대하는 근거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이 여인은 지난 20년 동안 펜지와 이곳에서 아주 조용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집을 비운 날도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도대체 왜 범인이 그녀에게 자신의 죄를 입증할 증거를 보내겠습니까? 그녀가 엄청난 연기자가 아닌 이상, 우리만큼이나 사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추론이 옳다는 전제하에, 즉 두 건의 살인이 저질러졌다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귀 중 하나는 작고 모양이 고우며 귀걸이 구멍이 뚫린 여자의 것이군요. 다른 하나는 햇볕에 그을리고 변색되었으며 역시 귀걸이 구멍이 뚫린 남자의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은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진작에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소포는 목요일 아침에 발송되었고요. 그렇다면 비극은 수요일이나 화요일, 혹은 그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셈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살해당했다면, 범인이 아닌 다른 누가 커싱 양에게 자신의 범행 증거를 보냈겠습니까? 이 소포를 보낸 사람이 우리가 찾는 그놈이라고 봐도 무방할 겁니다. 하지만 그는 커싱 양에게 굳이 이 소포를 보내야만 했던 강력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대체 어떤 이유였을까요? 범행을 완수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알리려 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녀에게 고통을 주려 했던 걸까요?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녀는 범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을 겁니다. 과연 그녀가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만약 알고 있었다면 왜 경찰을 불렀겠습니까? 그냥 귀를 땅에 묻어버렸다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을 겁니다. 범인을 보호하려 했다면 분명 그렇게 했을 테지요. 하지만 범인을 보호

할 마음이 없다면 그녀는 범인의 이름을 말했을 겁니다. 상황이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이 실타래를 풀어내야 합니다."

홈즈는 정원 울타리 너머를 멍하니 응시하며 높고 빠른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활기차게 자리에서 일어나 집을 향해 걸어갔다.

"커싱 양에게 물어볼 것이 몇 가지 있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레스트레이드가 말했다. "처리해야 할 다른 작은 사건이 하나 더 있어서 말입니다. 커싱 양에게 더 물어볼 것도 없는 것 같군요. 저는 경찰서에 가 있겠습니다."

"기차역으로 가는 길에 잠시 들르도록 하죠." 홈즈가 대답했다. 잠시 후 홈즈와 나는 다시 거실로 돌아왔다. 그곳에는 무표정한 여인이 여전히 조용히 의자 등받이 덮개를 손질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녀는 손질하던 것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숨김없이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푸른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생님." 그녀가 말했다. "이 일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게 틀림없어요. 그 소포는 애초에 저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요.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온 경위에게도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그저 저를 비웃기만 하더군요. 제가 아는 한 세상에 저를 해칠 원수는 단 한 명도 없는데, 대체 누가 저에게 이런 장난을 친단 말입니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커싱 양."

홈즈가 그녀의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아마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그가 말을 멈췄다. 문득 주위를 둘러보니, 홈즈가 아주 유별난 눈빛으로 여인의 옆모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에 깜짝 놀랐다. 홈즈의 열띤 얼굴에는 찰나의 순간 놀라움과 만족감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다. 하지만 여인이 왜 말이 없는지 궁금해하며 고개를 돌리자, 홈즈는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평소처럼 점잖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나 역시 그녀의 평범하고 희끗희끗한 머리칼과 단정한 모자, 작은 금귀걸이, 그리고 평온한 이목구비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그러나 내 동료가 왜 저토록 흥분했는지 설명할 만한 단서는 도무지 찾을 수 없었다.

"풀리지 않는 의문이 한두 가지 있었네——"

"아, 질문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커싱 양이 참지 못하고 외쳤다.

"자매가 두 명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방에 들어서자마자 바로 눈에 띄더군요. 벽난로 선반 위에 세 여인이 그려진 초상화가 놓여 있는 것을 말입니다. 그중 한 명은 분명 당신이겠지요. 나머지 두 사람도 당신과 너무나 닮아서, 서로 친척 관계라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제 자매들인 사라와 메리예요."

"그리고 여기 제 바로 옆에 또 다른 사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리버풀에서 찍은 건데, 당신의 여동생이 한 남성과 함께 있군요. 남자의 제복을 보니 선박 승무원으로 보입니다. 사진을 보니 당시 여동생분은 미혼이었더군요."

"관찰력이 아주 예리하시군요."

"그게 제 직업이니까요."

"그렇군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며칠 뒤 브라우너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 사진을 찍었을 때 브라우너 씨는 남미 항로를 운행 중이었죠. 하지만 그는 아내를 너무나 아낀 나머지, 그렇게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리버풀 런던 항로의 배에 몸을 실었지요."

"아, 혹시 컨커러호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는 메이 데이(May Day)였어요. 짐이 저를 보러 여기까지 내려온 적이 한 번 있었죠. 그건 그가 금주 약속을 어기기 전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약속을 어긴 뒤로는 육지에 올라올 때마다 늘 술을 마셨고, 술을 조금만 마셔도 눈이 뒤집혀 미친 사람처럼 변해버리곤 했죠. 아, 그가 다시 술잔을 손에 든 그날부터 모든 게 불행해졌어요. 처음에는 저를 버리더니, 그다음엔 사라와 다투기 시작했죠. 이제 메리마저 편지를 끊어버려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네요."

커싱 양이 무척이나 마음 깊이 간직해 온 주제를 건드렸음이 분명했다. 외로운 삶을 사는 대다수의 사람처럼 그녀도 처음에는 수줍어했으나, 이내 매우 유창하게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그녀는 선박 승무원인 제부에 관한 세세한 사정들을 들려주었다. 그러더니 화제는 예전 하숙생이었던 의대생들에게로 옮겨갔다. 그녀는 그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며, 그들의 이름과 다녔던 병원 이름까지 상세히 말해주었다. 홈즈는 때때로 질문을 던지며 그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경청했다.

"둘째 여동생 사라 말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두 분 다 미혼이신데, 왜 같이 살지 않는지 궁금하군요."

"아, 사라의 성미를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알았다면 이렇게 놀라지도 않으셨을 겁니다. 저도 크로이던에 왔을 때 같이 지내봤는데, 두 달 전 헤어질 수밖에 없게 되기 전까지는 그럭저럭 함께 살았지요. 제 누이를 험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사라는 늘 참견하기 좋아하고 비위 맞추기도 참 까다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리버풀에 있는 친척들과 다투었다고 말씀하셨군요."

"맞아요, 한때는 둘이 둘도 없는 절친한 사이였죠. 그녀가 그곳으로 이사한 것도 그들 곁에 머물기 위해서였는걸요. 그런데 이제는 짐 브라우너에 대해 입에 담기조차 싫을 만큼 험담을 해대더군요. 그녀가 이곳에 머물렀던 지난 6개월 동안, 그녀는 오로지 그 남자의 술버릇과 행실에 대해서만 떠들어댔습니다. 내 짐작으로는, 그녀가 참견을 하다가

그에게 들키는 바람에 한소리를 들은 모양인데, 아마 그때부터 사이가 틀어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커싱 양."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당신의 여동생 사라 씨는 뉴 스트리트 웰링턴에 살고 있다고 하셨지요?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본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건 때문에 이렇게 마음 고생을 하시게 되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가 밖으로 나왔을 때 마침 마차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고, 홈즈는 그 마차를 향해 손을 흔들어 세웠다.

"웰링턴까지는 얼마나 멀죠?" 그가 물었다.

"겨우 1마일 정도 됩니다, 선생님."

"좋아. 어서 타게, 왓슨. 쇠뿔도 단김에 빼야지. 사건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주 유익한 단서가 한두 개 있었거든. 마부 양반, 지나가는 길에 전신국에 좀 세워 주시오."

홈즈는 짧은 전보를 보낸 뒤, 마차로 이동하는 내내 모자를 코끝까지 눌러쓴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햇빛을 피하려는 모양이었다. 마부가 멈춰 선 곳은 방금 떠나온 집과 그리 다르지 않은 저택이었다. 홈즈는 마부에게 기다리라고 명령한 뒤 문 두드리는 곳에 손을 올렸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아주 번쩍이는 모자를 쓴 검은 옷 차림의 엄숙한 인상의 젊은 신사가 계단에 나타났다.

"커싱 양이 집에 있습니까?" 홈즈가 물었다.

"사라 커싱 양의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그가 말했다. "어제부터 뇌에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로서, 환자를 면회하도록 허락할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열흘 뒤에 다시 방문하시기를 권합니다." 그는 장갑을 끼고는 문을 닫고 거리 저편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뭐, 안 되면 안 되는 거지요." 홈즈가 쾌활하게 말했다.

"아마 그녀가 당신에게 많은 것을 말해줄 수 없었거나, 혹은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녀에게서 무슨 말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닙니다. 그저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제 필요한 건 다 얻은 것 같군요. 이보게, 기사 양반, 점심이라도 먹을 수 있게 괜찮은 호텔로 좀 가주게. 그러고 나서 경찰서에 있는 친구 레스트레이드를 찾아가 보세나."

우리는 함께 즐거운 식사를 나누었다. 식사 내내 홈즈는 바이올린 이야기만 늘어놓았다. 그는 자신이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얼마나 쾌거를 이루며 손에 넣었는지 아주 기세등등하게 떠들어댔다. 적어도 500기니의 가치는 충분한 그 악기를, 그는 토트넘 코트 로드에 있는 유대인 중개인에게서 단돈 55실링에 샀다고 말이다. 바이올린 이야기는 자연스레 파가니니로 이어졌다. 우리는 클라레 한 병을 곁들이며 한 시간 동안 앉아 있었고, 홈즈는 그 비범한 음악가에 관한 일화들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어느덧 오후는 깊어갔고, 뜨겁게 내리쬐던

햇살도 부드러운 노을빛으로 변해 있었다. 우리가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레스트레이드는 이미 문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홈즈 씨, 전보가 왔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 바로 이거군!"

그는 봉투를 거칠게 뜯어 내용을 훑어보더니, 종이를 구겨서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됐어, 이제 됐다고." 그가 말했다.

"뭐 좀 알아낸 게 있나?"

"전부 알아냈습니다!"

"뭐라고요!" 레스트레이드가 경악하며 홈즈를 쳐다보았다. "농담하시는 거겠죠."

"내 평생 이토록 진지했던 적은 없었네. 충격적인 범죄가 저질러졌고, 이제 그 모든 세부 사항을 하나도 빠짐없이 밝혀냈다고 생각하네."

"그럼 범인은요?"

홈즈는 자신의 방문 카드 뒷면에 몇 마디를 휘갈겨 쓰더니, 그것을 레스트레이드 쪽으로 휙 던졌다.

"그게 이름입니다." 그가 말했다. "아무리 빨라도 내일 밤은 되어야 체포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제 이름은 아예 언급하

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풀기 까다로운 사건에만 이름을 남기고 싶거든요. 가세, 왓슨."

우리는 함께 역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레스트레이드 경위는 홈즈가 던져준 명함을 기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여전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말이야."

그날 밤, 베이커가의 우리 방에서 시가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던 중 셜록 홈즈가 입을 열었다.

"자네가 '주홍색 연구'와 '네 사람의 서명'이라는 제목으로 기록했던 수사들과 비슷하네. 결과로부터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추론해야만 하는 사건이지. 우선 레스트레이드에게 편지를 써서 부족한 세부 사항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해 두었네. 범인을 붙잡고 나면 알 수 있을 정보들이지. 그라면 충분히 믿고 맡길 수 있네. 비록 그에게 논리적 사고 능력은 전혀 없지만, 일단 해야 할 일을 파악하고 나면 불독처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거든. 사실 그 끈질긴 집념 덕분에 스코틀랜드 야드에서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고 말이야."

"그렇다면 사건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내가 물었다.

"핵심적인 부분은 꽤 다 밝혀졌네. 이 역겨운 사건을 꾸민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게 되었고. 비록 피해자 중 한 명은 아직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지만 말이야. 물론, 자네도 이미 나름의 결론을 내렸겠지."

"리버풀행 선박의 승무원인 짐 브라우너라는 자가, 당신이 의심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인가요?"

"오, 이건 단순한 의심 수준이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막연한 징후들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군요."

"아니, 내 생각은 정반대라네. 오히려 이보다 더 명확할 순 없지. 주요 단계들을 하나씩 짚어보세나.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우리는 아무런 선입견 없이 이 사건에 접근했네. 그건 언제나 큰 장점이 되지. 어떤 이론도 미리 세워두지 않았으니까 말이야. 우리는 그저 관찰하고, 그 관찰로부터 추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곳에 있었을 뿐이라네.

우리가 가장 먼저 본 게 무엇이었나? 아주 차분하고 품위 있는 부인이었지. 그분은 어떤 비밀도 모르는 듯 아주 결백해 보였네. 그리고 초상화를 통해 그 부인에게 두 명의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그 순간, 그 상자가 여동생 중 한 명을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네. 하지만 그 생각은 나중에 여유가 생길 때 확인하거나 부정하면 될 일이라 여기고 일단 접어두었지. 그러고 나서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정원으로 향했고, 그 작은 노란 상자 안에 든 아주 기묘한 내용물을 확인하게 된 것이라네."

"그 줄은 선박에서 돛을 만드는 이들이 사용하는 품질의 것이었다. 조사하던 중 즉시 바다 내음이 확 풍겨왔다. 나는 그 매듭이 선원들이 즐겨 쓰는 방식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또한 소포가 항구에서 발송되었다는 사실과, 귀를 뚫어 귀걸이를 한 남성의 모습이 육지 사람보다는

선원들에게서 훨씬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이 모든 단서를 종합해 볼 때, 이 비극에 연루된 인물들은 모두 바다에서 일하는 이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했다."

"소포에 적힌 주소를 확인했을 때, 수신인이 S. 커싱 양이라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가장 큰 언니가 커싱 양이겠지만, 이름의 첫 글자가 'S'라고 해서 반드시 그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자매 중 한 명일 수도 있으니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조사 방향을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잡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커싱 양에게 분명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안심시켜 주려던 참이었지요. 그때 제가 갑자기 걸음을 멈췄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저는 방금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그 광경은 저를 깜짝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조사해야 할 범위를 엄청나게 좁혀주었습니다."

"왓슨 박사, 의사로서 당신도 잘 알겠지만, 인체의 부위 중 인간의 귀만큼 개별적인 차이가 큰 곳도 없네. 보통 귀는 저마다 고유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다른 사람의 귀와는 확연히 다르지. 작년에 발행된 『인류학 저널』을 보면, 내가 이 주제로 쓴 짧은 논문 두 편을 찾아볼 수 있을 걸세. 그래서 나는 상자 속에 든 귀들을 전문가의 시선으로 조사하며 해부학적 특징들을 꼼꼼히 기록해 두었네.

그런데 커싱 양을 살펴보던 중, 그녀의 귀가 방금 내가 조사했던 여성의 귀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네. 이건 결코 우연일 수 없는 일이었어. 귓바퀴가 짧아진 정도나 귓불 윗부분의 넓은 곡선, 그리고 내이 연골의 굴곡까지 모두 똑같았거든. 핵심적인 특징들을 따져보았을 때, 그것은 분명히 같은 귀였네."

"물론 저는 그 관찰이 얼마나 중요한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피해자가 혈연관계이며, 아마도 아주 가까운 사이임이 분명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가족에 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녀는 곧바로 매우 귀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었지요."

"우선, 그녀의 여동생 이름이 사라였고 최근까지 주소도 같았습니다. 그러니 어떤 착오가 생겼는지, 그리고 그 소포가 원래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는 아주 명백한 일이었죠. 게다가 우리는 셋째 여동생과 결혼한 이 승무원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 승무원은 한때 사라 양과 매우 친밀한 사이여서, 사라 양이 브라우너 일가와 가까이 지내려고 리버풀까지 따라갔을 정도였다더군요. 하지만 그 후에 다툼이 생기면서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이 다툼 때문에 몇 달 동안은 연락조차 끊긴 상태였죠. 그러니 만약 브라우너가 사라 양에게 소포를 보내려 했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의 옛 주소로 보냈을 겁니다."

"이제 사건은 놀라울 정도로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승무원의 존재를 알아냈지요. 그는 충동적이고 감정이 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아주 좋은 일자리까지 내팽개쳤던 걸 기억하시나요? 게다가 가끔 술에 심하게 취하는 버릇도 있었죠. 우리는 그의 아내가 살해당했을 것이라 믿을 만한 근거를 찾았고, 동시에 어떤 남자, 아마도 선원이었을 그 남자 또한 살해당했다는 사실

도 알아냈습니다. 범행 동기로는 당연히 질투가 가장 먼저 떠오르겠지요. 그런데 왜 이 범행의 증거들을 사라 커싱 양에게 보냈을까요? 아마 그녀가 리버풀에 머물던 시절, 이 비극을 초래한 사건들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노선은 벨파스트와 더블린, 워터퍼드를 거칩니다. 따라서 브라우너가 범행을 저지른 뒤 곧장 자신의 증기선인 메이 데이호에 올라탔다고 가정한다면, 그가 이 끔찍한 소포를 보낼 수 있는 첫 번째 장소는 바로 벨파스트가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두 번째 가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다. 나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지만, 더 나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 가설을 규명해 보고 싶었다. 사랑에 실패한 연인이 브라우너 씨 부부를 살해했을 수도 있고, 발견된 남성의 귀는 남편의 것일 수도 있었다. 이 이론에는 중대한 결함이 많았으나, 아예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리버풀 경찰청의 친구인 알가에게 전보를 보냈다. 브라우너 부인이 집에 있는지, 그리고 브라우너 씨가 '메이 데이'호에 승선했는지 확인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확인을 마친 뒤, 우리는 사라 양을 만나기 위해 월링턴으로 향했다.

"우선 가문 특유의 귀 형태가 그녀에게 얼마나 그대로 나타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물론 그녀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줄 수도 있겠지만, 과연 그럴지는 확신할 수 없었지요. 크로이던 전역이 그 사건으로 떠들썩했으니 그녀도 전날쯤에는 소식을 들었을 테고, 그 소포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그녀뿐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정의를 위해 협조할 의사가 있었다면 아마 이미 경찰에 연락을 취했을 겁니

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는 것은 분명 우리의 의무였기에 우리는 찾아갔습니다.

가보니 소포가 도착했다는 소식—그녀의 병세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이 그녀에게 큰 충격을 주어 뇌열을 일으킨 상태였습니다. 그녀가 사건의 전말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려면 당분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자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한 답변들은 이미 경찰서에 도착해 있었거든요. 제가 알가에게 그쪽으로 보내라고 지시해 두었으니까요.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을 겁니다. 브라우너 부인의 집은 사흘 넘게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그녀가 친척을 만나러 남쪽으로 떠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선박 사무소에 확인해 보니 브라우너는 '메이 데이'호에 몸을 싣고 떠났더군요. 계산해 보니 그 배는 내일 밤이면 템스강에 도착할 겁니다. 브라우너가 배에서 내리면 둔하지만 결단력 있는 레스트레이드가 그를 맞이할 테니, 조만간 모든 세부 사항이 명확히 밝혀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셜록 홈즈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 이틀 뒤, 그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받았다. 봉투 안에는 탐정의 짧은 메모와 함께, 여러 장의 속지에 타자로 친 문서가 들어 있었다.

"레스트레이드가 아주 제대로 낚아챘군." 홈즈가 나를 슬쩍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가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면 자네도 흥미로울 거야."

"친애하는 홈즈 씨에게. —우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세웠던 그 계획에 따라—"

"'우리'라니, 왓슨, 표현이 꽤 거창한걸?"

"나는 어제 오후 6시에 앨버트 부두로 내려가 리버풀·더블린·런던 증기선 회사의 '메이 데이' 호에 승선했네. 확인해 보니 제임스 브라우너라는 이름의 승무원이 한 명 있더군. 그는 항해 중에 매우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여 선장이 어쩔 수 없이 직무에서 해임해야 했다고 하네. 그의 침실로 내려가 보니, 그는 궤짝 위에 앉아 두 손에 머리를 파묻은 채 몸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네. 그는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 보였고, 면도를 깔끔하게 한 데다 피부가 아주 검었네. 예전에 가짜 세탁소 사건 때 우리를 도와줬던 올드리지를 좀 닮았더군. 내가 용건을 말하자 그는 벌떡 일어났네. 나는 모퉁이 근처에 있던 강 경찰 몇 명을 부르려고 휘슬을 입가로 가져갔지. 하지만 그는 저항할 기력이 전혀 없어 보였고, 수갑을 채우려는데도 아주 차분하게 두 손을 내밀더군. 우리는 그를 유치장으로 압송하면서, 혹시나 증거가 될 만한 물건이 있을까 싶어 그의 상자도 함께 가져왔네. 하지만 선원들이 흔히 가지고 다니는 커다란 날카로운 칼 말고는 수고를 들인 보람도 없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네. 그래도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경찰서 경위 앞에 서자 그가 진술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거든. 물론 우리 속기사가 그가 말하는 그대로를 받아 적었네. 타자기로 친 사본을 세 부 만들었는데, 그중 한 부를 동봉하네. 이 사건은 내가 늘 예상했듯이 아주 단순한 일로 밝혀졌네. 하지만 내 수사를 도와준 것에 대해 자네에게

감사를 표하네. 안부를 전하며, 그대의 진실한 동료, G. 레스트레이드."

"흠! 조사 자체는 정말 간단한 일이었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처음 우리를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한 것 같지는 않더군. 어쨌든 짐 브라우너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한번 들어보세. 이건 섀드웰 경찰서에서 몽고메리 경위 앞에서 작성한 진술서라네.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옮겨 적었다는 게 장점이지."

"제가 할 말이 있느냐고요? 네, 할 말이 아주 많습니다. 전부 다 털어놓아야겠습니다. 저를 교수형에 처하든,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어느 쪽이든 상관없으니까요. 그 일을 저지른 뒤로 단 한 순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는 삶이 끝나기 전까지는 다시는 잠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의 얼굴이 보이지만, 대개는 그녀의 얼굴입니다. 눈을 감으면 늘 둘 중 하나가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린 채 어둡게 일그러진 모습이지만, 그녀는 무언가에 놀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가련한 어린 양 같은 여인 말입니다. 전에는 오직 사랑만을 보여주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읽었으니, 그녀가 놀라는 것도 당연하겠지요."

"하지만 이건 사라의 잘못이야. 무너져 내린 남자의 저주가 그 여자에게 내려앉아, 그 혈관 속의 피마저 썩게 만들기를! 내 결백을 주장하려는 게 아니야. 나도 알아, 짐승처럼 다시 술에 손을 댔다는 걸. 하지만 사라라면 나를 용서했을 거야. 그 여자가 우리 집 문턱을 넘기만 하

지 않았어도,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곁을 지켰을 거라고. 사라 커싱은 나를 사랑했으니까. 사건의 근원은 바로 그거야. 그녀는 나를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그녀의 온 몸과 영혼보다, 진흙탕에 남은 내 아내의 발자국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그 사랑은 독기 어린 증오로 변해버렸지."

"자매는 모두 셋이었어요. 맏이는 그저 선한 사람이었고, 둘째는 악마 같았지만, 막내는 천사 같았죠. 제가 결혼할 당시 사라는 서른세 살이었고, 메리는 스물아홉이었어요.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매일같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답니다. 리버풀 전체를 통틀어도 제 아내 메리보다 더 나은 여인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다 사라를 일주일만 머물게 하려고 불렀는데, 그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다 보니 결국 사라도 우리 식구처럼 자연스럽게 함께 지내게 되었죠."

"그때만 해도 형편은 아주 좋았습니다. 돈도 조금씩 모으고 있었고, 모든 일이 마치 갓 발행된 달러처럼 반짝이며 잘 풀리고 있었죠. 세상에, 누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겠습니까? 대체 누가 상상이나 했겠느냐 말입니다."

"주말이면 집에 내려가는 일이 잦았습니다. 가끔 화물을 싣느라 배가 늦게 출발할 때면 일주일 내내 머물기도 했지요. 덕분에 처형인 사라를 자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라는 키가 크고 당당한 여성이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동작은 민첩했고 성격은 불같았지요. 고개를 치켜든 모습에는 자부심이 넘쳤고, 눈빛은 부싯돌에서 튀는 불꽃처럼 번뜩였

습니다. 하지만 어린 메리가 곁에 있을 때면 저는 처형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신의 자비를 구하며 맹세컨대, 정말로 그랬습니다."

가끔 그녀가 나와 단둘이 있기를 좋아하거나, 함께 산책을 나가자며 나를 달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도 했지만, 딱히 별다른 의미를 두지는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나는 진실을 깨닫게 되었다. 배에서 내려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는 외출 중이었고 사라만 집에 있었다.

"메리는 어디 있소?" 내가 물었다.

"아, 계산할 게 있어서 나갔어요."

나는 조바심이 나 방 안을 서성거렸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짐, 메리 없이 딱 5분도 못 견디겠어요? 당신이 나랑 있는 짧은 시간조차 만족하지 못한다니, 나한테 참 무례한 소리네요."

"괜찮소, 아가씨."

나는 다정한 마음을 담아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그녀는 순식간에 내 손을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손은 마치 열병이라도 앓는 것처럼 뜨거웠다. 나는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고, 그 눈빛 속에서 모든 것을 읽어냈다. 그녀가 말할 필요도, 나 역시 설명할 필요도 없었다. 나는 미간을 찌푸리며 슬며시 손을 뺐다. 그녀는 잠시 내 곁에 말없이 서 있더니, 손을 들어 내 어깨를 가볍게 다독였다.

"정신 차려요, 우리 짐!"

그녀는 약간의 장난기가 섞인 웃음을 터뜨리며 방을 나갔다.

"그 일 이후로 사라가 저를 온 마음을 다해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정말 무섭게 미워할 줄 아는 여자였지요. 그녀를 우리 집에 계속 머물게 한 건 제 어리석음이었습니다. 정말 눈이 멀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메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봤자 메리만 괴로울 게 뻔했으니까요.

상황은 이전과 비슷하게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메리 자신에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늘 천진난만하고 사람을 잘 믿던 메리가 갑자기 이상해졌습니다. 의심이 많아지더니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했는지, 편지는 누구에게 온 것인지, 주머니에는 무엇이 들어 있는지 같은 사소한 것들을 일일이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메리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예민해졌습니다. 우리는 별것도 아닌 일로 끊임없이 다투었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지요. 사라는 저를 피했지만, 메리와는 늘 붙어 다녔습니다. 이제 와 생각해보면 사라가 뒤에서 온갖 계략을 꾸미며 제 아내의 마음을 저에 대한 적개심으로 물들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저는 눈먼 벌레처럼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금주를 포기하고 다시 술에 손을 댔습니다. 만약 메리가 예전과 같았다면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의 메리는 저에게 실망할 만한 이유가 충분했고, 우리 사이의 간극은 점점 더 벌

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알렉 페어번까지 끼어들면서 상황은 천 배는 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처음 우리 집을 찾아온 목적은 사라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곧 그는 우리를 만나러 오기 시작했다. 어디를 가든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어, 가는 곳마다 친구를 만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당당하고 자신만만한 태도를 지닌 청년이었다. 머리칼은 깔끔하게 말아 올렸고, 세상의 절반쯤은 둘러본 듯 자신이 보고 겪은 일들을 막힘없이 이야기하곤 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즐거웠다는 사실은 부정하지 않겠다. 게다가 선원치고는 예의범절이 무척 훌륭해서, 한때는 그가 일반 선원들이 지내는 선수루보다 사관들이 머무는 선미루를 더 잘 알던 시절이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한 달 동안 그는 우리 집을 제집처럼 드나들었다. 그의 부드럽고 능청스러운 태도에서 어떤 해가 될 만한 기색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러다 마침내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의심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 나의 평온은 영원히 깨지고 말았다.

"그건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제가 예고도 없이 거실로 들어갔을 때, 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보고 아내의 얼굴에 반가운 기색이 스쳤죠. 하지만 저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그 빛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아내는 실망한 기색을 내비치며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아내가 제 발소리로 착각할 만한 사람은 알렉 페어번 말고는 없었으니까요. 만약 그때 그놈을 봤더라면 당장 죽여버렸을 겁니다.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면 늘 미친 사람처럼 변하거든요. 메리는 제 눈에 서린 살기를 보고는 제 소매를 붙잡으며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안 돼요, 짐, 제발 그러지 마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사라는 어디 있지?’ 제가 물었습니다. ‘부엌에 있어요.’ 아내가 대답하더군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며 말했습니다. ‘사라, 페어번 그자가 다시는 이 집 문턱을 넘지 못하게 해.’ ‘왜 안 된다는 거죠?’ 아내가 물었습니다. ‘내가 명령하니까.’ ‘아!’ 아내가 말했습니다. ‘내 친구들이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저 또한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겠네요.’ ‘당신 마음대로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페어번이 다시 얼굴을 비춘다면, 기념품으로 그놈 귀 한쪽을 당신에게 보내줄 테니까.’ 제 표정에 겁을 먹은 모양입니다. 아내는 한마디 대꾸도 하지 못했고, 그날 저녁 바로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글쎄요, 그 여자가 순전히 악의를 품고 그런 건지, 아니면 아내의 행실을 부추겨서 저를 아내와 사이가 틀어지게 만들려 했던 건지는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여자는 여기서 불과 두 블록 떨어진 곳에 집을 얻어 선원들에게 방을 내주더군요. 페어번도 그곳에 머물곤 했고, 메리도 언니와 그를 만나 차를 마시러 그 집을 드나들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제가 뒤를 밟았습니다. 제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을 때, 페어번은 그 비겁한 겁쟁이답게 뒷마당 담을 넘어 도망쳐 버렸지요. 저는 아내에게 다시는 그놈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이면 죽여버리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내는 종잇장처럼 하얗게 질린 채 흐느끼며 떨면서 저를 따라 돌아왔지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 사랑의 흔적은 더 이상 남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저를 증오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그 괴로움에 못 이겨 제가 술에 의지하게 되자 아내는 저를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글쎄요, 사라가 리버풀에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크로이던에 있는 언니네 집으로 가서 살게 되었지요. 집안 형편은 이전과 다름없이 평소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러다 지난주에 이런 비극이 닥쳤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망가져 버린 겁니다."

"사정은 이랬습니다. 우리는 7일 일정의 왕복 항해를 위해 '메이 데이(May Day)' 호를 타고 떠났죠. 그런데 커다란 나무통 하나가 풀리면서 선체 외판 하나가 헐거워지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항구로 돌아와 12시간 동안 머물러야 했습니다. 저는 배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놀랄까 생각하면서, 어쩌면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저를 반가워해 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품었지요.

자신의 집 앞 골목으로 들어설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마차 한 대가 제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녀가 있었습니다. 페어번 옆에 앉아 두 사람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있더군요. 인도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말입니다."

"맹세컨대, 그 순간부터 저는 제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마치 희미한 꿈을 꾸는 것만 같습니다. 최근 들어 술을 과하게 마시기도 했으니, 그 두 가지 상황이 겹치면서 제 정신은 완전히 나가버렸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이 부두 노동자의 망치질처럼 울렁거리지만, 그날 아침에는 마치 나이아가라 폭포의 굉음이 귓가에서 휘몰아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려서 마차를 뒤쫓았습니다. 손에는 묵직한 참나무 지팡이를 쥐고 있었는데, 처음부터 눈앞이 붉게 달아오를 만큼 화가 치밀었습니다. 하지만 달리는 와중에 머리를 좀 썼습니다. 들키지 않으면서도 그들을 지켜볼 수 있게 뒤에서 조금 거리를 두고 따라갔지요.

그들은 곧 역에 도착했습니다. 매표소 주변에 사람들이 북적이고 있어서, 저는 들키지 않고 그들에게 아주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뉴 브라이튼행 표를 끊더군요. 저도 표를 샀지만, 그들보다 세 칸 뒤쪽 객차에 올라탔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들은 대로를 따라 걸어갔고, 저는 줄곧 그들로부터 백 야드 이내의 거리만을 유지하며 뒤를 쫓았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배를 빌려 노를 저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날씨가 무척 더웠던 터라, 물 위로 나가면 좀 더 시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마치 그들이 내 손에 제 발로 들어온 것 같았소. 안개가 자욱해서 수백 야드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 나는 배를 한 척 빌려 그들을 뒤쫓았소. 멀리서 그들의 배가 흐릿하게 보였지만, 그들도 나만큼이나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에 따라잡기까지는 해안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야만 했소. 안개는 우리 주변을 커튼처럼 둘러싸고 있었고, 그 막막한 안개 한가운데에 우리 세 사람이 있었지. 세상에, 자신들을 뒤쫓아오는 배에 탄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했을 때 그들의 표정을 내가 어찌 잊겠소? 여자는 비명을 질렀고, 남자는 미친 사람처럼 욕설을 내

뱉으며 노를 휘둘러 나를 공격했소. 내 눈에서 죽음을 읽은 게 분명하오. 나는 그 공격을 피한 뒤 지팡이로 그를 내리쳤고, 그의 머리는 달걀처럼 으스러졌소.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아마 여자만큼은 살려주려 했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여자는 그를 '알렉'이라 부르며 울부짖으며 그에게 매달렸소. 나는 다시 한번 내리쳤고, 여자는 그의 곁에 쓰러졌소. 그때의 나는 피 맛을 본 야수와도 같았소. 만약 사라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맹세코 그녀도 그들 곁으로 갔을 것이오. 나는 칼을 뽑아 들었고, 그리고ㅡ음, 됐소! 이 정도면 충분히 말한 것 같군. 사라가 자신의 참견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이런 흔적들을 보며 어떤 기분일지 생각하니, 기묘하게도 잔인한 즐거움이 느껴지더군. 그러고 나서 시신들을 배에 실어 묶은 뒤, 판자 하나를 부수고 그들이 가라앉을 때까지 지켜보았소. 배 주인은 그들이 안개 때문에 방향을 잃고 바다로 떠내려갔다고 생각할 게 뻔했으니까. 나는 몸을 깨끗이 씻고 육지로 돌아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이에 내 배에 합류했소. 그날 밤, 나는 사라 커싱에게 보낼 소포를 꾸렸고, 다음 날 벨파스트에서 그것을 보냈소."

"이게 전부입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저를 교수형에 처하든, 원하시는 대로 무엇을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겪고 있는 이 고통만큼 저를 더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눈을 감아도 그 두 얼굴이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습니다. 내 배가 안개를 뚫고 나타났을 때 저를 노려보던 바로 그 눈빛 그대로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순식간에 죽였지만, 그들은 저를 천천히 죽이고 있습니다. 하룻밤만 더 이런 상태로 버틴다면, 아침이 오기 전에 미쳐버리거나 죽고 말 겁니다. 선생님, 제발 저를 독방에 혼자 가두지는 마십시오. 부탁이니 제발 그러지 마십시

오. 당신도 고통스러운 날을 맞이할 때, 지금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똑같이 대우받기를 바랍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왓슨?"

홈즈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엄숙하게 말했다.

"이 비극과 폭력, 그리고 공포의 연쇄가 도대체 무엇을 노리는 걸까? 분명 어떤 목적이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면 우리 우주는 그저 우연에 의해 움직인다는 뜻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하지만 그 목적이 무엇일까? 인류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는, 영원하고도 거대한 난제가 여기 있군."

노란 얼굴

III. 노란 얼굴

내 동료의 비범한 재능 덕분에 기묘한 사건의 청취자가 되었다가, 결국에는 그 극의 주인공이 되어 직접 뛰어들어야 했던 수많은 사건을 바탕으로 이 단편들을 펴내면서, 나는 그의 실패보다는 성공에 더 무게를 두어 서술하게 되었다.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가 명성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그가 한계에 부딪혔을 때 보여준 에너지와 다재다능함이 가장 경탄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실패한 사건들은 대개 다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영원히 결말을 맺지 못한 채 남겨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때로는 그가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조차 진실이 밝혀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나는 그런 사례를 대여섯 건 정도 기록해 두었는데, 그중에서도 '두 번째 얼룩 사건'과 지금부터 들려줄 사건이 가장 흥미로운 특징을 지니고 있다.

셜록 홈즈는 단순히 운동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법이 거의 없는 사람이었다. 근력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고, 내가 본 사람 중에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체급 대비 최고의 복서 중 한 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목적 없는 신체 활동을 에너지 낭비라고 여겼기에, 직업적인 목적이 있지 않은 한 좀처럼 몸을 움직이지 않았다. 일단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는 지칠 줄 모르는 무한한 체력을 보여주었다. 그런 상황에서 체력을 유지해 왔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었으나, 그의 식단은 대개 매우 소박했고 생활 습관 또한 금욕적이라 할 만큼 단순했다. 가끔 코카인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악습도 없었다. 그가 약물에 손을 대는 것은 사건이 드물고 신문 기사조차 흥미롭지 않아 삶이 단조로워질 때, 그 무료함에 저항하기 위함이었다.

초봄의 어느 날이었다. 평소와 달리 한가로워진 그는 나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느릅나무에는 연둣빛 새순이 돋아나기 시작했고, 밤나무의 끈적한 꽃봉오리들은 이제 막 다섯 갈래의 잎을 터뜨리려 하고 있었다. 우리는 두 시간 동안 함께 거닐었다. 서로를 아주 잘 아는 사이인 만큼, 대부분의 시간은 말없이 침묵 속에 흘러갔다. 베이커가로 다시 돌아왔을 때는 거의 다섯 시가 다 된 시각이었다.

"실례합니다, 주인님." 문을 열며 시종이 말했다. "주인님을 찾는 신사분이 오셨습니다."

홈즈가 나를 나무라듯 쳐다보았다.

"오후 산책은 다 틀렸군!" 그가 말했다. "그럼 이 신사분은 벌써 가셨나?"

"예, 그렇습니다. 가셨습니다."

“그를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았나요?”

“네, 손님. 들어오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습니까?”

“30분 정도 됐습니다, 선생님. 아주 안절부절못하는 분이셨어요. 여기 계시는 내내 계속 서성거리며 발을 구르셨거든요. 제가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에서 다 들렸습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복도로 뛰쳐나오면서 ‘그 양반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거요?’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정말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으니 밖에서 기다리겠소’라고 하시더군요. 그러고는 ‘금방 돌아오겠소’라며 휙 나가버리셨습니다. 제가 붙잡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허허, 최선을 다하셨군요.”

우리가 방으로 들어설 때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왓슨,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침 사건이 절실히 필요하던 참이었는데 말이죠. 그 남자의 조급한 태도를 보니 꽤 중요한 사건인 듯 보였거든요. 어라! 테이블 위에 있는 건 당신의 파이프가 아니군요. 그 사람이 두고 간 모양입니다. 줄기가 길고 멋진, 담배 가게 사람들이 앰버라고 부르는 재질로 된 훌륭한 고목 파이프군요. 런던에 진짜 앰버로 된 마우스피스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될지 궁금할 정도입니

다. 어떤 이들은 그 안에 파리가 들어 있으면 길조라고 믿기도 하죠. 아무튼, 분명히 아끼는 물건일 텐데 이렇게 두고 갈 정도라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무척 불안했던 게 분명합니다."

"그가 그것을 아주 소중히 여긴다는 건 어떻게 아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글쎄요, 이 파이프의 원래 가격은 7실링 6펜스 정도였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이 파이프는 두 번이나 수리를 거쳤습니다. 한 번은 나무로 된 대 부분을, 또 한 번은 호박 부분을 고쳤지요. 보시다시피 은 테를 둘러서 수리했는데, 이 수리 비용이 각각 파이프 값보다 더 들었을 겁니다. 새 파이프를 살 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수리해서 쓰기로 했다면, 이 파이프 주인은 이 물건을 아주 각별히 아끼는 사람임이 틀림없습니다."

"더 필요한 건 없습니까?" 내가 물었다. 홈즈가 손안에서 파이프를 이리저리 돌리며, 특유의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파이프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그것을 들어 올리더니, 마치 뼈를 주제로 강의하는 교수처럼 길고 가느다란 검지로 그것을 톡톡 두드렸다.

"파이프는 가끔 아주 흥미로운 단서가 되기도 하지." 홈즈가 말했다. "시계나 신발끈을 제외하면, 이만큼 개성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물건도 없거든. 하지만 여기 남은 흔적은 그리 두드러지지도, 중요하지도 않아. 주인은 분명 근육질에 왼손잡이일 것이고, 치아 상태도 아주

좋을 거야. 습관은 다소 부주의한 편이고, 돈을 아껴 쓸 필요가 없는 여유로운 처지겠지."

내 친구는 아주 무심한 듯 정보를 툭 던졌지만, 나는 그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살피는 것을 보았다. 자신의 추론을 내가 제대로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눈치였다.

"일곱 실링이나 하는 파이프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분명 부유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이건 그로브너 혼합 담배야. 한 온스에 8펜스 정도 하지." 홈즈가 손바닥에 담배를 조금 털어내며 대답했다. "그는 절반 가격으로도 아주 훌륭한 담배를 구할 수 있으니, 굳이 아껴 쓸 필요가 없어."

"다른 점은요?"

"그는 평소 램프나 가스등을 이용해 파이프에 불을 붙이는 습관이 있더군요. 보시다시피 파이프 한쪽 면이 온통 검게 그을려 있습니다. 성냥으로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 수 없죠. 사람이 왜 성냥을 파이프 옆면에 갖다 대겠습니까? 그렇다고 램프에 불을 붙이려다 보면 파이프 볼 부분이 그을릴 수밖에 없는데, 그을린 자국이 전부 파이프의 오른쪽 면에만 있습니다. 이 점을 미루어 볼 때, 그는 왼손잡이임이 분명합니다. 당신도 직접 파이프를 램프에 가져가 보십시오. 오른손잡이인 당신이라면 자연스럽게 왼쪽 면을 불꽃 쪽으로 향하게 될 겁니다. 어쩌다 한 번은 반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습관적으로 그러지는 못하죠. 이건 늘 그래왔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는 호박 파이프를 깨물어 먹었군

요. 그러려면 근육질에 활력이 넘치고 치아도 아주 튼튼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 귀가 틀리지 않았다면, 지금 계단에서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리는군요. 이제 파이프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것을 연구할 수 있겠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키가 큰 젊은 남자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짙은 회색 정장을 깔끔하면서도 차분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손에는 갈색 중절모를 들고 있었다. 실제 나이는 그보다 몇 살 더 많았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서른 살 정도로 보였다.

"실례했습니다." 그가 다소 당황한 기색으로 말했다. "노크를 했어야 했는데 말입니다. 네, 당연히 노크를 했어야 했지요. 사실 제가 지금 정신이 좀 없어서 그렇습니다. 전부 제 상태가 좋지 않은 탓이라 여겨 주십시오." 그는 정신이 혼미한 사람처럼 손으로 이마를 짚더니, 의자에 앉는 게 아니라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하루 이틀 밤을 꼬박 새우신 모양이군요."

홈즈가 특유의 여유롭고 다정한 말투로 말했다.

"잠을 못 자는 건 일하는 것보다, 심지어 즐거운 일을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신경을 더 깎아먹는 법이지요. 자,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인생 전체가 산산조각 난 것만 같습니다."

"저를 상담 탐정으로 고용하고 싶으시다는 말씀입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중한 분으로서, 또 세상 물정에 밝은 분으로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싶군요. 부디 당신이 제게 답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는 짧고 날카롭고 끊어지는 듯한 말투로 말을 내뱉었다. 그 모습은 마치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 매우 고통스러운 일처럼 보였고, 그는 온 힘을 다해 본능적인 충동을 억누르며 의지를 붙들고 있는 듯했다.

"매우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그가 말했다. "낯선 이에게 집안 사정을 털어놓는 건 누구에게나 내키지 않는 법이지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두 남자 앞에서 아내의 행실을 논하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소름 끼치도록 싫군요.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조언이 절실합니다."

"친애하는 그랜트 먼로 씨—" 홈즈가 말을 시작했다.

방문객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뭐라고요!" 그가 외쳤다. "제 이름을 알고 계신 겁니까?"

"신분을 숨기고 싶다면,"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모자 안감에 이름을 적어두는 습관을 버리시거나, 아니면 대화하는 상대방 쪽으로 모자의 챙을 돌려 쓰시길 권합니다. 방금 하려던 말은, 이 방에서 내 친구와 내가 수많은 기묘한 비밀을 들어왔으며, 운 좋게도 고통받는 많은 영혼에게 평화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와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촉박할지도 모르니, 지체하지 말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방문객은 마치 무척 괴로운 듯 다시 한번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그의 몸짓과 표정 하나하나에서 그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자제력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느껴졌다. 자존심도 강해 보였고,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기보다는 차라리 숨기는 쪽을 택할 인물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마치 억눌러왔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리려는 듯 주먹을 꽉 쥐어 보이며 말을 시작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홈즈 씨." 그가 말했다. "저는 결혼한 지 3년 된 유부남입니다. 그동안 아내와 저는 세상 그 어떤 부부보다도 서로를 깊이 사랑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생각이나 말, 행동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다툰 적이 없었지요. 그런데 지난 월요일부터 갑자기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겨버렸습니다. 아내의 삶과 생각 속에 제가 전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치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낯선 여인을 대하듯 아내를 모르는 사람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멀어졌고, 저는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홈즈 씨,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꼭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에피는 저를 사랑합니다. 이 점만큼은 절대 오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녀는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저를 사랑하고 있으며, 지금 그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이 문제로 논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는 남자라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법이니까요. 하

지만 우리 사이에 이 비밀이 남아 있는 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는 예전처럼 지낼 수 없을 겁니다."

"먼로 씨, 제발 사실대로만 말씀해 주십시오." 홈즈가 다소 초조한 기색으로 말했다.

"에피의 과거에 대해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녀는 미망인이었지만, 스물다섯 살로 아주 젊었지요. 당시 이름은 헤브론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었을 때 미국으로 건너가 애틀랜타라는 도시에 살았는데, 그곳에서 유능한 변호사였던 헤브론과 결혼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아이가 하나 있었지요. 하지만 그 지역에 황열병이 심하게 돌면서 남편과 아이가 모두 그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제가 직접 사망 진단서도 확인했습니다. 이 일로 그녀는 미국에 진저리가 났고, 미들섹스의 피너에 있는 미혼 고모 댁으로 돌아와 살게 되었습니다. 덧붙이자면, 남편이 그녀에게 충분한 재산을 남겨준 덕분에 그녀는 약 4,500파운드의 자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투자를 아주 잘해둔 덕분에 평균 7퍼센트의 수익이 나오고 있었지요. 제가 그녀를 만났을 때는 피너에 온 지 겨우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에 빠졌고, 몇 주 뒤에 결혼했습니다."

"저도 홉 상인입니다. 연 수입이 700~800파운드 정도 되었으니 형편은 넉넉했지요. 그래서 노버리에 연세 80파운드짜리 근사한 빌라를 빌려 살았습니다. 우리 집은 도심과 아주 가까운 곳임에도 무척 전원적인 분위기였지요. 집 위쪽으로는 여관 하나와 집 두 채가 있었고, 맞은편 들판 너머에는 작은 오두막 한 채가 있었습니다. 그 집들을 제외하

면 역까지 가는 길 중간쯤까지는 다른 집이 전혀 없었거든요. 사업 때문에 특정 시기에는 도심으로 나가야 했지만, 여름에는 일이 적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와 저는 전원생활을 만끽하며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정말이지, 이 저주스러운 사건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부부 사이에 불화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저희가 결혼할 때, 아내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넘겨주었습니다. 제 사업이 잘못될 경우 상황이 곤란해질 게 뻔했기에 사실 저는 원치 않는 결정이었지요. 하지만 아내가 완강히 고집한 일이었고, 결국 그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약 6주 전쯤, 아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잭," 그녀가 말했다. "내 돈을 가져갔을 때 당신은 말했잖아요. 만약 내가 돈이 필요해지면 언제든 당신에게 달라고 말하라고요."

"물론입니다." 내가 말했다. "그건 전부 당신 것인걸요."

"글쎄요," 그녀가 말했다. "백 파운드가 필요해요."

나는 이 말을 듣고 조금 당혹스러웠다. 그녀가 그저 새 옷이나 그와 비슷한 무언가를 원하는 줄로만 알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어머나." 그녀가 특유의 장난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당신은 그저 내 은행가일 뿐이라고 했잖아요. 은행가는 원래 질문 같은 건 하지 않는 법이라고요."

"진심이라면 당연히 돈을 드려야지요." 내가 말했다.

"아, 네, 정말이에요. 진심이라니까요."

"그걸 어디에 쓰실 건지는 말씀 안 해 주실 건가요?"

"언젠가는 그럴지도 모르지, 잭. 하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야."

그리하여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리 사이에 처음으로 비밀이 생긴 셈이었지만 말이다. 나는 그녀에게 수표를 건네주었고, 그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이 일이 나중에 일어난 사건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지도 모르나, 그래도 언급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집과 그 집 사이에는 들판이 하나 펼쳐져 있지만, 가려면 도로를 따라가다가 골목길로 꺾어 들어가야 합니다. 오두막 바로 너머에는 스코틀랜드 전나무가 모여 있는 작은 숲이 있는데, 저는 그곳을 산책하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나무들이 늘 곁에 있어주는 이웃처럼 느껴졌거든요. 그 오두막은 벌써 여덟 달째 비어 있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구식 현관이 달린 예쁜 2층 건물인 데다 집 주변에는 인동덩굴까지 어우러져 아주 근사하거든요. 저는 그 집 앞에 서서,

저곳이 얼마나 아늑하고 정갈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지 몇 번이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글쎄요, 지난 월요일 저녁에 그쪽 길을 따라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길을 따라 올라오는 빈 마차 한 대를 마주쳤는데, 현관 옆 잔디밭에 카펫 같은 물건들이 쌓여 있는 게 보이더군요. 그 오두막에 드디어 세입자가 들어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 집 앞을 지나가며,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어떤 사람들이 이사를 왔을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 위층 창문 중 하나에서 누군가의 얼굴이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문득 깨달았습니다."

"홈즈 씨, 그 얼굴에 무엇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이목구비를 자세히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분명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기괴하고 비인간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인상을 받은 저는 나를 지켜보는 자가 누구인지 더 가까이서 확인하려고 서둘러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얼굴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마치 어둠 속으로 홱 낚아채 간 것처럼 너무나 순식간이었지요.

저는 한 5분 동안 그 일을 되짚어 보며 제가 느낀 인상을 분석하려 애썼습니다. 그 얼굴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가장 강렬하게 남은 것은 그 얼굴의 색깔이었습니다. 생기 없는 창백한 백색이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딱딱하고 굳어 있어서 소름 끼칠 정도로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당혹스러운 나머지, 저는 그 오두막에 새로 들어온 거주자들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다가가 노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거칠고 험상궂은 얼굴을 한, 키가 크고 수척한 여성이 즉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뭐가 필요해서 오셨는지요?" 그녀가 북부 사투리로 물었다.

"저기 보이는 집이 제 집입니다." 나는 내 집 쪽으로 고개를 까딱하며 말했다. "이제 막 이사 오신 것 같더군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릴 일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라고..."

"그래, 필요할 때나 부를 테니 기다려!"

여자는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내 면전에서 문을 쾅 닫아버렸다. 무례한 거절에 기분이 상한 나는 뒤돌아 집으로 향했다. 저녁 내내 다른 생각을 해보려 애썼지만, 창가에 나타난 그 유령 같은 형상과 여자의 무례함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아내에게 창가에서 본 일은 차마 말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내는 신경이 예민하고 겁이 많은 편이라, 내가 느낀 그 불쾌한 인상을 아내까지 함께 나누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잠들기 전, 그 오두막에 이제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는 말 정도만 건넸으나 아내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저는 보통 잠귀가 아주 어두운 편입니다. 밤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깨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게 우리 집안의 오래된 농담거리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은 어찌 된 일인지 평소보다 잠이 훨씬 얕았습니다. 그게 얼마 전 겪은 작은 모험 때문에 조금 흥분한 탓인

지는 모르겠습니다. 꿈결 속에서도 방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옷을 다 입고 망토와 모자를 챙겨 쓰는 모습이 점차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이 이른 시간에 대체 뭐 하는 거냐고, 잠결에 놀라움이나 만류의 말을 중얼거리려 입술을 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반쯤 뜬 눈에 촛불을 받은 아내의 얼굴이 들어왔고, 저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아내는 생전 처음 보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내라면 결코 지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죽은 듯이 창백한 얼굴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망토를 여미면서도 혹시 제가 깼을까 싶어 슬쩍 침대를 살피며 눈치를 보더군요. 그러더니 제가 여전히 잠든 줄 알고는 소리 없이 방을 빠져나갔습니다. 곧이어 현관문 경첩에서만 날 법한 날카로운 삐걱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정말로 깨어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 침대에 일어나 앉아 침대 난간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베개 밑에서 시계를 꺼냈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도대체 아내가 새벽 3시에 시골길을 나가서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나는 그 일을 머릿속으로 되짚으며 가능한 설명을 찾아보려 애썼다. 그렇게 20분쯤 앉아 있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은 더욱 기이하고 설명하기 어려워 보였다. 여전히 그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을 때, 문이 다시 부드럽게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녀가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도 함께 들려왔다.

"에피, 대체 어디를 그렇게 돌아다닌 거야?" 그녀가 들어서자 내가 물었다.

내가 말을 걸자 아내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숨이 넘어갈 듯한 비명을 질렀다. 그 비명과 놀란 기색은 다른 무엇보다도 나를 괴롭혔다. 거기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죄책감이 서려 있었기 때문이다. 내 아내는 언제나 솔직하고 숨김없는 성격의 여성이었다. 그런데 그런 아내가 자기 방으로 슬금슬금 숨어 들어가고, 남편인 내가 말을 걸 때마다 비명을 지르며 움찔거리는 모습을 보니 등골이 서늘해졌다.

"잭, 일어났구나!" 그녀가 초조한 듯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세상에, 난 네가 도무지 깨어나지 않을 줄 알았어."

"어디 있었나?" 내가 좀 더 엄하게 물었다.

"놀라시는 것도 당연해요." 그녀가 말했다. 망토의 단추를 푸는 그녀의 손가락이 가늘게 떨리는 것이 내 눈에 들어왔다. "살면서 이런 일을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사실 숨이 막힐 것만 같았어요.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죠. 밖으로 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기절했을지도 몰라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더니, 이제야 겨우 정신이 좀 드네요."

그녀는 내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내내 단 한 번도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목소리 또한 평소와는 확연히 달랐다. 그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명백히 느껴졌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 수천 가지의 독한 의심과 의혹을 품은 채 괴로워하며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내는 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일까? 그 기묘한 여정 동안 그녀는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결코 마음 편히 잠들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그녀가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버린 이상, 다시금 사실을 캐묻는 일은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밤새도록 나는 뒤척이며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머릿속으로는 온갖 가설을 세워보았으나, 그럴듯한 생각은 하나도 없었다.

"그날은 시내로 출근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너무 어지러워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었지요. 아내 역시 저만큼이나 상심한 기색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를 힐끗거리며 살피는 눈빛을 보니, 제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을 눈치챈 모양이더군요. 아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침 식사를 하는 동안 거의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저는 곧장 산책을 나섰습니다. 상쾌한 아침 공기를 마시며 이 문제를 차분히 정리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털 팰리스까지 갔다가 정원에서 한 시간 정도 시간을 보낸 뒤, 1시쯤 노버리에 돌아왔습니다. 마침 가는 길에 그 오두막을 지나게 되어, 잠시 멈춰 서서 창밖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 저를 빤히 바라보던 그 낯선 얼굴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홈즈 씨, 제가 거기 서 있는 동안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제 아내가 걸어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를 본 순간 나는 너무 놀라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하지만 눈이 마주친 순간 그녀의 얼굴에 드러난 감정은 내가 느낀 경악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였다. 그녀는 찰나의 순간, 다시 집 안으로 숨어버리고 싶어 하는 듯 보였다. 그러다 숨는 것이 아무런 소용 없음을 깨달았

는지 그녀는 앞으로 걸어 나왔다. 입가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창백하게 질린 얼굴과 겁에 질린 눈동자까지는 감추지 못했다.

"아, 잭." 그녀가 말했다. "새로 이사 온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을까 해서 방금 다녀오는 길이야. 왜 그렇게 쳐다봐, 잭? 혹시 나한테 화난 거야?"

"그러니까, 밤새 당신이 간 곳이 바로 여기라는 말이군요." 내가 말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녀가 외쳤다.

"당신은 분명 이곳에 왔었어. 확신하네. 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이 늦은 시간에 방문을 한 건가?"

"여긴 처음 와 봅니다."

"어떻게 거짓인 줄 뻔히 알면서 내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내가 외쳤다. "말할 때마다 목소리부터 변하고 있지 않소. 내가 당신에게 비밀을 숨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단 말이오? 나는 반드시 그 오두막에 들어갈 것이고,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헤칠 것이오."

"안 돼, 안 돼, 잭! 제발, 제발!"

그녀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내가 문으로 다가가자, 그녀는 내 소매를 움켜쥐더니 경련하듯 강한 힘으로 나를 뒤로 끌어당겼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잭." 그녀가 울부짖었다. "언젠가 반드시 모든 것을 다 말하겠다고 맹세할게요. 하지만 당신이 그 오두막에 발을 들이는 순간, 비극만이 찾아올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그녀를 떼어내려 애쓰는데도, 그녀는 간절히 매달리며 광기 어린 모습으로 나를 붙들었다.

"잭, 나를 믿어!" 그녀가 외쳤다. "딱 이번 한 번만이라도 나를 믿어줘.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야.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면 내가 당신에게 비밀을 만들 리 없다는 건 당신도 잘 알잖아. 지금 우리 인생 전체가 걸린 문제야. 나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잘 풀릴 거야.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억지로 그 오두막에 들이닥친다면, 우리 사이는 그걸로 끝이야."

그녀의 태도에는 절박함과 절망이 가득했다. 그 모습에 압도된 나는 차마 말을 떼지 못한 채, 문 앞에 망설이며 서 있었다.

"딱 한 가지 조건만 있다면 당신을 믿겠소." 마침내 내가 말했다. "그 조건은 이 미스터리가 이제부터는 끝이 나야 한다는 것이오. 당신의 비밀을 지키는 건 상관없지만, 앞으로는 밤마다 몰래 나가는 일도, 나에게 숨기는 행동을 하는 일도 없겠다고 약속해야 하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한다면, 지나간 일들은 기꺼이 잊어주겠소."

"저를 믿어주실 줄 알았어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크게 내쉬며 외쳤다. "원하시는 대로 해 드릴게요. 어서요, 어서 집으로 올라가요."

그녀는 내 소매를 계속 잡아끌며 오두막에서 나를 데리고 멀어졌다. 걸음을 옮기며 뒤를 돌아보자, 위층 창문 너머로 그 황색의 창백한 얼굴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저 괴물 같은 존재와 내 아내 사이에 대체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는 말인가? 아니, 전날 보았던 그 거칠고 투박한 여자가 어떻게 내 아내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참으로 기이한 수수께끼였다. 하지만 이 문제를 풀기 전까지는 내 마음이 결코 평온을 되찾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나는 직감했다.

그 후 이틀 동안 나는 집에 머물렀다. 아내 역시 우리 사이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는 듯 보였다. 내가 알기로 그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나는 그녀의 엄숙한 약속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남편과 의무를 저버리게 만드는 그 은밀한 유혹이 그녀를 붙잡아둘 수 없을 만큼 강력했음을 증명하는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그날 저는 시내에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평소 타던 3시 36분 기차 대신 2시 40분 기차를 타고 돌아왔지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하녀가 깜짝 놀란 얼굴로 홀까지 달려 나왔습니다."

"당신의 여주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산책하러 나간 것 같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순식간에 의구심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나는 그녀가 집에 없는지 확인하려 곧장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다. 그러다 우연히 위층 창문 중 하나로 밖을 내다보았는데, 방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던 하녀가 들판을

가로질러 오두막 쪽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보였다. 그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즉각 깨달았다. 아내가 그곳으로 갔고, 내가 돌아오면 자신을 불러달라고 하녀에게 부탁했던 것이다.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나는 이 일을 단번에 끝내버리겠다는 결심을 품고 아래층으로 달려 내려가 오두막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길을 따라 아내와 하녀가 서둘러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지만, 그들에게 말을 걸기 위해 멈추지는 않았다. 내 삶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비밀이 바로 저 오두막 안에 있었다. 어떤 일이 벌어지든 더 이상 비밀로 남겨두지 않겠다고 나는 맹세했다. 오두막에 도착했을 때 나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손잡이를 돌려 복도로 거칠게 뛰어 들어갔다.

1층은 온통 고요하고 정적만이 감돌았다. 주방에서는 화로 위 주전자가 끓는 소리를 내고 있었고, 커다란 검은 고양이 한 마리가 바구니 속에서 몸을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하지만 이전에 보았던 그 여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는 옆방으로 달려 들어갔으나 그곳 역시 텅 비어 있었다. 곧장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꼭대기 층에 있는 다른 두 방마저 아무도 없이 비어 있을 뿐이었다. 집 안 전체에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

가구와 그림들은 아주 평범하고 저속한 것들이었다. 다만 내가 기이한 얼굴을 보았던 창가 방만은 예외였다. 그 방은 안락하고 우아했다. 그런데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내 의구심은 격렬하고도 쓰라린 분노로 타올랐다. 그것은 불과 석 달 전, 내가 요청해서 찍었던 아내의 전신사진 복사본이었다.

"집 안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확인하고 나서야 자리를 떴습니다. 집을 나서는데, 생전 처음 느껴보는 마음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현관까지 마중을 나왔지만, 당시 저는 너무나 상처를 입고 화가 난 상태라 아내에게 말 한마디 건넬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밀치듯 지나쳐 서재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문을 닫기도 전에 아내가 제 뒤를 따라 들어왔습니다."

"약속을 어겨서 정말 미안해, 잭."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네가 모든 사정을 알게 된다면, 분명 나를 용서해 줄 거야."

"그럼 전부 다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말했다.

"못해, 잭. 난 도저히 못 하겠어!" 그녀가 울부짖었다.

"'그 오두막에 누가 살고 있었는지, 그리고 당신이 그 사진을 누구에게 주었는지 말해주기 전까지는 우리 사이에 신뢰란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는 그녀를 뿌리치듯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홈즈 씨, 그게 바로 어제 일입니다. 그 후로 그녀를 보지 못했고, 이 기묘한 사건에 대해서도 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우리 사이에 드리운 첫 번째 그림자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일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오늘 아침 문득 당신이야말로 내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둘러 찾아왔으니, 이제 모든 것을 당신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혹시 제가 명확히 설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봐 주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빨리 알려주십시오. 이 고통을 더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홈즈와 나는 이 기이한 진술을 지극히 흥미롭게 경청했다. 의뢰인은 극도로 격앙된 감정에 휩싸인 사람처럼 말을 툭툭 끊으며 불안하게 내뱉었다. 내 동료는 한동안 턱을 괸 채 생각에 잠겨 침묵을 지켰다.

"말해 보게."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창가에서 본 것이 분명히 사람의 얼굴이었다고 맹세할 수 있겠나?"

"그것을 볼 때마다 저는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단언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일로 인해 꽤나 불쾌한 인상을 받은 모양이군요."

"안색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창백했고, 이목구비도 기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그것은 홱 하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부인이 백 파운드를 달라고 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거의 두 달 되었습니다."

"그녀의 전남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애틀랜타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서류들도 전부 소실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사망 진단서가 있었지 않습니까. 당신이 직접 봤다고 했고요."

"맞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뒤에 그녀가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그녀를 아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그녀가 그곳을 다시 방문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오."

"아니면 거기서 편지가 오기도 합니까?"

"아니오."

"고맙습니다. 이제 이 문제를 잠시 검토해 봐야겠군요. 만약 그 오두막이 완전히 비어 있는 상태라면 일이 좀 까다로워질 겁니다. 하지만 제 짐작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아마 거주자들이 당신이 올 거라는 경고를 듣고, 어제 당신이 도착하기 전에 미리 떠났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쯤 다시 돌아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제 조언을 따르십시오. 노버리로 다시 돌아가서 오두막의 창문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만약 그곳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억지로 안으로 들어가지는 마십시오. 대신 제 친구와 저에게

전보를 보내주십시오. 전보를 받는 즉시 한 시간 내로 당신에게 달려가겠습니다. 그러면 곧 사건의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여전히 비어 있다면요?"

"그렇다면 내일 찾아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누도록 하죠. 그럼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말로 걱정할 만한 이유가 생기기 전까지는 미리 마음 졸이지 마십시오."

"아무래도 이번 건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네, 왓슨."

그랜트 먼로 씨를 문 앞까지 배웅하고 돌아온 동료가 말했다.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소리가 아주 불쾌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맞습니다. 분명 협박이 얽혀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제가 크게 잘못 본 것이겠지요."

"그래서, 그 협박범이 누구입니까?"

"글쎄, 그곳에서 유일하게 안락한 방을 차지하고 살면서, 벽난로 위에 그 부인의 사진을 걸어둔 자임이 틀림없네. 세상에, 왓슨. 창가에 비친 그 창백한 얼굴은 정말이지 묘한 매력이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건만은 놓치고 싶지 않았네."

"가설이라도 세운 건가요?"

"맞아요, 임시적인 결론일 뿐이죠. 하지만 이 가설이 틀리지 않는다면 오히려 놀랄 겁니다. 그 여자의 첫 번째 남편은 분명 저 오두막에 있어요."

"어째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두 번째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그녀가 그토록 광적으로 불안해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제가 파악한 사실관계는 대략 이렇습니다. 이 여인은 미국에서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주 혐오스러운 성격으로 변했거나, 아니면 어떤 역겨운 병에 걸려 나병 환자나 정신병자가 되었다고 봐야겠지요. 결국 그녀는 남편을 피해 영국으로 돌아왔고, 이름을 바꾼 뒤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지났고, 자신이 가로챈 이름의 주인인 어떤 남자의 사망 진단서를 남편에게 보여주었기에 자신의 지위가 아주 안전하다고 믿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첫 번째 남편이 그녀의 소재를 알아내고 맙니다. 아니면 그 병든 남편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파렴치한 여자가 알아냈다고 가정해도 좋겠군요. 그들은 아내에게 편지를 보내 정체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녀는 그들을 매수하려고 백 파운드를 요구하며 애를 씁니다. 하지만 그들은 협박을 무시하고 찾아오고 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별 뜻 없이 '오두막에 새로 온 사람들이 있다'고 말했을 때,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자신을 쫓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녀는 남편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들을 찾아가 제발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설득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패하자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아가고, 우리가 들은 대로 남편은 밖으로 나오는 그녀와 마주칩니다. 그녀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겠다고 남편

에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틀 뒤, 그 끔찍한 이웃들을 떼어내고 싶다는 열망을 참지 못한 그녀는 다시 한번 시도합니다. 아마도 그들이 요구했을 법한 사진 한 장을 챙겨서 말입니다. 대화가 한창 진행되던 중, 하녀가 급히 뛰어 들어와 주인님이 귀가했다고 알립니다. 남편이 곧장 오두막으로 내려올 것을 안 아내는, 아마도 근처에 있다고 언급된 전나무 숲 쪽 뒷문으로 그들을 서둘러 내보냅니다. 결국 남편이 도착했을 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저녁 남편이 다시 그곳을 살펴보았을 때도 상황이 이렇다면 저는 무척 놀랄 것 같습니다. 제 이론이 어떻습니까?"

"전부 추측일 뿐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방법으로 모든 사실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노버리에 있는 친구에게서 소식이 오기 전까지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은 그리 길지 않았다. 막 차를 다 마셔갈 때쯤 소식이 도착했다.

"오두막에는 여전히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전보 내용은 이러했다. "창가에서 그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7시 기차를 마중 나가겠으며, 두 분이 도착하실 때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역 밖으로 발을 내디뎠을 때 그는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역의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모습은 몹시 창백했으며, 심한 동요로 인해 몸을 떨고 있었다.

"그들이 아직 거기 있습니다, 홈즈 씨." 그가 내 친구의 소매를 꽉 움켜쥐며 말했다. "내려오는 길에 오두막에서 불빛이 켜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가서 이번 일을 완전히 끝내버립시다."

"그럼, 계획이 무엇인가?"

어두운 가로수길을 따라 걸어가며 홈즈가 물었다.

"집 안에 누가 있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안으로 밀고 들어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두 분도 증인으로서 반드시 동행해 주십시오."

"부인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그 미스터리를 풀지 않는 편이 낫다고 부인이 그렇게까지 말했는데도, 당신은 정말로 이 일을 끝까지 해내겠다고 결심한 겁니까?"

"네, 결심했습니다."

"글쎄요, 제 생각에도 당신 말이 맞습니다. 막연한 의구심 속에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진실을 마주하는 편이 낫겠지요. 당장 올라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따지자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는 셈이지만, 그래도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매우 어두웠다. 큰길에서 양옆으로 울타리가 처진 좁고 깊게 파인 길로 접어들자 가느다란 빗줄기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랜트 먼로 씨는 초조한 듯 앞서 나갔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 최대한 발을 맞추며 비틀비틀 걸음을 옮겼다.

"저기 나무 사이로 반짝이는 게 우리 집 불빛이군요." 그는 나무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빛을 가리키며 나직이 중얼거렸다. "그리고 저기 제가 들어갈 오두막이 보입니다."

그가 말을 마칠 무렵 우리는 골목 모퉁이를 돌았고, 바로 옆에 건물이 나타났다. 검은 건물 정면을 가로지르는 노란 빛줄기를 보니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모양이었다. 위층 창문 하나에서는 밝은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우리가 그곳을 지켜보던 중, 창문의 블라인드 너머로 검은 형체가 움직이는 것이 보였다.

"저 괴물이 나타났다!" 그랜트 먼로가 외쳤다. "누군가 저기에 있다는 건 여러분도 직접 보셨을 겁니다. 자, 나를 따라오십시오. 곧 모든 진상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는 문으로 다가갔다. 그때 갑자기 어둠 속에서 한 여인이 나타나더니, 가로등 불빛이 길게 드리워진 길 위로 걸어 나왔다. 어둠 탓에 얼굴까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간절히 애원하는 듯한 몸짓으로 두 팔을 벌리고 있었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녀가 울부짖었다. "당신이 오늘 저녁에 찾아올 것만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제발 다시 한번만 생각해요,

여보! 나를 다시 한번만 믿어줘요. 그러면 절대 후회할 일은 없을 거예요."

"에피, 내가 자네를 너무 오래 믿었군!" 그가 엄하게 소리쳤다. "이거 놓게! 비켜줘야겠어. 친구들과 함께 이 일을 완전히, 영원히 매듭지으러 가는 길이니까!" 그는 에피를 옆으로 밀쳐냈고, 우리는 그 뒤를 바짝 따랐다. 그가 문을 벌컥 열자, 한 노파가 앞을 가로막으며 길을 막으려 달려 나왔다. 하지만 그는 노파를 밀쳐냈고, 곧이어 우리는 모두 계단 위로 올라섰다. 그랜트 먼로가 꼭대기 층의 불 켜진 방 안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고, 우리도 그 뒤를 이어 안으로 들어갔다.

아늑하고 가구도 잘 갖춰진 아파트였다. 탁자 위에는 양초 두 개가, 벽난로 선반 위에도 양초 두 개가 타오르고 있었다. 구석진 곳에서는 한 어린 소녀가 책상 위로 몸을 굽힌 채 앉아 있었다. 우리가 들어설 때 소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붉은 드레스를 입고 긴 흰 장갑을 끼고 있다는 것쯤은 알아볼 수 있었다.

소녀가 우리를 향해 휙 몸을 돌리는 순간, 나는 놀라움과 공포가 뒤섞인 비명을 내뱉고 말았다. 우리를 향한 소녀의 얼굴은 기이할 정도로 창백한 빛을 띠고 있었고, 이목구비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다. 하지만 의문은 금세 풀렸다. 홈즈가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의 귀 뒤로 손을 가져가더니, 얼굴에 붙어 있던 가면을 벗겨냈다. 그 안에는 작은 흑인 소녀가 나타났다. 아이는 우리의 경악한 얼굴을 보며 하얀 치아를 드러내고 즐겁다는 듯 웃고 있었다.

나는 아이의 즐거움에 동화되어 웃음을 터뜨렸지만, 그랜트 먼로는 목을 움켜쥔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세상에!" 그가 외쳤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란 말인가?"

"그게 무슨 뜻인지 말해주겠어요!"

여인이 외치며 방 안으로 성큼 들어왔다. 그녀의 얼굴은 자존심으로 가득 차 굳게 닫혀 있었다.

"당신이 내 판단을 거스르고 억지로 말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우리 둘 다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만 해요. 내 남편은 애틀랜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내 아이는 살아남았고요."

"당신의 자녀라고요?"

그녀는 가슴팍에서 커다란 은제 로켓을 꺼내 들었다. "이걸 열어본 적은 한 번도 없으시겠지요."

"그게 열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스프링을 누르자 앞면이 경첩을 따라 뒤로 넘어갔다. 그 안에는 초상화가 하나 걸려 있었다. 초상화 속 남자는 눈에 띄게 잘생기고 지적인 인상이었으나, 이목구비에는 그가 아프리카 혈통임을 숨길 수 없는 흔적이 역력했다.

"저분은 애틀랜타 출신의 존 헤브론이에요." 여인이 말했다. "세상에 저분보다 더 고결한 사람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와 결혼하려고

제 가문과 인연을 끊기까지 했지만, 그가 살아있는 동안 단 한 순간도 후회한 적이 없답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외동딸이 제 쪽보다는 남편의 혈통을 더 많이 닮았어요. 그런 혼처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지요. 어린 루시는 제 아버지였던 그이보다도 피부가 훨씬 더 검답니다. 하지만 피부색이 어떻든 아이는 제 소중한 딸이자, 엄마의 보물이에요."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작은 아이가 달려와 여인의 드레스에 몸을 비볐다.

"미국에 아이를 두고 올 때는, 아이의 건강이 약해서 환경이 바뀌면 해로울까 봐 걱정됐기 때문이었어요." 여인이 말을 이었다.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했던 충직한 스코틀랜드 여인에게 아이를 맡겼지요. 아이를 내 자식이라고 부정할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잭, 당신을 만나 사랑하게 되면서 아이에 대해 말하기가 두려워졌어요. 신이시여, 저를 용서하세요. 당신을 잃을까 봐 겁이 나서 차마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당신과 아이 사이에서 선택을 해야만 했고, 저는 나약하게도 제 어린 딸을 외면하고 말았어요.

지난 3년 동안 당신에게 아이의 존재를 비밀로 해왔지만, 유모를 통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은 계속 듣고 있었어요. 하지만 마침내 아이를 다시 보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어요. 참아보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지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단 몇 주라도 좋으니 아이를 데려오기로 결심했어요. 유모에게 100파운드를 보내면서 이 오두막에 대해서도 일러두었답니다. 제가 아이와 아무런 관

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도록, 유모가 이웃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게 말이에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유모에게 낮 동안에는 아이를 집 안에만 있게 하고, 창밖으로 아이를 보는 사람이 동네에 흑인 아이가 산다고 수군거리지 못하도록 아이의 얼굴과 손을 가리라고까지 명령했지요. 제가 조금만 덜 조심했더라면 오히려 더 현명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알게 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그 오두막에 사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려준 건 바로 당신이었어요. 아침까지 기다렸어야 했는데, 너무 흥분된 나머지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몰래 빠져나왔어요. 당신을 깨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내가 나가는 걸 보았고, 그때부터 제 불행이 시작되었어요. 다음 날 당신은 제 비밀을 손에 쥐고 저를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었지만, 고결하게도 그 기회를 이용하지 않고 참아주었죠. 하지만 사흘 뒤, 당신이 앞문으로 급히 들이닥칠 때 유모와 아이는 겨우 뒷문으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오늘 밤, 당신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이제 묻고 싶어요. 저와 제 아이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녀는 두 손을 맞잡은 채 대답을 기다렸다.

그랜트 먼로가 침묵을 깨기까지 꼬박 10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을 때, 그 대답은 내가 떠올릴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어린아이를 들어 올려 입을 맞추었다. 그러

고는 아이를 안은 채 다른 한 손을 아내에게 내밀며 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집에 가서 더 편하게 이야기하자고." 그가 말했다. "에피, 난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니야. 하지만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네."

홈즈와 나는 그들을 따라 골목길을 내려갔다. 그러다 골목을 빠져나올 무렵, 친구는 내 소매를 잡아끌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말했다. "우리는 노버리보다는 런던에서 더 쓸모가 있을 것 같군."

그는 그날 밤 늦게, 촛불을 든 채 침실로 향하며 몸을 돌리기 전까지는 사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왓슨," 홈즈가 말했다. "혹시라도 내가 내 능력에 너무 자만하고 있다거나, 사건에 마땅히 쏟아야 할 정성을 덜 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내 귀에 '노버리'라고 살짝 속삭여 주게.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주식 중개인의 사무원

IV. 주식 중개인 사무원

결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패딩턴 지역의 진료권을 인수했다. 전임자인 노(老) 파쿼 씨는 한때 아주 훌륭한 일반 진료를 펼치던 의사였다. 하지만 고령인 데다 무도병과 유사한 병증까지 앓게 되면서 환자 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남을 고치려는 자는 스스로도 온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따르기 마련이다. 그러니 정작 본인의 병조차 약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의사를 보면, 그 치유 능력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전임자가 기력을 잃으면서 진료권은 점점 쇠퇴했고, 내가 이를 인수할 무렵에는 연간 수입이 1,200파운드에서 300파운드 남짓으로 떨어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젊음과 활력을 믿었다. 그리 오래지 않아 이 진료권이 예전처럼 다시 번창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진료를 시작한 후 석 달 동안 나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다. 친구인 셜록 홈즈를 만날 기회도 거의 없었다. 내가 베이커가를 방

문할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홈즈 역시 업무 때문이 아니면 좀처럼 외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던 6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브리티시 메디컬 저널》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이어 내 오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처럼 높고 약간은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아, 나의 친애하는 왓슨!"

그가 방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며 말했다.

"자네를 만나니 정말 반갑네! 왓슨 부인께서도 '네 개의 서명' 사건 때 겪었던 그 소동들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셨기를 바라네."

"고맙네, 우리 둘 다 아주 잘 지내고 있다네." 나는 그와 따뜻하게 악수를 나누며 말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네." 그는 흔들의자에 앉으며 말을 이었다. "자네가 예전에 우리와 함께 풀던 그 작은 연역적 문제들에 가졌던 흥미가, 의사 업무의 고단함 때문에 완전히 사라져 버리지는 않았기를 바라네."

"아닙니다." 내가 대답했다. "그저 어젯밤에 예전 기록들을 훑어보며, 우리가 그동안 해결했던 사건들을 정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수집을 여기서 끝내지는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말입니까?"

"네, 원하신다면 오늘이라도 좋습니다."

"버밍엄만큼이나 멀리 말입니까?"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진료는 좀 어떠신가요?"

"이웃이 집을 비울 때면 제가 대신 봐주곤 합니다. 그분은 언제든 그 빚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거든요."

"하!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지."

홈즈가 의자에 몸을 뒤로 기댄 채 말했다. 그는 반쯤 감긴 눈꺼풀 사이로 나를 날카롭게 꿰뚫어 보았다.

"요즘 몸이 안 좋았던 모양이군. 여름 감기는 늘 사람을 좀 지치게 만들지."

"지난주에 지독한 몸살감기에 걸리는 바람에 사흘 동안 집 밖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기 기운이 완전히 가신 줄 알았습니다."

"정말 그렇군요. 아주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여보게, 자네도 내 방식은 잘 알지 않나."

"그럼, 추리해낸 건가?"

"물론입니다."

"대체 무엇을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의 슬리퍼에서 나온 겁니다."

나는 내가 신고 있는 새 에나멜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대체 어떻게 이런—" 내가 말을 채 떼기도 전에, 홈즈가 내 질문에 먼저 답했다.

"슬리퍼가 새것이군요." 홈즈가 말했다. "산 지 몇 주 채 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내게 보여주고 있는 슬리퍼 밑창이 약간 그을려 있거든요. 처음에는 밑창이 젖었다가 말리는 과정에서 불에 닿은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발등 근처를 보니 점원이 휘갈겨 쓴 듯한 작은 원형 종이 스티커가 붙어 있더군요. 만약 물에 젖었다면 당연히 떨어져 나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불을 향해 발을 쭉 뻗은 채 앉아 있었던 거군요. 아무리 6월이라 해도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날씨에, 몸이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홈즈의 모든 추리가 그러하듯, 일단 설명을 듣고 나니 그 일은 너무나도 명쾌하고 당연해 보였다. 그는 내 얼굴에 떠오른 깨달음을 알아차렸고, 그의 미소에는 씁쓸한 기색이 서려 있었다.

"설명을 하다 보면 제 속을 너무 다 드러내는 것 같아 걱정되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원인도 모른 채 결과만 마주하는 편이 훨씬 더 인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버밍엄으로 올 준비는 되셨겠지요?"

"물론입니다. 사건이 무엇입니까?"

"기차 안에서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의뢰인은 밖에서 사륜마차를 타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당장 가지요."

나는 이웃에게 짧은 쪽지를 남기고, 곧장 위층으로 달려가 아내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고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와 문 앞 계단에 서 있는 홈즈의 곁으로 갔다.

"이웃분이 의사시군요."

그가 황동 명판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저처럼 그도 병원을 인수했지요."

"오래된 전통이 있는 곳 말입니까?"

"제 것과 똑같습니다. 집들이 지어질 때부터 둘 다 그랬지요."

"아! 그렇다면 두 사람 중 더 나은 사람을 잡으셨군요."

"그랬던 것 같군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계단 쪽을 보게나, 친구. 자네 계단이 저 친구 것보다 3인치나 더 움푹 패어 있지 않은가. 그리고 마차에 타고 계신 이 신사는 내 의뢰인인 홀 파이크로프트 씨라네. 자, 정식으로 소개하지. 마부 양반, 어서 말을 채찍질하게! 기차 시간을 겨우 맞출 정도밖에 여유가 없으니 말이야."

내 앞에 서 있는 남자는 체격이 건장하고 안색이 생기 넘치는 청년이었다. 솔직하고 정직해 보이는 얼굴에는 짧고 깔끔하게 다듬은 노란 콧수염이 나 있었다. 그는 윤기가 흐르는 실크햇을 쓰고 차분한 검은색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그 모습은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그는 소위 '코크니'라고 불리는 부류의, 도시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유능한 청년이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훌륭한 자원병 연대를 제공하며, 이 섬나라의 그 어느 집단보다도 뛰어난 운동선수와 스포츠맨을 배출해내기도 한다. 그의 둥글고 붉은 얼굴에는 본래 생기가 가득했으나, 입꼬리는 마치 우스꽝스러운 곤혹스러움에 처한 듯 아래로 처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왜 셜록 홈즈를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고민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우리가 일등석 객차에 올라타 버밍엄을 향해 순조롭게 출발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우리에게는 70분 정도의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홀 파이크로프트 씨, 당신이 겪은 그 흥미로운 경험을 내 친구에게 들려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대로, 가능하다면 더 상세하게 말이죠. 사건이 일어난 순서를 다시 듣는 것이 제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왓슨, 이 사건은 별것 아닐 수도 있고, 반대로 무언가 중요한 실마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사건은 자네와 내가

모두 좋아하는, 아주 기이하고도 비정상적인 특징들을 갖추고 있네. 자, 파이크로프트 씨, 이제 다시는 말을 끊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젊은 동료는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았다.

"가장 괴로운 건 말입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제가 이토록 어처구니없는 바보처럼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일이 잘 풀릴 수도 있겠지요. 저로서도 다른 방법이 딱히 떠오르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제가 일자리만 잃고 그 대가로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면, 스스로가 얼마나 멍청한 놈이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왓슨 박사님, 제가 이야기를 잘하는 편은 아닙니다만,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드레이퍼스 가든에 있는 콕슨 앤 우드하우스 상사에 근무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도 기억하시겠지만, 아마 베네수엘라 차관 문제로 봄 일찍에 회사가 파산하며 큰 타격을 입었지요. 그곳에서 5년 동안 일했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때 늙은 콕슨 씨가 아주 훌륭한 추천서를 써 주긴 했지만, 결국 저희 사무원 스물일곱 명은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여기저기 알아봤지만, 저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한동안은 정말 앞이 막막했습니다. 콕슨 상사에서 주당 3파운드를 받았기에 70파운드 정도 모아둔 돈이 있었지만, 그 돈도 금방 바닥이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는 광고에 답장을 보낼 우표나 봉투를 살 돈조차 구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사무실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구두는 다 닳아버렸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건 여전히 꿈도 못 꿀 일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롬바드 가에 있는 대형 주식 중개 회사인 모슨 앤 윌리엄스에서 빈자리가 났네. 자네 분야는 아니겠지만, 그곳이 런던에서 손꼽히는 부유한 회사라는 건 분명히 말해둘 수 있겠군. 채용 공고에는 반드시 편지로만 지원하라고 적혀 있었네. 나는 추천서와 지원서를 보냈지만, 합격할 거라는 기대는 전혀 하지 않았지. 그런데 곧바로 답장이 왔더군. 다음 주 월요일에 면접을 보러 오라는 내용이었네. 외모가 합격점에만 든다면 즉시 업무를 시작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지. 이런 일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모를 걸세. 어떤 이들은 관리자가 그냥 서류 더미에 손을 집어넣고 가장 먼저 잡히는 것을 고른다고도 하더군. 어쨌든 이번에는 내 차례가 찾아왔고, 이보다 더 기쁠 수는 없었네. 급여는 일주일에 1파운드씩 올랐고, 업무는 콕슨스에서 하던 것과 거의 비슷하다네."

"이제 이 사건의 기묘한 대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햄프스테드 근처 포터 테라스 17번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임명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뒤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지요. 그때 집주인 아주머니가 명함 한 장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명함에는 '금융 대리인 아서 피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라 그가 저를 무슨 일로 찾아왔는지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를 위층으로 모셔 오라고 말했습니다.

곧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중간 정도의 체구에 검은 머리와 검은 눈, 그리고 검은 수염을 기른 남자였습니다. 코 모양은 유대인 특유의 느낌이 약간 섞여 있었지요. 그는 매우 활기찬 태도를 보였고, 시간의 소중함을 잘 아는 사람처럼 말을 아주 명료하고 날카롭게 했습니다."

"홀 파이크로프트 씨, 맞으시지요?" 그가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나는 의자를 그에게 밀어주며 대답했다.

"'최근에 콕슨 앤 우드하우스 상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까?'"

"예, 선생님."

"그리고 이제는 모슨 상점의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네."

"정말 그렇군요."

"글쎄요," 그가 말했다. "사실 당신의 재정적 능력에 대해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예전에 콕슨의 매니저였던 파커를 기억하시나요? 그는 그 이야기에 대해 아무리 떠들어도 모자라다고 하더군요."

"물론 기쁜 소식이었다. 나는 평소 사무실에서 꽤 유능하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시티의 금융가 사람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이런 식으로 오르내릴 줄은 꿈에도 몰랐다."

"기억력이 좋은 편인가?" 그가 물었다.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나는 겸손하게 대답했다.

"실직한 동안에도 시장 상황을 계속 살피고 있었습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소. 난 매일 아침 증권 거래소 명단을 읽는다네."

"'이제야 제대로 응용할 줄 아는군!' 그가 외쳤다. '그렇게 해야 성공하는 법이지! 내가 자네를 시험해 봐도 괜찮겠나? 어디 보자. 에어셔 주식은 좀 어떤가?'"

"106과 4분의 1, 그리고 105와 8분의 7."

"그럼 뉴질랜드 통합 채권은 어떻습니까?"

"104입니다."

"'그럼 영국식 브로큰 힐즈는요?'"

"7실링에서 7실링 6펜스 사이라네."

"놀랍군!" 그는 두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외쳤다. "내가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과 아주 딱 맞아떨어지는군. 이보게, 자네는 정말이지 모슨네 가게의 점원으로 일하기엔 너무 아까운 인재야!"

"짐작하시겠지만, 그의 갑작스러운 격찬에 나는 꽤 당황했습니다. '핀너 씨,' 내가 말했다. '핀너 씨가 저를 너무 높게 평가하시는 것 같군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그만큼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꽤나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무척 기쁩니다.'"

"에이, 이 사람아. 그런 일에 연연하지 말고 초연해져야지. 자네는 그런 사소한 일에 매달릴 사람이 아니잖나. 자, 내 상황은 어떤지 말해 주지. 자네의 능력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내놓을 수 있는 건 보잘것

없지만, 모슨과 비교하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든. 음, 어디 보자. 자네는 언제 모슨에게 가나?"

"월요일에 말입니다."

"하하! 내 생각엔 당신이 그곳에 전혀 가지 않는다는 쪽에 가벼운 내기를 걸고 싶군요."

"'모슨네 가게에 가지 말라고요?'"

"아닙니다, 선생님. 그날이 되면 선생님은 프랑스 전역의 마을과 도시들에 134개의 지점을 거느린 프랑코-미들랜드 하드웨어 컴퍼니의 사업 총괄 매니저가 되어 계실 겁니다. 브뤼셀과 산레모에 있는 지점 하나씩은 제외하고 말이죠."

"그 말에 나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네.' 내가 말했다."

"아마 아닐 겁니다. 자본금이 전부 개인 투자로 이루어진 데다, 대중에게 공개하기에는 너무나 이득이 큰 사업이라 아주 은밀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제 형인 해리 피너가 이 사업의 주도자인데, 주식 배정이 끝나면 이사회에 합류해 상무 이사직을 맡을 예정입니다. 형은 제가 이쪽 업계에 발을 담그고 있다는 걸 알고는, 실력 있는 인재를 저렴하게 한 명 구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패기 넘치고 추진력 있는 젊은 친구로 말이죠. 파커가 당신 이야기를 꺼내는 바람에 오늘 밤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아주 적은 액수인 500파운드부터 제안할 수밖에 없겠군요."

“연간 500파운드라고!” 내가 소리쳤다.

“처음에는 그 정도뿐이겠지만, 대리인들이 성사시킨 모든 거래에 대해 1퍼센트의 우선 수수료를 받게 될 걸세. 내 말을 믿어도 좋아. 이 수수료가 자네 급여보다 훨씬 더 많아질 테니까.”

“하지만 전 하드웨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에이, 이 사람아. 자네도 숫자에는 밝지 않은가.”

머릿속이 윙윙거려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기도 힘들었다. 그러다 갑자기 의구심이 서늘한 한기처럼 엄습했다.

“솔직히 말씀드려야겠군요.” 내가 말했다. “모슨은 고작 200파운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슨은 확실한 사람이지요. 사실, 제가 귀하의 회사에 대해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

"아, 영리하군, 정말 영리해!" 그가 마치 황홀경에 빠진 듯 외쳤다. "자네야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야. 쉽게 남의 말에 넘어가지 않는군. 그것도 아주 옳은 태도고. 자, 여기 100파운드짜리 지폐가 있네. 우리와 함께 일할 생각이 있다면, 급여를 미리 받는 셈 치고 그냥 주머니에 챙겨두게나."

“정말 근사하군요.” 내가 말했다. “새로운 임무는 언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내일 한 시까지 버밍엄에 가 있게나." 그가 말했다. "여기 주머니에 내 형에게 전할 메모가 있으니 자네가 가져가게. 회사의 임시 사무실이 있는 코퍼레이션 가 126B번지로 가면 형을 만날 수 있을 걸세. 물론 형이 자네의 채용을 확정해야 하겠지만,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아무 문제 없을 거야."

"피너 씨, 정말이지 어떻게 감사를 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천만에, 이 사람아. 자네는 마땅히 받아야 할 보상을 받는 것뿐이라네. 다만 자네와 정리해야 할 사소한 절차들이 한두 가지 있네. 그저 형식적인 일들이니 너무 신경 쓰지 말게나. 자네 옆에 종이가 한 장 있군. 거기에 이렇게 적어주게. '본인은 프랑코 미들랜드 하드웨어 컴퍼니 주식회사의 사업 관리인직을 맡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며, 최소 연봉은 500파운드로 한다.'"

"그가 시키는 대로 했고, 그는 그 종이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한 가지 세부 사항이 더 있네." 그가 말했다. "모슨 회사 일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인가?"

기쁨에 겨워 모슨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편지를 써서 사직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당신이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요. 당신 문제로 모슨네 매니저와 한바탕 다투기까지 했단 말이오. 내가 당신에 대해 물으러 갔더니, 그자가 아주 무례하게 구는 게 아니겠소? 내가 당신을 꼬

드겨서 그 회사를 그만두게 하려 한다느니, 뭐 그런 식으로 나를 몰아세우더군. 결국 나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말았소. '유능한 인재를 원한다면 그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할 거요.'라고 말해버렸지."

"그는 당신의 비싼 값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싼 값을 택할 겁니다." 그가 말했다.

"내기할까? 5파운드 걸지." 내가 말했다. "그가 내 제안을 듣고 나면, 다시는 그에게서 소식조차 듣지 못하게 될 거야."

"좋소!" 그가 말했다. "우리가 밑바닥에서 그를 건져 올렸으니, 그렇게 쉽게 우리를 떠나지는 못할 거요." 그가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이었다.

"'무례한 악당 같으니!' 내가 외쳤다. '살면서 그자를 본 적조차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그자를 신경 써야 하죠? 만약 당신이 원치 않는다면, 절대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좋습니다! 약속한 겁니다."

그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내 형제를 위해 이토록 훌륭한 분을 모시게 되어 정말 기쁘군요. 여기 선금으로 100파운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편지도 받으십시오. 주소는 코퍼레이션 가 126B입니다. 잘 적어 두시고, 내일 오후 1시 정각에 맞춰 오셔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당신의 노력만큼 큰 행운이 따르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억하는 한, 우리 사이에 오간 대화는 그게 전부였네. 왓슨 박사,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행운을 마주하고 얼마나 기뻤을지 자네도 상상이 가겠지? 그 기쁨에 겨워 밤새 잠도 못 자고 혼자 싱글벙글했으니까 말이야. 다음 날에는 약속 시간에 늦지 않도록 버밍엄행 기차에 몸을 실었네. 뉴 스트리트 근처 호텔에 짐을 풀고는, 곧장 안내받은 주소지로 향했지."

약속 시간보다 15분 정도 일찍 도착했지만, 별 상관은 없을 거라 생각했다. 126B번지는 커다란 상점 두 곳 사이에 난 통로였다. 그 통로를 따라가면 구불구불한 돌계단이 나왔는데, 그 계단 위로는 회사나 전문직 종사자들이 사무실로 임대해 쓰는 아파트들이 줄지어 있었다. 벽 하단에는 입주자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프랑코-미들랜드 하드웨어 컴퍼니(Franco-Midland Hardware Company, Limited)'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이 모든 게 정교하게 짜인 속임수는 아닐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몇 분 동안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나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전날 밤 보았던 그 사내와 매우 닮아 있었다. 체격도 목소리도 똑같았지만, 수염을 깨끗이 밀었고 머리카락 색은 좀 더 밝았다.

"홀 파이크로프트 씨입니까?" 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오,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보다 조금 일찍 오셨군요. 오늘 아침 형님에게서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당신에 대한 칭찬을 아주 아낌없이 늘어놓으시더군요.”

“마침 사무실을 찾던 참이었는데, 그때 당신이 나타났군요.”

“아직 간판을 걸지는 못했습니다. 임시 사무실을 지난주에야 겨우 구했거든요. 우선 저와 함께 올라가시죠. 거기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시다.”

나는 그를 따라 아주 높은 계단을 올라갔다. 지붕 기와 바로 아래에는 작고 텅 빈 방 두 개가 있었다. 카펫도 커튼도 없는 먼지투성이 방이었다. 그가 나를 안내한 곳은 바로 그곳이었다. 나는 평소 보아왔던 것처럼 번쩍이는 책상과 서기들이 줄지어 앉아 있는 거대한 사무실을 상상했었다. 그래서인지, 가구라고는 회계 장부와 쓰레기통이 놓인 작은 탁자 하나와 나무 의자 두 개뿐인 그 광경을 보고 나는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말았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파이크로프트 씨." 내 안색이 어두워지는 것을 본 새로운 지인이 말했다.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사무실이 그리 번듯하지 못하지만, 우리 뒤에는 든든한 자금력이 뒷받침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우선 앉으시지요. 그 편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그것을 건네주자, 그는 아주 주의 깊게 읽어 내려갔다.”

"내 동생 아서에게 당신이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모양이군요." 그가 말했다. "아서는 꽤나 예리한 판단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압니다. 그는 런던을 신뢰하고, 나는 버밍엄을 신뢰하지만, 이번만큼은 동생의 조언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자신이 정식으로 채용된 것으로 여기십시오."

“제 임무는 무엇입니까?” 내가 물었다.

“결국 자네는 파리의 거대한 창고를 관리하게 될 걸세. 그곳에서 쏟아져 나오는 엄청난 양의 영국산 도자기들이 프랑스 전역에 퍼져 있는 134개 대리점의 상점들을 가득 채우게 되겠지. 구매 절차는 일주일 안에 마무리될 것이니, 그동안은 버밍엄에 머물며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게나.”

“어떻게 말인가?”

그는 대답 대신 서랍에서 커다란 빨간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건 파리 주소록이라네." 그가 말했다. "이름 뒤에 직업이 적혀 있지. 자네가 이걸 집에 가져가서 철물점 상인들의 이름과 주소를 전부 표시해 주었으면 하네. 목록을 만들어 준다면 내게 아주 큰 도움이 될 거야."

“분명 분류된 명단 같은 게 있지 않나요?” 내가 제안하듯 물었다.

"믿을 만한 건 없다네. 그들의 방식은 우리와 다르거든. 그러니 끈기 있게 매달려서 월요일 12시까지 명단을 가져오게나. 그럼 이만 가보

게, 파이크로프트 군. 지금처럼 열의와 총명함을 잃지 않는다면, 이 회사가 자네에게 아주 좋은 주인이 되어줄 걸세."

두꺼운 책을 옆구리에 끼고 호텔로 돌아가는 내 마음은 무척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확실히 일거리를 맡았고 주머니에 100파운드나 들어있어 기분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영 개운치 않았다. 사무실의 겉모습이나 벽에 이름표 하나 걸려 있지 않은 점 등, 사업가라면 누구나 눈여겨볼 법한 여러 요소가 고용주들의 실태에 대해 불길한 예감을 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슨 일이 생기든 일단 돈은 받았으니, 나는 마음을 다잡고 작업에 몰두하기로 했다.

일요일 내내 쉬지 않고 일했지만, 월요일이 되어서야 겨우 'H'자까지 마쳤다. 고용주를 찾아가 보니 그는 여전히 어수선하게 흩어진 방에 그대로 있었다. 그는 수요일까지 계속 작업하고 나서 다시 오라고 말했다. 수요일이 되었을 때도 작업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나는 금요일, 즉 어제까지 쉬지 않고 매달렸다. 그러고 나서 해리 피너 씨에게 그 책을 가져다주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제가 이 일의 난이도를 너무 낮게 평가했나 봅니다. 이 명단이 제게 아주 큰 도움이 되겠군요.”

“시간이 좀 걸렸네.” 내가 말했다.

"자, 이제 말이야." 그가 말했다. "가구점을 전부 조사해서 목록을 만들어 오게. 그곳들은 전부 도자기까지 취급하니까 말일세."

“아주 좋군.”

"내일 저녁 일곱 시쯤에 들러서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 주게나.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일을 마친 뒤에 저녁쯤 데이즈 뮤직홀에서 두어 시간 정도 공연을 보는 건 피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걸세."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전율을 느끼며 보았다. 그의 왼쪽에서 두 번째 치아가 금으로 아주 투박하게 때워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셜록 홈즈는 기쁜 듯 양손을 비볐고, 나는 경악한 눈으로 의뢰인을 바라보았다.

"왓슨 박사님, 놀라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런던에서 그 친구와 이야기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가 제가 모슨네 가게에 가지 않는 것을 보고 비웃던 바로 그 순간이었죠. 문득 그의 치아 충전물이 지금 이것과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두 경우 모두 금빛이 번뜩이는 게 제 눈에 띄었거든요. 목소리와 체격이 같다는 점에 이 사실까지 더해지니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면도나 가발로 바꿀 수 있는 부분만 달라졌을 뿐, 분명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형제가 서로 닮을 수는 있겠지만, 치아 충전 방식까지 똑같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는 저를 밖으로 내몰았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곧장 호텔로 돌아가 찬물 대야에 얼굴을 담그고 차분히 생각을 정리해 보려 애썼습니다. 왜 그는 나를 런던에서 버밍엄으로 보냈을까? 왜 그가 나보다 먼저 그곳에 도착해 있었을까? 그리고 왜 자기 자신에게 편지를 쓴 것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투성이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에게는 이토록 막막한 수수께끼가 셜록 홈즈 씨에게는 아주 명쾌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침

오늘 아침 야간열차를 타고 런던에 올라가 그를 만날 시간이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두 분을 모시고 함께 버밍엄으로 내려가려는 참입니다."

주식 중개인 사무원의 놀라운 경험담이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셜록 홈즈가 쿠션에 몸을 기대며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만족스러우면서도 예리한 눈빛이었다. 마치 아주 귀한 빈티지 와인을 처음 한 모금 머금은 감정가처럼 말이다.

"꽤 괜찮지 않나, 왓슨?" 홈즈가 말했다. "마음에 드는 구석이 몇 군데 있어. 프랑코-미들랜드 하드웨어 컴퍼니 임시 사무실에서 아서 해리 피너 씨를 만나보는 건, 우리 둘 모두에게 꽤 흥미로운 경험이 될 거야. 자네도 내 생각에 동의하겠지?"

"하지만 그걸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물었다.

"아, 아주 간단한 일이지요." 홀 파이크로프트가 쾌활하게 말했다. "내 친구 두 사람이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내가 직접 상무이사에게 두 사람을 데려가는 것보다 더 자연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소?"

"물론 그렇고말고요." 홈즈가 말했다. "그 신사라는 분을 직접 보고 싶군요. 그가 벌이는 그 하찮은 유희가 대체 어떤 것인지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친구여, 당신이 제공할 서비스가 그토록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나요? 아니면 혹시—"

홈즈는 말을 채 끝내지 못한 채 손톱을 깨물며 창밖을 멍하니 응시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뉴 스트리트에 도착할 때까지 그에게서 거의 아무런 대답도 끌어낼 수 없었다.

그날 저녁 일곱 시, 우리 세 사람은 코퍼레이션 가를 따라 회사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었다.

"우리가 일찍 가 있어 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의뢰인이 말했다. "그자가 정해준 시간 전까지는 그곳에 아무도 없거든요. 보아하니 그자는 오로지 저를 만나러 그곳에 오는 모양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있군요." 홈즈가 말했다.

"세상에, 내 말이 맞았잖아요!" 사무원이 외쳤다. "저기 우리보다 앞서 걸어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그는 길 건너편을 분주히 지나가는, 체구는 작지만 어두운 색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남자를 가리켰다. 우리가 그를 지켜보는 사이, 남자는 길 건너편에서 저녁 신문 최신판을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소년을 바라보더니, 마차와 합승마차 사이를 가로질러 달려가 그 소년에게서 신문을 한 부 샀다. 그러고는 신문을 손에 움켜쥔 채 어느 건물 입구 안으로 사라져 버렸다.

"저기 간다!" 홀 파이크로프트가 외쳤다. "저곳이 그가 들어간 회사의 사무실이라네. 나를 따라오게나. 최대한 빨리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조처해 보겠네."

우리는 그의 뒤를 따라 다섯 층을 올라갔다. 마침내 반쯤 열린 문 앞에 다다랐고, 의뢰인이 그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홀 파이크로프트가 설명했던 대로 가구 하나 없이 텅 빈 방이 나타났다. 방 한가운데 놓인 탁자 하나에는 거

리에서 보았던 그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는 탁자 위에 저녁 신문을 펼쳐 놓은 상태였다. 그가 고개를 들어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나는 그토록 깊은 슬픔, 아니 슬픔 그 이상의 무언가를 머금은 얼굴은 생전 처음 본다고 생각했다. 그것은 평생에 단 몇 명만이 겪을 법한 공포였다. 그의 이마는 식은땀으로 번들거렸고, 뺨은 물고기 배처럼 생기 없이 창백했다. 눈은 초점을 잃은 채 거칠게 번뜩였다. 그는 마치 자신의 서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안내하던 서기의 얼굴에 경악한 기색이 역력한 것을 보니, 고용주의 이런 모습은 결코 평소의 모습이 아닌 듯했다.

"피너 씨, 안색이 안 좋으시군요!" 그가 외쳤다.

"그래요, 몸 상태가 그리 좋지 않군요." 상대방이 대답했다. 그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보였고, 말을 꺼내기 전 메마른 입술을 축였다. "함께 데려온 이 신사분들은 누구십니까?"

"한 분은 버몬지의 해리스 씨이고, 다른 한 분은 이 마을의 프라이스 씨입니다." 우리 사무원 서기가 능청스럽게 말을 이었다. "두 분 다 제 친구이자 경험이 풍부한 신사분들이십니다. 다만 한동안 일자리가 없으셨던 터라, 혹시 저희 회사에 자리가 있다면 두 분을 채용해 주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고말고요!" 피너 씨가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외쳤다. "네, 분명히 당신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겁니다. 해리스 씨, 당신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다루십니까?"

"나는 회계사라네." 홈즈가 말했다.

"아, 그렇군요. 그런 게 필요하겠네요. 그럼 프라이스 씨는 어떠십니까?"

"사무원입니다." 내가 말했다.

"회사가 귀하의 편의를 봐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론이 나는 대로 즉시 알려드리지요. 그러니 이제 그만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부탁이니,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의 마지막 말들은 마치 스스로를 억누르던 제약이 갑자기, 그리고 완전히 터져 나간 듯이 쏟아져 나왔다. 홈즈와 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홀 파이크로프트는 탁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피너 씨, 제가 당신에게 지시를 받기로 약속하고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잊으신 모양이군요." 그가 말했다.

"물론입니다, 파이크로프트 씨. 물론이고말고요." 상대방이 한결 차분해진 어조로 말을 이었다. "잠시 여기서 기다려 주십시오. 친구분들도 함께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3분 뒤에 바로 모시겠습니다." 그는 아주 정중한 태도로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 방 저편에 있는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문을 닫고 사라졌다.

"이제 어떻게 하지?" 홈즈가 낮게 속삭였다. "놈이 우리를 따돌리려는 건가?"

"그럴 리 없습니다." 파이크로프트가 대답했다.

"어째서 그런가요?"

"저 문은 안쪽 방으로 이어집니다."

"출구가 없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구는 갖춰져 있습니까?"

"어제는 비어 있었어요."

"도대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방식에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구석이 있습니다. 만약 공포에 질려 미치기 직전인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피너일 겁니다. 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든 걸까요?"

"그가 우리가 탐정이라고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제안하듯 말했다.

"바로 그겁니다!" 파이크로프트가 외쳤다.

홈즈가 고개를 저었다. "안색이 창백해진 게 아니야. 우리가 방에 들어갔을 때 이미 창백해져 있었지." 홈즈가 말했다. "어쩌면 정말로—"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안쪽 문 쪽에서 날카로운 노크 소리가 들려와 그의 말을 끊어 놓았다.

"도대체 왜 자기 방 문을 저렇게 두드려 대는 거야?" 사무원이 소리쳤다.

다시 한번, 훨씬 더 큰 소리로 타다닥,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 모두는 닫힌 문을 간절한 눈빛으로 응시했다. 홈즈를 슬쩍 바라보니 그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그는 몹시 흥분한 듯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때 갑자기 낮게 꾸르륵거리는 소리와 함께 나무를 두드리는 듯한 경쾌한 소리가 이어졌다. 홈즈는 미친 듯이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더니 문을 밀어젖혔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다. 우리도 홈즈를 따라 온 힘을 다해 문에 몸을 던졌다. 경첩 하나가 툭 하고 끊어지더니 이어서 다른 하나도 부서졌고, 문은 쾅 소리를 내며 쓰러졌다. 우리는 문을 넘어 안쪽 방으로 급히 뛰어 들어갔다. 하지만 그곳은 텅 비어 있었다.

우리가 실수를 저지른 건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우리가 방금 나온 방과 가장 가까운 모퉁이에 또 다른 문이 하나 있었다. 홈즈는 그 문을 향해 달려가 문을 확 열어젖혔다. 바닥에는 코트와 조끼가 널브러져 있었고, 문 뒤쪽 고리에는 프랑코-미들랜드 철물 회사의 상무이사가 자신의 멜빵을 목에 건 채 매달려 있었다. 그는 무릎을 굽힌 채 고개가 몸과는 끔찍한 각도로 꺾여 있었으며, 발뒤꿈치가 문에 부딪히며 내는 달그락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방해했던 것이다. 나는 즉시 그의 허리를 감싸 안아 몸을 지탱했고, 그사이 홈즈와 파이크로프트는 검푸르게 변한 피부 주름 사이로 사라져 버린 고무줄을 풀어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를 옆방으로 옮겼다. 그는 흙빛이 된 얼굴로 숨을 쉴 때마다 보

랏빛 입술을 들썩이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불과 5분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이토록 처참하게 망가져 버린 것이다.

"그 사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왓슨?" 홈즈가 물었다.

나는 몸을 굽혀 그를 살폈다. 맥박은 약하고 불규칙하게 뛰었으나, 호흡은 점차 길어졌다.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 사이로 흰자위가 가느다란 틈을 보이며 살짝 드러났다.

"그의 상태가 위태위태하긴 했지만," 내가 말했다. "이제는 고비를 넘겼으니 살 겁니다. 창문 좀 열어주고, 저 물병 좀 건네주게." 나는 그의 옷깃을 풀고 찬물을 얼굴에 끼얹었다. 그러고는 그가 길고 자연스러운 숨을 내뱉을 때까지 그의 팔을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놓았다. "이제는 시간문제일 뿐이라네." 그를 뒤로하며 내가 덧붙였다.

홈즈는 테이블 옆에 서 있었다. 두 손은 바지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은 채,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 숙이고 있었다.

"이제 경찰을 불러야 할 것 같군." 그가 말했다. "하지만 경찰이 왔을 때, 사건의 전말을 완벽하게 정리해서 넘겨주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군요!" 파이크로프트가 머리를 긁적이며 외쳤다. "대체 무슨 일 때문에 저를 이 먼 곳까지 불러낸 건지, 그러더니 갑자기—"

"흥! 그건 충분히 명백하잖아." 홈즈가 참을성 없게 말을 잘랐다. "문제는 바로 이 마지막의 갑작스러운 움직임이라니까."

"그럼 나머지는 다 이해했겠군?"

"꽤 명백하다고 생각하네. 자네 생각은 어떤가, 왓슨?"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로서는 도저히 갈피를 잡을 수 없군." 내가 말했다.

"아니, 분명히 처음부터 사건들을 차근차근 따져본다면, 결론은 오직 하나뿐일 겁니다."

"그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자, 이 모든 일은 결국 두 가지 지점에 달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크로프트가 이 터무니없는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경위가 담긴 선언문을 작성하게 만든 점이죠. 이것이 얼마나 결정적인 단서인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핵심을 놓친 모양이군요."

"자, 그들이 왜 그에게 그런 일을 시키려 했을까? 사업적인 목적은 아닐세. 이런 식의 계약은 보통 구두로 이루어지니까 말이야. 이번 건이 예외가 되어야 할 사업적 이유는 전혀 없었네. 자네 젊은 친구, 이제 알겠나? 그들은 자네의 필적 샘플을 얻으려고 안달이 나 있었고, 그렇게 할 방법이 그것뿐이었던 걸세."

"그건 왜죠?"

"그렇고말고요. 왜냐고요? 우리가 이 작은 문제에 어느 정도 진전을 보였다고 답한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누군가 당신의 필체를 흉내 내고 싶어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신이 쓴 글의 표본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이제 두 번째 지점으로 넘어가 보면, 두 사실이 서로를 어떻게 뒷받침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피너가 요청한 사항 말입니다. 그는 당신이 직을 사임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대신, 그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홀 파이크로프트라는 인물이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로 출근할 것이라고 이 중요한 사업의 책임자에게 확신을 주려 했습니다."

"세상에!" 의뢰인이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내가 어찌 이리도 눈이 멀었단 말인가!"

"이제 필적에 관한 핵심을 알겠지. 만약 자네가 구직 신청서를 쓸 때와는 완전히 다른 글씨를 쓰는 사람이 자네 대신 나타났다면, 당연히 모든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을 걸세. 하지만 그 악당은 자네가 나타나기 전까지 자네의 필체를 흉내 내는 법을 익혔고, 덕분에 자네의 자리를 안전하게 차지할 수 있었던 거지. 아마 사무실의 그 누구도 자네의 실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테니까 말이야."

"단 한 사람도 없었네." 홀 파이크로프트가 신음하듯 말했다.

"아주 좋습니다. 당신이 이 일을 다시 생각하지 못하게 막는 것, 그리고 당신의 도플갱어가 모슨의 사무실에서 활동 중이라는 사실을 알

려줄 만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는 그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에게 월급보다 훨씬 많은 선급금을 쥐여준 뒤 미들랜즈로 급히 보내버린 겁니다. 그곳에서 당신이 런던으로 올라올 틈도 없이 바쁘게 일하도록 일감을 몰아준 것이죠. 만약 당신이 런던에 왔다면 그들의 이 유치한 장난을 단번에 망쳐놓았을 테니까요. 모든 정황이 아주 명백합니다."

"그런데 왜 그 남자는 자기 형제인 척 연기하는 걸까요?"

"그 점 또한 아주 명백합니다. 분명히 그들 중에는 두 명뿐이에요. 나머지 한 명은 사무실에서 당신인 척 행세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당신의 고용주를 찾아준 자는, 자신의 계획에 제삼자를 끌어들이지 않고서는 당신에게 일자리를 구해줄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결코 그러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외모를 바꾸어 나타났고, 당신이 분명히 알아챘을 그 닮은꼴을 그저 가족끼리 닮은 것이라 여기고 넘어가길 바랐던 겁니다. 만약 금을 채워 넣은 것이 운 좋게 들통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아마 평생 의심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홀 파이크로프트는 움켜쥔 두 손을 허공에 휘저으며 외쳤다. "세상에나! 내가 이런 식으로 속고 있는 동안, 모슨네 가게에 있던 또 다른 홀 파이크로프트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홈즈 씨,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모슨 상점으로 전보를 보내야겠어."

"토요일에는 12시에 문을 닫습니다."

"상관없네. 문지기나 안내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아, 맞아요. 그곳은 보관 중인 유가증권의 가치가 워낙 높아서 상시 경비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시티(City)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납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에게 전보를 보내서 모든 게 괜찮은지, 그리고 당신과 이름이 같은 직원이 그곳에서 일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지요. 그 부분은 충분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정말 의문인 건, 왜 그 악당 중 한 명이 우리를 보자마자 곧장 방을 나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았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 종이를!" 우리 뒤에서 쉰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남자는 몸을 일으켜 앉아 있었다. 안색은 창백하다 못해 귀신처럼 질려 있었고, 눈동자에는 겨우 이성을 되찾은 듯한 기색이 돌았다. 그는 목을 여전히 조이고 있는 굵고 붉은 띠를 초조하게 문지르고 있었다.

"그 종이! 당연히 그 종이였어!" 홈즈가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소리쳤다. "내가 바보였군! 우리가 방문한 일에만 정신이 팔려 그 종이는 단 한 순간도 떠올리지 못했어. 분명히 그 안에 비밀이 있을 거야."

그는 종이를 탁자 위에 평평하게 펼치더니, 승리감에 젖어 탄성을 내뱉었다.

"이것 좀 보게, 왓슨." 홈즈가 외쳤다. "런던 신문이야. 《이브닝 스탠다드》 조간이로군. 우리가 찾던 게 바로 여기 있어. 헤드라인을 보게. '도심 속의 범죄, 모슨 앤 윌리엄스 살인 사건', '거대한 강도 미수 사건', '범인 검거'라고 적혀 있잖아. 자, 왓슨. 우리 모두가 이 내용을 몹시 궁금해하고 있으니, 부디 소리 내어 읽어주게."

신문의 지면 배치로 보아, 그 사건은 당시 런던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일인 듯했다. 기사는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었다.

오늘 오후 시티(City)에서 한 남자가 사망하고 범인이 붙잡히는 참혹한 강도 사건이 발생했다. 유명 금융 기업인 모슨 앤 윌리엄스(Mawson & Williams)는 오랫동안 백만 파운드가 훌쩍 넘는 막대한 규모의 유가증권을 관리해 왔다. 관리자는 이 막대한 자산에 따른 책임감을 매우 무겁게 느낀 나머지, 최신식 금고를 도입하고 무장 경비원을 배치하여 밤낮으로 건물을 지키게 했다.

듣기로는 지난주에 홀 파이크로프트라는 이름의 신입 직원이 이 회사에 채용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인물은 다름 아닌 유명한 위조범이자 금고털이범인 베딩턴으로 밝혀졌다. 그는 형과 함께 5년형의 징역을 마치고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아직 정확한 경위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는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이 직책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다. 그는 이 직위를 이용해 여러 자물쇠의 본을 뜨고, 금고실과 금고의 위치를 철저히 파악했다.

"모슨 상점의 사무원들은 토요일 정오에 퇴근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렇기에 시 경찰국의 터슨 경사가 1시 20분에 카펫 가방을 든 신

사가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보고 다소 의아해했습니다. 의구심이 생긴 경사는 그 남자를 뒤쫓았고, 폴록 순경의 도움을 받아 격렬한 저항을 물리친 끝에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확인하자마자 대담하고도 거대한 강도 사건이 벌어졌음이 명백해졌습니다. 가방 안에서는 10만 파운드 상당의 미국 철도 채권과 다른 광산 및 회사들의 주권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현장을 조사하던 중, 불행한 야간 경비원의 시신도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몸이 구부러진 채 가장 큰 금고 안에 처박혀 있었는데, 터슨 경사가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았더라면 월요일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되었을 것입니다. 남자의 두개골은 뒤에서 휘두른 화로 막대기에 맞아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베딩턴이 무언가 두고 간 것이 있다며 거짓말로 침입한 뒤, 경비원을 살해하고 금고를 급히 털어 전리품을 챙겨 달아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평소 함께 일하던 그의 형제는 이번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경찰은 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끈질기게 수사 중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라면 경찰의 수고를 조금 덜어줄 수 있겠군요."

홈즈가 창가에 몸을 웅크린 채 초췌하게 앉아 있는 인물을 힐끗 보며 말했다.

"왓슨, 인간의 본성이란 참으로 묘한 법이라네. 악당이자 살인마라 할지라도 이토록 깊은 애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니 말이야. 제 형이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자살을 결심할 정도라면 말이지.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네. 파이크로프트 씨, 실례가 안 된다면 경찰을 불러와 주시겠나? 그동안 나와 왓슨 박사는 이곳을 지키고 있겠네."

글로리아 스콧호

V. 글로리아 스콧호

"여기 서류가 좀 있네."

어느 겨울밤, 벽난로 양옆에 앉아 있던 친구 셜록 홈즈가 말했다.

"왓슨, 자네도 시간을 내어 한번 훑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이야. 이건 '글로리아 스콧' 호에서 벌어진 기이한 사건에 관한 문서들이고, 이건 트레버 치안판사가 읽자마자 공포에 질려 즉사하고 만 전갈이라네."

그는 서랍에서 빛이 바랜 작은 원통형 통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는 테이프를 풀어 그 안에 든 쪽지를 내게 건넸다. 그것은 잿빛 종이 반 장에 휘갈겨 쓴 짧은 메모였다.

"런던으로 공급되는 사냥감의 양이 꾸준히 늘고 있다"라고 쪽지에는 적혀 있었다. "허드슨 수석 관리인에게는 이제 파리 잡는 종이와 당

신의 암꿩의 생명 보존에 관한 모든 주문을 받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우리는 믿고 있다."

수수께끼 같은 메시지를 읽다 고개를 들자, 내 표정을 보고 낄낄거리며 웃고 있는 홈즈의 모습이 보였다.

"어딘가 좀 당황해 보이는군." 그가 말했다.

"이런 메시지가 어떻게 공포를 불러일으킨다는 건지 모르겠군요. 제 눈에는 공포스럽다기보다 오히려 기괴해 보일 뿐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글을 읽던, 건장하고 기운 넘치던 노인이, 마치 권총 개머리판으로 한 방 얻어맞기라도 한 듯 그 글 한 줄에 그대로 나가떨어지고 말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호기심이 생기는군요." 내가 말했다. "그런데 방금 왜 이 사건을 반드시 제가 맡아야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내가 처음으로 맡았던 사건이었으니까요."

나는 동료인 홈즈에게 무엇이 그를 범죄 수사의 길로 이끌었는지 자주 물어보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속내를 털어놓을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지금 홈즈는 안락의자에 몸을 앞으로 숙여 앉더니, 무릎 위에 서류들을 펼쳐 놓았다. 그러고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는, 한동안 담배를 피우며 서류들을 찬찬히 훑어보았다.

"내가 빅터 트레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 없나?" 홈즈가 물었다. "그 친구는 내가 대학에 다니던 2년 동안 사귄 유일한 친구였네. 왓슨, 난 그리 사교적인 사람이 아니었어. 늘 내 방에 틀어박혀 나만의 사고방식을 정리하는 걸 좋아했거든. 그래서 동기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지. 펜싱이나 복싱 같은 운동에도 별 관심이 없었고, 공부하는 분야도 다른 학생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네. 공통분모가 전혀 없었던 셈이지. 내가 아는 사람은 트레버뿐이었는데, 그마저도 우연한 계기 덕분이었네. 어느 날 아침 예배를 드리러 내려가는데, 그 친구의 불테리어 한 마리가 내 발목을 꽉 물어버리는 바람에 알게 된 사이였으니까."

우정이라기엔 참으로 평범한 계기였지만, 결과는 성공적이었다. 나는 열흘 동안이나 자리에 누워 꼼짝 못 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트레버가 내 안부를 물으러 종종 찾아오곤 했다. 처음에는 그저 잠시 나누는 대화가 전부였으나, 점차 방문 횟수가 늘어나더니 학기가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절친한 사이가 되었다. 그는 활기차고 정력이 넘치는, 아주 호탕한 친구였다. 거의 모든 면에서 나와 정반대인 인물이었지만, 우리에겐 공통된 관심사가 있었다. 게다가 그 역시 나만큼이나 주변에 친구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끈끈한 유대감을 느꼈다. 결국 그는 나를 노퍽주의 도니소프에 있는 부친의 저택으로 초대했고, 나는 긴 방학 중 한 달 동안 그의 환대를 받기로 했다.

"올드 트레버는 분명 상당한 재력과 명망을 갖춘 인물이었네. 치안판사(J.P.)이자 지주였지. 도니소프는 브로드 지역의 랭미어 바로 북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라네. 그가 살던 집은 오크 나무 대들보를 올린 벽

돌 건물로, 옛 방식 그대로 넓게 퍼진 형태였고, 집 앞까지 라임나무가 늘어선 아름다운 가로수길이 이어져 있었지. 늪지대에서는 야생 오리 사냥을 즐기기에 더할 나위 없었고, 낚시도 아주 잘 되었다네. 서재는 규모는 작지만 엄선된 장서들이 갖춰져 있었는데, 내가 듣기로는 전 거주자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고 하더군. 요리사 실력도 그럭저럭 괜찮았으니, 만약 그가 까다로운 성격이었다면 그곳에서 즐거운 한 달을 보내는 일은 불가능했을 것이네."

트레버 노인은 홀아비였고, 내 친구는 그의 외아들이었다.

듣기로는 딸이 하나 있었지만, 버밍엄을 방문하던 중에 디프테리아로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내 관심을 끈 것은 그 아버지였다. 그는 교양은 부족했으나,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거칠고 강인한 힘을 지닌 사람이었다. 아는 책은 거의 없었지만, 먼 곳을 여행하며 세상을 넓게 경험했다. 그리고 그가 보고 배운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의 외모를 보자면, 희끗희끗한 머리칼에 다부진 체격을 가진 건장한 사내였다. 햇볕에 그을린 구릿빛 얼굴을 가졌으며, 푸른 눈동자는 사나울 정도로 날카롭게 빛났다. 그러면서도 시골 마을에서는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으로 명성이 높았고, 판사석에 앉았을 때는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내가 도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저녁이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포트 와인을 한 잔씩 곁들이며 앉아 있었다. 그때 젊은 트레버가 관찰과 추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이미 하나의 체

계로 정립해 둔 방식이었지만, 정작 그것이 내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는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 트레버의 아버지는 아들이 내가 해낸 사소한 성과 한두 가지를 지나치게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자, 이제 그만하세요, 홈즈 씨." 그가 유쾌하게 웃으며 말했다. "만약 나를 통해 무엇이라도 추론할 수 있다면, 나는 아주 훌륭한 실험 대상이 될 겁니다."

"'별로 드릴 말씀이 없을 것 같군요.' 내가 대답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누군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며 지내온 건 아닌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의 입가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는 무척 놀란 눈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그 말도 일리가 있군." 그가 말했다. 그러고는 아들을 돌아보며 덧붙였다. "빅터, 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 밀렵꾼 일당을 소탕했을 때, 그놈들이 우리를 칼로 찌르겠다고 맹세했었지. 실제로 에드워드 홀리경이 습격을 당하기도 했고 말이야. 네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이후로 줄곧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네."

"지팡이가 아주 멋지군요." 내가 대답했다. "지팡이에 새겨진 글귀를 보니 가진 지 일 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팡이 머리 부분에 구멍을 뚫고 녹인 납을 부어 넣으셨더군요. 아주 위협적인 무기로 만드느라 꽤 공을 들이신 모양입니다. 누군가에게 위협을 느낄

만한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굳이 이런 조치까지 취하지는 않으셨을 테니까요."

"그 밖에 다른 건 없습니까?" 그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젊은 시절에 권투를 꽤 하셨군요."

"정답이야. 어떻게 알았지? 내 코가 좀 삐뚤어져 보이기라도 하나?"

"아니오." 내가 말했다. "귀 때문입니다. 권투 선수의 특징인, 귀가 유독 납작하고 두툼하게 변해 있군요."

"그 밖에 또 없습니까?"

"굳은살을 보니 땅을 꽤 많이 파보셨군요."

"금광에서 돈을 다 벌었지."

"뉴질랜드에 다녀오셨군요."

"정확해."

"일본에 다녀오셨군요."

"전적으로 옳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이니셜이 J. A.인 누군가와 매우 깊은 관계를 맺었었군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리려고 필사적으로 애를 썼고요."

트레버 씨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는 기이하고도 광기 어린 눈빛으로 커다란 푸른 눈을 내게 고정하더니, 이내 식탁보 위에 흩어진 견과류 더미 위로 얼굴을 처박으며 그대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왓슨, 그의 아들과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상상이 가겠지. 하지만 발작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네. 우리가 그의 깃을 풀어주고 작은 유리병에 담긴 물을 얼굴에 몇 방울 뿌려주었더니, 그가 숨을 몰아쉬며 몸을 일으켜 앉았거든."

"아, 이보게들."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자네들을 놀라게 한 건 아니길 바라네. 겉보기엔 건장해 보여도 내 심장이 좀 약해서, 작은 충격에도 금방 쓰러지곤 하거든. 홈즈 씨, 당신은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내는 건가? 내가 보기엔 현실의 탐정이나 소설 속 탐정들이나 모두 당신 앞에서는 어린애나 다름없어 보이네. 그게 바로 당신의 천직이야. 세상 풍파를 좀 겪어본 사람으로서 장담하건대, 정말 그렇다네."

"왓슨, 믿기 힘들겠지만, 지나치게 부풀린 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앞세운 그 권유야말로, 그때까지 그저 취미에 지나지 않던 일이 어엿한 직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내게 처음으로 갖게 해 준 계기였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갑자기 쓰러진 집주인이 너무 걱정되어 다른 건 도무지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지."

"제가 혹시 마음 아픈 소리를 한 건 아니겠지요?" 내가 물었다.

"그거 참, 아주 아픈 곳을 찌르셨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떻게 아시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알고 계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는 농담조로 말했으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여전히 공포가 서려 있었다.

"아주 간단한 일이었소." 내가 말했다. "그 물고기를 배 위로 끌어올리려고 팔을 걷어 올렸을 때, 팔꿈치 안쪽에 'J. A.'라는 문신이 있는 걸 보았지. 글자는 여전히 읽을 수 있었지만, 번진 모양새와 그 주변 피부가 변색된 상태를 보니 누군가 지우려고 애쓴 흔적이 역력하더군. 그걸 보고 확신했지. 한때는 그 이니셜이 당신에게 매우 친숙한 것이었으나, 나중에는 차라리 잊고 싶어질 만큼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오."

"정말 눈썰미가 대단하시군요!" 그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외쳤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합시다. 세상의 온갖 유령 중에서도 옛 연인의 망령이 가장 무서운 법이니까요. 자, 당구실로 들어가서 조용히 시가나 한 대 피웁시다."

그날 이후로 트레버 씨는 나를 대할 때마다 겉으로는 친절을 베풀었지만, 태도에는 늘 미묘한 의심이 서려 있었다. 그의 아들조차 그 점을 언급할 정도였다. 아들은 내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아버지께 너무 큰 충격을 드렸어요. 이제 아버지는 당신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도무지 확신하지 못하실 겁니다." 트레버 씨가 일부러 그런 내색을 하려던 건 아니었겠지만, 그 의심이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에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서 그것이 툭툭 배어 나왔다. 결국 내가 그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나는 방문을 마무리하기

로 했다. 하지만 내가 떠나기 직전, 그날 바로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일은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정원 의자에 앉아 잔디밭 위에서 햇볕을 쬐고 있었다. 브로드 너머로 펼쳐진 풍경을 감상하며 여유를 즐기던 그때, 하녀 한 명이 밖으로 나와 트레버 씨를 찾아온 남자가 문 앞에 와 있다고 전했다.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집주인이 물었다.

"그는 이름을 밝히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가 원하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당신과 아는 사이라며 잠시 대화만 나누고 싶다고 하십니다."

"이 사람에게 여기저기 구경시켜 주게."

말이 끝나기 무섭게, 비굴한 태도로 어정쩡하게 걷는 작고 쭈글쭈글한 사내가 나타났다. 그는 소매에 타르 얼룩이 묻은 열린 재킷을 걸치고 있었는데, 안에는 빨간색과 검은색 체크무늬 셔츠를, 아래에는 데님 바지와 낡아서 해진 무거운 부츠를 신고 있었다. 사내의 얼굴은 야위고 검게 그을린 데다 교활한 인상이었으며, 입가에는 늘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 사이로 고르지 못한 누런 치아가 드러났다. 주름진 손은 선원 특유의 모양으로 반쯤 굽어 있었다.

그가 잔디밭을 가로질러 구부정한 자세로 다가오자, 트레버 씨가 목구멍으로 딸꾹질 같은 소리를 내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곧바로 다시 돌아왔는데, 그가 내 곁을 지나갈 때 진한 브랜디 냄새가 확 풍겼다.

“자, 이보게,” 그가 말했다. “무슨 일로 찾아왔나?”

선원은 눈가를 찡그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입술을 느슨하게 늘어뜨린 채 미소를 짓는 모습은 아까와 다를 바 없었다.

“저를 모르신단 말씀입니까?” 그가 물었다.

"세상에, 자네는 분명 허드슨이로군." 트레버 씨가 놀란 기색으로 말했다.

"허드슨이 맞습니다, 선생님." 선원이 말했다. "세상에, 마지막으로 뵌 지 벌써 30년도 더 넘었군요. 선생님은 이렇게 댁에서 편히 계시는데, 저는 아직도 선상의 소금고기 저장통에서 절인 고기나 골라 먹고 있는 신세입니다."

“에이, 옛정을 잊었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트레버 씨가 외쳤다. 그는 선원을 향해 걸어가더니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속삭였다. 그러고는 다시 큰 소리로 말을 이었다. “주방으로 들어가게. 음식과 마실 것을 좀 챙겨 먹게나. 자네가 일할 자리를 분명히 찾아줄 테니.”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원이 앞머리를 살짝 만지며 인사했다. “8노트짜리 화물선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막 내린 참입니다. 인원도 부

족한 데다 고생이 심해서 좀 쉬고 싶군요. 베드스 씨 밑에서 일하든, 아니면 선생님 밑에서 일하든 쉬면서 일할 곳을 찾을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아!" 트레버가 외쳤다. "베드스 씨가 어디 계신지 알고 계시는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선생님. 제 옛 친구들이 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 사내는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말하더니, 하녀를 따라 주방 쪽으로 구부정하게 걸어갔다. 트레버 씨는 그 사내가 광산으로 돌아가던 시절에 배를 같이 탔던 사이라며 우리에게 무언가 중얼거리고는, 잔디밭에 우리를 남겨둔 채 집 안으로 들어갔다.

한 시간 뒤 우리가 집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는 식당 소파에 술에 취해 뻗어 있었다. 이 모든 사건은 내 마음에 몹시 불쾌한 인상을 남겼다. 다음 날 도니소프를 떠날 때 나는 전혀 아쉬움이 없었다. 내가 이곳에 머무는 것이 친구에게 오히려 폐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긴 방학의 첫 달에 일어났다. 나는 런던에 있는 내 숙소로 올라가 7주 동안 유기 화학 실험에 몰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을이 깊어지고 방학도 끝을 향해 가던 무렵, 친구로부터 전보 한 통이 날아왔다. 그는 내게 도니소프로 돌아와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자신

의 조언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적었다. 나는 당연히 하던 일을 모두 제쳐두고 다시 북부로 향했다.

"그는 이륜마차를 몰고 역으로 마중을 나왔습니다. 그를 보자마자 지난 두 달간 그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수척해졌고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특유의 활기차고 쾌활한 모습은 온데간데없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려 하네." 그가 처음 내뱉은 말은 이러했다.

"말도 안 돼!" 내가 외쳤다. "대체 무슨 일인가?"

"뇌졸중입니다. 신경성 쇼크예요. 하루 종일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살아있는 채로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왓슨, 자네도 짐작하겠지만 나는 이 뜻밖의 소식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네."

"무엇 때문인가요?" 내가 물었다.

"아,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일단 차에 올라타시죠. 가는 동안 자세히 이야기해 봅시다. 당신이 우리를 떠나기 전날 저녁에 찾아왔던 그 친구, 기억하시나요?"

"완벽하게요."

"그날 우리가 집 안으로 들여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있나?"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건 악마였어, 홈즈!” 그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나는 너무 놀라 그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래, 악마가 나타난 것이나 다름없었네. 그날 이후로 단 한 시간도 마음 편히 쉬지 못했어. 아버지께서는 그날 저녁 이후로 고개를 들지 못하셨고, 결국 이 저주받을 허드슨 때문에 생기를 모두 잃고 마음까지 무너져 버리셨네."

“그렇다면 그에게 대체 어떤 힘이 있었다는 말인가?”

“아, 그 사실을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인자하고 자애로우며 선량하신 어르신이, 어떻게 그런 악당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홈즈, 당신이 와주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저는 당신의 판단과 신중함을 전적으로 믿습니다. 당신이라면 분명 저에게 최선의 방도를 조언해 주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매끄럽고 하얀 시골길을 따라 속도를 내며 달리고 있었다. 눈앞에는 브로드의 넓은 수로가 펼쳐져 있었고, 지는 해의 붉은 빛을 받아 반짝거렸다. 왼쪽 숲 너머로는 지주 저택을 상징하는 높은 굴뚝과 깃대도 이미 보였다.

“우리 아버지는 그 친구를 정원사로 채용하셨지.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는지, 결국 집사 자리까지 꿰차고 말았어. 그자가 집

안을 제멋대로 휘젓고 다니며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대니, 집안 전체가 그자의 처분만 기다리는 형국이었지. 하녀들은 그자가 술에 취해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는다며 불평이 자자했어. 아버지는 그 고충을 달래주려고 하녀들의 임금을 일괄적으로 올려줄 수밖에 없었지. 그자는 보트와 아버지의 가장 아끼는 총까지 챙겨 들고는, 제멋대로 사냥 여행을 떠나곤 했어. 그러면서도 비웃는 듯한 눈초리와 음흉하고 무례한 표정을 짓는데, 만약 그자가 내 또래였다면 나는 벌써 스무 번은 넘게 그자를 때려눕혔을 거야. 정말이지, 홈즈, 그동안 참느라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몰라. 가끔은 내가 조금 더 거칠게 행동했더라면, 오히려 더 현명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든다니까."

"상황은 갈수록 나빠졌어요. 허드슨이라는 그 하인은 점점 더 선을 넘으며 참견하기 시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내 앞에서 우리 아버지께 무례하게 대꾸하는 걸 보고는 결국 참지 못했어요. 내가 그놈의 어깨를 붙잡고 방 밖으로 끌어내 버렸거든요. 그놈은 얼굴을 험악하게 일그러뜨린 채 슬그머니 물러갔는데, 독기 어린 눈빛만큼은 입으로 내뱉는 말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죠. 그 일이 있은 후 불쌍한 아버지와 그놈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 날 아버지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더니 혹시 내가 허드슨에게 사과할 수 있겠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짐작하시겠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대체 어떻게 그런 천박한 놈이 아버지와 이 집안 식구들에게 이토록 무례하게 구는 것을 방관하실 수 있느냐고 되물었죠."

"아, 얘야." 그가 말했다. "말이야 쉽지, 네가 지금 내 처지가 어떤지 몰라서 하는 소리다. 하지만 빅터, 곧 알게 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네가 알게 만들고 말 테다. 너, 이 못난 네 아비가 해를 끼칠 거라고는 생각지도 않겠지, 응?" 그는 무척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창밖으로 보니 그는 무언가를 아주 분주히 써 내려가고 있었다.

"그날 저녁, 내게는 마치 커다란 해방감이 찾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허드슨이 우리를 떠나겠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앉아 있을 때, 그는 식당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러고는 술기운이 약간 오른 듯 걸걸한 목소리로 떠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퍽 땅은 이제 지긋지긋해." 그가 말했다. "햄프셔에 있는 베드즈 씨를 찾아가 보려네. 자네가 나를 반긴 것처럼, 그분도 분명 나를 아주 기쁘게 맞아줄 거야."

"허드슨, 설마 나쁜 마음을 품고 떠나려는 건 아니겠지?"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그 비굴할 정도로 저자세인 말투에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다."

"아직 사과도 못 받았단 말이야." 그가 내 쪽을 힐끗 보더니 뾰로통하게 말했다.

"빅터, 자네도 이 훌륭한 친구를 꽤 거칠게 대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걸세." 아버지가 나를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아니요, 오히려 우리 둘 다 그에게 엄청난 인내심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대답했다.

"오, 그래, 네놈이 그렇단 말이냐?" 그가 으르렁거렸다. "아주 좋아, 친구. 어디 한번 두고 보자고!" 그는 구부정한 자세로 방을 나갔다. 그로부터 삼십 분 뒤 그는 집을 떠났고, 내 아버지는 비참할 정도로 불안한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밤마다 아버지가 방 안을 서성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가 겨우 자신감을 되찾으려던 바로 그 때, 불행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간절하게 물었다.

"아주 기이한 방식으로 일어났습니다. 어제 저녁, 포딩브리지 우체국 직인이 찍힌 편지 한 통이 아버지께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편지를 읽으시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방 안을 뱅뱅 돌며 뛰어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겨우 아버지를 붙잡아 소파에 앉혔을 때, 이미 입과 눈꺼풀 한쪽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뇌졸중이 오신 겁니다. 포덤 박사님이 즉시 달려오셨고, 아버지를 침대에 눕혔지만 마비 증세는 점점 퍼져만 가고 있습니다. 의식도 전혀 돌아오지 않으셔서, 아마 살아계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트레버, 정말 소름 끼치는군!" 내가 외쳤다. "그렇다면 이 편지에 대체 무엇이 적혀 있었길래 이런 끔찍한 결과가 초래된 건가?"

"아무것도 아니야. 바로 그 점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지. 메시지 자체가 터무니없고 사소했거든. 아, 세상에, 역시 내 예감이 맞았어!"

그가 말을 마칠 때쯤 우리는 가로수길의 굽은 길을 돌아 들어갔다. 저물어가는 빛 속에서 집 안의 모든 블라인드가 내려져 있는 모습이 보

였다. 우리가 문을 향해 급히 달려갔을 때, 내 친구의 얼굴은 슬픔으로 일그러졌고, 검은 옷을 입은 신사 한 명이 문을 열고 나왔다.

"언제 일어난 일인가, 박사?" 트레버가 물었다.

"당신이 떠나고 거의 곧바로 말입니다."

"그가 의식을 되찾았습니까?"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아주 잠깐 동안만이라도."

"나에게 온 메시지라도 있나?"

"그저 그 서류들이 일본식 찬장 뒷서랍에 들어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내 친구는 의사와 함께 죽음이 깃든 그 방으로 올라갔다. 나는 서재에 남아 이 모든 사건을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되뇌었다. 내 생애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무거웠다. 권투 선수이자 여행가이며 금광을 찾아 헤매던 이 트레버라는 사내의 과거는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는 어쩌다 저 얼굴이 산성처럼 일그러진 선원에게 약점을 잡히게 된 것일까? 게다가 왜 그는 팔에 새겨진, 이제는 희미해진 이니셜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정신을 잃었으며, 포딩브리지에서 온 편지를 받고는 공포에 질려 죽어간 것일까?

문득 포딩브리지가 햄프셔에 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선원이 찾아가 협박을 시도했을 것으로 보이는 베도스 씨 역시 햄프셔에

산다고 언급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그 편지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다. 선원 허드슨이 보낸 것일 수도 있다. 숨겨진 죄악을 폭로하겠다는 통보였을 것이다. 혹은 베도스 씨가 보낸 것일 수도 있다. 배신이 임박했으니 조심하라고 옛 동료에게 경고하는 편지였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명확해 보였다. 하지만 아들이 묘사한 것처럼, 대체 그 편지가 어떻게 사소하고 우스꽝스러울 수 있단 말인가? 아들이 잘못 읽었음이 분명했다. 만약 그렇다면, 그 편지는 겉보기와는 전혀 다른 뜻을 담은 정교한 암호 중 하나일 것이다. 반드시 그 편지를 직접 확인해야 했다. 만약 그 안에 숨겨진 의미가 있다면, 나는 반드시 그것을 찾아낼 자신이 있었다.

나는 어둠 속에서 한 시간 동안이나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다 마침내 울먹이는 하녀가 등불을 들고 들어왔고, 그 뒤를 따라 내 친구 트레버가 들어왔다. 그는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지금 내 무릎 위에 놓인 바로 그 서류들을 손에 쥐고 있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탁자 가장자리로 등불을 끌어당기더니, 보시다시피 회색 종이 한 장에 휘갈겨 쓴 짧은 쪽지를 내게 건넸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런던으로 가는 사냥감 공급량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관리인 허드슨은 이제 파리 잡는 종이와 당신의 암꿩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모든 주문을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내 표정도 방금 자네처럼 당혹스러웠을 것이네. 그래서 아주 주의 깊게 다시 읽어보았지. 분명 내가 생각했던 대로였어. 이 기묘한 단어들의 조합 속에는 어떤 비밀스러운 의미가 숨겨져 있음이 틀림없었거든. 아니면 혹시 '끈끈이(fly paper)'나 '꿩(hen pheasant)' 같은 구절에 미리 정해둔 암호가 있었던 걸까? 만약 그렇다면 그건 임의로 정한 규칙이라 어떤 식으로도 추론할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나는 정말로 그런 식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네. 게다가 '허드슨'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을 보니, 메시지의 내용은 내가 짐작한 대로였고 그 발신인 역시 선원이 아니라 베도스라는 확신이 들었지.

거꾸로 읽어보기도 했지만, '꿩의 생명 끈끈이(life pheasant's hen)'라는 조합은 별다른 단서가 되지 못했네. 그다음에는 단어를 하나씩 건너뛰며 읽어보았지만, 'The of for'라든가 'supply game London' 같은 조합도 아무런 실마리를 주지 못했어. 그러다 찰나의 순간, 수수께끼를 풀 열쇠가 내 손에 들어왔네. 첫 번째 단어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단어마다 하나씩 골라 읽으면, 늙은 트레버를 절망에 빠뜨릴 만한 메시지가 나온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지."

“경고문은 짧고 간결했다. 나는 곁에 있는 동료에게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모든 게 끝났다. 허드슨이 전부 말해버렸어. 목숨을 부지하려면 당장 도망쳐.'"

빅터 트레버는 떨리는 두 손에 얼굴을 묻었다. "아마도 그럴 겁니다." 그가 말했다. "죽음보다 더 끔찍하군요. 치욕까지 따라오게 될 테

니까요. 그런데 이 '관리인'이니 '암꿩'이니 하는 말들은 대체 무슨 뜻입니까?"

"메시지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 발신인을 알아낼 다른 방법이 없다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The ... game ... is' 같은 식으로 글을 시작했습니다. 그다음에는 미리 정해둔 암호 체계에 맞춰 각 빈칸에 두 단어씩 채워 넣어야 했죠. 그는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을 선택했을 겁니다. 만약 그 단어들 중에 스포츠와 관련된 말이 유독 많다면, 그가 열렬한 사냥꾼이거나 사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꽤 확신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 베도스라는 인물에 대해 아는 게 있습니까?"

"그 말을 들으니 이제야 생각나는군요." 트레버가 말했다. "가엾은 우리 아버지가 매년 가을이면 그분으로부터 사냥 초대를 받곤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분의 사냥터에서 사냥을 즐기곤 하셨지요."

"그렇다면 그 쪽지 역시 분명 그자가 보낸 것이겠군요." 내가 말했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입니다. 선원 허드슨이 이 부유하고 존경받는 두 사람을 상대로 어떤 비밀을 쥐고 흔들었는지 알아내는 일 말입니다."

"아, 홈즈! 죄악과 수치로 얼룩진 사건일까 봐 두렵네!" 친구가 외쳤다. "하지만 자네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겠네. 여기 아버님께서 작성하신 진술서가 있네. 허드슨으로부터 닥칠 위험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을 때 써두신 것이지. 아버님께서 의사에게 말씀하셨던 대

로, 나는 이 서류를 일본식 장식장 안에서 찾아냈네. 자네가 이것을 가져가서 내게 읽어주게. 내 스스로 읽기에는 기력도, 용기도 부족하네."

"왓슨, 이것들이 바로 그가 내게 건네준 서류들이라네. 그날 밤 옛 서재에서 그에게 읽어주었던 것처럼, 자네에게도 그대로 읽어주겠네. 보시다시피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군. '1855년 10월 8일 팔머스 항을 출발하여, 11월 6일 북위 15도 20분, 서경 25도 14분 지점에서 파선하기까지, 범선 글로리아 스콧호의 항해에 관한 몇 가지 세부 사항.' 내용은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시작하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다가오는 불명예가 내 생의 황혼기를 어둡게 물들이기 시작하니, 이제야 진실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글을 남긴다. 내 마음을 이토록 아프게 찌르는 것은 법의 심판에 대한 공포도, 지역 사회에서 지위를 잃는 것도, 나를 알던 모든 이의 눈에 추락하는 것도 아니란다. 나를 사랑하고, 바라건대 나를 존경할 수밖에 없었던 네가 나 때문에 수치심을 느끼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란다.

하지만 만약 내 머리 위에 늘 드리워져 있던 그 불행한 타격이 마침내 닥친다면, 네가 이 글을 읽어주길 바란다. 내가 어디까지 잘못했는지, 내 과오가 무엇인지 너만은 나를 통해 직접 알 수 있도록 말이다. 반대로 모든 일이 잘 풀린다면—전능하신 신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만—혹시라도 이 종이가 파기되지 않고 네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과 네 어머니의 기억, 그리고 우리 사이에 있었던 사랑을 걸고 간곡히 부탁하마. 이 글을 당장 불속에 던져버리고, 다시는 단 한 번도 떠올리지 말아다오."

"만약 네 눈길이 이 줄까지 읽어 내려간다면, 나는 이미 정체가 탄로나 집에서 끌려 나갔거나—너도 알다시피 내 심장이 약하니 그편이 더 가능성이 높겠지만—아마도 죽어 혀가 영원히 봉인된 채 누워 있을 것이다. 어느 쪽이든 사실을 숨길 시간은 이미 지났다. 내가 네게 전하는 모든 말은 꾸밈없는 진실이며, 자비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를 맹세한다."

"얘야, 내 이름은 트레버가 아니란다. 젊었을 적 내 이름은 제임스 아미티지였지. 그러니 몇 주 전, 네 대학 친구가 마치 내 비밀을 눈치챈 듯한 말투로 말을 걸었을 때 내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이제는 이해하겠지? 나는 아미티지라는 이름으로 런던의 은행에 들어갔고, 아미티지로서 조국의 법을 어긴 죄로 유죄 판결을 받아 유배형을 선고받았다네.

얘야, 나를 너무 나쁘게만 보지는 말아다오. 소위 말하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였단다. 돈이 비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때 반드시 채워 넣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에, 내 돈이 아닌 것을 가져다 썼던 것이지. 하지만 지독한 불운이 나를 뒤쫓았단다. 믿었던 돈이 끝내 들어오지 않았고, 예상보다 일찍 회계 장부를 검사하는 바람에 부족한 금액이 드러나고 말았지.

사정을 고려해 관대하게 처리해 줄 수도 있었겠지만, 30년 전의 법 집행은 지금보다 훨씬 가혹했단다. 결국 나는 스물세 번째 생일에, 다른 37명의 죄수와 함께 범죄자로 낙인찍힌 채 호주로 향하는 범선 글로리아 스콧호의 하층 갑판에 쇠사슬로 묶여 실려 가게 되었단다."

크림 전쟁이 한창이던 1855년이었다. 당시 흑해에서는 구식 죄수 수송선들이 주로 병력 수송용으로 쓰이고 있었다. 정부로서는 죄수들을 실어 나를 더 작고 부적합한 배들을 억지로 동원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 글로리아 스콧호는 본래 중국 차 무역에 쓰이던 배였으나, 구식인 데다 선수 부분이 무겁고 폭이 넓었다. 이미 새로 나온 클리퍼선들에 밀려 경쟁력을 잃은 상태였다. 500톤급인 이 배에는 서른여덟 명의 죄수와 스물여섯 명의 선원, 열여덟 명의 군인, 선장 한 명, 항해사 세 명, 의사 한 명, 군종 신부 한 명, 그리고 네 명의 간수가 타고 있었다. 팔머스에서 출항할 당시, 배에 탄 사람은 모두 백 명에 가까웠다.

죄수선에 쓰이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두꺼운 참나무로 만들어졌어야 할 감방 칸막이가, 이곳은 아주 얇고 허술했다. 선미 쪽 내 옆자리 죄수는 부두로 인도될 때 내가 유심히 지켜보았던 사람이었다. 그는 털 한 올 없이 매끈하고 깨끗한 얼굴에 길고 가느다란 코, 그리고 마치 호두까기처럼 위아래가 맞물릴 듯 튀어나온 턱을 가진 젊은이였다. 그는 고개를 아주 당당하게 치켜들고 있었고, 걸음걸이에는 거들먹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엄청난 키였다. 우리 중 누구도 그의 어깨 높이까지밖에 못 미칠 것 같았는데, 분명 키가 6피트 6인치는 족히 넘었을 것이다. 슬픔과 피로에 찌든 수많은 얼굴 사이에서, 그토록 활기차고 결연한 표정을 마주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눈보라 속에서 마주한 불꽃 같았다. 그래서 나는 그가 내 옆자리 사람이라는 사실이 반가웠고, 깊은 밤 내 귓가에서 속삭임이 들려왔을 때 더욱 기뻤다. 그는 우리 사이를 가로막은 판자에 구멍을 내는 데 성공한 상태였다.

"여어, 친구!" 그가 말했다. "이름이 뭔가? 여긴 무슨 일로 왔지?"

"나는 그에게 대답한 뒤, 나 역시 상대가 누구인지 물었다."

"내 이름은 잭 프렌더가스트다!" 그가 외쳤다. "빌어먹을, 나를 겪어 보고 나면 내 이름을 축복하게 될 거다!"

"그의 사건은 기억에 남았다. 내가 체포되기 얼마 전,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에 능력도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고칠 수 없는 악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는 교묘한 사기 수법을 동원해 런던의 유력 상인들로부터 막대한 돈을 가로챘다."

"하하! 내 사건을 기억하고 계시는군요!" 그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말 그렇군요."

"그렇다면 혹시 그 일에 대해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던 점은 없었습니까?"

"그게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내게 거의 25만 파운드나 있었지, 안 그래?"

"그렇게들 말하더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말이지, 그렇지?"

"아니오."

“글쎄, 그럼 남은 돈이 어디에 있을 것 같나?” 그가 물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내 손가락과 엄지 사이로 아주 쉽게 잡힌단 말이다!” 그가 외쳤다. “세상에! 내 이름으로 된 돈이 네 머리카락 수보다 더 많아. 얘야, 네게 돈이 있고, 그 돈을 다루고 굴릴 줄만 안다면 넌 무엇이든 할 수 있어! 자,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 쥐가 갉아먹고 벌레가 들끓으며 곰팡이 핀 낡은 관짝 같은 중국 화물선 밑창에 앉아 바지나 해지도록 시간을 버리고 있을 것 같으냐? 아니, 절대 그렇지 않다. 그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볼 줄 알고, 자기 동료들도 챙기는 법이지. 내 말을 명심해라! 그 사람을 꼭 붙들고 있어. 그러면 그가 널 반드시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줄 테니까!”

“그게 그 사람의 말투였어요. 처음에는 별 의미 없는 말인 줄로만 알았죠. 하지만 시간이 좀 흐르고, 그가 온갖 엄숙한 태도로 저를 시험하고 선서까지 시킨 뒤에야 비로소 깨닫게 해주더군요. 배의 지휘권을 탈취하려는 음모가 정말로 꾸며지고 있다는 사실을요. 죄수 중 열두 명 정도가 배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모의를 마친 상태였고, 프렌더가스트가 주동자였으며, 돈이 그 모든 움직임의 동력이었습니다.”

"내게 동업자가 하나 있네." 그가 말했다. "정말이지 보기 드문 인물이지. 총신에 꼭 들어맞는 개머리판처럼 충실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네. 돈줄을 꽉 쥐고 있는 사람이지. 지금 그자가 어디에 있을 것 같나? 바로 이 배의 군종 신부라네. 무려 신부님이라고! 검은 코트를 차려입고 서류도 완벽하게 갖춰서 배에 올랐지. 상자 안에는 이 배를 밑바닥

부터 돛대 꼭대기까지 통째로 사버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들어있었네. 선원들은 이미 그자의 손아귀에 있네. 몸과 영혼까지 말이야. 그자는 선원들을 떼거지로 헐값에 사들일 수도 있는 사람인데, 실제로 선원들이 계약서에 서명하기도 전에 이미 그렇게 해버렸지. 감시원 두 명과 이등 항해사인 머서도 이미 그자의 편이라네. 만약 선장까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그자는 선장마저도 자기 사람으로 만들 걸세."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물었다.

"어떻게 생각하나?" 그가 물었다. "이 병사들 중 몇 명의 코트를 재단사가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붉게 만들어 버릴 작정이라네."

"하지만 그들은 무장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렇게 될 거다, 애야. 우리 모두에게 권총이 두 자루씩은 있으니 걱정 마라. 선원들이 우리 뒤를 받쳐주고 있는데도 이 배를 차지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다 같이 어린 아가씨들이 다니는 기숙학교로나 보내지는 게 나을 게다. 오늘 밤 네 왼쪽 옆자리 동료에게 슬쩍 말을 걸어보렴. 그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해 봐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이웃 한 명을 만났는데, 저와 처지가 아주 비슷한 젊은 친구더군요. 위조죄를 저질러 잡혀온 상태였습니다. 이름은 에반스였지만, 저처럼 나중에 이름을 바꿨지요. 지금은 잉글랜드 남부에서 아주 부유하고 번창한 사업가로 살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살아남을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했기에 기꺼이 음모에 동참했습니다. 우리가 만(Bay)을 건너기도 전에, 비밀을 모르는 죄수는 단 두

명뿐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정신이 온전치 못해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고, 나머지 한 명은 황달로 고생하고 있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배를 탈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선원들은 이 일을 위해 특별히 선발된 무뢰한들이었으니까요. 가짜 신부라는 자는 전도용 책자가 가득 들어있다는 검은 가방을 들고 우리 감방을 드나들며 설교를 늘어놓았습니다. 그가 워낙 자주 찾아오는 바람에, 사흘째 되는 날에는 우리 모두 침대 발치에 줄 하나와 권총 두 자루, 화약 한 파운드, 그리고 납탄 스무 개를 몰래 숨겨둘 수 있었습니다. 간수 중 두 명은 프렌더가스트의 수하들이었고, 이등 항해사 역시 그의 심복이었습니다. 선장과 두 명의 항해사, 간수 두 명, 마틴 중위와 그의 병사 열여덟 명, 그리고 의사까지. 그들이 우리를 가로막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황이 유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예방 조치도 소홀히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밤을 틈타 기습 공격을 가하기로 결심했지요. 그런데 공격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이런 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고 3주쯤 지났을 무렵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의사가 병든 죄수 중 한 명을 살피러 내려갔는데, 침대 밑바닥에 손을 짚는 순간 권총의 윤곽을 느꼈습니다. 만약 그가 침묵을 지켰더라면 사건 전체를 무산시킬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질적이고 소심한 친구였기에, 그만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그가 너무 창백해진 나머지, 죄수는 즉시 상황을 파악하고 의사를 붙잡았습니다. 의사는 경보를 울리기도 전에 입이 막혔고 침대에 묶였습니다. 죄수는

갑판으로 이어지는 문을 이미 열어둔 상태였고, 우리는 그 문을 통해 들이닥쳤습니다. 초병 두 명은 총에 맞아 쓰러졌고,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달려온 하사관 한 명도 총에 맞았습니다. 선실 문 앞에는 병사 두 명이 더 있었는데, 우리를 향해 총을 쏘지 못한 것을 보면 총알이 장전되어 있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총검을 끼우려다 총에 맞았습니다. 이어 우리는 선장의 선실로 돌진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밀치고 들어가는 순간 안에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선장은 탁자에 고정된 대서양 해도 위로 뇌수가 흩뿌려진 채 쓰러져 있었고, 그 곁에는 군종 신부가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을 손에 든 채 서 있었습니다. 두 항해사는 모두 선원들에게 붙잡혔고, 상황은 모두 종료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선실 바로 옆에 있는 응접실로 우리는 우르르 몰려 들어갔습니다. 다시 자유를 얻었다는 사실에 다들 미칠 듯이 흥분해서, 소파에 몸을 던진 채 너도나도 떠들어댔지요. 사방에는 보관함이 있었는데, 가짜 신부 노릇을 하던 윌슨이 그중 하나를 툭 쳐서 열더니 갈색 셰리주 열두 병을 꺼내 왔습니다. 우리는 병목을 깨뜨려 잔에 술을 따랐고, 막 술을 들이켜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자기 귓가에서 머스킷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응접실 안은 순식간에 자욱한 연기로 가득 차서 테이블 건너편조차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요. 연기가 걷혔을 때, 그곳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윌슨과 여덟 명의 사람들이 바닥에서 서로 뒤엉켜 몸부림치고 있었고, 테이블 위에 흩뿌려진 피와 갈색 셰리주를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메스껍습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광경에 겁에 질려, 만약 프렌더가스트가 아니었다면 아마 일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는 황소처럼 포효하며 문을 향해 돌진했고, 살아남은 이들이 그 뒤를 필사적으로 따랐습니다. 밖으로 뛰쳐나가 선미 갑판에 올라서니, 중위와 그의 부하 열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응접실 테이블 위로 난 회전식 천창이 약간 열려 있었는데, 적들이 그 틈으로 우리를 향해 총을 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적들이 총을 다시 장전하기 전에 달려들었습니다. 적들도 사내답게 맞서 싸웠지만, 결국 우리가 우세를 점했고 5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습니다. 세상에! 그 배가 마치 도살장 같았습니다! 프렌더가스트는 마치 미친 악마 같았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마치 어린아이 다루듯 집어 들어, 살았든 죽었든 상관없이 배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한 하사는 처참하게 부상을 입었는데도 놀라울 정도로 오랫동안 헤엄을 쳤습니다. 결국 누군가가 자비를 베푼다는 듯 그의 머리에 총을 쏴 숨을 끊어놓고 나서야 멈췄지요. 싸움이 끝났을 때, 감시원들과 항해사들, 그리고 의사를 제외하면 적군은 단 한 명도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커다란 다툼은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우리 중에는 자유를 되찾게 되어 기쁘면서도, 살인이라는 죄를 짊어지고 싶지는 않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총을 든 병사들을 쓰러뜨리는 것과, 사람들이 무참히 살해당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만 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죄수 다섯 명과 선원 세 명, 이렇게 우리 여덟 명은 그런 짓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프렌더가스트와 그 일행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안전하려면 일을 아주 깔끔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증언석에서 입을 놀릴 수 있는 혀 따위는

하나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심산이었죠. 우리도 그 죄수들과 같은 운명을 맞이할 뻔했지만, 결국 프렌더가스트가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원한다면 배를 타고 떠나도 좋다는 것이었죠. 우리는 그 제안을 덥석 물었습니다. 이미 피비린내 나는 상황에 진저리가 난 데다, 일이 끝나기 전까지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임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 선원복 한 벌과 물 한 통, 그리고 염장 고기가 담긴 통 하나와 비스킷이 담긴 통 하나, 그리고 나침반을 받았습니다. 프렌더가스트는 우리에게 해도 한 장 던져주며, 북위 15도, 서경 25도에서 배가 침몰한 조난당한 선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배를 묶어둔 줄을 끊어 우리를 떠나보냈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에서 가장 놀라운 대목을 말해주마, 아들아. 반란이 일어나는 동안 선원들이 앞돛대 활대를 뒤로 젖혀 두었지만, 우리가 떠날 때쯤에는 다시 똑바로 세워 놓았단다. 북동쪽에서 가벼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자 범선은 우리에게서 천천히 멀어지기 시작했지. 우리 보트는 길고 잔잔하게 일렁이는 파도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있었단다. 일행 중 가장 배운 게 많았던 에반스와 나는 돛줄에 앉아 우리가 어디쯤 있는지 계산하며 어느 해안으로 향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지.

참 어려운 문제였단다. 카보베르데는 우리 북쪽으로 약 500마일 떨어져 있었고, 아프리카 해안은 동쪽으로 약 700마일이나 떨어져 있었으니까. 바람이 북쪽으로 바뀌고 있었기에 우리는 시에라리온으로 가는 게 가장 좋겠다고 판단했지. 그래서 그 방향으로 머리를 돌렸단다. 그때 범선은 우리 우현 후방에서 선체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어져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배를 바라보던 우리는 배에서 검고 짙은 연기 구름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보았단다. 그 연기는 하늘 경계선에 거대한 나무처럼 걸려 있었지. 몇 초 뒤, 천둥 같은 굉음이 우리 귀를 때렸고, 연기가 걷히자 글로리아 스콧 호의 흔적은 어디에도 남아 있지 않았단다. 우리는 즉시 보트의 머리를 돌려, 수면 위로 안개가 길게 늘어진 그 재앙의 현장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노를 저었단다."

그곳에 도착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구하기에 너무 늦어버린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마저 들었다. 파도 위로 부서진 배 조각들과 여러 개의 상자, 그리고 부러진 돛대 파편들이 떠올랐다 내려앉기를 반복하는 것을 보고서야 배가 침몰한 위치를 짐작할 수 있었다. 하지만 생존자의 흔적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절망하며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는 비명이 들려왔다. 멀리 떨어진 곳을 보니 잔해 위에 한 남자가 길게 뻗어 누워 있었다. 그를 배 위로 끌어올려 보니, 허드슨이라는 이름의 젊은 선원이었다. 그는 화상을 입은 데다 기력이 다해 탈진한 상태였기에, 다음 날 아침이 되어서야 비로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할 수 있었다.

“우리가 떠난 뒤, 프렌더가스트와 그 일당은 남은 죄수 다섯 명을 모두 죽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교도관 두 명은 총에 맞아 바다에 던져졌고, 삼등 항해사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후 프렌더가스트는 선실 아래층으로 내려가 불행한 외과 의사의 목을 직접 그어 죽였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일등 항해사뿐이었는데, 그는 대단히 용감하고 민첩한 사내였습니다. 죄수가 피 묻은 칼을 들고 다가오는 것을 보자, 그는 어

떻게든 풀어낸 구속구를 발로 차서 벗어던졌습니다. 그러고는 갑판을 가로질러 달려가 선미 화물창 안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를 찾아 권총을 든 채 내려간 열두 명의 죄수들은, 열려 있는 화약통 옆에 앉아 성냥갑을 손에 쥔 그를 발견했습니다. 그 화약통은 배에 실린 백 개 중 하나였는데, 그는 누구든 자신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배에 탄 사람 모두를 날려버리겠다고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 직후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다만 허드슨의 생각으로는, 항해사의 성냥 때문이라기보다 죄수 중 한 명이 잘못 쏜 총알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다고 합니다. 원인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으로 글로리아 스콧호와 그 배를 장악했던 무리들은 모두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자네, 요약하자면 내가 연루되었던 그 끔찍한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네. 다음 날 우리는 호주로 향하는 범선 호스퍼호에 몸을 실었지. 호스퍼호의 선장은 우리가 난파된 여객선의 생존자라는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 주었네. 해군성은 수송선 글로리아 스콧호를 바다에서 실종된 것으로 처리했고, 그 배의 진짜 운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단 한 마디의 소문도 새어 나오지 않았지. 호스퍼호는 아주 순조롭게 항해하여 우리를 시드니에 내려주었네. 그곳에서 에반스와 나는 이름을 바꾸고 금광 지대로 향했지. 온갖 나라에서 몰려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으니, 예전의 신분을 숨기는 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네."

"나머지 이야기는 굳이 드릴 필요 없겠지요. 우리는 성공했고, 여러 나라를 여행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식민지 정착민이 되어 영국으로 돌아와 시골에 저택을 샀습니다. 그 후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는

평화롭고 보람찬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과거가 영원히 묻혔기를 바랐지요.

그런데 우리를 찾아온 그 선원을 보자마자, 난 곧바로 그가 난파선에서 살아남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때 내 심정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어떻게든 우리를 추적해냈고, 우리의 공포를 먹고 살 작정이었던 겁니다.

내가 왜 그와 평화를 유지하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는지 이제는 이해하시겠지요. 그리고 그가 입에 저주를 머금은 채 또 다른 희생자를 찾아 떠나버린 지금, 나를 엄습하는 이 두려움에 여러분도 어느 정도는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아래에는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떨리는 필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베도스는 암호로 편지를 보내 H가 모든 것을 말해버렸다고 전했다. 주여, 우리 영혼을 굽어살피소서!'"

"그날 밤 젊은 트레버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라네. 상황을 고려하면 꽤 극적인 이야기였다고 생각하네, 왓슨. 그 친구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심이 커서 테라이 지역의 차 재배지로 떠났는데, 듣기로는 그곳에서 잘 지내고 있다더군. 선원과 베도스의 행방에 대해서라면, 경고장이 쓰였던 그날 이후로 두 사람 모두 다시는 소식이 들리지 않았네. 두 사람 모두 흔적도 없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지. 경찰에 접수된 신고도 없었으니, 베도스는 협박을 실제 범죄로 오해했던 셈이야. 허드슨이 주변을 서성이는 모습이 목격되었기에, 경찰은 허드슨이 베도스를 해치고 도망쳤다고 믿었네. 하지만 내 생각에 진실은 정반대였

던 것 같네. 막다른 길에 몰린 베도스가 자신이 이미 배신당했다고 믿고, 오히려 허드슨에게 복수를 한 뒤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챙겨 외국으로 도망쳤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네. 박사, 이것이 이 사건의 전말이라네. 만약 이 이야기가 자네의 수집품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내놓겠네."

머스그레이브 의식

6. 머스그레이브의 의식

내 친구 셜록 홈즈의 성격에서 종종 나를 의아하게 만들었던 기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사고방식에 있어서는 인류 중 가장 깔끔하고 체계적인 사람이었으며, 옷차림 또한 어느 정도 정갈하고 단정한 태도를 유지했으나, 개인적인 생활 습관만큼은 동거인을 미치기 일보 직전까지 몰아넣을 정도로 지저분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나 자신이 결코 관습에 얽매이는 성격이라는 뜻은 아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겪은 거친 실전 경험과 타고난 자유분방함이 더해진 탓에, 나는 의사라는 직업에 어울리지 않을 만큼 다소 흐트러진 생활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나에게도 한계라는 것이 있다. 시가를 석탄 바구니에 넣어두고, 담배는 페르시아식 슬리퍼 앞코에 쑤셔 넣으며, 답장하지 않은 편지들을 나무 벽난로 선반 한가운데에 잭나이프로 꽂아두는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나는 나 자신이 꽤나 도덕적이고 깔끔한 사람이라는 자부심마저 느낀다.

또한 나는 권총 연습이란 모름지기 야외에서 즐겨야 할 취미라고 늘 생각해 왔다. 하지만 홈즈는 가끔 기묘한 기분에 사로잡히면, 안락의자에 앉아 방아쇠가 예민한 권총과 백 발의 복서 탄환을 준비하곤 했다. 그러고는 맞은편 벽에 총알 자국을 새겨 넣어 애국심을 상징하는 'V. R.'(빅토리아 여왕) 문양을 장식하곤 했는데, 나는 그런 행동이 방 안의 공기나 분위기를 전혀 개선해주지 못한다고 굳게 믿었다.

우리의 거처는 언제나 화학 약품과 범죄의 흔적들로 가득했다. 그 흔적들은 엉뚱한 곳을 떠돌다 버터 그릇 안이나, 혹은 그보다 더 불결한 곳에서 불쑥 나타나곤 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그의 서류들이었다. 홈즈는 문서를 파기하는 것을 몹시 싫어했다. 특히 과거 사건과 관련된 서류라면 더욱 그랬다. 그러면서도 그는 1, 2년에 한 번이나 되어야 겨우 기운을 내어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하곤 했다. 이 두서없는 회고록 어딘가에서 언급했듯이, 그의 이름이 빛나던 놀라운 사건들을 해결할 때 쏟아붓던 격정적인 에너지는 반드시 무기력한 반동을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럴 때면 그는 소파에서 탁자로 몸을 옮기는 것 외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은 채, 바이올린을 켜거나 책을 읽으며 빈둥거리기 일쑤였다. 그렇게 달마다 서류가 쌓여갔고, 결국 방 구석구석에는 절대로 태워서는 안 되는 원고 뭉치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 서류들은 오직 주인인 홈즈만이 정리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어느 겨울밤, 벽난로가에 함께 앉아 있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제안 하나를 건넸다. 그가 공통 기록장에 발췌문을 옮겨 적는 일을 마쳤으니, 앞으로 두 시간 정도는 우리 방을 좀 더 사람이 살 만한 곳으로 만드는 데 써보는 게 어떻겠냐고 말이다. 내 요구가 타당하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는지, 홈즈는 다소 울상인 얼굴로 침실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커다란 양철 상자 하나를 끌고 돌아왔다. 그는 상자를 방 한가운데 놓더니, 그 앞에 걸터앉아 뚜껑을 열었다. 상자 안에는 이미 붉은색 테이프로 묶인 서류 뭉치들이 3분의 1가량 차 있었다.

"여기 사건은 차고 넘치네, 왓슨."

그가 장난기 어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이 상자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자네가 다 알게 된다면, 사건을 더 넣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좀 꺼내 달라고 나에게 부탁하게 될 걸세."

"그럼 이것들이 홈즈, 당신이 초기에 맡았던 사건들의 기록인가요?" 내가 물었다. "나도 그 사건들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했거든요."

"그래, 이보게. 내 전기 작가가 나를 찬양하기 위해 오기도 전에 서둘러 처리해 버린 일들이라네." 홈즈는 꾸러미를 하나하나 아주 소중히 어루만지듯 들어 올렸다. "전부 성공적인 사건들만 있는 건 아니야, 왓슨."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중에는 꽤 흥미로운 문제들도 있지. 여기 타를턴 살인 사건 기록이 있고, 와인 상인 뱀베리의 사건과 러시아 노부인의 모험, 그리고 알루미늄 목발에 얽힌 기이한 사건도 있네. 절름발이 리콜레티와 그의 끔찍한 아내에 관한 상세한 기록도 있고 말이야. 그리고 여기—아, 이건 정말이지 아주 희귀한 사건이라네."

그는 상자 바닥까지 팔을 깊숙이 집어넣더니, 아이들 장난감을 넣어 두는 것 같은 뚜껑이 미끄러지듯 열리는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서는 구겨진 종이 한 장과 구식 황동 열쇠, 실뭉치가 매달린 나무 말뚝, 그리고 녹슨 금속 원반 세 개가 나왔다.

"자, 이보게, 자네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나?" 홈즈가 내 표정을 살피며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참으로 기묘한 수집품이군요."

"매우 기이하지. 게다가 이걸 둘러싼 이야기는 그보다 훨씬 더 기이하게 느껴질 걸세."

"그렇다면 이 유물들에 어떤 사연이라도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는 아예 역사가 되어버렸을 정도라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셜록 홈즈는 그것들을 하나씩 집어 들어 탁자 가장자리에 나란히 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의자에 앉아, 만족스러운 빛을 눈에 띠며 그것들을 찬찬히 살펴보았다.

"이것들이야말로," 그가 말했다. "머스그레이브 의식의 모험을 떠올리게 해주는 내 유일한 유품이라네."

그가 그 사건을 한두 번 언급하는 것을 들은 적은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했다.

"그 일에 대해 들려주신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럼 이 쓰레기들은 그대로 두라는 건가?" 그가 장난스럽게 외쳤다. "결국 자네의 그 깔끔함도 그리 오래가지는 못하는군, 왓슨. 하지만 이번 사건을 자네의 기록에 꼭 남겨주었으면 하네. 이 사건에는 아주 독특한 점들이 있거든. 이 나라, 아니 아마 다른 어느 나라의 범죄 기록을 뒤져봐도 이만큼 특이한 사례는 없을 걸세. 내 사소한 업적들을 모아둔 기록에 이 기묘한 사건이 빠진다면, 분명 불완전한 목록이 되고 말 테니까."

"자네도 기억할 걸세. 글로리아 스콧 호 사건, 그리고 내가 자네에게 그 운명을 들려주었던 그 불행한 사내와의 대화가, 어떻게 처음으로 내 관심을 지금 내 평생의 업이 된 이 직업 쪽으로 돌려놓았는지 말일세. 지금이야 자네도 보다시피 내 이름이 널리 알려졌고, 대중은 물론 경찰 당국에서도 의심스러운 사건을 해결하는 최후의 보루로 두루 인정받고 있지. 하지만 자네가 나를 처음 알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자네가 『주홍색 연구』에 기록한 그 사건 무렵에도, 나는 이미 상당한 인맥을 쌓아 두고 있었네. 비록 그리 돈벌이가 되는 편은 아니었지만 말일세. 그러니 내가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진전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는지 자네는 좀처럼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걸세."

런던에 처음 올라왔을 때, 나는 대영박물관 바로 모퉁이에 있는 몬태규가에 방을 얻어 머물렀다. 그곳에서 나는 넘쳐나는 여가 시간을 활용해, 나를 더 유능한 인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온갖 과학 분야를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가끔 사건이 들어오기도 했는데, 주로 대학 시절 동창들의 소개를 통해 이루어졌다. 대학 시절 마지막 몇 년 동안, 나의 방식에 대해 학내에서 꽤나 화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중 세 번째로 맡았던 사건이 바로 '머스그레이브 의식' 사건이었다. 그 기묘한 일련의 사건들이 불러일으킨 관심과, 그 뒤에 얽힌 중대한 문제들을 계기로 나는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는 첫발을 내디뎠다.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는 나와 같은 대학 출신이었기에, 나는 그와 약간의 안면이 있었다. 그는 학부생들 사이에서 그리 인기가 있는 편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오만하다고 평할 때마다, 내 눈에는 그저 타고난 극심한 수줍음을 감추려는 시도로만 보였다. 외모는 매우 귀족적인 분위기를 풍겼다. 마른 체격에 오뚝한 코, 커다란 눈을 가졌으며, 나른하면서도 품위 있는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 그는 실로 이 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가문 중 하나인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후손이었다. 비록 16세기 어느 무렵 북부의 머스그레이브 가문에서 갈라져 나온 방계 가문이었으나, 서섹스 서부에 자리를 잡았다. 그곳에 있는 헐스톤 저택은 아마도 그 주(州)에서 가장 오래된 거주 건물일 것이다. 그의 출생지에서 풍기는 분위기가 그에게 배어 있는 듯했다. 창백하고 날카로운 얼굴이나 꼿꼿이 세운 그 머리의 자세를 볼 때면, 나는 늘 회색빛 아치형 통로와 격자창, 그리고 봉건 시대 성채의 유서 깊은 잔해

들을 떠올리곤 했다. 우리는 한두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는 나의 관찰법과 추론 방식에 깊은 관심을 보였던 기억이 난다.

4년 동안 그를 전혀 보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는 몬태규 가의 내 방으로 불쑥 걸어 들어왔다. 그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다. 세련된 젊은이처럼 차려입은 모습은 여전했다. 그는 늘 약간 멋을 부리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예전부터 그를 특징짓던 차분하고 부드러운 태도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반갑게 악수를 나눈 뒤, 나는 물었다. "머스그레이브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마 저희 아버님의 별세 소식은 들으셨겠지요." 그가 말했다. "약 2년 전쯤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는 당연히 제가 헐스톤 영지를 관리해 왔고, 지역구 의원직까지 맡고 있다 보니 꽤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듣기로는 당신이 예전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그 놀라운 능력을 이제는 실질적인 일에 쓰기 시작하셨다던데, 사실입니까?"

"그렇소." 내가 대답했다. "이제는 내 머리 하나로 먹고사는 법을 익혔소."

"그 말을 들으니 정말 기쁘군요. 지금 제게는 당신의 조언이 무엇보다 절실하니까요. 헐스톤에서 아주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경찰조차 도무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이보다 더 기괴하고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은 없을 겁니다."

"왓슨, 내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는지 자네도 상상할 수 있을 걸세. 수개월 동안 아무런 사건도 없이 무료하게 지내며 그토록 갈망해 온 기회가 드디어 내 손에 닿을 듯 다가온 것 같았거든. 다른 이들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나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내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네. 이제 드디어 나 자신을 시험해 볼 기회가 온 것이지."

"제발, 자세한 내용을 말해 주시오!" 내가 외쳤다.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는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더니, 내가 그에게 밀어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시다시피 제가 미혼이긴 해도 헐스톤 저택을 관리하려면 꽤 많은 하인이 필요합니다. 저택이 워낙 넓고 오래된 곳이라 손이 많이 가거든요. 게다가 저는 사냥을 즐기는 편이라, 꿩 사냥 철이 되면 보통 손님들을 초대해 하우스 파티를 엽니다. 그러니 일손이 부족해서는 안 되지요. 전체적으로 보면 하녀 여덟 명에 요리사, 집사, 하인 두 명, 그리고 소년 한 명이 있습니다. 물론 정원과 마구간에는 별도의 인력이 따로 있고요." 그가 말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오래 일한 하인은 브런턴 집사였습니다. 아버지가 그를 처음 고용했을 때, 그는 일자리를 잃은 젊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단히 정력적이고 성품도 곧은 사람이어서, 곧 우리 집안에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체격이 건장하고 잘생긴 외모에 이마도 아주 보기 좋았지요. 우리와 함께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금 나이도 마흔을 넘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개인적인 자질도 뛰어난

데다 재능도 남달랐습니다.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고 거의 모든 악기를 다룰 줄 알았으니까요. 그런 재능을 가진 사람이 어찌 이토록 오랫동안 집사 자리에 만족하며 지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마도 생활이 편안했던 데다, 삶의 변화를 꾀할 만큼의 의욕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헐스톤의 집사는 이곳을 방문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억할 만큼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결점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약간 돈 후안 기질이 있는데, 그가 머무는 조용한 시골 마을의 특성상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혼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지만, 홀로 된 이후로는 그 때문에 골머리를 앓은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몇 달 전에는 그가 다시 정착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기도 했습니다. 우리 집의 두 번째 하녀인 레이첼 하웰스와 약혼했거든요. 하지만 그는 약혼을 깨버리고는 사냥터 관리인의 딸인 자넷 트레겔리스와 새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은 아주 착한 아이지만 웨일스 사람 특유의 예민한 기질이 있는데, 그 일로 뇌열 증세까지 앓았습니다. 예전의 생기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눈 밑이 검게 그늘진 그림자처럼 집안을 떠돌았죠. 어제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헐스톤에서 겪은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두 번째 사건이 터지면서 그 일은 까맣게 잊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집사 브런턴이 불명예스럽게 해고된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가 영리한 사람이라고 말했지요. 하지만 바로 그 영리함이 그를 파멸로 몰아넣었습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도 없는 일들에 대해 걷잡을 수 없는 호기심을 품게 만들

었으니까요. 아주 사소한 사고가 일어나 제 눈을 뜨게 하기 전까지, 저는 그 호기심이 그를 어디까지 몰아붙일지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집이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넓어서 말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이었을 겁니다. 저녁 식사 후에 어리석게도 진한 카페 누아르를 한 잔 마셨더니 잠이 도무지 오지 않더군요. 새벽 두 시까지 잠을 청해보려 애를 썼지만 도저히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읽던 소설이라도 계속 읽을 생각으로 촛불을 켰지요. 그런데 책을 당구장에 두고 온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운을 걸쳐 입고 책을 가지러 나섰습니다."

"당구장에 가려면 계단을 내려간 다음, 서재와 총기 보관실로 이어지는 복도 입구를 지나야 했습니다. 복도 끝을 바라보던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열려 있는 서재 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제가 직접 등불을 끄고 문을 닫는 것을 확인했었습니다. 당연히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도둑이 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헐스톤 저택의 복도 벽면은 오래된 무기 전리품들로 가득 장식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인 전투용 도끼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촛불을 뒤에 남겨둔 채, 발소리를 죽이며 복도를 따라 살금살금 다가가 열린 문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집사 브런턴은 서재에 있었습니다. 그는 외출복 차림 그대로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는데, 무릎 위에는 지도처럼 보이는 종이 한 장을 올려두고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손등 위로 이마를 푹 숙

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둠 속에서 그를 지켜보며 경악한 나머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탁자 가장자리에 놓인 작은 양초가 희미한 빛을 내뿜고 있었는데, 그 정도 빛만으로도 그가 옷을 다 갖춰 입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서랍장으로 걸어가더니, 자물쇠를 열고 서랍 하나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는 그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다시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러고는 탁자 가장자리에 있는 양초 옆에 그 종이를 평평하게 펴놓고는, 아주 세밀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문의 문서를 저토록 태연하게 조사하는 모습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 나는 그만 저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디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고개를 든 브런턴이 문가에 서 있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포로 얼굴이 창백하게 질린 채 벌떡 일어났고, 조금 전까지 살피던 지도 같은 종이를 가슴팍 안으로 급히 찔러 넣었습니다."

"그렇단 말이지!" 내가 말했다. "우리가 당신에게 보낸 신뢰에 보답하는 방식이 고작 이거라니. 내일부터 당장 그만두겠다는 건가."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고개를 숙여 인사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내 곁을 지나 스르르 사라졌다. 탁자 위에는 아직 촛불이 켜져 있었다. 나는 그 불빛에 의지해 브런턴이 서랍에서 가져간 종이가 무엇인지 슬쩍 살펴보았다. 놀랍게도 그것은 전혀 중요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저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기이하고 오래된 관습인 '머스그레이브 의식'의 질의응답을 적어 놓은 사본일 뿐이었다. 그것은 우리 가문

만의 독특한 의식으로, 지난 수 세기 동안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모든 후계자가 성인이 될 때마다 치러온 것이었다. 우리 가문의 문장이나 문양처럼 개인적인 관심사일 뿐이며 고고학자에게는 약간의 의미가 있을지 모르나, 실질적인 쓸모는 전혀 없는 것이었다."

"그 문서는 나중에 다시 살펴보는 게 좋겠군요." 내가 말했다.

"정말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요." 그가 다소 망설이며 대답했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브런턴이 남겨둔 열쇠로 서랍장을 다시 잠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려는데, 집사가 다시 돌아와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머스그레이브 씨, 제발요!" 그가 감정에 북받쳐 쉰 목소리로 외쳤다. "저는 불명예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늘 제 처지보다 더 높은 자부심을 품고 살아왔는데, 불명예를 안게 된다면 차라리 죽고 말 것입니다. 만약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으신다면, 제 피는 당신의 책임이 될 겁니다. 정말로 그렇단 말입니다! 만약 지난 일 때문에 저를 계속 고용하실 수 없다면, 제발 부탁이니 제가 스스로 사직하는 것처럼 한 달 뒤에 떠나겠다고 통보할 기회라도 주십시오. 머스그레이브 씨, 차라리 그건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 아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것만큼은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브런턴, 자네는 존중받을 자격이 없네." 내가 대답했다. "자네의 행실은 참으로 파렴치했어. 하지만 이 집안에서 오래 일해온 만큼, 자네를 대중 앞에 망신 주고 싶지는 않네. 그렇다고 한 달이나 머무는 건 너

무 길어. 일주일 안에 떠나게. 떠나는 이유는 자네가 원하는 대로 둘 테니."

"겨우 일주일뿐입니까, 선생님?" 그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외쳤다. "보름은요, 적어도 보름은 있어야 합니다!"

"일주일이라니요." 내가 되물었다. "그 정도면 아주 관대한 처분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그는 마치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고개를 가슴팍에 푹 숙인 채 살금살금 자리를 떠났다. 나는 등불을 끄고 내 방으로 돌아왔다."

"그 일이 있은 후 이틀 동안 브런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성실하게 업무에 임했다. 나는 지난 일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고, 그가 자신의 치욕을 어떻게 덮으려 할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보았다.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내 지시를 받으러 나타나야 할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식당을 나서던 나는 마침 하녀 레이첼 하웰스와 마주쳤다. 전에도 말했듯이 그녀는 최근에 병을 앓고 난 참이었다. 그런데 안색이 너무나 창백하고 초췌해 보여서, 나는 그녀에게 일을 하지 말고 쉬라고 타일렀다."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드는 게 좋겠소." 내가 말했다. "기운을 좀 더 차린 다음에 다시 업무에 복귀하시오."

"그녀는 아주 기묘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이 어찌나 이상한지, 나는 그녀의 정신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게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다."

"전 충분히 강해요, 머스그레이브 씨." 그녀가 말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은 들어봐야 알겠지." 내가 대답했다. "이제 일은 그만두게나. 아래층으로 내려가면 내가 브런턴을 보고 싶다고 전해달라고 말하면 되네."

"집사가 사라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사라졌다고요! 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입니까?"

"그는 떠났어요.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방에도 없고요. 아, 그래요, 그는 떠났어요. 떠나버렸다고요!"

그녀는 비명 같은 웃음을 연신 터뜨리며 벽을 향해 쓰러지듯 기대앉았다. 갑작스러운 히스테리 증세에 경악한 나는 도움을 요청하려 급히 벨을 눌렀다. 여자는 여전히 비명을 지르고 흐느끼며 방으로 옮겨졌고, 나는 브런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그가 사라졌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침대는 사용한 흔적이 없었고, 전날 밤 방으로 들어간 이후 그를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가 어떻게 집을 빠져나갔는지는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아침에 확인해 보니 창문과 문이 모두 잠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의 옷가지와 시계, 심지어 돈까지 방에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평소 즐겨 입던 검은색 정장만큼은 보이지 않았다. 슬리퍼도 사라졌으나 부츠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 대체 집사 브런턴은 밤사이에 어디로 간 것이며, 지금은 어떻게 된 것일까?

"물론 지하실부터 다락방까지 집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에 대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집은 미로처럼 복잡한 오래된 저택입니다. 특히 지금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 본채 쪽은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모든 방과 지하실을 낱낱이 뒤졌음에도 실종된 남자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을 그대로 남겨둔 채 떠났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대체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지역 경찰까지 불렀지만 아무런 소득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에 비가 내린 터라 집 주변의 잔디밭과 통로를 모두 조사해 보았지만, 역시 허사였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을 때, 원래의 미스터리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의 주의를 완전히 돌려놓았습니다."

"레이첼 하웰스는 이틀 동안 몸이 몹시 좋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헛소리를 하고, 때로는 히스테리 증세를 보여 밤마다 곁을 지킬 간호사를 고용해야 할 정도였죠. 브런턴이 사라진 뒤 세 번째 밤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환자가 곤히 잠든 것을 확인하고 안락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른 아침에 깨어보니 침대는 비어 있고 창문은 열려 있었으며 환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잠에서 깨어나 하인 두 명과 함께 사라진 소녀를 찾아 곧장 나섰습니다. 소녀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알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창문 아래에서부터 시작된

발자국이 잔디밭을 가로질러 호숫가까지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발자국은 부지를 벗어나게 해주는 자갈길 근처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그곳 호수의 깊이는 8피트나 됩니다. 정신을 놓아버린 가련한 소녀의 발자국이 호숫가에서 딱 끊겨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저희의 심정이 어땠을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당연히 즉시 인양 작업을 시작해 유해를 수습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시신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지요. 대신 전혀 예상치 못한 물건이 떠올랐습니다. 낡고 녹슬어 변색된 금속 덩어리와 빛바랜 조약돌 혹은 유리 조각들이 담긴 린넨 주머니였습니다. 호수에서 건져 올린 것이라고는 이 기묘한 물건들이 전부였습니다. 어제 가능한 모든 수색과 조사를 다 해보았지만, 레이첼 하웰스나 리처드 브런턴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전히 알 길이 없습니다. 카운티 경찰들도 이제는 도저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마지막 수단으로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왓슨, 내가 이 기이한 사건들을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경청했는지, 그리고 이 조각들을 하나로 맞추어 이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공통된 실마리를 찾아내려 얼마나 애썼는지 자네도 상상이 될 걸세. 집사는 사라졌고, 하녀도 사라졌지. 하녀는 집사를 사랑했지만, 나중에는 그를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겼다네. 그녀는 웨일스 혈통이라 성격이 불같고 열정적이었지. 집사가 사라진 직후 그녀는 몹시 흥분한 상태였네. 그녀는 정체 모를 물건들이 든 가방을 호수에 던져버렸고 말이야. 이 모든 것들은 분명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었지만, 그 무엇도 사건의 핵심에는 닿지 못했네. 이 일련의 사건들이 시작된 지점은 대체 어디였을까? 이 엉클어진 실타래의 끝은 바로 그곳에 있었네."

"머스그레이브, 그 서류를 반드시 봐야겠네." 내가 말했다. "자네 집 집사가 직장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확인하려 했던 그 서류 말일세."

"우리 식의 이런 의례라는 게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지요." 그가 대답했다. "그래도 오래된 관습이라는 점이 그나마 면죄부가 되어주긴 합니다. 혹시 훑어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질문과 답변을 적어둔 사본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건네준 종이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네, 왓슨.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모든 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반드시 답해야 했던 기묘한 문답서지. 질문과 답변을 있는 그대로 읽어주겠네."

"그건 누구의 것이었나?"

"'떠나간 이의 것.'"

"누가 이것을 가질 것인가?"

"'오실 분.'"

"태양은 어디에 있었지?"

"'오크 나무 너머에.'"

"그 그림자는 어디에 있었나?"

"'느릅나무 아래에.'"

“어떻게 발을 뗐습니까?”

"북쪽으로 10과 10, 동쪽으로 5와 5, 남쪽으로 2와 2, 서쪽으로 1과 1, 그리고 그 아래로."

“그걸 얻으려면 무엇을 내놓아야 하겠나?”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가 왜 그걸 줘야 하죠?”

“‘신뢰를 위해서 말일세.’”

“원본에는 날짜가 적혀 있지 않네. 하지만 17세기 중반의 철자법을 따르고 있지.” 머스그레이브가 말했다. “하지만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자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걱정이군.”

“적어도 새로운 수수께끼가 하나 더 생겼으니 다행이군요.” 내가 말했다. “심지어 첫 번째 사건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수수께끼 말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사건을 풀다 보면 두 번째 사건의 실마리도 함께 찾게 될지도 모릅니다. 머스그레이브 씨, 결례가 안 된다면 이런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당신의 집사 말입니다. 그분은 아주 영리한 사람이었던 것 같군요. 당신 가문의 열 대에 걸친 주인들보다 훨씬 더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군요.” 머스그레이브가 말했다. “그 종이 쪼가리가 실질적으로 무슨 중요성이 있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제게는 대단히 실용적으로 보입니다. 브런턴도 같은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는 아마 당신이 그를 붙잡았던 그날 밤 이전에 이미 그것을 본 적이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숨기려고 애쓰지도 않았으니까요.”

“제 생각에 그는 그저 마지막 상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는 어떤 지도나 도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원고와 대조해 보고 있었다더군요. 그러다 당신이 나타나자 얼른 주머니에 찔러 넣었다고 합니다.”

"그 말이 맞네. 하지만 그가 우리 가문의 오래된 관습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 그리고 이 종잡을 수 없는 문구는 또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거지?"

“그 점을 밝혀내는 데는 그리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허락해 주신다면, 서섹스행 첫차를 타고 내려가서 현장을 직접 좀 더 자세히 조사해 보시지요.”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헐스톤에 도착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유명한 고택의 사진을 보거나 설명을 읽어본 적이 있을 테니, 건물에 대한 설명은 짧게 줄이겠다. 건물은 L자 모양으로 지어져 있는데, 긴 쪽은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부분이고 짧은 쪽은 건물의 중심이 된 오래된 본

채다. 이 본채의 중앙에는 낮고 두꺼운 상인방이 놓인 문이 있는데, 그 위에는 1607년이라는 연도가 새겨져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들보와 석조 구조물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다고 입을 모은다. 이 구역은 벽이 엄청나게 두껍고 창문은 아주 작아서, 지난 세기에는 가족들이 생활하기 불편해 결국 새로운 별관을 지어야만 했다. 그래서 지금은 본채를 거의 쓰지 않으며, 가끔 창고나 지하실로만 사용한다. 저택 주변에는 고목들이 울창한 멋진 공원이 펼쳐져 있고, 의뢰인이 언급했던 호수는 진입로 근처, 건물에서 약 200야드 떨어진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왓슨, 나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네. 이곳에 세 개의 별개 사건이 있는 게 아니라, 단 하나의 사건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이야. 만약 내가 머스그레이브 의식을 제대로 읽어낼 수만 있다면, 집사 브런턴과 하녀 하웰스 두 사람에 얽힌 진실로 나를 인도할 결정적인 단서를 손에 넣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그래서 나는 모든 에너지를 그 의식을 분석하는 데 쏟아부었네. 도대체 이 하인은 왜 그 오래된 공식에 그토록 집착했던 걸까? 분명 그 공식 안에서 수 세대에 걸친 시골 지주들도 미처 발견하지 못한 무언가를 찾아냈기 때문일 테고,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이득이 될 거라 기대했기 때문이겠지. 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었기에 그의 운명을 이토록 뒤흔들어 놓은 것일까?"

그 의례문을 읽자마자 나는 곧바로 깨달았다. 수치로 기록된 치수들은 문서의 나머지 부분에서 언급하는 어떤 지점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다. 만약 우리가 그 지점만 찾아낼 수 있다면, 머스그레이브

가문의 옛 조상들이 왜 이토록 기이한 방식으로 비밀을 간직하려 했는지, 그 실체에 충분히 다가갈 수 있을 터였다.

우리에겐 시작점이 될 두 가지 단서가 주어졌다. 바로 참나무와 느릅나무였다. 참나무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 저택 바로 앞, 진입로 왼쪽에는 내가 평생 본 나무 중 가장 장엄한 모습의 거대한 참나무 한 그루가 위엄 있게 서 있었다.

"당신의 의식이 작성될 당시에도 저것은 저 자리에 있었소." 우리가 그곳을 지나쳐 차를 타고 가던 중 내가 말했다.

"아마도 노르만 정복 시기부터 그 자리에 있었을 겁니다." 그가 대답했다. "둘레가 23피트에 달하죠."

"오래된 느릅나무가 좀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저 너머에 아주 오래된 나무가 한 그루 있었지요. 하지만 10년 전에 벼락을 맞았고, 그래서 밑동만 남기고 베어버렸습니다."

"'원래 있던 자리가 어디인지 알 수 있겠나?'"

"아, 그럼요."

"다른 느릅나무는 없단 말인가요?"

"오래된 나무는 없지만, 너도밤나무는 아주 많습니다."

"그것이 자라던 곳을 직접 보고 싶군."

우리는 도그 카트를 타고 도착했다. 의뢰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곧장 나를 이끌었다. 그가 데려간 곳은 느릅나무가 서 있던 잔디밭의 흉터 같은 자국이었다. 그곳은 참나무와 집 사이의 거의 중간 지점이었다.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했다.

"그 느릅나무가 얼마나 높았는지는 도저히 알아낼 방법이 없겠지요?" 내가 물었다.

"당장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64피트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내가 놀라서 물었다.

"옛날 스승님께서 삼각법 문제를 내주실 때면, 항상 높이를 재는 방식이었죠. 어릴 적에는 저택 부지에 있는 나무와 건물들의 높이를 전부 계산해 보곤 했습니다."

뜻밖의 행운이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정보가 들어오고 있었다.

"말해 보시오." 내가 물었다. "집사가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소?"

레지널드 머스그레이브는 깜짝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말을 들으니 이제야 기억이 나는군요." 그가 대답했다. "몇 달 전이었죠. 브런턴이 마부와 사소한 말다툼을 벌였는데, 그 일과 관련해서 나무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내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반가운 소식이었네, 왓슨.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태양의 위치를 확인했네. 해는 이미 낮게 기울어 있었고,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저 오래된 참나무의 맨 꼭대기 가지 바로 위에 걸릴 것 같더군. 그렇게 되면 의식에 명시된 조건 중 하나가 충족되는 셈이지. 그리고 느릅나무 그림자는 반드시 그 그림자의 끝부분을 의미해야만 하네. 그렇지 않다면 나무줄기를 지표로 삼았을 테니까. 결국 내 과제는 태양이 참나무 위로 완전히 넘어가는 순간, 그림자의 끝이 어디에 닿을지를 찾아내는 것이었네.

"그 느릅나무가 사라진 뒤에는 정말 고생이 많았겠군, 홈즈."

"글쎄요, 적어도 브런턴이 해냈다면 저 역시 할 수 있다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게다가 딱히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저는 머스그레이브를 따라 그의 서재로 가서 이 말뚝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긴 줄을 가져와 1야드마다 매듭을 지어 묶었죠. 그러고 나서 딱 6피트 길이인 낚싯대 두 개를 챙겨 의뢰인과 함께 느릅나무가 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태양은 참나무 꼭대기에 겨우 걸쳐 있었습니다. 저는 낚싯대를 수직으로 세워 그림자가 가리키는 방향을 표시한 뒤 길이를 쟀습니다. 그림자의 길이는 정확히 9피트였습니다."

"물론 계산은 간단했습니다. 6피트 높이의 막대기가 9피트의 그림자를 만든다면, 64피트 높이의 나무는 96피트의 그림자를 드리울 테니까요. 당연히 두 그림자의 방향도 일치하겠지요. 저는 거리를 재어 나갔습니다. 거의 저택 벽면에 다다랐을 무렵, 저는 그 지점에 말뚝을 박았습니다. 왓슨,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뻤을지 상상이 가십니까? 말뚝을 박

은 곳에서 불과 2인치 떨어진 지점에 원뿔 모양으로 움푹 파인 흔적이 보였거든요. 그것이 브런턴이 측량하며 남긴 표시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여전히 그의 흔적을 좇고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먼저 주머니에서 나침반을 꺼내 방위부터 확인했다. 그다음 이 지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발걸음을 옮겼다. 한 발씩 열 걸음을 내디디니 집 벽과 평행한 방향이 되었다. 나는 그곳에 다시 말뚝을 박아 위치를 표시했다. 그러고 나서 동쪽으로 다섯 걸음, 남쪽으로 두 걸음을 신중하게 걸어갔다. 그러자 오래된 문턱 바로 앞까지 다다랐다. 이제 서쪽으로 두 걸음을 더 가야 한다는 것은 돌이 깔린 통로를 따라 두 걸음 내려가라는 뜻이었다. 바로 그곳이 의식에서 지시한 장소였다."

"왓슨, 이토록 서늘한 실망감을 느껴본 적은 없네. 잠시 동안은 내 계산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라네. 지는 해가 복도 바닥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 바닥을 덮은 낡고 닳아버린 회색 돌들을 보니, 돌들은 서로 단단히 맞물려 있었고 아주 오랫동안 전혀 움직인 흔적이 없었네. 브런턴이 여기서 작업한 흔적은 전혀 없었어. 바닥을 두드려 보았지만 어디를 치든 소리는 똑같았고, 갈라진 틈이나 틈새조차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다행히도 머스그레이브가 내 행동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더군. 그는 나만큼이나 흥분한 상태로 자신의 원고를 꺼내 내 계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았네."

"'그리고 그 아래에'라고요!" 그가 외쳤다. "'그 아래에'라는 말을 빼먹으셨잖아요."

"처음에는 땅을 파야 한다는 뜻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곧 제 생각이 틀렸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저는 외쳤습니다. '그럼 이 아래에 지하실이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집만큼이나 오래된 것이지요. 이 문을 지나 아래로 내려가면 나옵니다."

우리는 구불구불한 돌계단을 내려갔다. 동행하던 이가 성냥을 그어 구석에 놓인 통 위에 올려둔 커다란 랜턴을 밝혔다. 랜턴 불빛이 비치자마자 우리는 이곳이 마침내 찾아 헤매던 진짜 장소라는 사실을 즉각 깨달았다. 또한 최근에 이곳을 방문한 사람이 우리뿐만이 아니라는 사실도 금세 알 수 있었다.

그곳은 원래 땔감을 쌓아두는 창고로 쓰였던 모양이다.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통나무들은 이제 벽 쪽으로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덕분에 가운데에는 탁 트인 공간이 생겨 있었다. 그 빈 공간 한가운데에는 크고 무거운 판석 하나가 놓여 있었다. 판석 중앙에는 녹슨 철제 고리가 박혀 있었는데, 그 고리에는 두툼한 양치기용 체크무늬 목도리가 묶여 있었다.

"세상에나!" 의뢰인이 외쳤다. "저건 브런턴의 머플러예요. 분명히 그가 두르고 있는 걸 봤습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악당이 대체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내가 제안하여 현지 경찰 몇 명을 불러 모았다. 그들이 도착하자 나는 넥타이를 잡아당겨 돌을 들어 올리려 애썼다. 하지만 돌은 아주 조

금밖에 움직이지 않았다. 결국 순경 중 한 명의 도움을 받아서야 겨우 돌을 옆으로 치울 수 있었다. 돌을 치우자 그 아래로 검은 구멍이 입을 벌린 듯 나타났다. 우리는 모두 그 안을 들여다보았고, 옆에 무릎을 꿇고 있던 머스그레이브는 랜턴을 구멍 아래로 밀어 넣었다.

깊이가 7피트, 가로세로가 4피트 정도 되는 작은 방 하나가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방 한쪽에는 황동 테두리를 두른 뭉툭한 나무 상자가 놓여 있었다. 상자의 뚜껑은 경첩으로 연결되어 위로 열려 있었고, 자물쇠에는 기묘하게 생긴 구식 열쇠 하나가 꽂혀 있었다. 상자 겉면은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습기와 벌레 때문에 나무가 부식되어 안쪽에는 거무스름한 버섯들이 무리 지어 자라고 있었다.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것처럼 오래된 동전으로 보이는 금속판 몇 개가 상자 바닥에 흩어져 있었을 뿐, 그 안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낡은 궤짝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우리의 시선은 궤짝 옆에 웅크리고 있는 무언가에 완전히 빼앗겨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의 형체였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쪼그려 앉은 채, 이마를 궤짝 모서리에 파묻고 양팔을 좌우로 길게 뻗고 있었다. 그 자세 때문에 피가 얼굴로 몰려들어, 일그러진 간색(肝色)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시신을 일으켜 세워 보니, 그의 키와 옷차림, 머리카락만으로도 의뢰인이 찾던 행방불명된 집사가 확실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는 죽은 지 며칠은 지난 상태였으나, 몸 어디에도 그 비극적인 죽음의 원인을 짐작게 할 상처나 멍 자국은 없었다. 지하실에서 시신을 옮겨낸 뒤

에도, 우리는 처음에 마주했던 문제만큼이나 까다로운 난제 앞에 여전히 서 있었다.

"왓슨, 고백하자면 지금까지 내 수사는 실망스러운 상태였네. 의식에 언급된 그 장소만 찾아낸다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거든. 하지만 막상 그곳에 도착하고 보니, 그 가문이 그토록 치밀하게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알아내려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더군. 브런턴의 운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잡았지만, 이제는 그에게 그런 비극이 어떻게 닥쳤는지, 그리고 사라진 그 여인이 이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혀내야만 하네."

나는 구석에 놓인 작은 통 위에 앉아 사건의 전말을 차분히 되짚어 보았다.

"왓슨, 이런 사건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잘 알지 않나. 나는 우선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보는 걸세.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을 가늠해 본 뒤에, 만약 내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상상해 보는 거지. 이번 사건은 브런턴의 지능이 워낙 뛰어난 편이라 과정이 단순했네. 천문학자들이 말하는 '개인적 변수'를 고려할 필요가 없었거든.

그는 귀중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네. 장소도 이미 파악했지. 하지만 그것을 덮고 있는 돌이 혼자서는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무겁다는 사실도 깨달았을 거야. 그렇다면 그다음엔 무엇을 했을까? 믿을 만한 사람이 있다 해도, 문빗장을 풀고 밖에서 도움을

받으려 한다면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네. 차라리 집 안에 조력자를 두는 편이 나았겠지.

하지만 누구에게 부탁할 수 있었을까? 이 여인은 그에게 헌신적이었네. 남자는 자신이 아무리 상대를 함부로 대했더라도, 여자의 사랑을 영영 잃어버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란 늘 어려운 법이지. 그는 우선 몇 번의 친절을 베풀어 하웰스 양과 화해를 시도했을 걸세. 그러고 나서 그녀를 공범으로 끌어들였겠지. 두 사람은 밤중에 함께 지하실로 내려가 힘을 합쳐 돌을 들어 올렸을 것이고 말이야. 여기까지는 마치 내가 그들의 행동을 직접 눈앞에서 본 것처럼 명확히 그려지네."

하지만 그들 중 단 두 명뿐이었고, 그중 한 명은 여자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돌을 들어 올리는 일은 분명 엄청난 중노동이었을 것이다. 건장한 서섹스 경찰관과 내가 해냈을 때도 결코 가벼운 작업이 아니었으니까.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았을까? 아마 나였다면 했을 법한 방식을 썼을 것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진 나무토막들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다. 곧 내가 예상했던 단서가 눈에 들어왔다. 길이 약 3피트 정도 되는 나무토막 하나는 한쪽 끝이 깊게 파여 있었고, 다른 몇몇 토막은 마치 엄청난 무게에 눌린 듯 옆면이 납작하게 뭉개져 있었다.

상황은 명확했다. 그들은 돌을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 틈새에 나무토막들을 밀어 넣었을 것이다. 그러다 틈이 기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벌어지면, 나무토막 하나를 길이 방향으로 세워 끼워 넣어 돌이

내려앉지 않게 지탱했을 터였다. 이때 돌 전체의 무게가 나무토막을 다른 판의 모서리 쪽으로 강하게 내리누르니, 나무토막의 아랫부분이 깊게 파이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여기까지는 내 추리가 틀림없어 보였다.

"자, 이제 이 한밤중의 비극을 어떻게 재구성해야 할까? 분명 그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브런턴뿐이었다. 그 소녀는 분명 위에서 기다리고 있었을 것이다. 브런턴이 상자의 자물쇠를 풀고 그 내용물을 위로 건네주었겠지. 내용물이 발견되지 않은 걸 보면 아마 그랬을 것이다. 그다음은, 그다음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 열정적인 켈트 여인의 영혼 속에는 어떤 복수심의 불꽃이 갑작스럽게 타오른 것일까? 자신에게 잘못을 저지른 남자, 어쩌면 우리가 짐작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그 남자가 자신의 손아귀에 들어온 것을 보았을 때 말이다. 나무 지지대가 우연히 미끄러지는 바람에 돌덩이가 브런턴을 가두어 그의 무덤이 되어버린 것일까? 그녀는 그저 그의 운명에 대해 침묵했을 뿐일까? 아니면 그녀가 휘두른 갑작스러운 일격이 지지대를 쳐서 돌판이 굉음을 내며 제자리로 떨어지게 만든 것일까?

어찌 되었든, 나는 여전히 그 여인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그녀는 자신이 찾아낸 보물을 움켜쥔 채 구불구불한 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등 뒤에서는 억눌린 비명이 들려와 그녀의 귀를 울리고, 배신한 연인의 숨통을 조이는 돌판을 향해 미친 듯이 두드리는 손길이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신경이 곤두섰던 이유,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터져 나온 히스테리적인 웃음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 하지만 상자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을까? 그녀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 분명 의뢰인이 늪에서 건져 올린 낡은 금속 조각과 자갈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범죄의 마지막 흔적마저 없애기 위해 기회가 닿는 대로 그것들을 그 늪에 던져 넣었던 것이다.

나는 20분 동안 미동도 없이 앉아 이 문제를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머스그레이브는 여전히 안색이 창백한 채로 서 있었다. 그는 랜턴을 흔들며 구멍 아래를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것들은 찰스 1세 시대의 동전입니다."

그가 상자 안에 들어있던 동전 몇 개를 내밀며 말했다.

"우리가 의식의 시기를 추정한 것이 옳았다는 걸 이제 확인하셨겠지요."

"'찰스 1세와 관련된 다른 물건을 찾을 수도 있겠어!' 의식의 첫 두 질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갑자기 깨달은 나는 외쳤다. '자, 자네가 그 호수에서 건져 올린 가방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좀 보세.'"

우리는 그의 서재로 올라갔고, 그는 그 유물들을 내 앞에 펼쳐 놓았다. 막상 그것들을 직접 보니, 왜 그가 이 물건들을 별 중요치 않게 여겼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금속은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고, 보석들은 빛을 잃어 탁하고 흐릿했다. 하지만 내가 보석 하나를 소매에 문질러 보자, 손바닥 안의 어두운 빈 공간에서 마치 불꽃이 이는 것처럼 환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금속 장식은 이중 고리 형태였으나, 원래의 모양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구부러지고 뒤틀려 있었다.

"왕이 서거한 뒤에도 왕당파가 영국에서 계속 세력을 떨쳤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네." 내가 말했다. "그들이 마침내 피신할 때도, 나중에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돌아와 찾으려는 생각으로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뒤에 묻어두고 떠났을 가능성이 크네."

"내 조상인 랄프 머스그레이브 경은 저명한 왕당파였고, 찰스 2세가 방랑하던 시절 그의 오른팔 역할을 했던 분이라네." 내 친구가 말했다.

"아, 정말 그렇군요!" 내가 대답했다. "이제 우리가 찾던 마지막 연결 고리가 완성된 것 같습니다. 비록 과정은 다소 비극적이었지만, 참으로 값진 유물을 손에 넣으셨으니 축하를 드려야겠군요. 이 물건은 그 자체로도 가치가 높지만, 역사적 희귀물로서의 중요성은 훨씬 더 큽니다."

"그럼, 대체 그게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가 경악하며 숨을 몰아쉬듯 물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영국 국왕들이 대대로 써 온 고대의 왕관입니다."

"왕관이라니!"

"정확합니다. 의례의 내용을 생각해보십시오. 의례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것은 누구의 것인가?' '떠나간 자의 것이다.' 찰스 1세가 처형된 이후의 내용이지요. 그다음은 이렇습니다. '그것을 누가 가질 것인

가?' '올 자가 가질 것이다.' 이것은 이미 그 등장이 예견되었던 찰스 2세를 뜻합니다. 제 생각에, 이 찌그러지고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왕관이 한때 스튜어트 왕가 사람들의 머리를 장식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연못에 빠지게 된 거죠?"

"아, 그 질문에 답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나는 그렇게 말하며 내가 세운 추측과 증거의 긴 사슬을 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 주었다. 내 이야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미 황혼이 저물고 하늘에는 달이 밝게 떠 있었다.

"그렇다면 찰스가 돌아왔을 때 왜 왕관을 받지 못했던 건가?" 머스그레이브가 유물을 다시 리넨 주머니에 밀어 넣으며 물었다.

"아, 바로 그 지점이군요. 우리가 아마 영원히 풀지 못할지도 모를 핵심적인 대목 말입니다. 아마도 그 비밀을 알고 있던 머스그레이브가 그사이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그러다 실수로 후손에게 이 지침을 남기면서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설명해주지 않은 것이겠지요. 그날 이후로 이 지침은 대를 이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결국 그 비밀을 억지로 파헤치려다 목숨까지 잃고 만 한 사람의 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머스그레이브 의식에 얽힌 이야기라네, 왓슨. 왕관은 지금 허를스톤에 보관되어 있지. 비록 그 왕관을 계속 소유하기까지 법적인 분쟁도 겪었고 상당한 액수의 돈도 물어내야 했지만 말이야. 내 이

름을 대면 기꺼이 왕관을 보여줄 걸세. 그 여인에 대해서는 이후로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았네. 아마 영국을 떠나 바다 너머 먼 나라로 도망쳐, 자신의 몸과 범죄의 기억을 모두 품은 채 숨어 살게 된 것이겠지."

레이게이트의 지주들

VII. 레이게이트의 지주들

내 친구 셜록 홈즈가 1887년 봄에 겪었던 극심한 피로에서 건강을 회복하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네덜란드-수마트라 회사와 모페르튀스 남작의 거대한 음모에 관한 사건은 대중의 기억 속에 여전히 생생할 뿐만 아니라, 정치 및 금융 문제와도 너무 밀접하게 얽혀 있어 이 연작 단편들의 주제로 다루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하지만 그 사건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아주 기묘하고 복잡한 문제로 이어졌고, 덕분에 내 친구는 평생 범죄와 싸우며 사용해 온 수많은 무기 중 하나인 새로운 수단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기록을 다시 살펴보니, 리옹에서 전보를 받은 날은 4월 14일이었다. 홈즈가 뒬롱 호텔에서 병석에 누워 있다는 내용이었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나는 그의 병실에 도착했다. 다행히 증상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안도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강철 같던 그의 체력도 두 달 넘게 이어진 수사로 인해 결국 무너지고 말았다. 그 기간 동안 홈즈는 하루

에 적어도 15시간 이상을 일했으며, 본인 말로는 닷새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수사에만 매달린 적도 여러 번 있었다고 했다.

그토록 처절한 노력이 마침내 승리라는 결실을 보았음에도, 극심한 피로가 몰려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유럽 전역이 그의 이름을 연호하고, 그의 방에 축하 전보가 발목 높이까지 쌓여 있을 때, 정작 홈즈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있었다. 세 나라의 경찰도 실패한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도, 유럽에서 가장 노련한 사기꾼을 모든 면에서 압도했다는 사실도, 신경쇠약에 빠진 그를 일으켜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사흘 뒤 우리는 다시 베이커가에서 만났다. 하지만 내 친구에게는 기분 전환이 절실해 보였다. 나 역시 봄기운이 완연한 시골에서 일주일을 보낸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내가 진료했던 오랜 친구 헤이터 대령은 최근 서리주의 레이게이트 근처에 집을 마련했다. 그는 내게 자주 내려와 놀다 가라고 권하곤 했다. 지난번 만났을 때 그는 만약 내 친구도 함께 온다면 기꺼이 대접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홈즈를 설득하려면 약간의 외교적 수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곳이 독신 남성들이 머무는 곳이며,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온전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홈즈도 내 계획에 흔쾌히 동참했다. 리옹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만에 우리는 대령의 저택에 도착했다. 헤이터 대령은 세상을 두루 경험한 훌륭한 노병이었다. 그리고 내 예상대로, 그는 홈즈와 공통점이 아주 많다는 사실을 금세 깨달았다.

우리가 도착한 날 저녁,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대령의 무기고에 앉아 있었다. 홈즈는 소파에 길게 몸을 뻗고 누워 있었고, 헤이터와 나는 그가 수집해 놓은 소규모 화기들을 살펴보고 있었다.

"그나저나," 그가 갑자기 말했다. "혹시라도 경보가 울릴지 모르니, 권총 하나를 챙겨 위층으로 올라가야겠어."

"비상이에요!" 내가 외쳤다.

"그렇습니다. 최근 이 근방에 소동이 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력 인사 중 한 명인 노인 액턴 씨의 저택에 지난 월요일에 도둑이 들었거든요.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범인들이 아직 잡히지 않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단서가 전혀 없단 말인가?" 홈즈가 대령을 힐끗 바라보며 물었다.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아주 사소한 일입니다. 시골에서 흔히 일어나는 작은 범죄 중 하나일 뿐이지요. 홈즈 씨, 방금 겪으신 그 거대한 국제적 사건에 비하면, 이런 일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홈즈는 칭찬을 손사래 치며 사양했지만, 입가에 번진 미소는 그가 분명 기뻐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흥미로운 특징이라도 있었나?"

"아닌 것 같군. 도둑들이 서재를 샅샅이 뒤졌지만, 고생한 것에 비하면 가져간 건 거의 없어. 집안 전체를 뒤엎어 놓았더군. 서랍은 다 터져 있고 옷장까지 낱낱이 뒤졌는데, 결과는 고작이야. 포프의 '호메로스'라는 기묘한 책 한 권이랑 은도금된 촛대 두 개, 상아로 만든 문진, 작은 오크재 기압계, 그리고 실타래 한 뭉치. 사라진 게 이 정도뿐이라니까."

"정말 기상천외한 수집품들이군요!" 내가 외쳤다.

"아, 그놈들이 눈에 보이는 건 죄다 닥치는 대로 챙겨간 모양이군요."

소파에 누워 있던 홈즈가 콧소리를 내며 대답했다.

"지방 경찰이 이 사건을 좀 조사해 봐야 할 텐데 말이야." 그가 말했다.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한 사실 아닌가. 분명히—"

하지만 나는 경고하듯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이보게, 자네는 지금 쉬러 온 거야. 제발 부탁이니 신경이 그렇게 다 곤두서 있을 때는 새로운 사건에 손대지 말게나."

홈즈는 모런 대령을 향해 익살스럽게 체념했다는 듯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러자 대화는 자연스럽게 덜 위험한 주제로 흘러갔다.

하지만 나의 직업적 신중함은 모두 헛수고가 되고 말았다. 다음 날 아침,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사건이 우리 앞에 불쑥 나타

났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우리의 시골 나들이는 우리 둘 중 누구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다.

우리가 아침 식사를 하던 중, 모런 대령의 집사 한 명이 평소의 품위는 온데간데없이 허둥지둥 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소식 들으셨습니까, 선생님?" 그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커닝햄 저택에서 말입니다, 선생님!"

"도둑이야!" 모런 대령이 커피잔을 공중에 든 채 외쳤다.

"살인이다!"

모런 대령이 휘파람을 불었다. "세상에나!" 그가 말했다. "그래서 누가 죽었단 말인가? 치안판사인가, 아니면 그 아들인가?"

"둘 다 아닙니다, 선생님. 마부였던 윌리엄이었어요. 심장에 총을 맞았는데, 그 뒤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쏜 거지?"

"도둑놈입니다, 주인님. 눈 깜짝할 사이에 도망쳐서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윌리엄이 찬장 창문으로 침입하려는 놈을 막아서다가, 주인님의 재산을 지키려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몇 시인가요?"

"어젯밤이었습니다, 선생님. 열두 시쯤이었을 겁니다."

"아, 그럼 나중에 들러보도록 하지요." 모런 대령은 태연하게 다시 아침 식사를 시작하며 말했다. 집사가 물러가자 그가 덧붙였다. "참으로 고약한 일이군요. 우리 지역의 핵심 인물인 커닝햄 노인이 아주 점잖은 분인데 말입니다. 그 사람 밑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충직한 하인이었으니, 이번 일로 상심이 무척 크겠지요. 분명 액턴의 저택을 털었던 놈들과 같은 악당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아주 기묘한 수집품들도 훔쳐 갔지."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정확합니다."

"흠!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첫인상만 보면 꽤 기묘하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활동하는 도둑 떼라면 범행 장소를 바꿔가며 움직이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같은 구역에서 두 집이나 털어버리지는 않을 테니까요. 어젯밤 당신이 예방책을 세우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이 지역은 영국에서 도둑들이 가장 마지막에나 찾아올 교구일 것이라고 말이죠. 제 생각이 틀렸다면, 제가 아직 배울 게 아주 많다는 뜻이겠군요."

"이 고장에서 활동하는 자일 것 같군요." 모런 대령이 말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액턴과 커닝햄의 집을 노렸겠지요. 그 두 집이 이 근방에서 단연 가장 큰 집이니까 말입니다."

"그중 가장 부유한 사람은요?"

"글쎄요, 원래는 그래야 마땅하겠지만, 몇 년 전부터 시작된 소송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진이 다 빠져버린 모양입니다. 늙은 액턴이 커닝햄의 유산 절반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데, 변호사들이 양쪽 모두를 붙잡고 아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고 있거든요."

"동네에서 활동하는 악당이라면 찾아내는 데 그리 큰 어려움은 없을 거요." 홈즈가 하품을 하며 말했다. "좋소, 왓슨. 나도 참견할 생각은 없으니까."

"포레스터 경위님 오셨습니다." 집사가 문을 활짝 열며 말했다.

영리하고 눈매가 날카로운 젊은 관리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대령님." 그가 인사를 건넸다.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만, 베이커가의 셜록 홈즈 씨가 이곳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대령은 내 친구를 향해 손짓했고, 경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홈즈 씨, 괜찮으시다면 이쪽으로 와 주셨으면 합니다."

"운명이 그대 편이 아니군, 왓슨."

그가 웃으며 말했다.

"경위님, 마침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참이었습니다. 혹시 자세한 내용을 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가 의자에 몸을 기대며 평소와 같은 자세를 취하자, 나는 이 사건이 가망이 없음을 직감했다.

"액턴 사건 때는 아무런 단서도 없었지. 하지만 이번에는 실마리가 아주 많아. 게다가 두 사건 모두 같은 일당의 소행임이 분명해. 목격자도 있었고 말이야."

"아!"

"예, 그렇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윌리엄 커원이 총에 맞아 쓰러지자마자, 그놈은 사슴처럼 잽싸게 달아났습니다. 커닝햄 씨가 침실 창문으로 그를 보았고, 알렉 커닝햄 씨도 뒷복도에서 그를 목격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건 12시 15분 전이었습니다. 커닝햄 씨는 막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고, 알렉 씨는 가운 차림으로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마부 윌리엄이 도움을 요청하며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알렉 씨가 무슨 일인지 확인하러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지요. 뒷문은 열려 있었고, 계단 아래에 다다랐을 때 알렉 씨는 밖에서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총을 쐈고, 다른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그러자 살인범은 정원을 가로질러 울타리를 넘어 도망쳤습니다. 커닝햄 씨가 침실 창밖을 내다보았을 때, 그놈이 도로로 나가는 것을 보긴 했지만 곧바로 시야에서 놓치고 말았습니다. 알렉 씨는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확인하느라 멈춰 섰고, 그사이 악당은 완전히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놈이 중간 체구에 어두운 색 옷을 입었다는 사실 외에는 개인적으로 아는 단서가 없습

니다.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수사 중이니, 만약 그놈이 외지인이라면 곧 정체를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그 윌리엄이라는 자는 거기서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죽기 전에 무슨 말이라도 남겼나요?"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별채에 살고 있었는데, 워낙 충직한 친구라 집안에 별일은 없는지 확인하러 가던 길이었을 겁니다. 물론 이번 액턴 사건 때문에 다들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진 상태였죠. 도둑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 게 분명합니다. 자물쇠가 강제로 부서진 걸 보면 말입니다. 윌리엄이 그 광경을 목격한 건 바로 그때였습니다."

"윌리엄이 나가기 전에 어머니께 무슨 말씀이라도 드렸나요?"

"그 노부인은 나이가 아주 많고 귀도 먹어서,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충격 때문에 정신이 온전치 못한 상태지만, 원래부터 총명한 편은 아니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정황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그는 수첩에서 찢어낸 작은 종이 조각을 꺼내 무릎 위에 펼쳐 놓았다.

"이것은 죽은 이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더 큰 종이에서 뜯어낸 조각으로 보입니다. 여기 적힌 시간이 불행한 희생자가 운명을 맞이한 바로 그 시각이라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살인범이 종이의 나머지 부분을 강제로 뜯어갔을 수도 있고, 혹은 희생자가 범인에게

서 이 조각을 빼앗았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만나기로 약속한 내용처럼 읽히는군요."

홈즈는 종이 조각을 집어 들었다. 그 종이의 복사본을 여기에 실었다.

"그게 만약 약속된 만남이었다고 가정한다면," 경위가 말을 이었다. "이론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윌리엄 커완이 비록 정직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듣긴 했어도, 어쩌면 도둑과 한패였을지도 모르니까요. 그곳에서 도둑을 만나 문을 부수고 침입하는 걸 도와줬을 수도 있고, 그러다 둘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이 글은 아주 흥미롭군."

홈즈가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하며 글을 살피다 말고 말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사건이야."

그는 두 손에 머리를 묻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 모습을 본 경위는 자신의 사건이 런던의 그 유명한 전문가를 이토록 몰입시켰다는 사실에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다.

"도둑과 하인 사이에 내통이 있었을 가능성, 그리고 이 쪽지가 서로 약속을 잡기 위한 것이라는 당신의 마지막 추측 말입니다." 잠시 후 홈즈가 입을 열었다. "참으로 기발하고도 아주 불가능한 가설은 아니군요. 하지만 이 글을 자세히 살펴보면—"

홈즈는 다시 두 손에 머리를 파묻었다. 그러고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그가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의 뺨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고, 눈빛은 병에 걸리기 전처럼 다시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전의 그 넘치는 활력을 되찾은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렇게 하시죠." 홈즈가 말했다.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조용히 한 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아주 흥미를 끄는 구석이 있거든요. 모런 대령님, 실례가 안 된다면 제 친구 왓슨과 대령님을 잠시 떠나 경위와 함께 다녀오겠습니다. 제 머릿속에 떠오른 몇 가지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오죠. 30분 뒤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 시간 반이 지나서야 경위가 홀로 돌아왔다.

"홈즈 씨는 지금 밖의 들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 네 사람 모두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길 원하더군요."

"커닝햄 씨 댁으로 가시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말입니까?"

경위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잘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 제 생각에 홈즈 씨는 아직 병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행동도 아주 이상하고, 무척 흥분해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겁니다." 내가 말했다. "그의 광기 어린 행동에도 대개는 나름의 논리가 있더군요."

"어떤 이들은 그의 방식이 광기 어린 짓이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경위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대령님,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 나갈 기세이니 준비되셨다면 어서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들판을 이리저리 서성이는 홈즈를 발견했다. 그는 턱을 가슴팍까지 떨군 채,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깊숙이 찔러 넣고 있었다.

"사건이 점점 흥미진진해지는군." 홈즈가 말했다. "왓슨, 자네의 시골 여행은 아주 성공적이었던 모양이야. 덕분에 나도 아주 즐거운 오전 시간을 보냈네."

"사건 현장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대령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경위와 저는 함께 꽤나 많은 현장 답사를 다녀왔지요."

"진전이 좀 있나?"

"자, 우리는 꽤 흥미로운 것들을 목격했습니다. 걷는 동안 우리가 무엇을 보았는지 말씀드리지요. 우선, 우리는 이 불행한 남자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보고된 대로, 그는 분명 권총에 맞은 상처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그럼, 의심이라도 하셨던 겁니까?"

"오, 모든 것을 확인해 보는 게 좋지요. 우리의 조사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커닝햄 씨와 그의 아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들이 살인범이 도주하며 정원 울타리를 뚫고 지나간 정확한 지점을 짚어주더군요.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다음 우리는 불쌍한 그 친구의 어머니를 찾아갔네. 하지만 어머니가 연세가 아주 많으신 데다 기력까지 쇠약해진 상태라, 아무런 정보도 얻을 수 없었지."

"그래서,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범죄가 매우 기이한 사건이라는 확신이 드는군요. 아마 우리가 지금 방문한 것이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위님, 우리 둘 다 의견이 일치할 거라 믿습니다. 죽은 이의 손에 쥐여 있던 종이 조각 말입니다. 그 종이에는 마침 그가 사망한 시각이 적혀 있었으니, 이는 매우 결정적인 단서가 될 것입니다."

"홈즈 씨, 이것이 단서가 될 겁니다."

"분명히 단서가 돼요. 이 메모를 쓴 사람이 바로 그 시각에 윌리엄 커완을 침대에서 끌어낸 범인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것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바닥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경위가 말했다.

"그건 죽은 이의 손에서 뜯겨 나간 겁니다. 대체 누군가 왜 그토록 그것을 차지하려고 안달했을까요? 바로 그 종이가 범인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범인은 그 종이를 가져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주머니에 쑤셔 넣었겠지요. 그러다 종이 귀퉁이가 시체의 손아귀에 남겨진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 종이의 나머지 부분을 찾아낼 수만 있다면,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긴 합니다만, 범인을 잡기도 전에 어떻게 그놈의 주머니를 뒤질 수 있겠습니까?"

"허어, 그렇군. 충분히 고민해 볼 만한 문제였어. 그리고 또 하나 명백한 점이 있지. 그 쪽지는 윌리엄에게 전달되었어. 쪽지를 쓴 사람이 직접 가져다줄 수는 없었을 거야. 만약 직접 가져왔다면, 굳이 쪽지를 쓰지 않고 말로 직접 메시지를 전했겠지. 그렇다면 누가 쪽지를 가져왔을까? 아니면 우편으로 온 걸까?"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경위가 말했다. "윌리엄은 어제 오후 우편물로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봉투를 이미 없애버렸더군요."

"훌륭합니다!" 홈즈가 경위의 등을 두드리며 외쳤다. "경위님이 우편배달부를 만나보셨군요. 경위님과 함께 일하게 되어 정말 즐겁습니다. 자, 여기가 별장입니다. 대령님, 이쪽으로 오시지요. 사건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해된 남자가 살았던 예쁜 오두막을 지나, 참나무가 늘어선 가로수길을 따라 걸어 올라갔다. 그 길 끝에는 훌륭한 옛 퀸 앤 양식의 저택이 서 있었다. 문 위 인방에는 말플라케 전투의 날짜가 새겨져 있었다. 홈즈와 경위는 우리를 안내하며 집 주변을 돌았고, 이윽고 옆쪽 대문에 다다랐다. 그 대문은 도로를 따라 늘어선 울타리와 정원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부엌 문 앞에는 순경 한 명이 서 있었다.

"경위님, 문을 활짝 여세요." 홈즈가 말했다. "젊은 커닝햄 씨는 바로 저 계단에 서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두 남자가 몸싸움을 벌이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노인 커닝햄 씨는 왼쪽에서 두 번째 창가에 있었는데, 그 남자가 저 덤불 왼쪽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알렉 씨가 뛰어나와 부상당한 사람 곁에 무릎을 꿇었고요. 보시다시피 땅이 워낙 딱딱해서 단서를 찾을 만한 발자국이 전혀 남아 있지 않군요."

홈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집 모퉁이를 돌아 정원 길을 따라 두 남자가 내려왔다. 한 명은 눈매가 깊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노인이었다. 다른 한 명은 훤칠한 청년이었는데, 밝게 웃는 표정과 화려한 옷차림이 이곳에 오게 만든 비극적인 사건과는 묘하게 대조를 이루었다.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건가?" 그가 홈즈에게 물었다. "런던 사람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는 줄 알았더니만. 생각보다 그리 명석하지는 않은 모양이군."

"아,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셔야겠습니다." 홈즈가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그게 필요하실 테니까요." 젊은 알렉 커닝햄이 말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지금 전혀 갈피를 못 잡고 있거든요."

"단 하나뿐입니다." 경위가 대답했다. "우리는 그저 그것만 찾아낼 수 있다면—세상에, 홈즈 씨! 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 불쌍한 친구의 얼굴이 갑자기 형언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게 일그러졌다. 눈동자는 위로 뒤집혔고, 이목구비는 고통으로 뒤틀렸다. 그는 신음 소리를 억누르며 바닥에 얼굴을 박은 채 쓰러졌다. 갑작스럽고도 심한 발작에 겁에 질린 우리는 그를 부엌으로 옮겼다. 그는 커다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몇 분 동안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마침내 그는 자신의 약한 모습에 대해 면목 없다는 듯 사과하며 다시 몸을 일으켰다.

"왓슨 박사라면 내가 심한 병을 앓고 이제 막 회복했을 뿐이라고 말하겠지." 홈즈가 설명했다. "나는 가끔 이런 갑작스러운 신경쇠약 증세를 겪곤 하네."

"내 마차로 집까지 데려다줄까?" 늙은 커닝햄이 물었다.

"글쎄요, 여기 온 김에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일이지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글쎄요, 제 생각에는 불쌍한 윌리엄이라는 친구가 도착한 게 도둑이 집에 들어오기 전이 아니라, 오히려 그 후에 일어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신은 문이 강제로 열리긴 했어도 도둑이 집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다고 당연하게 여기는 모양이군요."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커닝햄 씨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 아들 알렉은 아직 잠자리에 들기 전이었거든요. 누군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렸다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는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전 탈의실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저건 어느 쪽 창문이지?"

"아버지 방 바로 옆, 왼쪽에서 마지막 창문이에요."

"두 분의 등불이 모두 켜져 있었던 게 당연하겠지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기 아주 기묘한 점들이 몇 가지 있군."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도둑이, 그것도 이미 범죄 경험이 있는 숙련된 도둑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게 과연 이상하지 않은가? 집 안의 불빛을 통해 가족 중 두 명은 아직 깨어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시간인데도, 일부러 집 안으로 침입하다니 말이야."

"범인은 아주 침착한 자였음이 틀림없어."

"물론, 사건이 이토록 기이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굳이 설명을 구하러 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젊은 알렉 씨가 말했다. "하지만 윌리엄이 그를 붙잡기 전에 그 남자가 집을 털었다는 당신의 생각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어야 하고, 그가 훔쳐 간 물건들도 보이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무엇이었느냐에 따라 다르겠지." 홈즈가 말했다. "우리가 상대하는 도둑은 아주 특이한 인물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하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 예를 들어, 액턴의 집에서 가져간 기묘한 물건들을 보게나. 그게 뭐였더라? 실타래 하나, 편지 누름돌, 그리고 그 외에 또 어떤 잡동사니들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자, 이제 모든 결정권은 홈즈 씨에게 있습니다." 노년의 커닝햄이 말했다. "홈즈 씨나 경위님이 제안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우선," 홈즈가 말했다. "보상금을 직접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당국 관계자들이 금액을 합의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일은 한시라도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여기 보상금 지급 양식을 적어 두었으니, 괜찮으시다면 서명해 주십시오. 금액은 50파운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기꺼이 500파운드라도 내놓겠소."

홈즈가 건네준 종이 조각과 연필을 받아 든 치안판사가 말했다. 그러고는 서류를 훑어보며 덧붙였다.

"하지만 내용이 아주 정확하지는 않군."

"좀 급하게 쓰느라 서둘러 적었습니다."

"보세요, 당신은 '화요일 새벽 12시 45분경, 어떤 시도가 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사실 그 일은 11시 45분에 일어난 일입니다."

나는 그 실수가 못내 마음이 아팠다. 홈즈가 이런 사소한 실수조차 얼마나 예민하게 받아들일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실 관계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은 그의 전공이었다. 하지만 최근 앓았던 병이 그를 약하게 만들었고, 이 작은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가 아직 예전의 기력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나는 깨달을 수 있었다.

경위가 눈썹을 치켜올리고 알렉 커닝햄이 웃음을 터뜨리자, 홈즈는 순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노신사가 실수를 바로잡아 주며 홈즈에게 다시 종이를 건네주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인쇄를 진행하게." 그가 말했다. "자네 생각은 아주 훌륭한 것 같군."

홈즈는 그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챙겨 수첩 속에 넣었다.

"자, 이제," 홈즈가 말했다. "우리 모두 집 안을 함께 둘러보는 게 좋겠어. 이 종잡을 수 없는 도둑놈이 혹시라도 무언가를 훔쳐서 달아나지는 않았는지 확실히 확인해 두어야 하니까."

안으로 들어가기 전, 홈즈는 강제로 열린 문을 살펴보았다. 끌이나 날카로운 칼을 틈새로 밀어 넣어 자물쇠를 억지로 뒤로 밀어낸 것이 분명했다. 도구가 박혀 들어간 자리에는 나무에 눌린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그럼, 창살은 쓰지 않으시는군요?" 그가 물었다.

"그럴 필요를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요."

"개는 안 키우시나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는 집 반대편에 묶여 있습니다."

"하인들은 언제 잠자리에 드나요?"

"열 시쯤 되었소."

"윌리엄도 보통 그 시간에는 침대에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하필이면 바로 이 밤에 그가 깨어 있었다는 사실이 참으로 기묘하군요. 자, 커닝햄 씨, 괜찮으시다면 저희에게 집 안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돌을 깔아 만든 통로가 있었고, 그 옆으로는 주방으로 이어지는 길들이 갈라져 있었다. 통로 끝에 놓인 나무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집의 2층과 바로 연결되었다. 계단은 앞쪽 홀에서 올라오는 화려한 장식의 두 번째 계단 맞은편 계단참으로 이어졌다. 이 계단참을 중심으로 거실과 여러 침실이 펼쳐져 있었는데, 커닝햄 씨와 그의 아들이 사용하는 방도 그중 하나였다. 홈즈는 집의 구조를 예리하게 살피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표정을 보니 무언가 결정적인 단서를 잡은 듯했지만, 그의 추리가 대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는 도무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이보게, 선생," 커닝햄 씨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정말 불필요한 일이야. 계단 끝에 있는 저 방이 내 방이고, 그 너머에 있는 방이 내 아들 방이라네. 도둑이 우리를 깨우지 않고 여기까지 올라오는 게 가능했을지, 그건 자네 판단에 맡기겠네."

"아무래도 방향을 틀어서 새로운 냄새를 쫓아봐야 할 것 같군요." 아들이 다소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도 조금만 더 제 뜻을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침실 창문에서 앞마당이 얼마나 잘 보이는지 확인하고 싶군요. 이쪽은 아드님의 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밀어 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쪽은 아드님이 비상벨이 울릴 때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던 옷방이겠지요. 그 방의 창문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는 침실을 가로질러 걸어가 문을 열고는, 옆방을 찬찬히 둘러보았다.

"이제 만족하시겠습니까?" 커닝햄 씨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고맙습니다. 보고 싶었던 건 다 본 것 같군요."

"정말로 그래야 한다면, 제 방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하시죠."

"번거로우시지 않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안판사는 어깨를 으쓱하더니 자신의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방 안은 가구들이 소박하게 놓인 평범한 공간이었다. 우리가 창가 쪽을 향해 방을 가로질러 나아갈 때, 홈즈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나와 함께 일행의 맨 뒤에 섰다. 침대 발치에는 오렌지가 담긴 접시와 물병이 놓여 있었다. 우리가 그 곁을 지나치던 순간, 나는 형언할 수 없는 경악에 휩싸였다. 홈즈가 내 앞에서 몸을 굽히더니, 그 물건들을 일부러 쳐서 넘어뜨린 것이다. 유리병은 수천 개의 파편으로 박살 났고, 과일들은 방 구석구석으로 굴러 흩어졌다.

"결국 일을 저질렀군, 왓슨." 홈즈가 차분하게 말했다. "카펫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놓았어."

나는 다소 당황하며 몸을 굽혔다. 그리고는 과일을 줍기 시작했다. 왠지 모르겠지만, 동행한 그가 내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직감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과일을 주운 뒤, 쓰러진 탁자를 다시 세워 놓았다.

"이보게!" 경위가 외쳤다. "그자가 어디로 사라진 건가?"

홈즈가 사라졌다.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 주세요." 젊은 알렉 커닝햄이 말했다. "제 생각에 그 친구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버지, 저랑 같이 가서 그자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해 보시죠!"

그들은 방을 급히 뛰쳐나갔고, 남겨진 경위와 대령, 그리고 나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정말이지, 나도 알렉 군의 말에 동의하는 쪽이라네." 경위가 말했다. "이 병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내 눈에는 말이야—"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인이다!"

갑작스러운 비명에 그의 말이 뚝 끊겼다. 나는 전율과 함께 그 목소리가 내 친구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나는 미친 듯이 방을 뛰쳐나가 계단참으로 달려 나갔다. 비명은 어느새 쉰 목소리의 알아듣기 힘든 외침으로 변해 있었는데, 그 소리는 우리가 처음에 방문했던 방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돌진해 그 너머에 있는 옷방까지 단숨에 뛰어 들어갔다.

커닝햄 형제는 쓰러져 있는 셜록 홈즈를 덮치듯 누르고 있었다. 연하인 커닝햄은 두 손으로 홈즈의 목을 움켜쥐고 있었고, 연상인 커닝햄은 홈즈의 손목 하나를 비틀고 있는 듯 보였다. 우리 세 사람이 순식간에 그들을 홈즈에게서 떼어놓았다. 홈즈는 안색이 매우 창백해진 채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는 분명 몹시 지쳐 보였다.

"경위님, 저 자들을 체포하세요!" 그가 숨을 몰아쉬며 외쳤다.

"무슨 혐의 때문입니까?"

"마부 윌리엄 커원을 살해한 사건 말입니다!"

경위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아,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홈즈 씨. 설마 정말로— 하려는 건 아니시겠지요?"

"쯧, 이보게, 저들의 얼굴을 좀 보라고!" 홈즈가 퉁명스럽게 외쳤다.

사람의 얼굴에서 이토록 명백한 죄의 고백을 본 적은 단언컨대 없었다. 나이 든 남자는 뚜렷한 이목구비 위에 무겁고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는데, 마치 정신이 나간 듯 멍한 상태였다. 반면 아들은 이전의 경쾌하고 자신만만하던 태도를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였다. 그의 검은 눈동자에는 위험한 야수 같은 광기가 번뜩였고, 그 기세에 잘생긴 얼굴마저 일그러져 보였다. 경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문가로 걸어가 호루라기를 불었다. 그 신호에 순경 두 명이 달려왔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커닝햄 씨." 그가 말했다. "이 모든 게 그저 황당한 오해로 끝나기를 바라지만, 당신도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알지 않습니까. 아, 제발! 내려놓으세요!" 그가 손을 휘둘러 내리치자, 젊은 남자가 막 공이를 당기려던 리볼버가 바닥으로 힘없이 떨어지며 요란한 소리를 냈다.

"그건 그대로 두게." 홈즈가 조용히 발로 그것을 짓누르며 말했다. "재판 때 유용하게 쓰일 테니까.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건 바로 이거라네." 그는 구겨진 작은 종이 한 장을 들어 올렸다.

"종이의 나머지 부분은요!" 경위가 외쳤다.

"정확합니다."

"그게 어디에 있었습니까?"

"분명 그곳에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곧 모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죠. 대령님, 이제 왓슨과 함께 돌아가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늦어도 한 시간 안에는 다시 합류하겠습니다. 경위와 저는 죄수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야 하니까요. 하지만 점심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셜록 홈즈는 약속을 어기는 법이 없었다. 그는 한 시쯤 대령의 흡연실로 다시 돌아왔다. 홈즈의 곁에는 연배가 있어 보이는 작은 체구의 신사가 한 명 동행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 발생했던 절도 사건의 현장이었던 집의 주인, 액턴 씨라고 소개되었다.

"이 사소한 문제를 당신에게 설명하는 동안 액턴 씨도 함께 있었으면 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가 세부적인 사항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대령님, 저처럼 가는 곳마다 풍파를 몰고 다니는 골칫거리 같은 사람을 손님으로 맞아들이신 그 시간을 후회하시게 될까 봐 걱정스럽군요."

"천만에요." 대령이 열띤 목소리로 대답했다. "당신의 수사 방식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제게는 더할 나위 없는 영광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당신의 방식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

더군요. 도저히 그 결과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단서의 흔적조차 찾지 못했으니까요."

"제 설명이 당신의 환상을 깨뜨릴까 봐 걱정스럽군요. 하지만 제 방식에 대해 친구인 왓슨이나, 혹은 지적인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무엇 하나 숨기지 않는 것이 제 오랜 습관입니다. 그보다 우선, 옷방에서 겪은 소동 때문에 아직 정신이 좀 없어서 말입니다. 대령님, 실례가 안 된다면 브랜디를 한 잔만 마셔도 되겠습니까? 최근 들어 기력이 부쩍 떨어졌거든요."

"그 이후로 신경쇠약 증세가 더 나타나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

셜록 홈즈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 이야기는 때가 되면 하게 될 걸세." 그가 말했다. "사건의 경위를 차례대로 설명해 주겠네. 내가 어떤 단서들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렸는지 그 과정도 함께 보여주지. 혹시 설명 중에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편하게 물어보게나."

"사건을 해결하는 기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많은 사실 중 무엇이 부수적인 것이고 무엇이 핵심적인지를 가려내는 능력이네. 그렇지 않으면 에너지를 집중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엉뚱한 곳에 낭비하게 되지. 이번 사건의 경우, 나는 처음부터 죽은 이의 손에 쥐여 있던 종이 조각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있다고 확신했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알렉 커닝햄의 진술이 맞다면, 그리고 범인이 윌리엄 커원

에게 총을 쏜 뒤 '즉시' 도망쳤다면, 죽은 이의 손에서 종이를 낚아챈 범인은 분명 그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커닝햄 본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이 계단을 내려올 때쯤이면 이미 여러 명의 하인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으니까요.

논점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경위는 이 점을 간과했습니다. 이 지역의 유력 인사들이 이번 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부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코 선입견을 품지 않으며, 사실이 이끄는 대로 순순히 따르는 것을 철칙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알렉 커닝햄 씨가 맡은 역할에 대해 약간의 의구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경위가 우리에게 제출한 종이 조각을 아주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이 아주 놀라운 문서의 일부라는 사실이 즉시 분명해졌지요. 여기 있습니다. 이제 이 조각에서 무언가 시사하는 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모양이 아주 불규칙하군요." 모런 대령이 말했다.

"여보십시오," 홈즈가 외쳤다. "이 편지는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며 쓴 게 분명합니다. 조금의 의심도 할 여지가 없어요. 자, 'at'과 'to'에 쓰인 강한 't' 자를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quarter'와 'twelve'에 쓰인 약한 't' 자와 비교해 보시죠. 그러면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이 네 단어만 아주 짧게 분석해 봐도, 'learn'과 'maybe'는 힘 있는 필체로 썼고, 'what'은 힘이 없는 필체로 썼다는 사실을 아주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이건 너무나 명백하군!" 대령이 외쳤다. "도대체 왜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쓴단 말인가?"

"분명히 이 일은 좋지 않은 거래였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던 두 사람 중 한 명은, 어떤 식으로 일이 진행되든 각자가 똑같이 그 일에 가담해야 한다고 결심한 상태였죠. 자, 이제 두 사람을 살펴보면, 'at'과 'to'를 쓴 사람이 주동자라는 사실이 명백합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에 도달하신 겁니까?"

"한쪽 손의 특징을 다른 쪽과 비교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 종이 조각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힘이 더 센 사람이 먼저 모든 단어를 써 내려갔고, 다른 사람이 채워 넣을 빈칸을 남겨두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빈칸이 항상 넉넉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기를 보면 두 번째 사람이 'at'과 'to' 사이에 자신의 단어인 'quarter'를 억지로 끼워 넣으려 애쓴 흔적이 보입니다. 이는 'at'과 'to'가 이미 적혀 있었다는 증거지요. 따라서 모든 단어를 먼저 써 내려간 사람이 바로 이 일을 계획한 인물임이 틀림없습니다."

"훌륭하군요!" 액턴 씨가 외쳤다.

"하지만 아주 피상적인 수준일 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지점에 도달했군요. 당신은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필적을 통해 사람의 나이를 추론하는 일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정확

한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그 사람이 어느 연령대에 속하는지 꽤 확신을 가지고 맞출 수 있지요. 제가 일반적인 경우라고 말하는 이유는, 건강이 나쁘거나 몸이 약하면 설령 환자가 젊은이라 해도 노년의 징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례를 보지요. 한 사람의 필적은 굵고 힘이 넘치는 반면, 다른 한 사람의 필적은 다소 힘이 빠진 모습입니다. 비록 't'자의 가로획이 흐릿해지기 시작하긴 했지만, 여전히 알아볼 수는 있는 상태죠. 이를 통해 우리는 한 명은 젊은이였고, 다른 한 명은 아주 기력이 쇠한 상태는 아니지만 나이가 꽤 지긋한 노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훌륭하군요!" 액턴 씨가 다시 한번 외쳤다.

"하지만 더 미묘하면서도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두 손글씨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혈연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필체라는 점입니다. 그리스식으로 쓴 e(엡실론 ε 모양의 e)에서 그 특징이 가장 명확히 드러나겠지만, 제 눈에는 그 외에도 같은 사실을 가리키는 작은 단서들이 아주 많이 보입니다. 이 두 필적에서 가족 특유의 습관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제가 종이를 조사하며 얻은 핵심적인 결과들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이라면 훨씬 더 흥미로워할 만한 스물세 가지의 다른 추론 결과도 더 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은 커닝햄 부자가 이 편지를 썼다는 제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 단계까지 마친 뒤, 내가 취해야 할 다음 조치는 당연히 범죄의 세부 사항을 조사하여 그것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지 확인하는

것이었다. 나는 경위와 함께 그 집으로 가서 확인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살펴보았다. 죽은 이의 상처를 확인한 결과,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총탄이 4야드가 조금 넘는 거리에서 리볼버로 발사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옷에 화약 흔적은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총성이 울릴 당시 두 사람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다는 알렉 커닝햄의 말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또한, 피해자가 도로로 도망쳤다는 지점에 대해서는 아버지와 아들 모두 의견이 일치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지점에는 바닥이 축축하고 꽤 넓은 도랑이 하나 있었다. 도랑 주변에 장화 발자국이 전혀 남아 있지 않은 것을 보고, 나는 커닝햄 부자가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현장에 정체 모를 남자가 나타난 적조차 없다는 사실을 확신했다.

"이제 이 기이한 범죄의 동기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를 알아내기 위해 저는 우선 액턴 씨의 저택에서 발생했던 최초의 절도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부터 파헤치려 했습니다. 대령님이 말씀해주신 내용을 통해, 액턴 씨와 당신, 그리고 커닝햄 일가 사이에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는 즉시 한 가지 가설을 떠올렸습니다. 범인들이 사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문서를 찾아내려고 당신의 서재에 침입했다는 사실 말입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액턴 씨가 말했다. "그들의 의도에 대해서는 한 치의 의심도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그들이 현재 보유한 재산의 절반에 대해 아주 명확한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서류 한 장이라도 찾아냈다면—다행히 그 서류는 내 변호사의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었지만—그들은 분명 우리 측의 주장을 무력화했을 겁니다."

“찾았군.”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위험하고 무모한 시도였어. 그 과정에서 젊은 알렉의 영향이 엿보이는군.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자, 그들은 범행을 평범한 절도 사건처럼 보이게 만들어 의심을 돌리려 했어. 그래서 손에 잡히는 대로 이것저것 챙겨간 거지. 여기까지는 아주 명확해. 하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점이 많았지. 무엇보다 내가 간절히 원했던 건 그 쪽지에 빠진 부분을 찾아내는 것이었어. 알렉이 죽은 이의 손에서 그 조각을 뜯어냈다는 건 확실했거든. 그리고 그걸 아마도 그의 가운 주머니에 찔러 넣었을 거라는 확신도 거의 들었지. 다른 어디에 숨겼겠나? 문제는 그 조각이 여전히 그곳에 있느냐 하는 것뿐이었어. 확인해 볼 가치가 충분했기에, 우리 모두 그 목적을 위해 집으로 올라갔던 거라네.”

"당신도 분명 기억하겠지만, 커닝햄 부자는 주방 문밖에서 우리와 합류했습니다. 그들에게 이 종이의 존재를 절대 상기시켜서는 안 되었습니다. 만약 눈치챈다면 그들은 지체 없이 종이를 없애버릴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경위가 이 종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려던 찰나, 세상에서 가장 운 좋게도 제가 발작이라도 일으킨 듯 쓰러지며 화제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나!” 헤이터 대령이 웃음을 터뜨리며 외쳤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낸 모든 동정이 헛수고였고, 당신의 그 발작도 모두 연기였다는 말입니까?”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말하자면, 정말 훌륭한 솜씨였소!”

나는 경탄하며 외쳤다. 매번 새로운 기지를 발휘하며 나를 놀라게 하는 이 남자를 바라보는 내 눈에는 경외심이 가득했다.

"꽤 유용한 기술이지." 홈즈가 말했다. "내가 회복했을 때, 나름대로 기발한 방법을 하나 써먹었거든. 늙은 커닝햄에게 '열둘'이라는 단어를 쓰게 만든 거야. 그래야 종이에 적힌 '열둘'이라는 글자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

"아,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나는 외쳤다.

"내 약점 때문에 나를 동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네."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자네가 느꼈을 그 안쓰러운 마음을 알기에, 나 역시 자네를 마음 아프게 한 것 같아 미안했네. 그러고 나서 우리는 함께 위층으로 올라갔지. 방에 들어서자마자 문 뒤에 걸린 가운이 보였네. 나는 테이블을 쓰러뜨려 잠시 그들의 주의를 돌린 뒤, 슬쩍 뒤로 물러나 주머니를 뒤졌지. 예상대로 주머니 중 하나에서 종이를 찾아냈네만, 종이를 손에 넣자마자 커닝햄 부자가 나를 덮쳤어. 자네가 즉시 도와주지 않았다면, 내 생각엔 그 자리에서 살해당했을지도 모르네. 지금도 그 젊은 녀석이 내 목을 조르던 감각이 생생하고, 아버지는 내가 종이를 뺏기지 않으려 하자 내 손목을 비틀어버렸지. 내가 모든 사실을 알아내려 한다는 걸 눈치챈 거야. 완벽한 안도감이 순식간에 절망으로 바뀌자, 그들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달려들었네."

사건이 끝난 뒤, 나는 범행 동기에 관해 노년의 커닝햄과 짧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의 아들은 권총만 손에 넣을 수 있다면 자기 머리든 남의 머리든 당장이라도 날려버릴 듯한 악마 같은 놈이었지만, 다행히 아

버지는 협조적이었다. 커닝햄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하다는 사실을 깨닫자, 이내 낙담하며 모든 죄를 자백했다.

알고 보니 윌리엄은 두 주인(커닝햄 부자)이 액턴 씨의 저택을 습격하던 밤, 몰래 그들의 뒤를 밟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두 사람의 약점을 잡은 윌리엄은 정체가 탄로 날까 두려워하는 그들을 협박하며 돈을 뜯어내 왔다. 하지만 알렉 씨는 그런 위험한 게임을 받아줄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시골 마을을 뒤흔들던 절도 사건의 소동을 이용해, 자신이 두려워하던 윌리엄을 그럴싸하게 제거할 기회로 삼았다. 그야말로 천재적인 수였다.

결국 윌리엄은 꾀임에 유인된 끝에 총에 맞아 죽었다. 만약 커닝햄 부자가 그 쪽지를 통째로 손에 넣고, 위장에 동원된 부수적인 정황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의심조차 사지 않은 채 사건이 묻혔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쪽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물었다.

셜록 홈즈는 우리 앞에 다음과 같은 쪽지를 내려놓았다.

"11시 45분까지 동쪽 문으로 오기만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어쩌면 그 사실이 당신은 물론, 애니 모리슨 양에게도 큰 도움이 될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이 일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충분히 예상했던 결과군.” 홈즈가 말했다. “물론 알렉 커닝햄과 윌리엄 커원, 그리고 애니 모리슨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 수 없네. 하지만 이번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덫에 미끼를 아주 능숙하게 던져 놓았다는 사실만은 확실해. 소문자 g의 꼬리 부분과 p의 획에서 나타나는 유전적 특징을 보게나. 자네도 분명 흥미로울 걸세. 노인의 필체에서 i의 점이 나타나지 않는 점 또한 아주 특징적이지. 왓슨, 전원에서의 조용한 휴식은 아주 성공적이었던 것 같네. 내일이면 아주 활기찬 모습으로 베이커가에 돌아갈 수 있겠어."

등 굽은 사내

8. 구부러진 사내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난 어느 여름밤이었다. 그날은 업무가 워낙 고되어 녹초가 된 상태였다. 나는 내 집 벽난로 옆에 앉아 마지막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소설을 읽다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아내는 이미 위층으로 올라갔고, 얼마 전 현관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린 걸 보니 하인들도 모두 퇴근한 모양이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프의 재를 털어내고 있었다. 바로 그때, 갑자기 벨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시계를 보니 12시 15분 전이었다. 이 늦은 시간에 찾아올 손님은 아닐 터였다. 분명 환자일 것이고, 어쩌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할지도 모를 일이었다. 나는 씁쓸한 표정으로 홀로 나가 문을 열었다. 그런데 문밖 계단에 서 있는 사람이 셜록 홈즈인 것을 보고 나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아, 왓슨," 그가 말했다. "자네를 놓치지 않고 제때 만날 수 있기를 바랐네."

"여보게, 어서 들어오게나."

"놀란 표정이시군요. 하긴, 그럴 만도 합니다! 안도감도 섞여 있겠지요? 허! 아직도 독신 시절에 피우던 아카디아 혼합 담배를 피우시는 모양이군요. 코트에 묻은 저 폭신폭신한 재를 보니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왓슨, 당신은 제복을 입는 데 익숙한 분이시군요. 소매에 손수건을 넣고 다니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 한, 평범한 민간인처럼 보일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오늘 밤 제 숙소를 좀 빌려줄 수 있겠습니까?"

"기꺼이 그러지요."

"혼자 쓰는 독신자용 숙소라고 말씀하셨죠. 지금은 방문 중인 신사분도 안 계신 모양이고요. 저기 있는 옷걸이를 보니 딱 알겠군요."

"계셔 주신다면 정말 기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비어 있는 옷걸이를 제가 쓰도록 하죠. 그런데 집에 영국인 노동자가 들락거렸다니 유감이군요. 그건 불길한 징조거든요. 설마 배수관 문제 때문은 아니겠지요?"

"아니, 가스등 말일세."

"아! 빛이 비치는 바로 그 지점, 리놀륨 바닥에 저 자의 장화 못 자국이 두 개나 남았군요. 아뇨, 괜찮습니다. 저녁은 워털루에서 먹고 왔거든요. 하지만 함께 파이프 담배를 피우는 건 즐거운 일이겠군요."

나는 그에게 파우치를 건넸다. 그는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고 앉아 한동안 침묵 속에서 담배를 피웠다. 이 시간에 그가 나를 찾아왔다면, 분명 중요한 용건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가 먼저 말을 꺼낼 때까지 나는 묵묵히 기다렸다.

"요즘 업무가 꽤 바쁘신 모양이군요." 그가 나를 날카로운 눈빛으로 훑어보며 말했다.

"네,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이어 나는 덧붙였다. "홈즈, 당신 눈에는 아주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정말이지 어떻게 그걸 알아냈는지 모르겠군요."

홈즈가 혼자 픽 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자네 습관을 잘 알고 있다는 게 내게는 큰 이점이라네, 친애하는 왓슨." 홈즈가 말했다. "자네는 진료 일정이 짧으면 걸어 다니고, 일정이 길면 한섬 마차를 이용하지. 지금 자네의 장화를 보니 꽤 신은 듯하지만 전혀 더럽지는 않군. 그걸 보니 지금은 마차를 탈 만큼 충분히 바쁜 상태임이 틀림없어 보여."

"훌륭하군!" 내가 외쳤다.

"기초적인 일일 뿐이네." 홈즈가 말했다. "추리하는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그 결과를 놀랍게 여기는 경우가 있지. 그건 옆 사람이 연역의 기초가 되는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놓쳤기 때문이라네. 자네, 이 점은 자네가 그린 몇몇 삽화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일세. 자네는 독자에게 결코 알려주지 않을 정보들을 혼자만

쥐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그 그림들이 주는 효과는 전적으로 겉치레에 불과하다네. 지금의 내 처지가 바로 그 독자들과 같네. 나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기이한 사건 중 하나를 풀 수 있는 실마리 몇 가지를 손에 쥐고 있지만, 내 가설을 완성하는 데 꼭 필요한 한두 가지 단서가 부족하거든. 하지만 반드시 찾아내고 말겠네, 왓슨. 반드시 말이야!"

그의 눈이 번뜩였고, 창백하고 마른 뺨에 살짝 홍조가 돌았다. 하지만 그 순간은 아주 짧았다. 내가 다시 그를 보았을 때, 그의 얼굴은 다시금 평소의 무표정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인간이라기보다 기계처럼 보이게 하여, 수많은 이들이 그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곤 했다.

"흥미로운 특징들이 보이는군요." 홈즈가 말했다. "아니, 흥미로운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외적이라고 말해야겠습니다. 이미 사건을 조사해 보았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해결책이 눈앞에 보일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마지막 단계까지 저와 동행해 준다면, 제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내일 올더샷까지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잭슨이 내 진료를 이어받을 거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네."

"좋습니다. 워털루 역에서 출발하는 11시 10분 열차를 타고 가고 싶군요."

"그렇게 하면 제게 시간이 생기겠군요."

"그럼, 너무 졸리지만 않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과 앞으로 남은 과제들에 대해 대략적인 개요를 말씀드리지요."

"당신이 오기 전에는 졸음이 쏟아졌는데, 이제는 정신이 아주 말짱하군요."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을 빠뜨리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이야기를 압축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이미 이 사건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셨을지도 모르겠군요. 제가 조사 중인 사건은 올더샷에서 발생한 로열 맬로우스 소속 바클레이 대령의 살인 추정 사건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이 지역에서만 조금 화제가 되었을 뿐, 세간의 큰 주목을 받지는 않았네. 사건이 발생한 지 겨우 이틀밖에 되지 않았거든. 요점만 말하자면 다음과 같네."

"잘 아시다시피 로열 맬로우스 연대는 영국군 내에서도 가장 유명한 아일랜드 연대 중 하나입니다. 크림 전쟁과 인도 항쟁 당시 눈부신 활약을 펼쳤으며, 그 이후로도 가능한 모든 전장에서 그 이름을 떨쳐왔지요. 이 연대의 지휘관은 지난 월요일 밤까지 제임스 바클레이 대령이 맡고 있었습니다. 그는 용맹한 베테랑이었는데, 일개 이병으로 입대하여 인도 항쟁 당시 보여준 용맹함 덕분에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한때 소총을 메고 복무했던 바로 그 연대를 지휘하는 위치까지 오른 셈이지요."

바클레이 대령은 하사관 시절에 결혼했다. 그의 아내인 낸시 데보이 양은 같은 부대의 전직 선임 하사관(색서전트)의 딸이었다. 그러니 짐작하시겠지만, 아직 젊었던 두 사람이 새로운 환경에 놓였을 때 약간의 사회적 마찰이 있었던 모양이다. 하지만 두 사람은 곧 잘 적응해 나간 듯하다. 내가 듣기로 바클레이 부인은 남편이 동료 장교들에게 사랑받았던 것처럼, 연대의 숙녀들에게도 늘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 덧붙이자면 그녀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결혼한 지 3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눈부시게 우아하고 기품 있는 자태를 유지하고 있다.

바클레이 대령의 가정생활은 내내 화목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가 대부분의 사실을 전해 들은 머피 소령은,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내게 확언했다. 소령의 생각으로는, 아내를 향한 바클레이 대령의 헌신이 아내의 헌신보다 훨씬 더 컸던 듯하다. 대령은 단 하루라도 아내 곁을 비우면 몹시 불안해할 정도였다. 반면 아내는 헌신적이고 충실한 사람이었으나, 남편만큼 애정을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연대 내에서 두 사람은 중년 부부의 전형적인 모범으로 통했다. 두 사람의 관계에는 뒤이어 닥칠 비극을 짐작게 할 만한 징후가 전혀 없었다.

"바클레이 대령 본인도 성격에 묘한 구석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평소에는 활기차고 유쾌한 노병이었지만, 가끔은 상당한 폭력성과 복수심을 드러낼 때도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의 이런 면모가 아내에게 향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듯합니다.

또 다른 사실 하나는 머피 소령과 제가 대화를 나눈 다섯 명의 장교 중 세 명의 눈에 띈 점인데, 그가 때때로 기이할 정도로 우울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머피 소령의 표현을 빌리자면, 식당에서 동료들과 즐겁게 웃고 농담을 나누던 중에도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맞은 것처럼 갑자기 미소가 싹 사라지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 기분이 찾아오면 그는 며칠 동안이나 깊은 침울함에 빠져 지냈습니다.

동료 장교들이 관찰한 그의 특이한 점은 이 두 가지와 더불어 약간의 미신적인 성향뿐이었습니다. 특히 그는 혼자 남겨지는 것을 싫어했는데, 해가 진 뒤에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대단히 남성적인 성품을 지닌 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어린애 같은 모습은 종종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여러 추측을 낳기도 했습니다."

"로열 맬로우스 제1대대(구 제117대대)는 몇 년 전부터 올더샷에 주둔해 왔습니다. 기혼 장교들은 병영 밖에서 생활하며, 대령님은 그동안 북쪽 캠프에서 약 0.5마일 떨어진 라신이라는 별장에서 지내셨습니다. 저택은 넓은 부지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서쪽 면은 대로에서 겨우 30야드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인으로는 마부 한 명과 하녀 두 명이 있습니다. 바클레이 부부와 이 하인들이 라신의 유일한 거주자였습니다.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었고, 손님을 머물게 하는 일도 드물었으니까요."

"이제 지난 월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사이, 라신에서 벌어진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클레이 부인은 로마 가톨릭 신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는 성조지 길드 설립에도 매우 열성적으로 참여해 왔는데, 이 길드는 가난한 이들에게 헌 옷을 나누어 주기 위해 와트가 채플과 연계하여 결성된 단체였습니다. 그날 저녁 8시에 길드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기에, 바클레이 부인은 모임에 참석하고자 저녁 식사를 서둘러 마쳤습니다. 집을 나설 때 마부의 귀에는 부인이 남편에게 아주 일상적인 인사를 건네며, 금방 돌아오겠다고 안심시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옆 저택에 사는 모리슨 양을 데리러 갔고, 두 사람은 함께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모임은 40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바클레이 부인은 9시 15분쯤 집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는 길에 모리슨 양을 그녀의 집 문 앞에 내려주었습니다.

라신 저택에는 거실로 쓰는 방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방은 도로를 향하고 있으며, 커다란 유리 접이식 문을 통해 잔디밭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잔디밭의 폭은 30야드 정도 되는데, 도로와는 철제 난간이 달린 낮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맞닿아 있습니다.

바클리 부인이 집으로 돌아와 들어간 곳이 바로 이 방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이 방을 거의 쓰지 않기에 블라인드도 내려져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평소 습관과는 달리, 바클리 부인은 직접 등불을 켠 뒤 종을 울려 하녀인 제인 스튜어트에게 차 한 잔을 가져오라고 시켰습니다.

대령은 식당에 앉아 있었으나, 아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마부는 대령이 복도를 가로질러 그 방으로 들어가는 모

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살아 있는 모습으로 다시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주문한 차가 10분 뒤에 올라왔다. 하지만 문가로 다가오던 하녀는 주인 내외가 격렬하게 다투는 목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 하녀가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문손잡이를 돌려보았지만,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다. 하녀는 당연히 요리사에게 이 사실을 알리러 내려갔고, 두 여인이 마부와 함께 홀로 올라와 여전히 거세게 이어지는 다툼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들이 듣기에 목소리는 단 두 개뿐이었다. 바로 바클리와 그의 아내였다. 바클리의 말은 낮고 퉁명스러워서 밖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 반면 부인의 목소리는 매우 격앙되어 있었고, 목소리를 높일 때면 그 내용이 또렷하게 들려왔다.

"이 겁쟁이 같으니!" 부인이 몇 번이고 되풀이했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이에요? 이제 어쩌면 좋냐고요! 내 인생을 돌려줘요. 당신과 같은 공기를 마시며 살 일은 다시는 없을 거예요! 이 겁쟁이! 겁쟁이 같으니!"

부인이 내뱉는 말들은 파편처럼 흩어져 들려왔다. 그러다 갑자기 남자의 목소리에서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무언가 깨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여자의 날카로운 비명이 뒤따랐다.

무슨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고 확신한 마부는 문으로 달려가 문을 부수려 애썼다. 안에서는 비명이 끊임없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마부

는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없었고, 하녀들은 공포에 질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그때 마부의 머릿속에 문득 생각이 스쳤다. 그는 홀 문을 지나 긴 프랑스식 창문이 나 있는 잔디밭으로 달려갔다. 창문의 한쪽은 열려 있었는데, 여름철에는 늘 그러하듯 창문이 열려 있었기에 그는 어렵지 않게 방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부인은 비명을 멈춘 채 소파 위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 그리고 불행한 군인은 안락의자 가장자리에 발을 걸친 채, 벽난로 가드 근처 바닥에 머리를 박고 자신의 피 웅덩이 속에서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다.

마부 역시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가장 먼저 문을 열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기묘한 문제가 발생했다. 문 안쪽에는 열쇠가 없었고, 방 안 그 어디에서도 열쇠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마부는 다시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다. 그는 경찰관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다시 방 안으로 돌아왔다. 가장 강력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에, 부인은 의식을 잃은 상태 그대로 자신의 침실로 옮겨졌다. 그 후 대령의 시신을 소파 위에 안치하고, 비극이 일어난 현장을 면밀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불행한 퇴역 군인이 입은 부상은 머리 뒷부분에 생긴 2인치 정도 길이의 거친 상처였다. 둔기에 의한 강한 타격으로 입은 것이 분명했다. 그 둔기가 무엇이었는지 추측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시신 근처 바닥에는 뼈로 만든 손잡이가 달린, 조각된 단단한 나무로 된 기이한 몽둥이가 놓여 있었다. 바클리 대령은 과거 전투를 치렀던 여러 나라에서

가져온 다양한 무기들을 수집해 두었는데, 경찰은 이 몽둥이 역시 그의 수집품 중 하나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하인들은 그 물건을 본 적이 없다고 부인했지만, 집 안에 진귀한 물건이 워낙 많다 보니 미처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었다. 경찰이 방 안에서 찾아낸 다른 중요한 단서는 없었다. 다만 설명하기 어려운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사라진 열쇠를 바클리 부인의 몸이나 피해자의 몸, 혹은 방 안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는 점이다. 결국 문은 올더숏에서 온 열쇠공을 불러서야 열 수 있었다.

"상황이 이랬다네, 왓슨. 그 화요일 아침, 머피 소령의 요청을 받고 내가 경찰의 수사를 돕기 위해 올더숏으로 내려갔을 때 말일세. 자네도 이 사건이 이미 흥미로운 문제였다는 점에는 동의하겠지. 하지만 현장을 직접 관찰해보니, 이 사건은 언뜻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기이한 일이라는 사실을 곧 깨닫게 되었다네."

"방을 조사하기 전에 하인들을 심문해 보았지만, 이미 말한 사실 외에 더 알아낸 것은 없었네. 하지만 하녀인 제인 스튜어트가 흥미로운 세부 사항 하나를 기억해 냈지.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그녀는 싸우는 소리를 듣고 내려갔다가 다른 하인들을 데리고 돌아왔네. 제인의 말로는, 처음 혼자 있었을 때는 주인 내외의 목소리가 너무 낮아서 거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말소리보다는 목소리의 어조를 통해 두 사람이 다투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했을 뿐이라더군. 하지만 내가 계속해서 캐묻자, 그녀는 부인이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두 번 말한 것이 기억난다고 했네. 이 점은 갑작스러운 다툼의 원인을 밝혀낼 결정적인 단서가 될 걸세. 알다시피 대령의 이름은 제임스였으니까."

이번 사건에서 하인들과 경찰 모두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긴 대목이 하나 있었다. 바로 바클리 대령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는 점이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대령의 얼굴은 인간의 표정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공포와 경악에 휩싸여 있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를 본 사람 중 한 명 이상이 그 자리에서 기절할 정도였다. 대령이 자신의 운명을 예견했고, 그 사실이 그를 극도의 공포로 몰아넣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다.

물론 만약 대령이 아내가 자신을 살해하려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다면, 이 상황은 경찰의 가설과 아주 잘 맞아떨어졌다. 상처가 뒷머리에 있다는 사실 또한 결정적인 반론이 되지 못했다. 공격을 피하려 몸을 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급성 뇌열로 일시적인 정신 착란 상태에 빠진 부인으로부터는 그 어떤 정보도 얻을 수 없었다.

"경찰 측으로부터 들은 바로는, 그날 저녁 바클리 부인과 외출했던 모리슨 양은 동행했던 부인이 왜 그렇게 기분이 상한 채 돌아왔는지 전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왓슨, 이 사실들을 모두 모은 뒤에 나는 파이프 담배를 몇 대나 피워가며 고민했네. 어떤 것이 결정적인 단서이고, 어떤 것이 그저 부수적인 정보인지 가려내려 애썼지. 이번 사건에서 가장 특징적이면서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점은 바로 문 열쇠가 기묘하게 사라졌다는 사실이었네. 방 안을 아무리 샅샅이 뒤져도 열쇠는 나오지 않았어. 그렇다면 누군가 방에서 열쇠를 가지고 나갔음이 분명했지. 하지만 바클리 대령이나 대령 부인이 가져갔을 리는 없네.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이었으니

까. 결국 제삼자가 방에 들어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지. 그리고 그 제삼자는 오직 창문을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었네.

나는 방 안과 잔디밭을 면밀히 조사하면 이 정체불명의 인물이 남긴 흔적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네. 자네도 내 방식은 잘 알지 않나? 나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조사에 임했네. 결국 흔적을 찾아내긴 했지만,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흔적이었네.

방에 어떤 남자가 들어왔었고, 그는 도로에서부터 잔디밭을 가로질러 왔더군. 나는 그가 남긴 아주 선명한 발자국 다섯 개를 확인할 수 있었네. 도로 위, 그가 낮은 담을 넘은 바로 그 지점에 하나, 잔디밭에 두 개, 그리고 그가 들어온 창가 근처의 얼룩진 바닥재 위에 아주 희미하게 남은 흔적 두 개였지. 발가락 쪽 자국이 뒤꿈치보다 훨씬 깊게 파인 것을 보니, 그는 잔디밭을 급히 가로질러 온 모양이었네. 하지만 나를 놀라게 한 건 그 남자가 아니었네. 바로 그의 동행자였지."

"그의 동행자라니!"

홈즈는 주머니에서 커다란 박엽지 한 장을 꺼내더니, 무릎 위에 올려두고 조심스럽게 펼쳤다.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 그가 물었다.

종이 위에는 어떤 작은 동물이 남긴 발자국 모양이 가득했다. 발자국에는 다섯 개의 발바닥 패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발톱이 길게 뻗어 나온 흔적도 보였다. 발자국 전체의 크기는 디저트 스푼 하나와 거의 맞먹을 정도였다.

"개군요." 내가 말했다.

"커튼을 타고 올라가는 개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짐승이 분명히 그랬다는 확실한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럼, 원숭이였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건 원숭이 발자국이 아니야."

"그렇다면 대체 무엇일까요?"

"개나 고양이, 원숭이, 혹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떤 생물도 아닙니다. 측정값을 토대로 그 정체를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여기 짐승이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던 발자국 네 개가 있습니다. 앞발에서 뒷발까지의 길이가 15인치에 달한다는 게 보이시지요? 여기에 목과 머리의 길이까지 더하면, 몸길이가 2피트에 육박하는 생물이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꼬리까지 있다면 아마 그보다 더 길겠지요.

하지만 이제 이 다른 측정값을 보십시오. 이 짐승은 움직이고 있었고, 우리는 그 보폭을 확인했습니다. 걸음 한 번에 고작 3인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수치를 보면, 몸은 아주 긴데 다리는 매우 짧은 생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놈은 털 한 가닥조차 남겨두지 않을 만큼 치밀하더군요. 하지만 놈의 전체적인 형태는 제가 표시한 것과 같을 것이고, 커튼을 타고 올라갈 수 있으며, 육식성일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것이 커튼을 타고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창가에 카나리아 새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 짐승의 목적은 새를 잡으려는 것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렇다면 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었습니까?"

"아, 만약 이 녀석에게 이름을 붙일 수만 있다면 사건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족제비나 담비 종류인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것들보다는 훨씬 덩치가 큽니다."

"하지만 그게 범죄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 부분 역시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네. 하지만 자네도 알다시피 우리는 꽤 많은 사실을 알아냈어. 블라인드는 올라가 있었고 방 안은 불이 켜져 있었기에, 어떤 남자가 길가에 서서 바클리 가문의 다툼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또한 그 남자가 낯선 짐승을 데리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방 안으로 들어왔다는 것도 알아냈네. 그리고 그가 대령을 직접 타격했거나, 혹은 그와 마찬가지로 가능성이 있는 일인데, 대령이 그를 보고 너무 놀라 자빠지면서 난로 덮개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혔다는 사실도 말이야. 마지막으로, 침입자가 떠날 때 열쇠를 가지고 나갔다는 기묘한 사실도 밝혀냈네."

"당신의 발견 덕분에 사건이 이전보다 더 미궁 속으로 빠져버린 것 같군요." 내가 말했다.

"맞네. 그 일은 처음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속사정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지. 사건을 곰곰이 되짚어 본 끝에, 나는 접근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네. 하지만 왓슨, 내가 너무 늦게까지 자네를 붙잡아 두는군. 내일 알더샷으로 가는 길에 이 이야기를 다 해주는 게 낫겠어."

"고맙네, 자네가 너무 멀리까지 와버렸군. 여기서 멈추기엔 말이야."

"바클레이 부인이 7시 반에 집을 나설 때 남편과 사이가 좋았다는 점은 아주 확실합니다. 제가 앞서 말했듯이, 부인이 대놓고 애정을 표현하는 성격은 아니었지만, 마차를 모는 마부의 말에 따르면 대령과 아주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돌아오자마자 부인의 행동은 전혀 달랐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마주칠 일이 거의 없는 방으로 곧장 들어갔고,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서둘러 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남편이 방으로 들어오자, 부인은 격렬하게 비난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즉, 7시 반과 9시 사이에 부인의 마음을 완전히 돌려놓은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모리슨 양은 그 한 시간 반 동안 내내 부인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모리슨 양이 부인하더라도, 그녀가 이번 일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나의 첫 번째 추측은 이 젊은 숙녀와 노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고, 그녀가 이제 와서 그 사실을 부인의 귀에 털어놓았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만약 그렇다면 부인이 화를 내며 돌아온 것도, 소녀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부인한 것도 설명이 된다. 엿들은 말들의 내용과도 완전히 어긋나지는 않았다. 하지만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언급된 점과 바클레이 대령이 아내를 지극히 아낀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게다가 갑자기 나타난 이 낯선 남자의 등장은 앞선 일들과 전혀 상관없는 비극적인 사건일 수도 있었다.

판단을 내리기가 쉽지는 않았으나, 결론적으로 나는 바클레이 대령과 모리슨 양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접기로 했다. 대신, 바클레이 부인이 왜 남편을 그토록 증오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저 젊은 숙녀가 쥐고 있다는 확신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나는 곧장 모리슨 양을 찾아가기로 했다. 그녀가 사건의 핵심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만약 이 일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녀의 친구인 바클레이 부인이 사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중죄로 피고인석에 앉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할 생각이었다.

"모리슨 양은 체구가 작고 가냘픈 데다, 눈매는 수줍음이 많고 머리카락은 금발인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녀는 결코 영리함이나 상식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 말을 다 듣고 난 뒤 그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더니, 이내 결연한 태도로 저를 돌아보며 놀라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그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구에게 이 일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가여운 그 아이가 이토록

중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병 때문에 정작 본인은 입도 떼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제가 도울 수 있는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월요일 저녁에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9시가 되기 15분 전쯤이었을 겁니다. 우리는 와트 스트리트 선교회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죠. 가는 길에 아주 한적한 도로인 허드슨가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 길에는 왼쪽 편에 가로등이 딱 하나뿐이었는데, 우리가 그 가로등 쪽으로 다가가자 한 남자가 우리를 향해 걸어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등을 아주 굽히고 있었고, 한쪽 어깨에는 상자 같은 것을 메고 있었죠. 머리를 낮게 숙인 채 무릎을 굽히며 걷는 모습이 마치 신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그를 지나치려던 찰나, 남자가 가로등 불빛이 비치는 곳으로 얼굴을 들어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는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에, 낸시잖아!'

그 순간 바클레이 부인은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졌고, 그 흉측하게 생긴 남자가 부인을 붙잡아 주지 않았다면 그대로 쓰러졌을 겁니다. 나는 당장 경찰을 부르려 했지만, 놀랍게도 부인은 그 남자에게 아주 정중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헨리, 당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고말고요."

그가 대답했다. 그 목소리에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서려 있었다. 그의 얼굴은 매우 어둡고 위압적이었으며, 눈빛에서는 지금도 꿈에 나타날 만큼 강렬한 안광이 번뜩였다. 머리카락과 구레나룻에는 흰머리가 섞여 있었고, 얼굴은 마치 말라비틀어진 사과처럼 주름이 깊게 패어 있었다.

"조금만 더 앞서 가세요, 여보." 바클레이 부인이 말했다. "이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그래요. 무서워할 것 없으니 걱정 말아요." 부인은 용기를 내어 말하려 애썼지만, 얼굴은 여전히 핏기 없이 창백했다. 게다가 입술이 가늘게 떨려 말조차 제대로 내뱉지 못할 정도였다.

"그녀가 부탁한 대로 했고, 두 사람은 몇 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눈을 부라리며 길을 따라 내려왔고, 저는 그 불쌍한 장애인이 가로등 옆에 서서 마치 분노로 미쳐버린 사람처럼 주먹을 꽉 쥔 채 허공에 휘두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곳 문 앞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 앞에 이르러서야 제 손을 붙잡고는, 방금 일어난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제 옛 지인인데,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어요." 그녀가 말했다.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그녀는 내게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그녀를 다시 만난 적은 없다. 나는 이제 모든 진실을 당신에게 털어놓았다. 만약 내가 경찰에 이 사실을 숨겼다면, 그것은 당시 내 소중한 친구가 얼마나 위험한 처지에 놓여 있는지 미처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모든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 결국 그녀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왓슨, 그녀의 진술을 듣는 순간 마치 어두운 밤에 등불을 켠 것 같았네. 그전까지는 서로 연결되지 않았던 모든 조각이 단숨에 제자리를 찾아갔고, 사건의 전체 흐름이 어렴풋이 머릿속에 그려졌지. 그다음 단계는 당연히 바클레이 부인에게 그토록 강렬한 인상을 남긴 남자를 찾아내는 것이었네. 그가 여전히 올더숏에 있다면 찾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터였지. 민간인이 그리 많지도 않은 데다, 몸이 뒤틀린 기이한 외모라면 분명 눈에 띄었을 테니까.

나는 하루 종일 수색에 매달렸고, 바로 오늘 저녁—바로 오늘 저녁이라네, 왓슨—마침내 그를 찾아냈네. 남자의 이름은 헨리 우드이고, 부인들이 그를 만났던 바로 이 거리의 하숙집에 살고 있더군. 이곳에 온 지는 겨우 닷새밖에 되지 않았네. 나는 등록 요원인 척하며 그의 여주인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었지.

그 남자의 직업은 마술사이자 공연가라네. 밤이 되면 매점들을 돌아다니며 작은 공연을 펼치곤 하지. 그는 상자 안에 어떤 생물을 담아 가지고 다니는데, 여주인의 말로는 그런 동물은 생전 처음 본다며 꽤 겁을 내더군.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는 마술을 부릴 때 그 동물을 사용한다고 하네.

여인이 내게 해준 이야기는 여기까지였네. 그 남자가 몸이 그렇게 뒤틀렸는데도 어떻게 살아있는지 신기할 따름이라는 말, 그리고 가끔 이상한 언어로 말을 한다는 것, 그리고 지난 이틀 밤 동안 침실에서 신

음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사실도 말일세. 돈 문제는 별로 없어 보였지만, 보증금으로 내놓은 것이 가짜 플로린처럼 보였다더군. 왓슨, 그녀가 그것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인도 루피였네."

"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왜 자네를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알겠지? 상황은 아주 명백하네. 부인들이 이 남자와 헤어진 뒤, 그자가 일정 거리를 두고 그들을 미행했어. 그리고 창문을 통해 부부 사이의 다툼을 목격했지. 그러고는 안으로 급히 뛰어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상자 안에 있던 괴물이 풀려난 거야. 이 모든 사실은 확실하네. 하지만 그 방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는, 이 세상에서 오직 이 사람만이 말해줄 수 있어."

"그래서, 그에게 물어볼 생각인가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증인이 있는 자리에서 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 증인이라는 말씀입니까?"

"부디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요. 하지만 만약 거절한다면, 우리로서도 영장을 신청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아왔을 때 그가 그곳에 있을 거라는 건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내가 나름대로 조치를 취해 두었으니 안심하게. 베이커가에서 부리는 아이들 중 하나를 붙여 두었네. 그놈은 붙은 가시처럼 대상이 어디

를 가든 찰떡같이 따라다니며 감시할 걸세. 왓슨, 내일이면 허드슨가에서 그자를 찾아낼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자네를 더 이상 잠 못 들게 한다면 그게 오히려 내가 범죄를 저지르는 꼴이 되겠군. 이제 그만 가서 쉬게나."

비극이 일어난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정오였다. 우리는 동료인 홈즈의 안내를 따라 곧장 허드슨가로 향했다. 홈즈는 감정을 숨기는 데 능숙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억눌린 흥분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쉽게 알아챌 수 있었다. 나 역시 홈즈의 수사에 동행할 때면 늘 느끼는, 마치 스포츠를 즐기는 듯하면서도 지적 유희를 만끽하는 듯한 짜릿한 즐거움에 몸이 떨릴 지경이었다.

"이쪽이 그 거리입니다."

우리가 평범한 2층 벽돌집들이 늘어선 짧은 골목으로 접어들자 그가 말했다.

"아, 여기 심슨이 보고하러 왔군."

"그분은 무사해요, 홈즈 씨!" 우리에게 달려온 작은 거리의 아이가 외쳤다.

"잘했다, 심슨!" 홈즈가 그의 머리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가세나, 왓슨. 여기가 그 집일세." 홈즈는 중요한 용무로 방문했다는 메시지와 함께 명함을 건네고 안으로 보냈다. 잠시 후, 우리는 만나기로 한 사람과 마주했다. 날씨가 더운데도 그는 화로 앞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고, 작은 방 안은 마치 오븐처럼 후끈거렸다. 남자는 의자에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비틀린 자세로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형언할 수 없을 만큼 기형적으로 보였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 돌린 얼굴은 비록 수척하고 검게 그을렸을지언정, 한때는 분명 눈에 띄게 아름다웠을 것이 분명했다. 그는 황색빛이 도는 담즙질의 눈으로 우리를 의심스럽게 훑어보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의자 두 개를 가리켰다.

"인도에서 막 돌아오신 헨리 우드 씨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홈즈가 상냥하게 말을 건넸다. "바클레이 대령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찾아왔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건이 명확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오랜 친구인 바클레이 부인이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 남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몸을 움찔했다.

"당신이 누구인지, 대체 어떻게 그런 사실들을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소." 그가 외쳤다. "하지만 지금 내게 말하는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맹세할 수 있겠소?"

"아니, 그들은 그녀가 제정신을 차리기만을 기다렸다가 체포하려는 겁니다."

"세상에! 당신도 경찰입니까?"

"아니오."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죠?"

"정의가 실현되도록 힘쓰는 것은 모든 사람의 의무다."

"그녀는 결백합니다. 제 말을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유죄로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임스 바클레이 대령을 죽인 건 누구란 말입니까?"

"그가 죽은 것은 하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만약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를 직접 처단했더라면, 나는 그에게 딱 그만큼의 대가만을 치르게 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의 죄책감이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았더라면, 아마 내 영혼에 그의 피가 묻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굳이 거절할 이유도 없지요. 부끄러워할 일도 아니니까요."

"그렇게 된 겁니다, 선생님. 지금 제 모습은 낙타처럼 등이 굽고 갈비뼈도 다 뒤틀려 있지만, 한때 헨리 우드 상병은 제117 보병 연대에서 가장 잘나가는 사내였습니다. 당시 우리는 인도에 있었고, 부르티라고 부를 만한 주둔지에 머물고 있었지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바클리는 저와 같은 중대의 병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연대의 꽃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낸시 데보이가 있었지요. 색장 상사의 딸이

었던 그녀를 사랑한 남자가 둘 있었고, 그녀가 사랑한 남자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지금 불 앞에 웅크리고 있는 이 불쌍한 꼴을 보시며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웃음이 나실 겁니다. 그녀가 저를 사랑했던 이유가 바로 제 잘생긴 외모 때문이었다고 말할 테니까요."

"그녀의 마음은 제 것이었지만,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바클리와 결혼하기를 완강히 원했습니다. 당시 저는 앞뒤 가리지 않고 날뛰는 무모한 청년이었고, 반면 그자는 교육을 잘 받은 데다 이미 장교가 될 재목이었지요. 하지만 그 처녀는 끝까지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다 반란이 일어나 온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었을 때, 마침내 그녀를 얻을 수 있을 것만 같았지요."

"우리는 부르티에에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연대와 포병 반 개 중대, 시크교인 중대 하나, 그리고 수많은 민간인과 여인들이 함께 갇혀 있었죠. 우리 주변에는 만 명에 달하는 반군이 깔려 있었는데, 그들은 마치 쥐장에 몰린 테리어 한 무리처럼 아주 사납게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고립된 지 2주쯤 지났을 때 물이 바닥났습니다. 북상 중인 닐 장군의 부대와 연락을 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었죠.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데리고 싸우며 길을 뚫고 나가는 건 불가능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가서 닐 장군에게 우리의 위험한 상황을 알리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내 제안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나는 지리에 누구보다 밝다고 알려진 바클레이 하사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내가 반군 포위망을 뚫

고 지나갈 수 있는 경로를 그려주었습니다. 그날 밤 10시, 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구해야 할 생명은 천 명이나 되었지만, 그날 밤 성벽을 넘어 탈출하며 내가 생각한 사람은 오직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는 적의 초병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말라버린 물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물길의 모퉁이를 돌아가는 순간, 어둠 속에 웅크리고 나를 기다리던 적병 여섯 명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순식간에 머리를 강타당해 정신을 잃었고, 손발은 꽁꽁 묶였습니다.

하지만 머리에 가해진 충격보다 내 심장을 더 아프게 짓누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뒤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필사적으로 귀기울여 들었을 때, 나는 차마 믿기 힘든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을 직접 일러주었던 나의 동료가, 현지 하인을 매수해 나를 적의 손에 넘겨버린 것이었습니다."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 길게 늘어놓을 필요는 없겠군요. 제임스 바클리가 어떤 인물인지 이제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음 날 닐이 부르티를 구출해냈지만, 반란군들은 퇴각하면서 저를 끌고 갔습니다. 다시금 사람의 얼굴을 마주하기까지는 정말 긴 세월이 걸렸지요. 고문을 당하다 탈출을 시도하면 다시 붙잡혀 고문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제가 어떤 상태로 버려졌는지는 직접 보시면 알 겁니다. 네팔로 도망친 무리 중 일부가 저를 데려갔고, 그 후에는 다질링 너머까지 끌려갔습니다. 그곳 산악 부족들이 저를 붙들고 있던 반란군들을 죽였고, 저는 탈출하기 전까지 한동안 그들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쪽으로 가는 대신 북쪽으로 가야만 했고, 결국 아프가니스탄 사람들 사이에 놓이

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년 동안 떠돌다가 마침내 펀자브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주로 현지인들 틈에 섞여 살며, 예전에 배웠던 마술로 입에 풀칠하며 지냈지요. 저 같은 비참한 장애인이 영국으로 돌아가거나 옛 동료들에게 모습을 드러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조차 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낸시와 옛 친구들이 해리 우드를 기억할 때, 침팬지처럼 지팡이에 의지해 기어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허리를 펴고 살던 사람으로 기억해주길 바랐으니까요.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고, 저 또한 그 믿음이 깨지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바클리가 낸시와 결혼했고 연대 내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고향을 그리워하게 되는 법이지요.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영국의 푸른 들판과 울타리 풍경을 꿈꿔왔습니다. 결국 죽기 전에 그곳을 꼭 보고야 말겠다고 결심했지요. 이곳까지 올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고, 군인들이 있는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는 그들의 생리를 잘 알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지도 잘 아니까요. 그렇게 해서 생활비를 벌어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바클레이 부인을 만나 서로를 알아봤다는 이야기는 이미 들었습니다. 그다음 당신이 이해한 대로라면, 부인을 집까지 따라가 창밖으로 남편과 부부 싸움을 하는 것을 목격했겠군요. 그 과정에서 부인이 남편의 행동을 당신 앞에서 거침없이 비난했을 테고요. 결국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잔디밭을 가로질러 달려가 그들 사이에 끼어든 것이고요."

"그랬습니다, 선생님. 제가 나타나자마자 그분은 난생처음 보는 표정을 지으시더니, 그대로 고꾸라지며 벽난로 가림막에 머리를 부딪치셨습니다. 하지만 쓰러지기도 전에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벽난로 앞에서 글자를 읽듯, 그분의 얼굴에서 죽음의 그림자를 아주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타난 것만으로도, 그 죄 많은 심장에 총알이 박힌 듯한 충격을 받으신 겁니다."

"그다음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자 낸시가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저는 도움을 요청하려고 문을 열 생각으로 그녀의 손에서 열쇠를 낚아챘죠. 하지만 막상 열쇠를 쥐고 보니, 그냥 그대로 두고 도망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칫하면 제가 범인처럼 보일 수도 있었고, 어차피 붙잡히면 제 비밀이 탄로 날 판이었으니까요. 서두르던 나머지 열쇠를 주머니에 쑤셔 넣고 말았고, 커튼 위로 기어 올라간 테디를 쫓다가 지팡이까지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상자에서 빠져나온 테디를 겨우 붙잡아 다시 상자 안에 밀어 넣은 뒤, 저는 곧장 전력 질주해서 그곳을 빠져나왔습니다.

"테디가 누구지?" 홈즈가 물었다.

그 남자는 몸을 숙이더니 구석에 있는 일종의 우리 같은 상자의 앞부분을 들어 올렸다. 그러자 그 안에서 아름다운 적갈색 생명체가 순식간에 미끄러지듯 빠져나왔다. 몸집은 가늘고 유연했으며, 다리는 담비처럼 날렵했다. 길고 가는 코에, 내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동물의 눈보다도 영롱하고 붉은 눈동자를 지니고 있었다.

"몽구스예요!" 내가 외쳤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이크누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남자가 말했다. "저는 그냥 뱀잡이라고 부릅니다. 테디는 코브라를 잡는 데 아주 놀라운 재주가 있지요. 여기 송곳니가 없는 놈이 한 마리 있는데, 테디는 식당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매일 밤 이놈을 잡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글쎄요, 만약 바클레이 부인이 정말로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제가 나서야지요."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죽은 사람의 비열한 행적을 들춰내어 이 스캔들을 다시 일으킬 이유도 없겠지요. 적어도 그가 이 사악한 짓을 저지른 후 30년 동안이나 양심의 가책에 시달리며 괴로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안이 될 테니까요. 아, 저기 길 건너편에 머피 소령이 지나가는군요.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우드 씨. 어제 이후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봐야겠어요."

우리는 소령이 모퉁이에 다다르기 전에 그를 따라잡을 수 있었다.

"아, 홈즈," 그가 말했다. "이 모든 소동이 결국 아무런 결실 없이 끝났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겠지?"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검시는 방금 끝났네. 의학적 증거를 통해 사망 원인이 뇌졸중임이 명백히 밝혀졌어. 결국 아주 단순한 사건이었지 않나."

"오, 아주 피상적인 수준이군." 홈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가세, 왓슨. 이제 얼더샷까지 갈 일은 없을 것 같네."

"한 가지 의문이 있네." 역으로 걸어 내려가며 내가 말했다. "남편의 이름이 제임스였고 다른 사람의 이름이 헨리였다면, 왜 데이비드라는 이름이 나온 거지?"

"자네가 그토록 묘사하곤 하는 이상적인 추리 전문가가 나였다면,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사건의 전말을 다 파악했을 걸세, 친애하는 왓슨. 분명히 누군가를 비난하는 말이었거든."

"비난이라고요?"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다윗도 가끔은 길을 잘못 들 때가 있었지요. 제임스 바클리 하사 때와 같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유리아와 밧세바에 관한 그 짧은 이야기는 기억하시나요? 제 성경 지식이 좀 녹슬긴 했지만, 사무엘상이나 사무엘하를 찾아보시면 그 이야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입원 환자

9. 거주 환자

내 친구 셜록 홈즈의 정신적 특이함을 몇 가지 보여주기 위해 그동안 써 내려간 회상록들을 훑어보았다. 다소 일관성이 부족한 기록들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나는 내 목적에 완벽히 부합하는 사례를 골라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다.

홈즈가 분석적 추리의 정수를 보여주며 그만의 독특한 수사 방식을 증명해낸 사건들은, 정작 그 사실관계가 너무 사소하거나 평범해서 대중 앞에 내놓기에는 민망한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매우 놀랍고 극적인 사건에 홈즈가 관여했을 때는, 정작 그 원인을 밝혀내는 과정에서 홈즈가 기여한 바가 그의 전기 작가인 내가 기대하는 것만큼 두드러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내가 '주홍색 연구'라는 제목으로 기록한 작은 사건이나, 이후 '글로리아 스콧 호'의 실종 사건과 관련된 일들은 역사가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같은 딜레마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

다. 이번에 써 내려갈 사건 역시 내 친구가 수행한 역할이 충분히 강조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건을 둘러싼 정황 전체가 워낙 놀라운 일이라, 이 회상록 시리즈에서 도저히 빼놓을 수가 없었다.

정확한 날짜를 확신할 수는 없다. 그 사건에 관한 내 기록 중 일부를 분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홈즈와 내가 베이커가에서 함께 지낸 첫해의 끝 무렵이었음은 분명하다. 10월의 날씨는 무척이나 거칠었다. 그날 우리는 둘 다 온종일 실내에 머물렀다. 나는 약해진 건강 탓에 매서운 가을바람을 맞을까 두려웠고, 홈즈는 한 번 몰두하면 끝을 볼 때까지 완전히 빠져드는 난해한 화학 연구에 열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저녁 무렵, 시험관 하나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그의 연구는 허무하게 중단되었다. 홈즈는 짜증 섞인 탄성을 내뱉으며 미간을 찌푸린 채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오늘 일은 완전히 망쳤네, 왓슨."

홈즈가 창가로 성큼성큼 걸어가며 말했다.

"하! 별도 떴고 바람도 잦아들었군. 런던 시내를 좀 거닐어 보는 건 어떤가?"

좁은 거실에만 틀어박혀 있는 것이 지겨워지던 참이라, 나는 흔쾌히 동의했다. 우리는 세 시간 동안 함께 거리를 거닐었다. 플리트가와 스트랜드를 가득 메운 채 밀물과 썰물처럼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만화경을 말이다. 홈즈는 일시적인 불쾌감을 떨쳐낸 상태였다. 세세한 부분을 놓치지 않는 예리한 관찰력과 미묘한 추론 능력이 돋보이는 특유

의 화법을 듣고 있자니, 나는 즐거움과 매료됨을 동시에 느꼈다. 다시 베이커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열 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우리 집 문 앞에는 브룸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다.

"흠! 의사로군. 보아하니 일반의야." 홈즈가 말했다. "개업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지만, 꽤 바쁘게 지낸 모양이군. 우리를 찾아온 걸 보니 상담을 하러 온 게 분명해! 우리가 돌아오길 정말 잘했군!"

나는 홈즈의 수법에 꽤 익숙해져 있었다. 덕분에 그의 추리 과정을 따라갈 수 있었고, 그가 어떻게 그토록 빠르게 결론을 내렸는지도 알 수 있었다. 마차 안, 등불이 비치는 곳에 매달린 고리버들 바구니 속에는 여러 의료 기구가 들어 있었다. 그 기구들의 종류와 상태가 홈즈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것이다.

위쪽 창문에서 새어 나오는 불빛을 보니, 이 늦은 밤의 방문은 분명 우리를 찾아온 것이 분명했다. 이 시간에 의사 동료가 우리를 찾아올 이유가 무엇일지 궁금해하며, 나는 홈즈를 따라 우리의 안식처인 집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가 안으로 들어서자, 벽난로 옆 의자에서 모래색 구레나룻을 기른 창백하고 갸름한 얼굴의 남자가 일어났다. 나이는 서른셋이나 서른네 살을 넘지 않아 보였으나, 초췌한 표정과 병색이 완연한 안색은 그가 살아온 삶이 얼마나 기력을 앗아가고 청춘을 앗아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예민한 신사처럼 초조하고 수줍은 태도를 보였다. 자리에서 일어나며 벽난로 선반 위에 얹은 가늘고 하얀 손은 외과의의 손이라기보다는 예술가의 손에 가까웠다. 옷차림은 검은 프록코트에

어두운 색 바지를 입고 넥타이에 약간의 색을 더한, 차분하고 침울한 차림이었다.

"좋은 저녁입니다, 박사님." 홈즈가 쾌활하게 인사를 건넸다. "기다리게 한 시간이 아주 짧은 것 같아 다행이군요."

"그럼, 내 마부와 이야기를 나누었나 보군?"

"아닙니다. 저에게 힌트를 준 건 협탁 위에 놓인 양초였습니다. 자, 어서 자리에 앉으시지요. 제가 어떻게 도와드리면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퍼시 트레베리언 박사입니다." 방문객이 말했다. "브룩가 403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희귀한 신경 병변에 관한 논문을 쓰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물었다.

자신의 업적을 내가 알고 있다는 말을 듣자, 그의 창백하던 뺨에 기쁨의 홍조가 감돌았다.

"그 분야에 관한 소식이 워낙 뜸해서, 아예 자취를 감춘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가 말했다. "출판사 측에서도 판매 실적이 아주 형편없다는 낙담스러운 소식만 전해오더군요. 실례지만, 당신도 의료계 종사자이신지요?"

"퇴역한 육군 군의관이라네."

"제 취미는 언제나 신경 질환 연구였습니다. 이를 전문 분야로 삼고 싶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주어진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 법이지요. 하지만 셜록 홈즈 씨, 그건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 브룩가에 있는 제 저택에서 아주 기이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오늘 밤에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더는 한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 당신의 조언과 도움을 구해야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셜록 홈즈는 자리에 앉아 파이프에 불을 붙였다. "두 분 다 환영합니다." 그가 말했다. "부디 어떤 사정 때문에 이토록 마음을 졸이고 계신지 상세히 들려주시겠습니까?"

"한두 가지 사건은 너무 사소해서 차마 입에 올리기가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트레베리언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이 일은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는 데다, 최근 전개되는 양상 또한 매우 치밀합니다. 그러니 일단 모든 내용을 말씀드릴 테니,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부차적인 것인지는 직접 판단해 주십시오."

"우선 제 대학 시절 이야기를 조금 해야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런던 대학교 출신입니다. 제 학창 시절이 교수님들 사이에서 매우 유망했다는 말을 한다 해도, 스스로를 지나치게 치켜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리라 믿습니다. 졸업 후에도 저는 연구에 매진했습니다. 킹스 칼리지 병원에서 낮은 직급으로 근무하며 연구를 이어갔지요. 다행히도 강직증의 병리학을 연구한 결과 상당한 관심을 끌 수 있었고, 마침내 당신의 친구가 방금 언급한 신경 병변에 관한 논문으로 브루스 핑

크턴 상과 메달을 받았습니다. 당시 저의 앞날에 눈부신 경력이 기다리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자본이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높은 목표를 가진 전문가는 캐번디시 광장 근처의 수많은 거리 중 한 곳에 반드시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임대료와 가구 마련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지요. 이런 초기 비용 외에도, 몇 년 동안 생활비를 충당하며 품위 있는 마차와 말을 유지할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시 저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저 검소하게 생활하며 10년 뒤에나 제 이름을 새긴 식기 세트를 갖출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을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사건이 터지면서, 제게 완전히 새로운 전망이 열렸습니다."

블레싱턴이라는 이름의 신사가 찾아왔다. 그는 나와 전혀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내 방으로 찾아오더니 곧장 본론으로 들어갔다.

"최근에 아주 눈부신 경력을 쌓고 큰 상까지 받았다는 그 퍼시 트레벨리언 씨가 바로 당신입니까?"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솔직하게 대답해 주게." 그가 말을 이었다. "그렇게 하는 편이 자네에게도 이득일 테니까. 자네는 성공한 사람에게 필요한 영리함을 모두 갖추고 있네. 하지만 눈치와 재치는 있는가?"

"질문이 너무 갑작스러워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 나왔다."

"재치라면 저도 제 몫만큼은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내가 말했다.

"'나쁜 버릇이라도 있습니까? 술에는 별로 손을 안 대시는 모양이군요?'"

"정말입니까, 선생님!" 내가 외쳤다.

"맞습니다! 전적으로 옳아요! 하지만 물어보지 않을 수 없군요. 그토록 뛰어난 자질을 갖추고도 왜 정식으로 의사 활동을 하지 않는 겁니까?"

나는 어깨를 으쓱했다.

"자, 자, 어서!" 그가 특유의 활기찬 말투로 말했다. "늘 있는 일이지. 자네 주머니보다는 머릿속이 더 풍족하다는 뜻 아닌가? 만약 내가 브룩가에서 자네 사업을 시작하게 해준다면 뭐라고 하겠나?"

나는 경악한 채 그를 빤히 바라보았다.

"오,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외쳤다. "솔직하게 다 말할 테니, 당신만 괜찮다면 나도 아주 좋습니다. 내게 투자할 돈이 몇 천 파운드 정도 있는데, 그 돈을 당신에게 쏟아부을까 생각 중이거든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하지만 어째서입니까?" 내가 숨을 몰아쉬며 물었다.

"글쎄요, 그건 다른 투기와 다를 바 없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투기보다는 훨씬 안전한 편입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다 알아서 하겠네. 집도 구하고 가구도 들여놓고, 하녀들 월급도 내면서 운영까지 내가 전부 맡겠네. 자네는 그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 용돈이랑 필요한 건 내가 다 챙겨줄 테니 걱정 말게. 그러고 나서 자네가 번 돈의 4분의 3을 내게 넘겨주면, 나머지 4분의 1은 자네가 가져가는 걸로 하세."

"홈즈 씨, 블레싱턴이라는 남자가 저에게 제안했던 기묘한 내용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협상을 주고받았는지 구구절절 늘어놓아 당신을 지치게 하고 싶지는 않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다음 레이디 데이에 그 집으로 이사했고, 그가 제안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진료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제 집에 머무는 환자 신분으로 들어와 함께 살기 시작했지요. 듣기로는 심장이 약해서 지속적인 의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그는 1층에서 가장 좋은 방 두 개를 차지해 각각 거실과 침실로 꾸몄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피하고 외출도 거의 하지 않는, 아주 특이한 습관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생활 방식은 불규칙했지만, 한 가지 면에서만큼은 누구보다 규칙적이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이 되면 그는 진료실로 걸어 들어와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벌어들인 수입 중 기니당 5실링 3펜스를 떼어놓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방에 있는 금고로 가져갔습니다."

"그가 자신의 투자를 후회할 일은 결코 없었다고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성공적이었으니까요. 몇 건의 훌

륭한 사건을 해결한 데다, 제가 병원에서 쌓아온 명성 덕분에 저는 빠르게 두각을 나타냈고,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그를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홈즈 씨, 제 과거사와 블레싱턴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충분하겠지요. 이제 제가 오늘 밤 이곳에 오게 된 경위를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몇 주 전, 블레싱턴 씨가 나를 찾아왔을 때 그는 상당히 동요한 기색이었습니다. 그는 웨스트엔드에서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했는데, 제 기억에 그는 그 일로 지나칠 정도로 흥분해 있었습니다. 창문과 문에 더 튼튼한 빗장을 달기 전까지는 하루도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고까지 단언하더군요.

그 후 일주일 동안 그는 유독 안절부절못하는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창밖을 살피느라 정신이 없었고, 평소 저녁 식사 전에 즐기던 짧은 산책도 중단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니 무언가, 혹은 누군가를 몹시 두려워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점에 대해 슬쩍 물어보려 하자 그는 너무나 불쾌하게 반응했고, 결국 나는 더는 말을 꺼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공포도 점차 사라지는 듯 보였습니다. 다시 예전의 생활 습관을 되찾기도 했지요. 그러다 돌연 발생한 어떤 사건이 그를 다시 무너뜨렸고, 결국 그는 지금처럼 처참할 정도로 기력을 잃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틀 전,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에는 발신인의 주소도, 날짜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현재 영국에 거주 중인 한 러시아 귀족이 퍼시 트레벨리언 박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는 수년 동안 강직증 발작을 앓아왔으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레벨리언 박사는 이 분야의 권위자입니다. 만약 트레벨리언 박사께서 내일 저녁 6시 15분쯤 댁에 계셔준다면, 그 시간에 방문하고자 합니다.'"

"이 편지는 내 흥미를 강하게 끌었다. 강직증을 연구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이 병이 워낙 희귀하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약속된 시간이 되어 사환이 환자를 안내했을 때, 나는 진료실에 있었다."

그는 나이 지긋하고 마른 체격에, 태도가 조심스럽고 평범한 노인이었다. 러시아 귀족이라고 하면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와는 전혀 딴판이었다. 오히려 내 눈길을 더 강하게 사로잡은 쪽은 그의 동행인이었다. 키가 큰 젊은이였는데, 검고 강렬한 인상에 놀라울 정도로 잘생긴 외모를 지녔으며, 체격과 가슴 근육은 마치 헤라클레스 같았다. 두 사람이 들어올 때 젊은이는 노인의 팔을 부축하고 있었는데, 겉모습만 봐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정하게 그를 의자에 앉혔다.

"실례하겠습니다, 박사님." 그가 약간 혀 짧은 소리가 섞인 영어로 내게 말했다. "이분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제게 무엇보다도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 지극한 효심에 마음이 뭉클해졌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여기 남아 계시겠습니까?" 내가 물었다.

"세상에, 절대 안 됩니다!" 그가 공포에 질린 몸짓을 하며 외쳤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런 끔찍한 발작을 일으키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다면, 저는 아마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겁니다. 제 신경계가 워낙 예민한 편이라서요. 실례가 안 된다면, 의사 선생님께서 아버지의 상태를 살피러 들어가시는 동안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물론 나는 그 제안에 동의했고, 젊은이는 물러갔다. 그러고 나서 나와 환자는 그의 병세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했다. 나는 그 과정에서 모든 내용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환자는 그리 총명한 편이 아니었고, 대답도 모호할 때가 많았다. 나는 그 이유가 그가 우리 언어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글을 쓰며 앉아 있던 중, 갑자기 그가 내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경악하고 말았다. 그는 의자에 꼿꼿이 몸을 세운 채, 아무런 표정도 없는 굳은 얼굴로 나를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그 신비로운 병세에 사로잡힌 것이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처음 느낀 감정은 연민과 공포였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두 번째로 느낀 감정은 직업적인 만족감에 가까웠습니다. 나는 환자의 맥박과 체온을 기록하고, 근육의 경직도를 확인하며 반사 신경을 검사했습니다. 검사 결과, 이전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눈에 띄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례에서 아질산 아밀을 흡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좋은 효과를 보았기에, 이번 기회에 그 효능을 시험해 볼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약병은 아래층 실험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의자에 앉혀둔 채 약을 가져오러 내려갔습니다. 약을 찾는 데 약간의 시간이 걸렸는데, 대략 5분 정도 지났을 무렵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방 안이 텅 비어 있고 환자마저 사라진 것을 확인했을 때, 내가 느낀 경악을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대기실로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아들도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죠. 복도 문은 닫혀 있었지만, 완전히 잠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환자를 안내하는 제 사환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참이라 손이 무척 느린 편입니다. 보통은 아래층에서 대기하다가 제가 진료실 벨을 누르면 환자를 배웅하러 올라오곤 하죠. 하지만 그 친구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고, 사건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블레싱턴 씨가 산책을 마치고 들어왔지만, 저는 그 일에 대해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요즈음은 그와 최대한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제 나름의 방식이 되었으니까요."

"그 러시아인과 그의 아들을 다시는 볼 일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바로 같은 시각에 두 사람이 예전처럼 당당하게 제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박사님, 어제 갑작스럽게 자리를 떠난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군요." 환자가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그 소식을 듣고 무척 놀랐습니다." 내가 말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가 말했다. "이런 발작에서 회복되고 나면, 그 이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 기억이 늘 아주 흐릿해집니다. 제가 깨어났을 때는 낯선 방이었던 것 같고, 당신이 자리를 비운 사이 정신이 멍한 상태로 거리까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말했다. "아버지가 대기실 문을 지나가시는 걸 보고는, 당연히 상담이 끝난 줄로만 알았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나서야 비로소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허허, 농담입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너무나도 당혹스럽게 만든 것 말고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그러니 선생님, 괜찮으시다면 저기 대기실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끊겨버린 우리의 상담을 기분 좋게 이어가고 싶군요."

"삼십 분쯤 그 노신사의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처방을 내려 드렸더니, 노신사는 아들의 팔에 의지한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블레싱턴 씨는 보통 이 시간대에 운동을 하러 나간다고 말씀드렸지요. 그가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안으로 들어와 위층으로 올라갔습

니다. 그런데 곧바로 그가 아래층으로 뛰어 내려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마치 공포에 질린 사람처럼 제 진료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누가 내 방에 들어왔던 거지?" 그가 외쳤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내가 말했다.

"거짓말이야! 그가 소리쳤다. 올라와서 직접 봐!"

그가 공포에 질려 제정신이 아닌 듯 보였기에, 나는 그의 거친 언사를 못 본 체해주었다. 그와 함께 위층으로 올라가자, 그는 밝은 색 카펫 위에 찍힌 여러 개의 발자국을 가리켰다.

"그게 다 제 것이라는 말씀인가요?" 그가 외쳤다.

"발자국은 분명 그가 만들 수 있는 것보다 훨씬 컸고, 아주 선명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오후에는 비가 세차게 내렸고, 진료실을 찾은 사람은 제 환자들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환자를 돌보는 사이, 대기실에 있던 남자가 무슨 이유에서인지 제 상주 환자의 방으로 올라간 게 틀림없습니다. 물건을 건드리거나 가져간 것은 없었지만, 누군가 침입했다는 사실만큼은 저 발자국이 분명히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싱턴 씨는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흥분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누구라도 마음의 평화를 잃을 만한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말입니다. 그는 안락의자에 앉아 실제로 울기까지 했고, 저는 그가 겨우 말을 이어가게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제가 당신을 찾아가 보

라고 제안한 것도 바로 그였습니다. 저 역시 그 제안이 적절하다고 즉시 판단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분명 매우 기이한 일이니까요. 비록 블레싱턴 씨 본인은 이 일의 중요성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듯 보이지만 말입니다. 괜찮으시다면 제 마차를 타고 저와 함께 가 주시겠습니까? 당신이 곁에 있다면 그를 진정시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기묘한 사건을 당신이 설명해 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말입니다."

셜록 홈즈는 이 긴 이야기를 아주 집중해서 듣고 있었다. 그 모습만 봐도 홈즈가 얼마나 깊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알 수 있었다. 표정은 평소처럼 무심해 보였으나, 눈꺼풀은 평소보다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고, 파이프에서 피어오르는 담배 연기는 의사의 이야기 속 기이한 사건 하나하나를 강조하듯 더욱 짙게 말려 올라갔다.

방문객의 이야기가 끝나자 홈즈는 아무 말 없이 벌떡 일어났다. 그는 내 모자를 건네주고는 탁자 위에 놓인 자신의 모자를 집어 들더니, 트레베리언 박사를 따라 문밖으로 나섰다.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브룩가에 있는 박사의 저택 앞에 도착했다. 그곳은 웨스트엔드에서 진료하는 의사들의 집 하면 떠오르는, 어둡고 평면적인 외관을 가진 건물 중 하나였다. 어린 하인이 우리를 안내했고, 우리는 곧장 카펫이 깔린 넓은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묘한 방해로 인해 우리는 하던 일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꼭대기에 켜져 있던 등불이 갑자기 꺼지더니, 어둠 속에서 갈라지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권총이 있다!" 그가 외쳤다.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오면 정말 쏜다. 내 명예를 걸고 맹세하마."

"블레싱턴 씨, 이건 정말 너무하군요!" 트레베리언 박사가 외쳤다.

"아, 박사님이었군요." 목소리에서 안도의 한숨이 크게 터져 나왔다. "그런데 저 다른 신사분들은요, 정말 본인들이 말하는 그 사람들이 맞습니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오랫동안 뚫어지게 살피고 있다는 사실이 느껴졌다.

"그래, 그래, 괜찮네." 마침내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올라와도 좋네. 경계하느라 자네를 번거롭게 했다면 미안하군."

그는 말을 이어가며 계단 가스등에 다시 불을 붙였다. 그제야 우리 눈앞에 기이한 인상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목소리만큼이나 초췌한 겉모습에서도 신경이 몹시 날카로워져 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남자는 매우 뚱뚱했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살이 쪘던 모양인지 얼굴 주변의 피부가 블러드하운드 개처럼 축 늘어져 있었다. 안색은 병색이 완연했고, 옅은 모래색의 가는 머리카락은 격앙된 감정 때문에 빳빳하게 곤두서 있는 듯했다. 그는 손에 권총을 들고 있었으나, 우리가 다가가자 얼른 주머니 속으로 밀어 넣었다.

"안녕하십니까, 홈즈 씨." 그가 말했다. "직접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저에게 당신의 조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트레베리언 박사에게 제 방에 벌어진 이 무례한 침입 사건에 대해 이미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고말고요." 홈즈가 말했다. "블레싱턴 씨, 이 두 남자는 대체 누구이며, 왜 당신을 괴롭히려는 겁니까?"

"글쎄요, 글쎄요." 상주 환자가 초조한 기색으로 말했다. "물론 그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홈즈 씨, 제게 그런 질문에 답하라고 기대하시는 건 무리입니다."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지요. 부디 안으로 들어와 주시겠습니까?"

그는 앞장서서 우리를 침실로 안내했다. 침실은 넓고 가구도 안락하게 갖춰져 있었다.

"저것 좀 보십시오." 그가 침대 끝에 놓인 커다란 검은 상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홈즈 씨, 저는 그리 부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트레베리언 박사님께 들으시겠지만, 평생 딱 한 번 투자를 해본 게 전부지요. 하지만 저는 은행원을 믿지 않습니다. 홈즈 씨, 저는 절대로 은행에 돈을 맡기지 않을 겁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입니다만, 제가 가진 전 재산이 저 상자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이 제 방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홈즈는 질문을 던지는 듯한 눈빛으로 블레싱턴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저를 속이려 드신다면 도저히 조언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전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홈즈는 혐오스럽다는 듯 몸을 돌려 발길을 돌렸다. "안녕히 가십시오, 트레베리언 박사님." 그가 말했다.

"제게 해줄 조언은 정말 없는 건가요?" 블레싱턴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선생님, 제 조언은 사실대로 말씀하시라는 겁니다."

잠시 후 우리는 거리로 나와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옥스퍼드 거리를 지나 할리 가의 중간쯤 이르렀을 때에야 나는 동행 중인 홈즈에게 겨우 한마디 말을 건넬 수 있었다.

"이런 쓸데없는 일에 자네를 불러내서 미안하네, 왓슨."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사건,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아주 흥미로운 구석이 있다네."

"도무지 갈피를 못 잡겠군." 내가 고백하듯 말했다.

"글쎄요, 상황을 보니 블레싱턴이라는 자를 어떤 이유에서든 반드시 찾아내려는 사람이 최소한 두 명은 있다는 게 아주 명백합니다.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을지도 모르죠. 제 생각에는 그 젊은이가 블레싱턴의 방에 침입했을 때,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의 공범이 아주 교묘한 수법을 써서 의사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았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강직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짜야, 왓슨. 하지만 우리 전문가에게 대놓고 그런 말을 꺼내기는 좀 조심스럽군. 이 병은 흉내 내기가 아주 쉽거든. 나도 직접 해본 적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다음은요?"

"순전히 운이 좋게도, 블레싱턴은 매번 자리를 비운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상담 시간을 그렇게 이례적으로 잡은 이유는 분명 대기실에 다른 환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시간이 마침 블레싱턴의 정기 산책 시간과 겹치고 말았죠. 이를 보면 그들이 블레싱턴의 일과를 그리 잘 알지는 못했던 모양입니다. 만약 그들이 단순히 물건을 훔치려는 목적이었다면, 최소한 뒤져보는 시도라도 했을 겁니다. 게다가 저는 사람의 눈만 봐도 그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가 이토록 원한을 품은 적들을 만들어 놓고 정작 본인은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저는 그가 이들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으며, 자신만의 이유로 모르는 척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어쩌면 내일쯤이면 그가 좀 더 입을 열어줄지도 모르겠군요."

"혹시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내가 제안했다. "물론 터무니없을 정도로 희박한 확률이겠지만, 그래도 아예 불가능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강직성 발작을 일으킨 러시아인과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 트레베리언 박사가 꾸며낸 이야기라면 어떨까요? 그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블레싱턴의 방에 머물렀던 점을 이용한 가공의 이야기 말입니다."

가스등 불빛 아래로, 나의 이 기발한 발상에 홈즈가 즐거운 듯 미소 짓는 모습이 보였다.

"이보게," 홈즈가 말했다. "그건 내가 가장 먼저 떠올린 가설 중 하나였네. 하지만 곧이어 트레베리언 박사의 이야기가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지. 이 젊은이가 계단 카펫에 남긴 발자국을 보니, 방 안에서 남긴 발자국을 굳이 확인해 볼 필요조차 없더군. 그의 구두는 블레싱턴의 것과 달리 앞코가 뭉툭했고, 트레베리언 박사의 구두보다 1과 3분의 1인치 정도 더 길었네. 이 사실을 듣고 나면, 그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자네도 인정하게 될 거야. 하지만 일단은 좀 쉬도록 하세. 내일 아침이면 브룩가에서 새로운 소식이 들려올 테니 말이야."

셜록 홈즈의 예언은 머지않아 실현되었다. 그것도 아주 극적인 방식으로 말이다. 다음 날 아침 7시 반, 새벽빛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나는 가운 차림으로 내 침대 곁에 서 있는 홈즈를 발견했다.

"우리를 기다리는 브룸(Brougham) 마차가 있네, 왓슨." 홈즈가 말했다.

"그래서, 무슨 일입니까?"

"브룩가 사건 말일세."

"새로운 소식은 없나?"

"비극적이긴 하지만, 모호하군."

그가 블라인드를 올리며 말했다.

"이것 좀 보게. 수첩에서 뜯어낸 종이 한 장이라네. 연필로 '제발 부탁이니 당장 와주게—P.T.'라고 휘갈겨 써 놓았어. 우리 친구인 그 의사 양반은 이걸 쓸 당시 아주 절박한 처지였던 모양이야. 자, 어서 가세나. 아주 급한 호출이니까."

15분쯤 지났을까, 우리는 다시 의사의 집으로 돌아갔다. 의사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우리를 맞이하려 급히 뛰어 나왔다.

"아, 정말 골치 아픈 일이군!" 그는 관자놀이를 짚으며 외쳤다.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블레싱턴이 자살했습니다!"

홈즈가 휘파람을 불었다.

"그렇습니다. 그는 밤사이에 스스로 목을 매어 자결했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의사는 분명히 자신의 대기실로 보이는 방으로 우리보다 앞서 들어갔다.

"정말이지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가 외쳤다. "경찰들이 벌써 위층에 올라갔단 말입니다.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군요."

"언제 알아내셨습니까?"

"그에게는 매일 아침 일찍 차를 한 잔 들여다 주곤 했습니다. 7시쯤 하녀가 방에 들어갔을 때, 불행한 그 남자는 방 한가운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예전에 무거운 램프를 걸어두었던 갈고리에 밧줄을 묶은 뒤, 어제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바로 그 상자 위로 올라가 뛰어내린 것이었습니다."

홈즈는 잠시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서 있었다.

"허락해 주신다면,"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위층으로 올라가서 직접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둘이 올라갔고, 의사가 그 뒤를 따랐다.

침실 문을 열고 들어선 우리 앞에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앞서 블레싱턴이라는 남자가 흐느적거리는 인상을 준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런데 갈고리에 매달린 그의 모습은 그 흐물거림이 극에 달해, 사람이라기보다는 차라리 기괴한 물체처럼 보일 정도였다. 털을 뽑은 닭처럼 목이 길게 늘어진 탓에, 그와 대비되는 몸통은 더욱 비대하고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그는 긴 잠옷 차림이었는데, 그 아래로 부어오른 발목과 꼴사나운 발이 도드라져 보였다. 그 곁에는 깔끔한 차림의 경찰 경위가 수첩에 무언가를 기록하며 서 있었다.

"아, 홈즈 씨!" 내 친구가 들어서자 그가 반갑게 외쳤다.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좋은 아침이네, 랜너." 홈즈가 대답했다. "내가 불쑥 찾아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리라 믿네. 이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는 좀 들었나?"

"네, 그들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라도 세우셨습니까?"

"내가 보기엔, 그 남자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것 같소. 보시다시피 침대 상태를 보니 잠을 꽤 깊이 잔 모양이군. 흔적이 아주 깊게 남아 있지 않소? 보통 새벽 다섯 시쯤에 자살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는 건 알고 있을 거요. 그가 목을 맨 시간도 아마 그쯤이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작정하고 계획적으로 이뤄진 일인 것 같소."

"근육이 굳은 정도를 보니, 사망한 지 세 시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가 말했다.

"방 안에서 특별한 점을 발견한 게 있나?" 홈즈가 물었다.

"세면대 위에 드라이버 하나랑 나사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밤새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운 모양이더군요. 여기 벽난로에서 찾아낸 시가 꽁초 네 개도 있습니다."

"흠!" 홈즈가 말했다. "그의 시가 홀더를 가지고 있나?"

"아니요, 본 적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시가 케이스를 말입니까?"

"네, 그의 코트 주머니 안에 있었습니다."

홈즈는 그것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한 대의 향을 맡았다.

"오, 이건 하바나산이고, 나머지는 네덜란드가 동인도 식민지에서 들여오는 아주 특이한 종류의 시가군요. 아시다시피 보통 짚으로 싸여 있고, 다른 브랜드보다 길이에 비해 폭이 좁은 게 특징이죠." 홈즈는 네 개의 시가 끝부분을 집어 들더니 휴대용 돋보기로 자세히 살폈다.

"이중 두 개는 홀더를 물고 피운 흔적이 있고, 나머지 두 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두 개는 그리 날카롭지 않은 칼로 잘려 있고, 또 다른 두 개는 아주 튼튼한 치아로 끝부분을 씹어 끊은 흔적이 있군요. 랜너 씨, 이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냉혹한 살인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경위가 외쳤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누군가가 사람을 목매달아 죽이는 것처럼 그토록 서투른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른단 말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밝혀내야 할 사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들어온 거지?"

"정문으로 들어왔지."

"아침에는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들어온 뒤에 누군가 그 뒤로 빗장을 건 것이지."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들의 흔적을 보았습니다.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는 문가로 다가가 잠금장치를 돌려보며 특유의 체계적인 방식으로 살폈다. 그러고는 안쪽에 꽂혀 있던 열쇠를 꺼내 그것까지 꼼꼼히 점검했다. 침대와 카펫, 의자와 벽난로 선반, 그리고 시신과 밧줄에 이르기까지 그는 하나하나 차례대로 조사했다. 마침내 만족했다는 듯 조사를 마친 그는, 나와 경위의 도움을 받아 그 비참한 물체를 잘라낸 뒤 시신을 시트 아래에 정중히 눕혔다.

"이 밧줄은 어떻습니까?" 그가 물었다.

"이건 잘려 나간 겁니다." 트레베리언 박사가 침대 밑에서 커다란 밧줄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그는 불에 대해 병적인 공포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계단에 불이 붙을 경우를 대비해, 창문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항상 이 밧줄을 곁에 두곤 했습니다."

"그 덕분에 수고를 덜었겠군요." 홈즈가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그렇습니다. 실제 사실관계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오후까지 그 이유를 밝혀내지 못한다면 저도 놀랄 겁니다. 우선 벽난로 선반 위에 있는 블레싱턴의 사진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군요."

"하지만 아무것도 말씀해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왓슨 박사가 외쳤다.

"사건이 일어난 순서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사건에는 세 사람이 연루되었습니다. 젊은이와 노인, 그리고 정체를 전혀 알 수 없는 제삼자입니다. 앞의 두 사람은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지요. 러시아 백작과 그 아들로 변장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에 대해서는 아주 상세하게 묘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집 안에 있던 공범의 도움을 받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위님, 제가 조언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페이지(시종)를 체포하십시오. 제가 듣기로는 그가 박사님의 밑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 꼬마 녀석이 보이지 않습니다." 트레베리언 박사가 말했다. "하녀와 요리사가 방금까지 아이를 찾아 헤맸는데도 소식이 없군요."

홈즈는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그는 이번 사건에서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수행했네." 그가 말했다. "세 남자가 계단을 올라왔는데, 발소리를 죽인 채 까치발로 움직였지. 연장자가 앞장서고, 젊은 남자가 그 뒤를 따랐으며, 정체 모를 남자가 맨 마지막에 올라왔네."

"이보게, 홈즈!" 내가 외쳤다.

"오, 발자국이 겹쳐진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젯밤에 어느 것이 어느 발자국인지 확실히 확인했거든요. 발자국은 블레싱턴 씨의 방으로 이어졌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사로 열쇠를 돌려 문을 열었죠. 돋보기가 없어도 이 자물쇠에 난 긁힌 자국을 보면 어디에 힘을 가했는지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블레싱턴 씨의 입을 막는 것이었을 겁니다. 그는 잠들어 있었을 수도 있고, 혹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를 수 없는 상태였을지도 모릅니다. 이 방은 벽이 두꺼워서, 설령 그가 비명을 지를 겨를이 있었다 해도 밖에서는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그를 확보한 뒤, 분명 어떤 형태의 협의가 이루어졌을 겁니다. 아마도 사법 절차와 비슷한 성격의 것이었겠지요. 협의는 꽤 오랫동안 계속되었을 겁니다. 이 시가들을 피운 시점이 바로 그때였을 테니까요. 나이 든 남자는 저 고리버들 의자에 앉아 있었고, 시가 홀더를 사용한 것도 그였습니다. 젊은 남자는 저 건너편에 앉아 서랍장 모서리에 재를

털어냈고요. 세 번째 인물은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며 서성였습니다. 블레싱턴은 침대에 똑바로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확실히 단정할 수 없군요."

"결국 그들은 블레싱턴을 붙잡아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워낙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어서, 제 생각에는 교수대로 쓸 만한 나무 받침대나 도르래 같은 것을 미리 챙겨온 것 같습니다. 그 드라이버와 나사들도 아마 그걸 설치하려고 가져온 것이겠지요. 하지만 갈고리를 보고는 굳이 번거롭게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나 봅니다. 일을 마친 그들은 곧장 자리를 떴고, 공범이 뒤에서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우리는 홈즈가 들려주는 그날 밤의 전말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경청했다. 홈즈는 아주 미세하고 미묘한 단서들을 토대로 사건을 재구성해 냈는데, 그 논리 전개가 워낙 치밀해서 그가 단서를 짚어줄 때조차 우리는 그의 추론을 따라가기 벅찰 정도였다. 경위는 그 즉시 소년의 행방을 조사하겠다며 서둘러 자리를 떴고, 홈즈와 나는 아침 식사를 하기 위해 베이커가로 돌아갔다.

식사를 마쳤을 때 그가 말했다. "세 시까지 돌아오겠네. 그때 경위와 의사가 이곳에서 나를 만나기로 했거든. 그때쯤이면 사건에 남아 있는 사소한 의문점들도 모두 해결해 놓을 수 있기를 바라네."

손님들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하지만 내 친구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네 시 15분 전이었다. 그러나 방 안으로 들어서는 홈즈의 표정을 보니,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린 모양이었다.

"새로운 소식은 없습니까, 경위님?"

"그 아이를 잡았습니다, 선생님."

"훌륭하군, 사람들도 다 모았네."

"드디어 잡았군요!" 우리 세 사람은 동시에 외쳤다.

"뭐, 그래도 최소한 그놈들의 정체는 알아냈네. 이른바 블레싱턴이라는 자는 내 예상대로 본부에서도 꽤 유명한 인물이더군. 그를 공격한 놈들도 마찬가지야. 이름은 비들, 헤이워드, 그리고 모팻이라네."

"워딩턴 은행 강도단이군요!" 경위가 외쳤다.

"정확해." 홈즈가 말했다.

"그렇다면 블레싱턴이 분명 서튼이었겠군."

"정확해." 홈즈가 말했다.

"이거 참, 이제 모든 게 수정처럼 명백해졌군요." 경위가 말했다.

하지만 트레벨리언과 나는 어안이벙벙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워딩턴 은행에서 벌어진 그 거대한 사건을 분명 기억하실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다섯 명이 가담했었죠. 여기 있는 네 사람과 카트라이트라는 이름의 다섯 번째 인물입니다. 관리인이었던 토빈이 살해당했고, 도둑들은 7,000파운드를 챙겨 달아났습니다. 1875년에 일어난 일

이었죠. 다섯 명 모두 체포되었지만, 그들에 대한 증거는 결코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조직에서 가장 악질이었던 블레싱턴, 혹은 서튼이라 불리는 자가 밀고자로 돌아섰습니다. 그의 증언 덕분에 카트라이트는 교수형에 처해졌고, 나머지 세 명은 각각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얼마 전,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출소한 그들은 보시다시피 배신자를 찾아내 동료의 복수를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두 번이나 그를 습격하려다 실패했지만, 세 번째 시도에서는 결국 성공하고 만 겁니다. 트레벨리언 박사님,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이 아주 명확해진 것 같군요." 트레벨리언 박사가 말했다. "그가 불안해하던 날은 틀림없이 신문에서 그들이 석방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날이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빈집털이 사건을 언급한 건 그저 눈속임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왜 당신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던 걸까요?"

"자, 선생님. 그가 과거에 함께했던 동료들이 얼마나 보복심이 강한 자들인지 생각하면, 그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기려 했을 겁니다. 그가 품은 비밀은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이었기에, 스스로도 차마 발설하지 못했을 테지요. 하지만 경위님, 그가 아무리 비열한 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영국 법의 보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그 보호막이 그를 지켜내지 못할지언정, 정의의 칼날은 여전히 남아 그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상주 환자와 브룩가의 의사 사이에 얽힌 기이한 사정은 이와 같았다. 그날 밤 이후 경찰은 세 명의 살인범을 단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다. 스코틀랜드 야드에서는 그들이 불운한 증기선 노라 크레이나호의 승객 중 일부였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다. 이 배는 몇 년 전 포르투갈 해안, 오포르투에서 북쪽으로 몇 리그 떨어진 곳에서 승객 전원이 사망하며 침몰했다. 시종을 상대로 한 재판은 증거 부족으로 무산되었고, 이른바 '브룩가의 미스터리'라 불리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어떤 언론 매체에서도 제대로 다뤄진 적이 없었다.

그리스어 통역관

X. 그리스어 통역관

셜록 홈즈와 오랜 시간 가깝게 지내오면서, 나는 그가 자신의 친척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자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도 거의 입을 열지 않았다. 이러한 그의 과묵함은 그가 내게 주는 다소 비인간적인 인상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때때로 나는 그를 마치 심장 없는 두뇌, 즉 지성 면에서는 독보적이지만 인간적인 공감 능력은 결여된,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기이한 현상처럼 여기기도 했다. 여성을 멀리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를 꺼리는 태도 모두가 그의 무감각한 성격을 잘 보여주었으나, 자신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철저히 차단하는 모습만큼은 아니었다. 나는 그가 살아있는 친척이 하나도 없는 고아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말이지 깜짝 놀랄 만큼 뜻밖에도 그가 자신의 형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여름날 어느 저녁, 홍차를 마신 뒤였다. 골프채 이야기부터 황도 경사각이 변하는 원인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대화는 두서없이 이리저리

튀며 이어졌다. 그러다 마침내 화제는 격세유전과 유전적 적성에 관한 문제로 흘러갔다. 우리가 논의하던 핵심은 이것이었다. 개인의 특별한 재능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인지, 아니면 본인의 어린 시절 훈련 덕분인지에 대한 문제였다.

"당신 자신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가 말했다. "지금까지 들려준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당신의 관찰력과 그 독특한 연역 능력은 모두 스스로 쌓아온 체계적인 훈련 덕분인 게 분명해 보이는군요."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그가 생각에 잠긴 듯 대답했다. "내 조상들은 시골의 지주들이었어. 그분들은 그 계층의 사람이라면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삶을 사셨던 것 같더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술적인 기질은 내 혈관 속에 흐르고 있어. 아마 프랑스 화가 베르네의 누이였던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 같아. 혈통에 흐르는 예술적 재능은 때로 아주 기묘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니까."

"하지만 그것이 유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내 형인 마이크로프트는 나보다 그 능력을 훨씬 더 크게 갖추고 있으니까요."

그것은 내게 정말이지 뜻밖의 소식이었다. 만약 영국에 이토록 비범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또 있다면, 어째서 경찰도 대중도 그를 들어본 적이 없단 말인가? 나는 내 동료가 겸손함 때문에 형을 자신보다 뛰어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아 질문을 던졌다. 홈즈는 나의 추측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게, 왓슨." 홈즈가 말했다. "겸손을 미덕 중 하나로 꼽는 사람들의 말에 나는 동의할 수 없네. 논리학자에게 세상 모든 만물은 있는 그대로 보여야 하는 법이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장하는 것만큼이나 진실에서 벗어난 행위라네. 그러니 내가 마이크로프트가 나보다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말한다면, 그건 내가 아주 정확하고 문자 그대로의 진실을 말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 주게나."

"그가 자네 동생인가?"

"나보다 일곱 살이나 위라네."

"어째서 그가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아, 그분은 그쪽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지요."

"그럼, 어디란 말인가?"

"글쎄요, 예를 들어 디오게네스 클럽 같은 곳 말입니다."

나는 그 기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다. 내 얼굴에 그 사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던 모양인지, 셜록 홈즈는 회중시계를 꺼내 들었다.

"디오제네스 클럽은 런던에서 가장 기묘한 클럽이고, 마이크로프트는 그만큼이나 기묘한 사람 중 하나라네. 그는 늘 네 시 사십오 분부터 일곱 시 사십 분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지. 지금이 마침 여섯 시니, 이 아름다운 저녁에 산책이라도 나갈 마음이 있다면 자네에게 아주 진기한 구경거리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싶군."

5분 뒤, 우리는 거리로 나와 리전트 서커스 쪽으로 걸어갔다.

"자네는 궁금하겠지." 내 동료가 말했다. "왜 마이크로프트가 그 뛰어난 능력을 탐정 일에 쓰지 않는지 말이야. 하지만 그는 탐정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네."

"하지만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가 나보다 관찰력과 추리력이 뛰어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탐정의 기술이라는 것이 안락의자에 앉아 추론하는 것만으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이라면, 내 형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범죄 수사관이 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야망도, 에너지도 없습니다. 자신이 내린 결론이 맞는지 확인하려 길을 나서는 일조차 하지 않지요. 차라리 틀렸다는 취급을 받을지언정, 스스로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수고를 들여서는 안 된다는 식입니다. 나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그에게 가져갔고, 나중에 확인해 보면 늘 정확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건을 판사나 배심원 앞에 가져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는 전혀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그의 직업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네. 나에게는 생계 수단인 일이 그에게는 그저 아마추어의 가벼운 취미일 뿐이라네. 그는 수치 계산에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정부 부처 중 몇 곳에서 장부를 검사하는 일을 맡고 있지. 마이크로프트는 팰 말에 머무는데, 매일 아침 모퉁이만 돌면 바로 화이트홀로 연결된다네. 저녁에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는 일 년 내내 그 외에

는 다른 운동도 하지 않고, 숙소 바로 맞은편에 있는 디오게네스 클럽 외에는 어디에서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네."

"이름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군요."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아시다시피 런던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요. 그중에는 수줍음이 많아서, 혹은 인간 혐오 때문에 타인과 어울리고 싶어 하지 않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편안한 안락의자나 최신 잡지를 싫어하는 건 아니지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디오게네스 클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런던에서 가장 사교성이 없고 클럽 활동과는 거리가 먼 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원들은 서로를 조금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머무는 방을 제외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만약 위원회에 대화했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세 번의 위반이 적발되면, 해당 회원은 제명됩니다. 제 형이 이 클럽의 창립 멤버 중 한 명이었는데, 저 역시 이곳의 분위기가 매우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경험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며 걷다 보니 어느덧 팰 말 거리에 다다랐다. 우리는 세인트 제임스 쪽에서부터 거리를 따라 내려가고 있었다. 셜록 홈즈는 칼튼 호텔에서 조금 떨어진 어느 집 문 앞에 멈춰 섰다. 홈즈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 뒤, 앞장서서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유리창 너머로 크고 호화로운 방이 언뜻 보였다. 그 방에는 꽤 많은 남자가 각자 마련된 작은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다. 홈

즈는 나를 팰 말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그러고는 잠시 나를 혼자 둔 채 밖으로 나갔다가, 그의 형제임이 분명한 한 사람을 데리고 다시 돌아왔다.

마이크로프트 홈즈는 셜록보다 훨씬 체구가 크고 건장했다. 몸집은 아주 비대했지만, 얼굴만큼은 큼직하면서도 동생에게서 볼 수 있었던 그 놀라운 표정의 예리함을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었다. 특이하게도 옅고 흐릿한 회색빛을 띠는 그의 눈은, 셜록이 모든 지적 능력을 쏟아부을 때만 볼 수 있었던 그 먼 곳을 응시하는 듯한 내성적인 눈빛을 늘 머금고 있는 듯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는 물개 지느러미처럼 넓고 두툼한 손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이 셜록의 전기를 쓰기 시작한 뒤로, 어디를 가나 셜록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그나저나 셜록, 지난주에 그 저택 사건 건으로 나를 찾아올 줄 알았네. 자네가 감당하기에는 조금 버거운 사건일 것 같아서 말이야."

"아니, 내가 풀어냈네." 내 친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연히 애덤스였네."

"그래, 애덤스가 맞았어."

"처음부터 확신했네." 두 사람은 클럽의 베이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인간 군상을 연구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곳이 바로 최적의 장소라네." 마이크로프트가 말했다. "저 화려한 인간 군상들을 좀 보게나!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저 두 사람을 보라고."

"당구 점수원과 다른 사람 말입니까?"

"정확해.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나?"

두 남자는 창문 맞은편에 멈춰 섰다. 한 남자의 조끼 주머니 위에는 분필 자국이 몇 군데 묻어 있었는데, 그것이 그가 당구를 쳤다는 유일한 흔적이었다. 다른 남자는 아주 작고 어두운 인상의 사내였다. 그는 모자를 뒤로 젖혀 쓰고 팔 아래에는 꾸러미를 여러 개 끼고 있었다.

"노병(老兵)이시군요." 셜록이 말했다.

"게다가 아주 최근에 제대했더군." 형이 말했다.

"인도에서 복무하셨군요."

"부사관이기도 하고요."

"왕립 포병대 출신이군." 셜록이 말했다.

"게다가 홀아비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아이가 함께였습니다."

"아이들이라네, 이 사람아. 아이들이라고."

"이보게," 내가 웃으며 말했다. "이건 좀 지나치군."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저런 태도와 권위 있는 표정, 그리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를 가진 사람이라면 군인이라는 것쯤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게다가 단순한 이등병은 아닐 테고, 인도에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가 군 복무를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건 그가 아직도 이른바 탄약 보급용 부츠를 신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지." 마이크로프트가 말했다.

"그는 기병대 특유의 경쾌한 걸음걸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모자를 한쪽으로 기울여 썼는지, 이마의 그쪽 부분 피부색이 더 밝더군요. 체격으로 보아 공병은 아닐 테고, 포병임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그가 상복을 갖춰 입은 것을 보니 아주 소중한 사람을 잃은 게 분명합니다. 직접 장을 보고 다니는 정황을 보면, 아마 아내를 잃은 듯하군요. 보시다시피 아이들을 위한 물건들도 사고 있습니다. 여기 딸랑이가 있는 걸 보니 아이 중 하나는 아주 어린 모양입니다. 아내는 아마 출산 중에 사망했을 겁니다. 그리고 품에 그림책을 끼고 있는 걸 보면, 돌봐야 할 아이가 또 한 명 더 있다는 뜻이겠지요."

내 친구가 자신의 형은 자신보다 훨씬 더 예리한 능력을 갖췄다고 말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야 이해하기 시작했다. 홈즈는 나를 힐끗 보더니 미소를 지었다. 마이크로프트는 거북등껍질로 만든 통에

서 코담배를 꺼내 취하더니, 커다란 붉은색 실크 손수건으로 코트 앞자락에 흩어진 가루를 털어냈다.

"그나저나 셜록," 그가 말했다. "자네 취향에 딱 맞을 법한 아주 기묘한 사건이 내게 의뢰되었네. 사실 끝까지 파헤칠 기운이 없어서 아주 단편적인 부분만 훑어보았지만, 덕분에 즐거운 상상을 좀 해볼 수 있었지. 혹시 사실 관계를 들어보겠나?"

"친애하는 마이크로프트 형, 기꺼이 그러겠네."

그의 형은 수첩 한 장을 찢어 짧은 쪽지를 휘갈겨 썼다. 그러고는 벨을 울려 웨이터를 부른 뒤, 그 쪽지를 건네주었다.

"멜라스 씨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분은 제 바로 위층에 사는데, 안면이 좀 있는 사이라 고민이 생겼을 때 저를 찾아오셨더군요. 제가 알기로 멜라스 씨는 그리스 혈통이며, 언어에 아주 능통한 분입니다. 법정에서 통역사로 일하기도 하고, 노섬벌랜드 애비뉴의 호텔을 찾는 부유한 동양인들의 가이드 노릇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지요. 이 놀라운 경험담은 멜라스 씨가 직접 본인의 방식대로 들려주도록 하는 게 좋겠군요."

몇 분 지나지 않아 키가 작고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우리에게 합류했다. 올리브빛 피부와 칠흑 같은 머리카락을 보니 남부 출신임이 분명했으나, 말투는 교육을 잘 받은 영국인이었다. 그는 셜록 홈즈와 반갑게 악수를 나누었다. 홈즈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의 검은 눈동자는 기쁨으로 반짝였다.

"경찰들이 내 말을 믿어줄 리 없어요. 정말이지, 절대 안 믿을 겁니다." 그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단지 전에는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라서, 그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하지만 얼굴에 반창고를 붙이고 있던 내 불쌍한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기 전까지는, 제 마음이 결코 편치 않을 겁니다."

"경청하고 있네." 셜록 홈즈가 말했다.

"오늘은 수요일 저녁입니다." 멜라스 씨가 말했다. "이 모든 일은 월요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불과 이틀 전이지요. 제 옆에 계신 이웃분이 이미 말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통역사입니다. 거의 모든 언어를 통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태생이 그리스인인 데다 이름도 그리스식이라, 주로 그리스어 통역을 맡고 있습니다. 수년 동안 런던에서 그리스어 수석 통역사로 일해 왔기에, 호텔들 사이에서도 제 이름은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곤경에 처한 외국인이나 늦은 시간에 도착해 내 도움이 필요한 여행객들이 으레 엉뚱한 시간에 나를 찾아오곤 한다. 그래서인지 월요일 밤, 아주 세련된 차림을 한 래티머 씨가 내 방을 찾아왔을 때도 그리 놀랍지는 않았다. 그는 문 앞에 대기 중인 마차를 타고 함께 가자고 청했다. 래티머 씨의 말에 따르면, 그리스인 친구가 사업 문제로 그를 만나러 왔는데 그 친구가 모국어 외에는 한마디도 못 하는 바람에 통역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의 집은 켄싱턴 근처로 거리가 좀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래티머 씨는 무척 서두르는 기색이었는데, 거리로 내려가자마자 나를 재촉해 마차에 태웠다.

"나는 택시를 탔다고 생각했지만, 곧 내가 타고 있는 것이 마차는 아닌지 의구심이 들었다. 확실히 런던 거리를 돌아다니는 평범한 네 바퀴짜리 쓰레기들보다는 훨씬 넓었고, 비록 낡긴 했어도 내부 장식은 고급스러웠다. 래티머 씨는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고, 우리는 차링 크로스를 지나 샤프츠버리 애비뉴를 따라 출발했다. 옥스퍼드 스트리트에 들어섰을 때, 나는 켄싱턴까지 가기에 너무 멀리 돌아가는 것 같다는 말을 조심스레 꺼냈다. 하지만 내 말은 동행한 그의 기이한 행동 때문에 끝맺지 못하고 멈춰버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납을 채워 넣어 아주 위협적으로 보이는 몽둥이를 꺼내 들었다. 그러고는 마치 무게와 강도를 시험하려는 듯, 몽둥이를 앞뒤로 몇 번 휘둘러 보였다. 그러더니 아무 말 없이 옆 좌석 위에 몽둥이를 내려놓았다. 동작을 마친 그는 양옆의 창문을 모두 올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창문에는 종이가 붙어 있어 밖을 내다볼 수 없었다.

"멜라스 씨, 시야를 가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사실은 우리가 향하는 곳을 당신이 보지 못하게 할 생각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을 다시 찾아낼 수 있게 된다면, 제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거든요."

"짐작하시겠지만, 그런 식의 대우를 받고 저는 완전히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제 일행은 어깨가 벌어진 건장한 청년이었거든요. 무기를 쓰지 않는다면, 그와 몸싸움을 벌여서 제가 이길 가능성은 조금도 없었을 겁니다."

"래티머 씨, 정말이지 상식 밖의 행동입니다." 내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지금 하시는 일이 명백한 불법이라는 사실을 모르시는 건 아니겠지요?"

"분명 결례가 되는 행동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만큼 보답을 해드리지요. 다만 멜라스 씨, 한 가지 경고해 두겠습니다. 오늘 밤 어느 때라도 소란을 피우거나 제 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려 든다면,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마차 안에 있든 제 저택에 있든, 당신은 똑같이 제 손아귀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으나, 말을 내뱉을 때마다 섞여 나오는 거친 쇳소리가 무척 위협적이었다. 나는 침묵 속에 앉아, 도대체 무슨 이유로 나를 이런 기괴한 방식으로 납치했는지 생각에 잠겼다. 이유가 무엇이든 저항해 봐야 소용없다는 사실은 명백했다. 그저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닥칠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전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거의 두 시간 동안 차를 타고 달렸다. 때로는 자갈이 덜컹거리는 소리로 보아 포장된 도로를 지나는 듯했고, 또 어떤 때는 매끄럽고 조용히 나아가는 것으로 보아 아스팔트 길을 달리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소리의 변화를 제외하면,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단서는 그 무엇도 없었다. 창문마다 붙여진 종이는 빛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았고, 앞쪽 유리창에는 푸른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다.

우리가 팰 말(Pall Mall)을 떠난 시각은 7시 15분이었으나, 마침내 차가 멈춰 섰을 때 내 회중시계가 가리킨 시각은 8시 50분이었다. 동행하던 이가 창문을 내리자, 등불이 켜진 낮고 아치형인 문이 언뜻 보였다. 마차에서 서둘러 내리는 순간 문이 열렸고, 나는 집 안으로 들어섰다. 들어서는 찰나 양옆으로 잔디밭과 나무들이 펼쳐져 있다는 막연한 느낌이 들었을 뿐이다. 다만 그곳이 개인 저택의 정원인지, 아니면 정말로 탁 트인 시골이었는지는 감히 단정 지어 말할 수 없었다.

실내에는 색이 들어간 가스등이 켜져 있었다. 불빛이 워낙 낮게 가라앉아 있어, 현관이 제법 넓고 벽에 그림들이 걸려 있다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희미한 빛 사이로 문을 열어준 사람이 누구인지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그는 어깨가 굽은, 작고 비루해 보이는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다. 그가 우리 쪽으로 몸을 돌리자, 번뜩이는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에서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분이 멜라스 씨인가, 해럴드?" 그가 물었다.

"네."

"잘했네, 아주 잘했어! 멜라스 씨, 부디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길 바라네. 하지만 자네 없이는 일을 진행할 수가 없었거든. 우리를 공정하게 대한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겠지만, 만약 수작을 부리려 한다면 그때는 신의 가호가 있기를 빌어야 할 걸세!"

그는 초조한 듯 말을 툭툭 끊어 가며 내뱉었고, 중간중간 히죽히죽 웃음을 흘리기도 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그는 다른 이들보다 나에게 더 큰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저에게 무슨 용건이십니까?" 내가 물었다.

"'그저 우리를 방문 중인 그리스 신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답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들은 내용 외에는 절대로 입을 열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다시금 초조한 듯 낄낄거리며 말을 이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나았을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그는 말을 하며 문을 열고 안으로 안내했다. 방 안은 가구들이 아주 호화롭게 갖춰져 있는 듯했으나, 빛이라고는 반쯤 낮게 조절된 등불 하나뿐이었다. 방은 확실히 넓었다. 발을 내디딜 때마다 카펫 속으로 발이 푹푹 들어가는 느낌만 봐도 그 고급스러움을 짐작할 수 있었다. 벨벳 의자들과 높게 솟은 흰 대리석 벽난로 틀이 눈에 들어왔고, 그 한쪽에는 일본식 갑옷처럼 보이는 것이 놓여 있었다. 등불 바로 아래에는 의자가 하나 있었는데, 노신사는 그곳에 앉으라고 손짓했다.

젊은이는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였으나, 갑자기 다른 문을 통해 다시 나타났다. 그는 헐렁한 가운을 걸친 신사 한 명을 데리고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가 희미한 등불 빛이 비치는 곳으로 들어와 모습이 선명히 보이자, 나는 그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공포를 느꼈다. 그는 죽은 사람처럼 창백했고 몹시 수척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만

큼은 기력이 다한 몸과는 대조적으로, 정신력이 육체의 한계를 넘어선 사람 특유의 형형한 빛을 띠며 돌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육체적인 쇠약함보다 나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의 얼굴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반창고가 기괴할 정도로 어지럽게 붙어 있었고, 커다란 반창고 한 조각이 입을 완전히 가리고 있었다.

"해롤드, 슬레이트는 가져왔나?"

낯선 이가 의자에 앉기도 전에 거의 쓰러지듯 주저앉자, 나이 지긋한 남자가 소리쳤다.

"그의 손은 풀려 있나? 자, 어서 연필을 건네주게. 멜라스 씨, 질문은 당신이 하고 답변은 이 사람이 직접 적을 겁니다. 우선 서류에 서명할 준비가 되었는지부터 물어보세요."

그 남자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절대 안 돼!" 그는 석판 위에 그리스어로 써 내려갔다.

"'어떤 조건으로도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폭군이 명령하자, 나는 그를 따라 물었다."

"내가 아는 그리스인 신부의 집례 아래, 내 눈앞에서 그녀가 결혼하는 것을 직접 보지 않는 한은 안 됩니다."

그 남자는 특유의 독기 어린 웃음을 흘리며 낄낄거렸다.

““그렇다면, 당신 앞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고 있겠군?”

“내 목숨 따위는 아무래도 상관없네.”

“이것들은 우리가 말과 글로 주고받았던 그 기묘한 대화의 문답 사례들이다. 나는 그가 결국 항복하고 서류에 서명할 것인지 몇 번이고 되물어야 했다. 그때마다 그는 매번 분개하며 똑같은 대답을 내놓았다.

그러다 문득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질문마다 나만의 짧은 문장들을 덧붙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동행인 중 누구라도 이 일에 대해 알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아무런 의도가 없는 순진한 문장들을 던졌다. 하지만 그들이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을 확인한 뒤, 나는 좀 더 위험한 게임을 시작했다. 우리의 대화는 대략 이런 식이었다.”

“그렇게 고집을 피워봤자 아무 소용 없소. 대체 정체가 누구시오?”

“상관없습니다. 전 런던에 처음 온 뜨내기일 뿐이니까요.”

“네 운명은 네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대체 이곳에 온 지 얼마나 되었느냐?”

“그렇게 하도록 하지. 딱 3주다.”

“그 재산은 결코 당신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대체 어디가 편치 않으신 겁니까?”

"그것이 악당들의 손에 들어가게 두지는 않겠네. 그놈들이 나를 굶겨 죽이려 하고 있어."

"서명만 하면 풀어주겠네. 그런데, 여기가 대체 어느 집인가?"

"절대 서명하지 않겠습니다. 모르는 일입니다."

"그녀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군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녀가 직접 그렇게 말하는 걸 듣고 싶군. 크라티데스라고 말이야."

"서명만 하시면 그녀를 만나게 해 드리지요. 그런데,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럼 난 그녀를 영영 볼 수 없겠군. 아테네라니."

"홈즈 씨, 5분만 더 있었더라면 그들 코앞에서 사건의 전말을 다 캐냈을 겁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던졌어도 사건이 해결되었을 텐데,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한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키가 크고 우아한 자태에 검은 머리를 가졌고, 헐렁한 흰색 가운 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것 외에는 그 여인을 자세히 볼 수 없었습니다."

"해롤드." 그녀가 서툰 영어로 말했다. "더는 못 참겠어요. 그곳은 너무 외로워요. 오직—아, 세상에, 폴이잖아!"

"마지막 말은 그리스어였다. 그와 동시에 남자는 경련하듯 입술에 붙은 반창고를 뜯어내더니, '소피! 소피!'라고 비명을 지르며 여자의 품

으로 달려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포옹은 찰나에 불과했다. 젊은 남자가 여자를 붙잡아 방 밖으로 밀어냈기 때문이다. 그사이 연장자인 남자는 수척해진 희생자를 손쉽게 제압하고는 다른 문을 통해 그를 끌고 나갔다.

순간 방에는 나 혼자 남게 되었다. 나는 내가 발을 들인 이 집이 대체 어떤 곳인지 실마리라도 찾아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에 벌떡 일어났다. 다행히도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들어 보니, 연장자인 남자가 문가에 서서 나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멜라스 씨." 그가 말했다. "아시다시피 저희는 아주 사적인 일로 당신을 믿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만약 그리스어를 할 줄 아는 저희 친구가 협상을 시작한 뒤 갑자기 동양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면, 당신을 번거롭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를 대신할 사람을 찾는 것이 꼭 필요했는데, 마침 당신의 능력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여기 금화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가 내게 다가오며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한 사례금이 되겠지요.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는 내 가슴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낄낄거리고는 덧붙였다. "만약 이 일을 단 한 사람에게라도 발설한다면—정말 딱 한 사람에게라도 말한다면—그때는 신께서 당신의 영혼을 가엽게 여기시길 빌어야 할 겁니다!"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남자가 내게 불러일으킨 혐오감과 공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등불 빛이 그를 비추자 그의 모습이 더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얼굴은 수척하고 안색은 황색이었으며, 뾰족하고 작은 턱수염은 가늘고 푸석푸석했습니다. 그는 말을 할 때마다 얼굴을 앞으로 쑥 내밀었는데, 입술과 눈꺼풀은 마치 무도병에 걸린 사람처럼 끊임없이 경련했습니다. 그 기묘하고 신경질적인 웃음소리 또한 어떤 신경 질환의 증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서 진정한 공포를 느끼게 하는 것은 바로 눈이었습니다. 강철 같은 회색빛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악의적이고 냉혹한 잔인함이 차갑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입에 올린다면 어떻게 될지 두고 보게나." 그가 말했다. "우리에게는 우리만의 정보망이 있으니 말이야. 자, 마차를 준비해 두었으니 이제 가보게. 내 친구가 가는 길을 배웅해 줄 걸세."

나는 복도를 지나 서둘러 마차에 올라탔다. 창밖으로 나무와 정원이 스치듯 잠깐 보였다. 레이티머 씨는 내 뒤를 바짝 따라와는 아무 말 없이 내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우리는 창문을 모두 올린 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침묵 속에서 달렸다. 마침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각, 마차가 멈춰 섰다.

"멜라스 씨, 여기서 내리셔야 합니다." 동행한 이가 말했다. "댁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 모셔다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만, 달리 방법이 없군요. 마차를 쫓아오려 애써봤자 당신 몸만 상할 뿐입니다."

"그는 말을 하며 문을 열었다. 내가 채 몸을 날려 밖으로 뛰어나가기도 전에 마부는 채찍을 휘둘렀고, 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다. 나는 어안이 벙벙해져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곳은 검은 가시덤불이 여기저기 뭉쳐 있는 황량한 황무지였다. 멀리 집들이 줄지어 늘어서 있었는데, 위층 창문마다 드문드문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반대편에는 철도의 붉은 신호등이 보였다."

나를 태워다 준 마차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나는 내가 대체 어디에 와 있는 것인지 막막한 마음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가 가까이 다가오자, 나는 그가 철도 역의 짐꾼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여기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물었다.

"완즈워스 커먼입니다." 그가 말했다.

"시내까지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나요?"

"1마일 정도만 걸어서 클래펌 정션까지 가면, 빅토리아행 막차를 딱 맞춰 탈 수 있을 걸세." 그가 말했다.

"그게 제 모험의 끝이었습니다, 홈즈 씨.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와 대화를 나누었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무언가 불길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그 불행한 남자를 돕고 싶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이크로프트 홈즈 씨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그 뒤에 경찰에도 알렸습니다."

이 기이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우리 모두는 한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그러다 셜록이 형인 마이크로프트를 바라보았다.

"진척된 사항은 있나?" 그가 물었다.

마이크로프트는 사이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데일리 뉴스를 집어 들었다.

"'아테네 출신의 폴 크라티데스라는 그리스 신사를 찾습니다. 이 신사는 영어를 전혀 못 합니다. 소재를 제보하는 분께는 사례하겠습니다. 또한, 이름이 소피인 그리스 여성을 제보하는 분께도 동일한 사례금을 지급합니다. X 2473.' 모든 일간지에 실린 내용은 이뿐이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없었다."

"그리스 공사관 쪽은 어떻게 됐습니까?"

"알아봤지만, 아무것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럼 아테네 경찰청장에게 전보를 보내야 한다는 건가요?"

"우리 집안의 활력은 전부 셜록이 다 가져갔지." 마이크로프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자,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건을 맡게나. 그리고 진전이 있으면 꼭 알려주고."

"물론입니다." 내 친구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대답했다. "결과가 나오면 당신과 멜라스 씨에게 알려드리죠. 그동안 멜라스 씨, 제가 당신

이라면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겁니다. 이런 광고를 보고 그들도 당신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눈치챘을 테니까요."

함께 집으로 향하던 중, 홈즈는 전신국에 들러 전보 몇 통을 보냈다.

"보게나, 왓슨," 홈즈가 말했다. "우리의 저녁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네. 마이크로프트 덕분에 이런 식으로 가장 흥미로운 사건들을 접할 때가 꽤 있거든. 방금 우리가 들은 문제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단 하나뿐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몇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이 있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사실들을 고려하면, 남은 부분까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지. 자네도 우리가 들은 사실들을 설명할 만한 나름의 가설을 세워두었을 것 아닌가."

"막연하게나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해럴드 레이티머라는 이름의 젊은 영국인이 이 그리스 소녀를 납치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어디서 납치되었다는 말입니까?"

"아테네일지도 모르겠군요."

셜록 홈즈가 고개를 저었다. "이 청년은 그리스어를 한마디도 못 합니다. 반면 이 여성분은 영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하시고요. 이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은, 여성분은 영국에 머문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지만, 청년은 그리스에 머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정해 봅시다. 그녀는 영국을 방문 중이었고, 해롤드가 그녀를 설득해 함께 도망치게 만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게 더 가능성 있군요."

"그렇다면 형제가 개입하게 되겠군요. 제 짐작으로는 두 사람의 관계가 형제 사이인 것 같습니다. 형제가 그리스에서 건너와 일을 방해하려 드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경솔하게도 젊은이와 그와 함께 일하는 연장자의 손아귀에 제 발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들은 형제를 붙잡고 폭력을 휘둘러서, 그가 관리하고 있을지도 모를 그 소녀의 재산을 자신들에게 넘기겠다는 서류에 강제로 서명하게 만들려 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거부합니다. 결국 그가 협상에 응하게 하려고 통역사를 구해야만 했고, 이전에 다른 통역사를 써본 적이 있는 그들은 이번에 멜라스 씨를 찾아낸 것입니다. 소녀는 오빠가 도착했다는 사실조차 듣지 못했고, 아주 우연한 계기로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이고요."

"훌륭해, 왓슨!" 홈즈가 외쳤다. "자네 말이 정말 맞을지도 모르겠군. 지금 상황은 우리가 모든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뜻이야. 저들이 갑자기 폭력을 휘두르는 돌발 행동만 하지 않는다면 말이지. 저들이 우리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의 추측이 맞아서 그 소녀의 이름이 소피 크라티데스라면, 그녀를 찾아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게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겠지요. 오빠라는 사람은 당연히 전혀 모르는 사람이니까요. 해롤드가 소녀와 이런 관계를 맺은 지는 분명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지났겠지요. 그리스에 있는 오빠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여기까지 찾아올 시간도 필요했을 테니까요. 만약 그동안 두 사람이 같은 곳에 머물렀다면, 마이크로프트가 낸 광고를 통해 단서를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우리는 베이커가에 있는 우리 집 앞에 도착했다. 홈즈가 먼저 계단을 올라가더니, 방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며 멈춰 섰다. 나 역시 홈즈의 어깨 너머로 방 안을 들여다보고는 똑같이 경악하고 말았다. 홈즈의 형인 마이크로프트가 안락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있었기 때문이다.

"들어오게, 셜록! 어서 들어오게나, 선생."

그는 우리의 놀란 얼굴을 보며 인자하게 미소 지었다.

"나에게 이런 열정적인 태도를 기대한 건 아니겠지, 셜록?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 사건이 내 흥미를 끄는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한섬 택시를 타고 지나가다 당신을 보았습니다."

"새로운 진전이라도 있습니까?"

"내 광고를 보고 연락이 왔네."

"아!"

"네, 당신이 떠나고 나서 몇 분 지나지 않아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찌 되었습니까?"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체력이 약한 중년 남성이 로열 크림색 종이에 J펜으로 썼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귀하, 오늘 자 광고에 대한 답변으로, 문의하신 그 젊은 여성을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저를 찾아오신다면 그녀의 비극적인 과거에 대해 몇 가지 자세한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녀는 현재 베켄햄의 더 머틀스에 머물고 있습니다. J. 데번포트 올림.'"

"그는 로어 브릭스턴에서 편지를 보내왔네."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말했다. "셜록, 지금 바로 차를 몰고 그에게 가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나?"

"여보게, 마이크로프트. 동생의 이야기보다는 오빠의 목숨이 훨씬 더 중요하네. 지금 바로 스코틀랜드 야드로 가서 그렉슨 경위를 만난 뒤, 곧장 베켄엄으로 가야겠어.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됐으니, 한 시간 한 시간이 급하네."

"가는 길에 멜라스 씨를 태워 가는 게 좋겠소." 내가 제안했다. "통역사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 말이오."

"훌륭하군." 셜록 홈즈가 말했다. "아이를 보내 사륜마차를 불러오게. 그럼 바로 출발하지." 홈즈는 말을 하며 탁자 서랍을 열더니, 그 안에 리볼버를 집어넣는 것을 나는 보았다. 내가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보자 홈즈가 대답했다.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정보로 미루어 볼 때, 이번 사건은 아주 위험한 범죄 조직과 연루된 것 같군."

멜라스 씨의 사무실이 있는 팰 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린 뒤였다. 마침 한 신사가 그를 찾아왔다가 막 떠나던 참이었다.

"어디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마이크로프트 홈즈가 물었다.

"모릅니다, 손님." 문을 열어주었던 여인이 대답했다. "그가 마차를 타고 그 신사분과 함께 떠났다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그 신사분이 성함을 밝히던가요?"

"아닙니다, 선생님."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피부까지 검은 청년이 아니었단 말인가요?"

"아니요, 아닙니다. 안경을 쓰고 얼굴이 야윈, 자그마한 체구의 신사분이었습니다. 하지만 태도는 아주 유쾌한 분이었어요. 말씀하시는 내내 계속 웃고 계셨거든요."

"어서 갑시다!" 셜록 홈즈가 갑자기 외쳤다.

우리가 스코틀랜드 야드로 향하는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홈즈는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한 듯 덧붙였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놈들이 멜라스를 다시 붙잡은 모양입니다. 지난밤의 경험으로 그놈들도 잘 알겠지만, 멜라스는 신체적인 용기가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악당은 멜라스와 마주치자마자 그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었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들은 멜라스의 전문적인 기술을 이용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목적을 달성하고 나면, 배신했다는 구실을 만들어 그를 처벌하려 들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차를 타면 마차보다 빨리, 혹은 적어도 비슷한 시간에 베켄햄에 도착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스코틀랜드 야드에 도착하고 나서 그렉슨 경위를 만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 필요한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칠 때까지 한 시간 넘게 지체되고 말았다. 런던 브리지에 도착했을 때는 9시 45분이었고, 우리 네 사람이 베켄햄 역 승강장에 내린 것은 10시 30분이 되어서였다. 역에서 반 마일 정도 마차를 타고 달린 끝에 우리는 '더 머틀스'에 도착했다. 그곳은 도로에서 떨어진 넓은 부지 안에 자리 잡은 크고 어두운 저택이었다. 우리는 그곳에서 마차를 돌려보내고 함께 저택 진입로를 따라 걸어 올라갔다.

“창문들이 전부 어둡군요.” 경위가 말했다. “집이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새들은 다 날아가 버렸고 둥지는 비었군.” 홈즈가 말했다.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난 한 시간 사이에 짐을 가득 실은 마차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경위가 웃음을 터뜨렸다. "대문 등불 아래에서 바퀴 자국을 보긴 했습니다만, 그게 수하물과는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반대 방향으로 난 바퀴 자국도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나가는 쪽의 자국이 훨씬 더 깊더군요. 그 정도로 깊게 파여 있었기에, 마차에 아주 무거운 짐이 실려 있었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경위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 우리 목소리를 듣게 할 방법이 없다면 일단 시도해 봅시다."

그는 문고리를 세게 두드리고 벨을 잡아당겨 보았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홈즈는 잠시 자리를 비웠으나,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돌아왔다.

"창문을 열어 두었네." 그가 말했다.

"홈즈 씨, 당신이 경찰의 적이 아니라 아군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다행이군요."

내 친구가 교묘한 솜씨로 걸쇠를 밀어젖히는 것을 보며 경위가 말했다.

"자, 상황이 상황인 만큼, 초대를 받지 않았더라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군요."

우리는 차례로 넓은 거실 안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분명 멜라스 씨가 사건을 당했던 바로 그 방이었다. 경위가 랜턴을 켜자, 그 불빛 사이로 두 개의 문과 커튼, 램프, 그리고 그가 설명했던 일본식 갑옷이 모습을 드러냈다. 탁자 위에는 유리잔 두 개와 빈 브랜디 병, 그리고 먹다 남은 음식들이 놓여 있었다.

"그게 대체 뭐지?" 홈즈가 갑자기 물었다.

우리 모두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머리 위 어딘가에서 낮게 신음하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홈즈는 문을 박차고 나가 복도로 달려나갔다. 음산한 소리는 위층에서 나고 있었다. 홈즈가 계단을 뛰어 올라가자 경위와 내가 그 뒤를 바짝 쫓았다. 마이크로프트는 그 거대한 몸집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빠르게 뒤따라왔다.

2층에는 세 개의 문이 나란히 있었다. 불길한 소리가 새어 나오는 곳은 그중 가운데 문이었다. 소리는 때로 웅얼거리는 낮은 소리로 잦아들었다가, 다시 날카로운 비명처럼 높아지기를 반복했다. 문은 잠겨 있었지만, 열쇠는 문 바깥쪽에 그대로 꽂혀 있었다. 홈즈는 문을 거칠게 열고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이내 목을 움켜쥔 채 밖으로 튀어나왔다.

"숯가루예요." 그가 외쳤다. "시간을 좀 두세요. 곧 가라앉을 겁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방 안의 유일한 빛은 중앙에 놓인 작은 황동 삼각대에서 일렁이는 흐릿한 푸른 불꽃뿐이었다. 그 불꽃은 바닥에 창백하

고 기괴한 원형의 빛을 뿌리고 있었고, 그 너머 어둠 속에는 벽에 몸을 웅크린 채 앉아 있는 두 형체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다. 열린 문 사이로는 숨이 막힐 정도로 지독하고 독한 기운이 뿜어져 나와, 우리를 거칠게 숨 가쁘게 하고 기침을 유발했다. 홈즈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계단 위로 급히 달려 올라갔다. 그러고는 곧장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창문을 활짝 열고는, 황동 삼각대를 정원으로 내던져 버렸다.

"금방 들어갈 수 있어." 그가 다시 밖으로 튀어 나가며 숨을 헐떡였다. "양초는 어디 있지? 저런 공기 중에서는 성냥조차 켜기 힘들 것 같군. 마이크로프트, 지금 당장 문가에 불을 비추게. 그래야 저들을 끌어낼 수 있어!"

우리는 서둘러 독이 든 사람들에게 달려가 그들을 밝은 홀로 끌어냈다. 두 사람 모두 입술은 파랗게 질린 채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얼굴은 피가 몰려 퉁퉁 부어올랐으며 눈은 튀어나와 있었다. 이목구비가 너무나 일그러진 나머지, 검은 수염과 건장한 체격이 아니었다면 불과 몇 시간 전 디오게네스 클럽에서 헤어졌던 그리스어 통역관을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였다. 그의 손과 발은 단단히 묶여 있었고, 한쪽 눈 위에는 격렬한 구타를 당한 흔적이 역력했다. 마찬가지로 결박당한 채 있던 다른 남자는 키가 컸으나 뼈만 남을 정도로 몹시 야위어 있었고, 얼굴에는 반창고가 기괴한 모양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우리가 그를 내려놓았을 때 그는 이미 신음조차 내지 않고 있었는데, 언뜻 보기에도 적어도 그에게 우리의 도움은 너무 늦은 듯했다. 하지만 멜라스 씨는 아직 살아 있었다. 암모니아와 브랜디의 도움을 받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그가 눈을 뜨는 것을 확인했을 때, 나는 모든 길이 만나는 저 어두

운 골짜기에서 내 손으로 그를 다시 끌어올렸다는 사실에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단순했다. 하지만 그 이야기는 우리가 내린 결론이 옳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을 뿐이다. 방문객은 방에 들어서자마자 소매 안에서 호신용 곤봉을 꺼내 들었고, 즉각적이고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공포를 통역관에게 심어주어 그를 두 번째로 납치했다. 이 낄낄거리는 악당이 불행한 통역관에게 끼친 영향은 거의 최면에 가까울 정도였다. 그는 떨리는 손과 창백해진 얼굴을 감추지 못한 채 겨우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는 곧장 베켄햄으로 끌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첫 번째 만남보다 훨씬 더 극적인 두 번째 면담의 통역을 맡게 되었다. 두 영국인은 포로가 된 그에게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으면 즉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하지만 결국 그 어떤 협박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자, 그들은 그를 다시 감옥으로 내팽개쳤다. 신문 광고를 통해 드러난 멜라스의 배신을 꾸짖은 뒤, 그들은 몽둥이로 그를 내리쳐 정신을 잃게 만들었다. 통역관은 우리가 자신을 살피며 몸을 굽히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 이후의 일은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어 통역관' 사건의 기이한 전말이었다. 그 사건의 내막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우리는 광고에 응답했던 신사와 연락을 취한 끝에, 불행한 그 젊은 여성이 그리스의 부유한 가문 출신이며 영국에 있는 친구들을 방문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에 머무는 동안 해럴드 레이티머라는 청년을 만났다.

그는 그녀를 정신적으로 지배했고, 결국 그녀를 설득해 함께 도망치게 만들었다. 이 사건에 충격을 받은 친구들은 아테네에 있는 그녀의 오빠에게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사건에서 손을 떼버렸다.

영국에 도착한 오빠는 경솔하게도 레이티머와 그의 동료인 윌슨 켐프의 손아귀에 제 발로 들어가는 실수를 저질렀다. 켐프는 전과가 아주 지저분한 자였다. 이 두 사람은 오빠가 언어 장벽 때문에 자신들에게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감금했다. 그러고는 잔혹한 고문과 굶주림으로 그를 압박하여, 본인과 여동생의 재산을 포기한다는 서류에 서명하게 만들려 했다. 그들은 여동생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오빠를 집 안에 숨겨두었으며, 혹시라도 오빠를 보게 될 경우를 대비해 얼굴에 석고를 발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여동생의 예리한 직감은 통역관이 방문했을 때 오빠를 처음 마주하는 순간, 그 변장을 단번에 꿰뚫어 보았다. 그러나 가련한 그녀 역시 사실상 죄수나 다름없었다. 집 안에는 마부 노릇을 하는 남자와 그의 아내뿐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공모자들의 앞잡이였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비밀이 탄로 났고 죄수를 굴복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깨닫자, 두 악당은 여성을 데리고 급히 도주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한 남자와 자신들을 배신한 사람에게 복수를 마쳤다고 생각하며, 빌렸던 가구 완비 주택을 불과 몇 시간 만에 떠나버렸다.

몇 달 뒤, 부다페스트에서 온 기묘한 신문 스크랩 하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다. 내용은 이러했다. 한 여인과 함께 여행하던 영국인 두 명

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이었다. 전해지는 바로는 두 사람 모두 칼에 찔렸으며, 헝가리 경찰은 이들이 서로 다투다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것으로 결론지었다. 하지만 내 짐작에 홈즈는 이와는 다르게 생각하는 듯하다. 홈즈는 지금도 그 그리스 소녀를 찾을 수만 있다면, 그녀와 오빠가 입은 피해가 어떻게 복수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해군 조약

XI. 해군 조약

결혼 직후 맞이한 7월은 세 가지 흥미로운 사건 덕분에 매우 기억에 남는 달이었다. 그 사건들은 내가 셜록 홈즈와 함께하며 그의 수사 방식을 배울 수 있었던 특권적인 기회였다. 내 기록물에는 이 사건들이 각각 '두 번째 얼룩 사건', '해군 조약 사건', 그리고 '지친 선장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남아 있다.

하지만 이 중 첫 번째 사건은 그 중요성이 매우 크고 왕국의 명문가들이 대거 연루되어 있어, 앞으로 수년 동안은 세상에 공개하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 홈즈가 참여한 그 어떤 사건도 이 사건만큼 그의 분석법이 가진 가치를 명확히 보여주거나, 함께했던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지는 못했다. 나는 당시의 면담 내용을 거의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 홈즈는 파리 경찰의 뒤뷔크 씨와 단치히의 유명한 전문가 프리츠 폰 발트바움에게 사건의 진상을 증명해 보였다. 두 사람 모두 헛수고를 하며 엉뚱한 지엽적인 문제에만 에너지를 낭비하

고 있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안전하게 들려줄 수 있을 때쯤이면 이미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나는 목록의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려 한다. 이 사건 역시 한때 국가적인 중대사가 될 뻔했으며, 아주 독특한 성격을 띠는 여러 사건이 얽혀 있는 이야기다.

학창 시절, 나는 퍼시 펠프스라는 소년과 매우 가깝게 지냈다. 그는 나와 나이대는 비슷했지만, 학년은 두 단계나 높았다. 그는 매우 명석한 아이였다. 학교에서 주는 상은 모조리 휩쓸고 다녔고, 마침내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승승장구하며 학업을 이어갔다. 기억하기로 그는 인맥이 굉장히 넓었다. 우리가 아주 어린 꼬마였을 때조차, 그의 외삼촌이 거물 보수당 정치인인 홀드허스트 경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그런 화려한 배경은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 배경 때문에 우리는 운동장에서 그를 괴롭히고, 크리켓 배트로 그의 정강이를 때리며 즐거워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가 사회에 진출했을 때는 이야기가 달랐다. 그의 능력과 배경 덕분에 외무부에서 좋은 직책을 맡게 되었다는 소식을 어렴풋이 들었을 뿐, 이후로 그는 내 기억 속에서 완전히 잊혔다. 그러다 다음의 편지를 받고서야 그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되었다.

워킹, 브라이어브레이.

친애하는 왓슨에게.

자네가 3학년일 때 5학년이었던 '태드폴' 펠프스를 기억할 거라 믿네. 어쩌면 내 삼촌의 영향력 덕분에 내가 외무성에 좋은 직책을 얻었고, 끔찍한 불운이 닥쳐 내 경력을 순식간에 망가뜨리기 전까지는 신뢰와 명예를 받는 위치에 있었다는 소문을 들었을지도 모르겠군.

그 끔찍한 사건의 세부적인 내용을 글로 써봤자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네. 만약 자네가 내 부탁을 들어준다면, 그때 직접 이야기해야겠지. 나는 이제 막 9주 동안 앓았던 뇌열에서 회복한 참이라 여전히 기력이 매우 약하다네.

혹시 자네의 친구인 홈즈 씨를 데리고 나를 보러 와줄 수 있겠나? 당국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단언하지만, 나는 이 사건에 대한 그의 의견을 꼭 듣고 싶네. 부디 가능한 한 빨리 그를 데려와 주게. 이 끔찍한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가 마치 한 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군.

그에게 전해주게. 내가 왜 진작 조언을 구하지 않았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그의 재능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 불행이 닥친 이후로 제정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말일세. 이제야 겨우 정신이 좀 돌아왔지만, 병이 재발할까 두려워 그 일을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네. 보다시피 아직 몸이 너무 약해서 받아쓰기를 시켜가며 글을 쓰고 있다네. 꼭 그를 데려와 주게.

자네의 옛 학교 동창, 퍼시 펠프스라네.

이 편지를 읽는 동안 내 마음 한구석을 건드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홈즈를 불러달라는 간절한 호소가 거듭될수록 그 안에는 애처로움마저 느껴졌다. 마음이 너무나 동한 나머지, 설령 그것이 까다로운 사건이었다 해도 기꺼이 발 벗고 나섰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홈즈가 자신의 기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의뢰인이 도움을 간절히 바라는 만큼이나, 언제든 기쁜 마음으로 그 도움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 아내 역시 한시라도 지체하지 말고 이 일을 그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 의견에 동의했다. 그렇게 아침 식사를 마친 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나는 다시 베이커가의 옛 거처로 향했다.

홈즈는 가운 차림으로 옆 탁자에 앉아 화학 실험에 몰두하고 있었다. 분센 버너의 푸르스름한 불꽃 위에서 커다란 곡선형 플라스크가 격렬하게 끓어오르고 있었고, 증류된 액체 방울들은 2리터 용량의 측정병으로 응결되어 모이고 있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내 친구는 눈길조차 거의 주지 않았다. 그가 하는 실험이 분명 중요한 일임을 직감한 나는 안락의자에 앉아 기다렸다. 홈즈는 이 병 저 병을 번갈아 가며 유리 피펫으로 액체를 몇 방울씩 뽑아내더니, 마침내 용액이 담긴 시험관 하나를 탁자 위로 가져왔다. 그리고 오른손에는 리트머스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왓슨, 자네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찾아왔군." 홈즈가 말했다. "이 종이가 파란색을 유지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네. 하지만 붉게 변한다면, 그건 사람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뜻이지."

홈즈가 종이를 시험관에 담그자, 종이는 즉시 탁하고 흐릿한 진홍색으로 변했다.

"흠! 역시 내 생각이 맞았어!" 홈즈가 외쳤다. "금방 도와주겠네, 왓슨. 페르시아식 슬리퍼 안에 담배를 넣어 두었으니 찾아 쓰게나."

그는 책상으로 몸을 돌려 전보 몇 통을 급히 휘갈겨 쓴 뒤, 심부름꾼 아이에게 건네주었다. 그러고는 맞은편 의자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더니, 길고 마른 정강이를 두 손으로 감싸 쥐며 무릎을 끌어당겼다.

"아주 흔해 빠진 살인 사건이군." 홈즈가 말했다. "자네는 분명 이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건을 가져왔을 거야. 왓슨, 자네는 범죄의 폭풍을 몰고 오는 전조 같은 존재니까 말이야. 그래, 이번엔 어떤 사건인가?"

나는 그에게 편지를 건넸다. 그는 아주 집중한 모습으로 편지를 읽어 내려갔다.

"별로 알려주는 게 없군, 안 그래?" 그는 그것을 내게 돌려주며 말했다.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필적은 흥미롭군요."

"하지만 이건 그 사람의 필체가 아닙니다."

"정확합니다. 여자의 것이군요."

"분명히 남자의 필체입니다!" 내가 외쳤다.

"아니요, 여성입니다. 그것도 아주 비범한 성품을 지닌 여성이죠. 잘 들어보세요. 수사를 시작할 때, 의뢰인이 선인이든 악인이든 간에 아주 특별한 인물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벌써 이 사건에 흥미가 생기는군요. 준비가 되었다면 지금 당장 워킹으로 출발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 곤경에 처한 외교관과, 그가 편지를 받아 적게 하는 그 여성을 직접 확인해 보지요."

우리는 운 좋게 워털루 역에서 이른 기차를 탔다.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워킹의 전나무 숲과 헤더 꽃이 만발한 들판에 도착했다. 브라이어브레이는 역에서 도보로 몇 분 거리에 있었으며, 넓은 부지 위에 세워진 커다란 저택이었다. 명함을 건네고 들어가자 우아하게 꾸며진 응접실로 안내받았다. 잠시 후, 꽤 체격이 건장한 남자가 나타나 우리를 아주 정중하게 맞이해 주었다. 그의 나이는 서른 살보다는 마흔 살에 가까워 보였으나, 발그레한 뺨과 즐거움이 가득한 눈빛 덕분에 여전히 통통하고 장난기 많은 소년 같은 인상을 풍겼다.

"와 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가 우리 손을 덥석 잡으며 격하게 인사를 건넸다. "퍼시가 아침 내내 당신을 찾았습니다. 아, 가엾은 친구, 어떻게든 희망의 끈이라도 붙잡으려 애쓰고 있더군요. 그 부모님께서도 저에게 당신을 좀 만나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 주제만 나와도 너무 괴로워하시거든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듣지 못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보아하니 당신은 가족 구성원이 아니시군요."

우리는 그가 놀란 기색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그러더니 그는 시선을 아래로 떨구며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제 로켓에 새겨진 'J.H.'라는 이니셜을 보셨겠군요." 그가 말했다. "잠시나마 당신이 아주 영리한 수라도 쓴 줄 알았습니다. 제 이름은 조셉 해리슨입니다. 퍼시가 제 여동생 애니와 결혼할 예정이니, 적어도 저는 그와 인척 관계가 되겠지요. 여동생은 퍼시의 방에 있을 겁니다. 두 달 전부터 퍼시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했거든요. 퍼시가 얼마나 안달복달하고 있는지 잘 아니, 차라리 지금 바로 들어가 보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안내받은 방은 응접실과 같은 층에 있었다. 그곳은 거실 겸 침실로 꾸며져 있었는데, 방 안 구석구석마다 꽃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열린 창문 너머로 정원의 진한 꽃향기와 향긋한 여름 공기가 흘러 들어왔고, 그 창가 근처 소파에는 안색이 매우 창백하고 초췌한 한 젊은이가 누워 있었다. 그 곁에 앉아 있던 한 여성이 우리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가 가야 할까, 퍼시?" 그녀가 물었다.

그는 그녀를 붙잡아 세우려는 듯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어떻게 지내셨나, 왓슨?" 그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다. "그 콧수염을 보고는 도저히 못 알아봤을 걸세. 자네도 나를 보고 깜짝 놀라 맹세라도 하려 들지 않겠나? 이분은 자네가 그토록 자랑하던 친구, 셜록 홈즈 씨인가?"

나는 그를 짧게 소개했고, 우리는 모두 자리에 앉았다. 건장한 체격의 젊은이는 이미 자리를 떴지만, 그의 누이는 여전히 환자의 손을 맞잡은 채 곁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눈에 띄는 외모를 지닌 여인이었다. 체구는 다소 작고 통통하여 균형미는 조금 부족했으나, 아름다운 올리브빛 피부와 크고 검은 이탈리아식 눈매, 그리고 풍성하고 칠흑 같은 머리카락이 돋보였다. 그녀의 생기 넘치는 색채는 곁에 있는 남자의 창백한 얼굴을 더욱 수척하고 초췌해 보이게 만들었다.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서론은 생략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홈즈 씨, 저는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시점이었지요. 그런데 갑작스럽고 끔찍한 불행이 닥치면서 제 인생의 모든 전망이 송두리째 무너져 버렸습니다."

"왓슨 박사에게 들으셨겠지만, 저는 외무부에서 근무했습니다. 삼촌인 홀드허스트 경의 영향력 덕분에 저는 책임 있는 직위까지 빠르게 승진할 수 있었지요. 이번 정부에서 삼촌이 외무장관이 된 후에는 저에게 몇 차례 중대한 임무를 맡기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매번 그 임무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내자, 마침내 삼촌께서는 저의 능력과 수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거의 열 주 전쯤이었지요. 정확히 말하자면 5월 23일이었습니다. 삼촌은 저를 자신의 개인실로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제가 해낸 성과를 칭찬하며, 제가 수행해야 할 아주 중대한 임무가 하나 새로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서류라네."

그는 서랍에서 회색 종이 뭉치를 꺼내며 말했다.

"영국과 이탈리아 사이에 맺은 비밀 조약의 원본이지. 유감스럽게도 이미 언론에 몇 가지 소문이 퍼진 모양이지만, 더 이상의 정보가 새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네. 프랑스나 러시아 대사관 쪽에서 이 서류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면 엄청난 액수의 돈을 지불할 걸세. 사본을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이 서류들은 절대로 내 서랍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되네. 자네 사무실에 책상이 하나 있나?"

"예, 있습니다."

"그럼 조약을 가져가서 그곳에 잘 넣어 두게. 다른 사람들이 떠날 때 자네만 남을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해 두겠네. 그러면 눈치 볼 필요 없이 여유롭게 사본을 작성할 수 있을 거야. 작업이 끝나면 원본과 사본 모두 다시 책상에 넣어 잠그고, 내일 아침에 나에게 직접 전달해주게."

"제가 서류를 챙겨서—"

"잠시만 실례하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대화하는 동안 혼자 계셨습니까?"

"물론입니다."

"넓은 방 안에서 말입니까?"

"사방으로 각각 30피트씩 됩니다."

"한가운데에 말입니까?"

"네, 거의 한가운데였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씀을 나누셨고요?"

"삼촌은 목소리가 워낙 낮으셔서, 저는 거의 입도 뻥긋하지 못했습니다."

"고맙네." 홈즈가 눈을 감으며 말했다. "계속하게."

"그가 지시한 대로 정확히 행동한 뒤, 다른 사무원들이 모두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 방에 있던 사무원 중 한 명인 찰스 고로트는 밀린 업무가 좀 있어서, 저는 그를 남겨둔 채 저녁을 먹으러 나갔지요. 돌아와 보니 그는 이미 가고 없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일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조셉, 그러니까 방금 당신이 만난 해리슨 씨가 지금 런던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가 11시 기차를 타고 워킹으로 내려갈 예정이라, 가능하다면 저도 그 기차를 꼭 타야 했으니까요."

"그 조약을 검토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서인지 즉각 깨달았습니다. 삼촌께서 하신 말씀은 결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조약은 삼중 동맹에 대한 영국의 입장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중해에서

프랑스 함대가 이탈리아 함대를 완전히 압도할 경우, 영국이 취해야 할 정책을 예고하는 내용도 담고 있었지요. 다루고 있는 문제들은 순전히 해군과 관련된 것들이었습니다. 조약의 끝부분에는 서명한 고위 관리들의 서명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약을 훑어본 뒤, 내용을 옮겨 적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그 문서는 프랑스어로 쓰인 아주 긴 서류였고, 총 스물여섯 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나는 최대한 서둘러 필사를 이어갔지만, 아홉 시가 되었을 때 겨우 아홉 개의 조항밖에 끝내지 못한 상태였다. 이래서야 기차를 타는 건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다. 저녁 식사 탓도 있었고 하루 종일 이어진 고된 업무 때문에 정신도 몽롱하고 머리도 무거웠다. 커피 한 잔만 마시면 정신이 좀 맑아질 것 같았다. 계단 아래 작은 초소에는 야간 경비원이 밤새 상주하는데, 그는 야근하는 관리들을 위해 항상 알코올 램프로 커피를 끓여 두곤 했다. 나는 그를 부르기 위해 벨을 눌렀다.

뜻밖에도 문을 열어준 사람은 앞치마를 두른, 얼굴이 크고 투박한 인상의 노부인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심부름꾼의 아내이며 집안일을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는 그녀에게 커피를 가져오라고 일렀다.

기사 두 편을 더 써 내려간 뒤, 그 어느 때보다 밀려오는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굳어진 몸을 풀 겸 방 안을 서성거렸다. 주문한 커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것인지 궁금해졌다. 나는 확인을 위해 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내가 작업하던 방에서 이어진 복도는 희미한 불빛이 비치는 곧은 통로였으며, 방을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다. 복도 끝에는 굽어 내려가는 계단이 있었고, 그 계단 아래 복도에는 안내인이 머무는 숙소가 있었다. 계단 중간쯤에는 작은 계단참이 하나 있는데, 그곳에서 직각 방향으로 또 다른 통로가 갈라져 나온다. 이 두 번째 통로는 작은 계단을 하나 더 거쳐 하인들이 사용하는 측면 문으로 이어진다. 찰스 가에서 오는 사무원들이 지름길로 이용하기도 하는 문이다. 이곳의 대략적인 구조를 그려보면 다음과 같다.

대략적인 도표

"고맙소.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했소." 셜록 홈즈가 말했다.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 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초소 안에 깊이 잠든 안내인을 발견했는데, 그 옆 알코올 램프 위에서는 주전자가 맹렬히 끓고 있었습니다. 물이 바닥으로 넘쳐흐르고 있었기에, 저는 얼른 주전자를 내려놓고 램프를 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잠든 그를 흔들어 깨우려고 손을 뻗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의 머리 위에 달린 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그는 깜짝 놀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펠프스 씨, 말씀이십니까!" 그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커피가 다 됐나 보려고 내려왔습니다."

"주인님, 주전자를 불에 올려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는 나를 한 번 보더니, 여전히 떨리고 있는 벨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경악스러운 기색이 점점 짙어졌다.

"선생님께서 여기 계셨다면, 대체 누가 벨을 누른 겁니까?" 그가 물었다.

"종소리라니요!" 내가 외쳤다. "무슨 종소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당신이 일하던 방에 있는 벨이에요."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서늘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소중한 조약서가 탁자 위에 놓여 있던 그 방에 누군가 침입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미친 듯이 계단을 뛰어 올라가 복도를 달렸습니다. 하지만 홈즈 씨,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에도 아무도 없었고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날 때와 똑같았습니다. 다만 제가 맡아 관리하던 서류들이 탁자 위에서 사라졌을 뿐입니다. 사본은 그대로 남아 있었지만, 원본은 감쪽같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홈즈가 의자에 몸을 일으켜 앉으며 두 손을 비볐다. 그가 이 사건에 완전히 매료되었다는 사실을 나는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래서, 그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홈즈가 나직이 물었다.

"도둑이 측면 문을 통해 계단으로 올라왔다는 사실을 즉시 알아차렸다. 만약 다른 길로 왔다면 분명히 나와 마주쳤을 테니까."

"그가 방 안에 계속 숨어 있었을 리는 없다고 확신하셨군요. 방금 말씀하신, 조명이 어둑한 복도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도 없다고 보시는 거고요?"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쥐 한 마리라도 방 안이나 복도 어디에도 숨을 곳이 없단 말입니다. 몸을 숨길 만한 구석이 전혀 없으니까요."

"고맙소. 계속 말씀하시게."

내 창백한 안색을 보고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음을 직감한 안내원이 나를 따라 위층으로 올라왔다. 우리는 복도를 지나 찰스 가로 이어지는 가파른 계단을 함께 뛰어 내려갔다. 계단 아래의 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기지는 않은 상태였다. 우리는 문을 거칠게 밀어젖히고 밖으로 달려 나갔다. 문을 열고 나설 때, 근처 시계탑에서 종소리가 세 번 울렸던 것이 지금도 생생하다. 시각은 10시 15분 전이었다.

"그건 아주 중요한 사실이군." 홈즈가 셔츠 소매 끝에 메모를 남기며 말했다.

밤은 매우 어두웠고, 가늘고 따뜻한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찰스 가에는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저 멀리 화이트홀 쪽은 평소처럼 교통량이 엄청났다. 우리는 모자도 쓰지 못한 채 인도를 따라 급히 달려갔다. 그러다 길모퉁이 끝에서 서 있는 경찰관 한 명을 발견했다.

"강도 사건이 일어났소!" 내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외무성에서 엄청난 가치를 지닌 문서가 도난당했단 말이오. 혹시 이 근처를 지나간 사람이 있소?"

"손님, 저는 여기서 15분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다. "그동안 지나간 사람은 딱 한 명뿐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나이가 지긋한 여성인데, 페이즐리 무늬 숄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제 아내입니다." 안내원이 외쳤다.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둑이 다른 길로 갔다는 뜻이군요!" 그 남자가 내 소매를 잡아끌며 외쳤다.

"하지만 나는 납득할 수 없었다. 나를 딴 데로 유인하려는 그의 시도가 계속될수록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다."

"그 여자가 어느 쪽으로 갔습니까?" 내가 외쳤다.

"모릅니다, 선생님. 그 여자가 지나가는 건 보았습니다만, 딱히 지켜볼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주 서두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전의 일입니까?"

"아, 몇 분 안 돼요."

"최근 5분 이내란 말인가요?" 내가 외쳤다.

"글쎄, 아무리 많아 봐야 다섯을 넘지는 못할 걸세."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선생님. 지금은 일 분 일 초가 급한 상황이라고요!" 안내인이 외쳤다. "제 노파는 이번 일과 아무 상관 없다는 제 말을 믿으십시오. 그러니 제발 이쪽 말고 저쪽 길 끝으로 가보시지요. 정 안 가시겠다면,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말을 마친 안내인은 반대 방향을 향해 급히 달려가 버렸다.

"하지만 나는 즉시 그를 뒤쫓아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어디에 사십니까?" 내가 물었다.

"'브릭스턴, 아이비 레인 16번지입니다.' 그가 대답했다. '하지만 펠프스 씨, 잘못된 단서에 휘말려 헛수고하지 마십시오. 일단 거리 반대편으로 가서, 혹시 들리는 소문이라도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다. 그 말을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 볼 일은 없었으니까. 우리는 경찰관과 함께 서둘러 거리 저편 끝으로 향했다. 하지만 거리에는 이미 차량과 인파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바쁘게 오가고 있었으나, 비가 쏟아지는 궂은 날씨 탓에 모두가 그저 안전한 곳으로 서둘러 몸을 피하기에 급급할 뿐이었다. 지나가는 이를 지켜보며 누군가에게 정보를 줄 만한 한가한 구경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사무실로 돌아와 계단과 복도를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런 소득도 없었다. 방으로 이어지는 복도에는 자국이 아주 잘 남는 크림색 리놀륨이 깔려 있었다. 우리는 그 바닥을 아주 면밀히 조사했으나, 발자국 형태는커녕 그 어떤 흔적조차 찾아낼 수 없었다."

"저녁 내내 비가 내렸습니까?"

"7시쯤부터요."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하죠. 아홉 시쯤 방에 들어온 그 여자는 왜 진흙 묻은 장화로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겁니까?"

"그 점을 짚어주니 반갑군요. 저도 당시에는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청소부들은 보통 안내소에서 부츠를 벗어두고, 그곳에 비치된 슬리퍼로 갈아 신곤 하거든요."

"아주 명확하군요. 비가 내린 밤이었는데도 아무런 흔적조차 남지 않았단 말입니까? 사건의 전개 과정이 참으로 흥미롭습니다. 그다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방 안도 전부 조사했습니다. 비밀 통로가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창문은 지면에서 30피트나 떨어져 있고, 두 창문 모두 안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카펫이 깔려 있어 바닥에 숨겨진 문이 있을 수도 없으며, 천장 또한 평범한 회칠 천장일 뿐입니다. 제 서류를 훔쳐 간 자는 반드시 문을 통해 들어왔을 것이라고 제 목숨을 걸고 단언합니다."

"벽난로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그런 걸 쓰지 않아요. 대신 난로가 하나 있죠. 벨 줄은 제 책상 바로 오른쪽 와이어에 매달려 있습니다. 벨을 울린 사람이 있다면, 분명 벨을 누르려고 책상 바로 앞까지 다가왔을 겁니다. 하지만 범죄자가 대체 왜 벨을 울리겠습니까? 정말이지 도무지 풀 수 없는 수수께끼군요."

"분명 예사롭지 않은 사건이었군요. 그다음엔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입자가 남긴 흔적이 있는지 방을 조사하셨겠지요. 시가꽁초나 떨어뜨린 장갑, 머리핀, 혹은 그 외의 사소한 물건이라도 말입니다."

"그런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냄새가 안 난다고요?"

"글쎄요, 그 점은 미처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 그런 수사를 할 때라면 담배 향기 하나만 있었어도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말입니다."

"나는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네. 그러니 만약 담배 냄새라도 났다면 분명히 알아챘을 거야. 하지만 현장에는 그 어떤 단서도 전혀 없었네. 유일하게 손에 잡히는 사실이라고는 커미셔너의 아내, 그러니까 탱게 부인이라는 여자가 급히 그곳을 빠져나갔다는 것뿐이었지. 남편은 그저 아내가 평소 집에 돌아갈 시간이었다는 말 외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못했네. 그래서 나와 경찰은 일단 그 여자가 서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서류를 처분하기 전에 붙잡는 것이 최선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네."

그 무렵 이미 스코틀랜드 야드에 비보가 전해진 상태였다. 형사 포브스 씨가 즉시 달려와 아주 열정적으로 사건을 맡아 처리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한섬 택시를 빌려 타고 서둘러 이동했고, 삼십 분 만에 알려준 주소지에 도착했다. 문을 열어준 젊은 여성은 탱게 부인의 큰딸이었다. 아직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기에, 우리는 거실로 안내받아 기다리기로 했다.

약 10분 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바로 그때, 나는 스스로를 자책할 만한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다. 우리가 직접 문을 여는 대신, 그 소녀에게 문을 열게 내버려 둔 것이다. 소녀가 "어머니, 집에 어머니를 기다리는 남자 두 명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복도를 급히 달려가는 발소리가 이어졌다. 포브스가 문을 벌컥 열자, 우리 둘은 뒷방인 주방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그 여자는 우리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도전적인 눈빛으로 우리를 쏘아보더니, 갑자기 나를 알아보고는 얼굴 가득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머나, 펠프스 씨 아니세요? 그 사무실에서 오신 분!” 그녀가 외쳤다.

“이보게, 대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했길래 그렇게 도망을 친 건가?” 동행인이 물었다.

“중개인인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상인과 문제가 좀 있어서 말이에요.”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포브스가 대답했다. "당신이 외무성에서 중요한 문서를 가져갔고, 그걸 처리하려고 이곳으로 달려왔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몸수색을 받아야 하니, 우리와 함께 스코틀랜드 야드로 가셔야겠습니다."

그녀는 저항하며 항변했지만 소용없었다. 사륜마차가 도착했고, 우리 세 사람은 그 마차를 타고 돌아왔다. 우리는 먼저 주방을 조사했는데, 특히 그녀가 혼자 있었던 그 짧은 틈을 타 서류를 없애버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고자 부엌 화로를 면밀히 살폈다. 하지만 재나 종이 조각 같은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스코틀랜드 야드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곧장 여성 수사관에게 인계되었다. 나는 그녀가 조사 결과를 들고 돌아올 때까지 초조함에 몸을 떨며 기다렸다. 서류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제야 비로소 내가 처한 상황의 공포가 온몸으로 밀려왔다. 그전까지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에, 행동하느라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조약문을 즉시 되찾을 수 있으리라 확신한 나머지, 만약 실패했을 때 닥쳐올 결과에 대해서는 감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고, 비로소 내 처지를 직시할 여유가 생겼다. 상황은 처참했다. 왓슨 박사라면 내가 학창 시절부터 신경이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였다고 말해줄 것이다. 본래 내 성격이 그렇다.

나는 삼촌과 내각의 동료들을 떠올렸다. 내가 삼촌과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관련된 모든 이들에게 안겨준 수치심을 생각했다. 비록 내가 이 모든 일의 희생양이라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외교적 이권

이 걸린 문제에서 사고라는 변수는 결코 용납되지 않는다. 나는 파멸했다. 수치스럽고도 절망적인 파멸이었다.

그 뒤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한바탕 소동을 피웠던 모양이다. 나를 달래려 주위로 몰려든 관리들의 모습이 희미하게 기억날 뿐이다. 그중 한 명이 워털루 역까지 차를 몰아 나를 데려다주었고, 워킹행 열차에 태워주었다. 내 근처에 사는 페리어 박사가 마침 그 열차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아니었다면 그분이 역까지 계속 따라왔을 것이다. 페리어 박사는 친절하게도 나를 돌봐주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 역에서 발작을 일으킨 데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나는 거의 미친 사람처럼 날뛰고 있었기 때문이다.

"의사가 벨을 울려 잠을 깨운 사람들이 저를 이런 꼴로 발견했을 때, 이곳이 얼마나 아수라장이었을지 상상이 가실 겁니다. 가엾은 애니와 어머니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지요. 페리어 박사는 경찰서에서 형사에게 사건의 개요를 전해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상황을 전혀 나아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모두에게 명백해 보였지요. 그래서 조셉은 이 화사한 침실에서 서둘러 쫓겨났고, 이곳은 제 병실이 되었습니다. 홈즈 씨, 저는 이곳에서 9주가 넘는 시간 동안 의식을 잃은 채 뇌열로 헛소리를 하며 누워 있었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해리슨 양과 박사님의 보살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당신과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을 겁니다. 해리슨 양이 낮 동안 저를 간호했고, 밤에는 고용된 간호사가 저를 돌보았습니다. 제가 발작을 일으킬 때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몰랐으니까요. 천천히 정신이 돌아오고는 있지만,

기억이 온전히 돌아온 것은 고작 지난 사흘 사이의 일입니다. 가끔은 차라리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 사건을 맡고 있던 포브스 씨에게 전보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곳으로 달려왔지만,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했음에도 단 하나의 단서도 찾지 못했다고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수위 부부를 온갖 방법으로 조사했지만 사건의 실마리는 전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경찰의 의심은 젊은 고로에게 향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그는 그날 밤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남았다는 사실과 그의 프랑스식 이름, 이 두 가지가 유일하게 의심을 살 만한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제가 일을 시작하기 전 이미 떠난 상태였고, 그의 집안은 위그노 혈통이긴 하나 정서나 전통 면에서는 당신이나 저처럼 영국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그를 범인으로 몰 만한 증거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사건은 그렇게 흐지부지되었습니다.

홈즈 씨, 저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마저 실패한다면, 저의 명예는 물론 지위까지 영원히 잃게 될 것입니다."

환자는 긴 이야기를 다 듣고 지쳤는지 쿠션 위로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그사이 간호사는 그에게 정신을 맑게 해주는 약을 한 잔 따라 주었다. 홈즈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눈을 감은 채 침묵을 지켰다. 낯선 사람이 보기에는 그저 나른하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었으나,

나는 그 자세가 지독할 정도로 깊은 사색에 잠겨 있다는 신호임을 알고 있었다.

“설명이 아주 명쾌하군요.”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덕분에 제가 물어볼 질문이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특별한 임무를 맡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있는 해리슨 양은 아니고요?”

“아니오. 의뢰를 받은 뒤 일을 처리하기 전까지 워킹에는 다녀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당신의 식구들 중에 우연히라도 당신을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들 중 사무실 내부 구조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 그럼요. 모두 사무실을 한 차례 둘러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만약 당신이 그 조약에 대해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 진행 중인 이 조사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수위에 대해 아는 게 있나?"

“그가 노병이라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느 연대 소속인가?”

“아, 들어본 적 있습니다. 콜드스트림 근위대 말씀이죠.”

“고맙소. 포브스에게서 세부 사항을 알아낼 수 있으리라 믿네. 당국은 사실을 수집하는 데는 아주 능숙하지만, 그렇다고 그 사실들을 항상 유용하게 활용하는 건 아니니 말이네. 그런데 장미가 참 아름답군!”

그는 소파를 지나 열린 창가로 걸어가더니, 시들어가는 이끼 장미 줄기 하나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는 진홍빛과 초록빛이 어우러진 그 가냘픈 색채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내게는 생소한 모습이었다. 지금까지 그가 자연물에 이토록 깊은 관심을 보이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종교만큼 연역적 추론이 절실히 필요한 분야도 없네.”

그는 덧창에 등을 기대며 말했다.

“이성적인 사고를 거친다면 종교 또한 정밀한 과학처럼 구축할 수 있지. 내 생각에 신의 선함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꽃에 있네.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욕망, 그리고 음식 같은 다른 모든 것들은 생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지. 하지만 이 장미는 다르네. 장미의 향기와 색채는 삶을 풍요롭게 꾸며주는 장식일 뿐, 생존을 위한 필수 조

건은 아니거든. 오직 선함만이 이렇듯 불필요한 풍요를 선사하는 법이라네. 그러니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꽃을 통해 많은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

퍼시 펠프스와 그의 간병인은 홈즈가 시연을 이어가는 동안 놀라움과 실망감이 역력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았다. 홈즈는 손가락 사이에 들꽃 장미 한 송이를 쥔 채 깊은 상념에 빠져 있었다. 그 침묵이 몇 분간 이어지다가, 젊은 여인이 그를 불러 깨우고서야 비로소 깨어났다.

"홈즈 씨,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나요?" 그녀가 날카로운 기색을 담아 물었다.

"오, 이 미스터리라니!" 그는 마치 꿈에서 깨어나 다시 현실로 돌아온 듯 깜짝 놀라며 대답했다. "이 사건이 매우 난해하고 복잡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겠군요. 하지만 약속하건대, 제가 이 문제를 면밀히 조사한 뒤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서가 좀 보입니까?"

"일곱 개나 가져오셨군요. 하지만 그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려면, 우선 제가 직접 시험해 봐야겠습니다."

"누군가를 의심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있네."

"뭐라고!"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런던으로 가서 당신의 결론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오."

"해리슨 양, 아주 훌륭한 조언이었습니다." 홈즈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왓슨,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 같네." 홈즈가 펠프스 씨를 향해 말을 이었다. "부디 헛된 희망에 매달리지는 마십시오. 이번 사건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열병이라도 앓을 것 같구려!" 외교관이 외쳤다.

"뭐, 내일도 같은 기차를 타고 오겠습니다. 비록 조사 결과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말입니다."

"와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의뢰인이 외쳤다. "무언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다시 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참, 홀드허스트 경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하! 그가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냉담했지만, 결코 가혹하지는 않았다. 아마도 내가 중병을 앓고 있었기에 그가 차마 모질게 대하지 못한 것이리라. 그는 이번 일이 매우 중대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 건강이 회복되고 내가 불운을 만회할 기회를 얻기 전까지는, 내 거취에 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거취란 당연히 나의 해고를 의미한다.

"그거 참 합리적이고 사려 깊은 처사로군." 홈즈가 말했다. "자, 왓슨, 어서 가세. 시내에서 처리해야 할 중요한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으니 말이야."

조셉 해리슨 씨가 우리를 역까지 태워다 주었고, 우리는 곧 포츠머스행 열차에 몸을 실었다. 홈즈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클래펌 정션을 지날 때까지 그는 입을 거의 열지 않았다.

"이 노선들 중 하나를 타고 런던에 들어오면 기분이 아주 상쾌해집니다. 고도가 높아서 이렇게 집들을 내려다볼 수 있거든요."

풍경이 워낙 지저분했기에 나는 그가 농담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는 곧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해 주었다.

"저기 지붕 기와 위로 솟아오른 거대한 건물 덩어리들을 보게나. 마치 납빛 바다 위에 떠 있는 벽돌 섬 같지 않은가."

"구립 학교 말입니다."

"등대라네, 이 사람아! 미래를 밝히는 봉화 같은 것이지! 그 안에는 수백 개의 작고 밝은 씨앗이 담긴 캡슐이 들어있네. 그 씨앗들이 싹을 틔워, 미래의 더 현명하고 더 나은 영국을 만들어낼 걸세. 그런데 말이야, 펠프스라는 그 친구는 술을 안 마시겠지?"

안 마실 것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만 합니다. 불쌍한 친구가 아주 큰 곤경에 처한 건 분명하니, 우리가 그를 무사히 구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군요. 해리슨 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심지가 굳은 소녀군요."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잘못 본 게 아니라면 그녀는 참한 사람이에요. 그녀와 오빠는 노섬벌랜드 어딘가에 있는 철강 공장주의 자녀로, 그 집의 자식이라곤 이 두 남매뿐입니다. 그분이 지난겨울 여행 중에 그녀와 약혼했고, 그녀는 오빠의 호위를 받으며 그분의 가족들에게 정식으로 인사하러 내려왔지요. 그러다 불행한 사고가 터졌고, 그녀는 연인을 간호하기 위해 곁에 남았습니다. 오빠인 조셉 역시 형편이 꽤 편안하다 보니 함께 남기로 했고요. 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가지 조사를 좀 해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사를 좀 더 해봐야 할 날이군요.

"제 진료업은——" 내가 말을 시작했다.

"오, 만약 당신이 맡은 사건이 내 것보다 더 흥미롭다고 생각한다면 야—" 홈즈가 다소 날카로운 어조로 말했다.

"올해 중 가장 한가한 시기이니, 진료 업무는 하루 이틀 정도 없어도 큰 지장 없을 거라고 말하려던 참이었네."

"훌륭하군." 그가 다시 기운을 차리며 말했다. "그럼 이 사건을 함께 조사해 보세. 우선 포브스를 만나보는 게 좋겠어. 사건을 어떤 방향으

로 접근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때까지, 그라면 우리가 원하는 세부 사항들을 전부 말해줄 수 있을 테니까."

"단서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글쎄요, 단서가 몇 개 있습니다만, 더 조사해 봐야 그 가치를 판단할 수 있겠지요. 추적하기 가장 까다로운 범죄는 목적이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일로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냐는 말입니다. 프랑스 대사도 있고, 러시아 대사도 있지요. 혹은 이들 중 어느 쪽에든 그것을 팔아넘길 수 있는 자도 있을 것이고, 홀드허스트 경도 있습니다.

"홀드허스트 경!"

"글쎄요, 정치가라면 누구나 그런 문서를 실수로 파기하게 되었을 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할 만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법이지요."

"홀드허스트 경처럼 명망 높은 경력을 쌓은 정치가가 아니란 말인가요?"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지요. 오늘 귀족 경을 직접 만나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줄 이야기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미 조사를 시작해 두었습니다."

"벌써 말입니까?"

"네, 워킹 역에서 런던의 모든 저녁 신문사로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광고는 신문마다 실리게 될 겁니다."

그는 수첩에서 뜯어낸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그 위에는 연필로 휘갈겨 쓴 글자가 적혀 있었다.

"현상금 10파운드. 5월 23일 저녁 9시 45분경, 찰스 스트리트에 있는 외무성 정문 근처에 승객을 내려준 마차의 번호를 찾습니다. 베이커가 221B로 연락 바랍니다."

도둑이 마차를 타고 왔다고 확신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아무런 문제도 없겠지요. 하지만 펠프스 씨의 말이 맞아서 방 안에도, 복도에도 숨을 만한 곳이 전혀 없다면, 그 침입자는 분명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일 겁니다.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밤에 밖에서 들어왔으면서, 침입 직후 불과 몇 분 만에 확인한 리놀륨 바닥에 젖은 흔적조차 남기지 않았다면, 마차를 타고 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마차를 이용했다고 결론 내려도 무방할 것 같군요."

"그럴듯하군요."

"내가 말했던 단서 중 하나가 바로 저겁니다. 어쩌면 무언가를 밝혀낼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죠. 그리고 물론, 종소리 문제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독특한 특징이니까요. 도대체 왜 종이 울린 걸까요? 도둑이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울린 걸까요? 아니면 범행을 막으려고 도둑과 함께 있던 누군가가 울린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혹시……?"

홈즈는 다시 깊은 침묵에 빠져들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강렬한 사색에 잠긴 모습이었지요. 하지만 그의 모든 기분 변화에 익숙해진 제 눈에는, 홈즈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갑자기 떠오른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는 3시 20분이 지나 있었다. 뷔페에서 서둘러 점심을 해결한 뒤, 우리는 곧장 스코틀랜드 야드로 향했다. 홈즈가 이미 포브스에게 전보를 보낸 덕분에 그는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포브스는 체구가 작고 여우처럼 생긴 사내였는데, 눈매가 날카로웠으나 결코 상냥한 인상은 아니었다. 그는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확연히 냉담했으며, 특히 우리가 어떤 용무로 왔는지 전해 듣자 더욱 차갑게 굴었다.

"홈즈 씨, 당신의 수법에 대해서는 전부터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날카롭게 말을 내뱉었다. "당신은 경찰이 수집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서도, 막상 사건이 마무리될 때쯤이면 직접 나서서 결말을 지어버리더군요. 그러고는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습니까."

"그 반대라네." 홈즈가 말했다. "내가 맡은 최근 쉰세 건의 사건 중 내 이름이 거론된 건 고작 네 건뿐이야. 나머지 마흔아홉 건은 모두 경찰이 공을 독차지했지. 자네가 이걸 모른다고 해서 탓하진 않겠네. 아직 젊고 경험이 부족하니 당연한 일이니까. 하지만 새로운 직무에서 성공하고 싶다면, 나와 대립하지 말고 협력하게나."

"힌트라도 한두 개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경위가 태도를 바꾸며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는 지금까지 얻은 공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커미셔너(심부름꾼)인 탱게를 미행해 보았습니다. 그는 근위대 시절 평판이 아주 좋았기에 그에게서 딱히 잘못된 점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질이 좋지 않은 여자더군요. 제 생각에 그녀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이 사건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여자를 미행했습니까?"

우리 여자 요원 중 한 명을 붙여놓았습니다. 탱게 부인은 술을 즐기는데, 우리 요원이 부인이 만취했을 때 두 번이나 함께 있었지만 아무런 정보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집에 중개인이 드나들었다고 들었습니다만,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빚을 다 갚아 내보냈습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난 겁니까?"

"그건 괜찮았습니다. 그는 연금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자금이 있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펠프스 씨가 커피를 달라고 벨을 눌렀을 때, 그녀는 왜 직접 응답했는지 뭐라고 설명하던가요?"

"남편이 몹시 지쳐 있어서, 자신이 그 짐을 좀 덜어주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렇군요. 그가 잠시 후 의자에 앉아 잠든 채로 발견되었다는 사실과도 앞뒤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서 의심할 만한 점은 여자의 성격뿐이겠군요. 그날 밤 그녀가 왜 그렇게 서둘러 떠났는지 물어보셨습니까? 그녀가 서두르는 모습이 순경의 눈에 띄었거든요."

"그녀는 평소보다 늦게 귀가한 데다,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보다 적어도 20분은 늦게 출발한 당신과 펠프스 씨가 그녀보다 먼저 집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그녀에게 분명히 짚어 주었습니까?"

"그녀는 '버스와 한섬 마차의 차이'를 들어 설명하더군요."

"그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왜 뒷주방으로 달려 들어갔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하던가요?"

그녀가 중개인들에게 지불할 돈을 그곳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는 적어도 모든 질문에 대답할 거리가 있더군요. 혹시 떠날 때 찰스 가 주변을 서성이거나 마주친 사람이 있었는지 물어보셨습니까?"

"그녀는 순경 외에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글쎄요, 그녀를 꽤 철저하게 심문하신 모양이군요. 그 외에 또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로라는 사무원이 있는데, 지난 9주 동안 내내 미행을 붙였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습니다. 그에게 죄를 물을 만한 증거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 밖에 또 하신 일은 없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어떤 종류의 증거도 전혀 없고요.”

“그 종이 어떻게 울렸는지, 혹시 알아낸 가설이라도 있나?”

“글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범인이 누구든 간에, 그렇게 대담하게 경보를 울리다니 정말 대단한 배짱이군요.”

“맞습니다, 참으로 기묘한 짓이었지요. 말씀해 주신 내용은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자를 당신 손에 넘겨줄 수만 있다면, 그때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시다, 왓슨.”

"이제 어디로 가는 건가요?" 사무실을 나서며 내가 물었다.

“우리는 이제 내각 장관이자 차기 영국 총리가 될 홀드허스트 경을 인터뷰할 예정이라네.”

홀드허스트 경이 다우닝가에 있는 자신의 집무실에 아직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천만다행이었다. 홈즈가 명함을 보내자마자 우리는 곧장 안내를 받아 들어갈 수 있었다. 정치가인 그는 특유의 고풍스러운 예우를 갖추어 우리를 맞이했고, 벽난로 양옆에 놓인 호화로운 안락의자 두 개에 우리를 앉혔다. 우리 사이에 놓인 카펫 위에 선 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키가 크고 날렵한 체구, 날카로운 이목구비, 사색에 잠긴 듯한 얼굴, 그리고 벌써 희끗희끗하게 서리가 내려앉은 곱슬머리까지. 그는 흔히 볼 수 없는, 진정으로 고결한 품격을 지닌 귀족의 전형을 보여주는 듯했다.

"홈즈 씨, 성함이 아주 낯익군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물론 당신이 어떤 목적으로 찾아왔는지 모르는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요. 이 사무실에서 당신이 관심을 가질 만한 사건은 단 하나뿐이니까요. 실례지만, 누구를 위해 움직이고 계신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퍼시 펠프스 씨의 사건 말입니다." 홈즈가 대답했다.

"아, 불쌍한 내 조카 같으니! 우리 사이가 혈연관계라는 점 때문에, 내가 그를 어떻게든 감싸주는 일은 더더욱 불가능하다는 걸 자네도 이해하겠지. 이번 사건이 그 친구의 경력에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까 봐 걱정이네."

"하지만 만약 그 서류를 찾아낸다면 어떻게 됩니까?"

"아, 그렇다면 당연히 이야기가 달라지겠군요."

"홀드허스트 경, 당신에게 묻고 싶은 것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라면 무엇이든 기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를 복사하라고 지시하신 곳이 바로 이 방이었습니까?"

"그랬었지."

"그렇다면 아무도 엿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씀입니까?"

"그건 논의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 조약을 필사하게 하겠다는 계획을 누구에게라도 말한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점은 확실합니까?"

"물론입니다."

"글쎄요, 당신도 말한 적이 없고 펠프스 씨도 말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아무도 그 일에 대해 아는 사람이 없었으니, 도둑이 방에 들어온 건 순전히 우연이었던 겁니다. 그저 기회가 왔을 때 덥석 잡은 것이지요."

그 정치가가 미소를 지었다. "그 부분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군요." 그가 말했다.

홈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당신과 논의하고 싶은 아주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조약

의 세부 사항이 세상에 알려질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까 봐 걱정하고 계시는군요."

그 정치가의 표정 위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참으로 심각한 결과로군요."라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까?"

"아직 아니야."

"만약 그 조약이 프랑스나 러시아 외무성에 전달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겠습니까?"

"그래야겠지요." 홀드허스트 경이 씁쓸한 표정으로 말했다.

"벌써 열 주 가까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걸 보면,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들에게 조약이 전달되지 않았다고 생각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네."

홀드허스트 경은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홈즈 씨, 도둑이 그 조약문을 액자에 넣어 걸어두려고 훔쳤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쩌면 더 높은 가격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걸지도 모르겠군."

"조금만 더 지체한다면 그는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겁니다. 몇 달만 지나면 그 조약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될 테니까요."

"그 점이 가장 중요하네." 홈즈가 말했다. "물론 도둑이 갑자기 병이라도 앓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

"예를 들어, 뇌열이라도 온 것인가?" 정치가가 그를 날카롭게 훑어보며 물었다.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홈즈가 침착하게 대꾸했다. "자, 홀드허스트 경, 귀한 시간을 너무 많이 뺏은 것 같군요. 이만 물러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범인이 누구든, 수사가 성공하기를 빌겠소." 귀족은 우리를 문밖으로 배웅하며 정중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분은 참 괜찮은 분이야." 화이트홀로 나오며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그 지위를 유지하느라 꽤 애를 먹고 있더군. 결코 부유한 편도 아닌 데다 챙겨야 할 곳도 많거든. 자네도 눈치챘겠지만, 그 사람 구두 밑창을 새로 갈았더라고. 자, 왓슨, 이제 자네 본업을 방해하지 않겠네. 내가 낸 마차 광고에 답장이 오지 않는 한, 오늘은 더 이상 아무 일도 하지 않을 생각이야. 다만 내일 어제와 같은 기차를 타고 나와 함께 워킹까지 내려와 준다면 정말 고맙겠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를 만나 함께 워킹으로 향했다. 그는 내놓은 광고에 아무런 응답이 없었으며, 사건에 새로운 실마리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만 먹으면 인디언처럼 표정을 완전히 지워버리곤 했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표정만 봐서는 사건의 진행 상황에 만족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

면, 그는 베르티용의 측정 체계에 대해 이야기하며 프랑스의 그 석학을 열렬히 찬양하곤 했다.

의뢰인은 여전히 헌신적인 간병인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지만, 이전보다 상태가 훨씬 좋아 보였다. 우리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리를 맞이했다.

"소식은 좀 있나?" 그가 간절한 기색으로 물었다.

"예상했던 대로, 내 보고는 부정적이야." 홈즈가 말했다. "포브스를 만났고, 자네 삼촌도 만났네. 그리고 무언가 실마리가 될 만한 조사 몇 가지를 시작해 두었지."

"그렇다면, 아직 낙담하지는 않으신 거군요?"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해리슨 양이 외쳤다. "우리가 용기를 잃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당신에게 해줄 이야기가 당신이 우리에게 할 이야기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펠프스가 소파에 다시 자리를 잡으며 말했다.

"혹시 뭐라도 있을까 해서 왔습니다."

"그래요, 밤사이 모험을 하나 겪었습니다. 자칫하면 아주 심각한 상황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일이었죠."

말을 이어가는 펠프스의 표정이 매우 엄숙해졌고, 그의 눈동자에는 두려움과 비슷한 기색이 스쳤다.

"아십니까," 펠프스가 말했다. "저는 이제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거대한 음모의 중심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음모는 제 명예뿐만 아니라 제 목숨까지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홈즈가 외쳤다.

"믿기 힘든 이야기라는 건 압니다. 제가 아는 한, 세상에 저를 해치려는 원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어젯밤 겪은 일을 돌이켜보면,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군요."

"부디 들려주게나."

"어젯밤은 제가 방에 간호사 없이 처음으로 잠을 잔 밤이었습니다. 몸 상태가 훨씬 좋아져서 이제는 간호사가 없어도 괜찮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밤새 켜둔 야간등은 있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주 얕은 잠이 들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작은 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마치 생쥐 한 마리가 나무판자를 갉아먹는 듯한 소리였지요. 저는 그 소리가 분명 생쥐 소리일 거라 짐작하며 한동안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갑자기 창문 쪽에서 금속이 날카롭게 맞물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제는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처음 들린 소리는 누군가 창틀 사이의 틈으로 도구를 밀어 넣으며

내는 소리였고, 두 번째 소리는 창문 잠금장치를 뒤로 밀어낼 때 난 소리였습니다."

그 후 한 10분 동안 정적이 흘렀다. 마치 그 사람이 소음 때문에 내가 잠에서 깨지는 않았는지 살피는 것 같았다. 그러다 창문이 아주 천천히 열리며 끼익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더는 견딜 수가 없었다. 예전 같지 않은 내 신경이 한계에 다다른 것이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덧창을 확 열어젖혔다.

창가에는 한 남자가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기에 형체를 제대로 볼 수는 없었다. 그는 얼굴 하단을 가리는 종류의 망토를 두르고 있었다. 한 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한다. 그가 손에 무언가 무기를 들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 눈에는 긴 칼처럼 보였다. 그가 도망치려 몸을 돌리는 순간,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

"정말 흥미롭군요." 홈즈가 말했다. "그다음엔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몸이 더 튼튼했더라면 열린 창문 너머로 그를 뒤쫓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해서 벨을 눌러 집안 사람들을 깨울 수밖에 없었지요. 벨 소리가 주방에 울리고 하인들이 모두 위층에서 자고 있다 보니, 사람들을 깨우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도 제가 크게 소리를 지른 덕분에 조셉이 내려왔고, 조셉이 다른 사람들도 깨웠습니다. 조셉과 마부의 말로는 창문 밖 화단에서 흔적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날씨가 너무 건조했던 탓에, 잔디밭을 가로지르는 발자국을 추적하는 건 가망이 없다고 하더군요. 다만 도로를 따라 쳐진 나무 울

타리 쪽에는 흔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 울타리를 넘어오려다 난간 윗부분을 부러뜨린 것 같다는군요. 아직 현지 경찰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당신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의뢰인이 들려준 이야기는 셜록 홈즈에게 예사롭지 않은 영향을 준 듯했다. 홈즈는 의자에서 일어나 걷잡을 수 없는 흥분에 휩싸인 채 방 안을 서성거렸다.

"불행은 꼭 떼를 지어 찾아오는 법이지요." 펠프스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그가 꽤나 충격을 받았다는 사실은 누가 봐도 분명해 보였다.

"고생을 꽤나 하셨군요." 홈즈가 말했다. "괜찮으시다면 저와 함께 집 안을 한 바퀴 둘러보시겠습니까?"

"아, 그럼요. 햇볕 좀 쬐면 좋겠군요. 조셉도 같이 올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해리슨 양이 말했다.

"안타깝지만 그건 안 될 것 같군요." 홈즈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셔야겠습니다."

젊은 숙녀는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며 다시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녀의 오라비가 합류하면서, 우리 네 사람은 함께 길을 나섰다. 우리는 잔디밭을 돌아 젊은 외교관의 방 창문 밖으로 향했다. 그가 말했던 대로 화단에는 무언가 흔적이 남아 있었으나,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흐릿하고 모호했다. 홈즈는 잠시 그 흔적을 살피더니, 이내 어깨를 으쓱하며 몸을 일으켰다.

“이것만 봐서는 아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걸세.” 홈즈가 말했다. “집 안을 한 바퀴 돌면서, 왜 도둑이 하필 이 방을 골랐는지 확인해 보세. 거실이나 식당에 있는 커다란 창문들이 도둑의 눈길을 더 끌었을 법한데 말이야.”

“도로 쪽에서 보면 더 잘 보입니다.” 조셉 해리슨 씨가 제안하듯 말했다.

“아, 그렇군요. 당연히 그가 시도했을 법한 문이 여기 하나 있네요. 이 문은 무엇을 위한 건가요?”

“상인들이 이용하는 측면 출입구입니다. 당연히 밤에는 잠가 두지요.”

“이런 식의 경보를 전에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말했다.

“집 안에 은식기 같은 걸 두시나요? 아니면 도둑의 눈길을 끌 만한 게 있습니까?”

"가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홈즈는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집 안을 거닐었다. 평소답지 않게 아주 느긋하고 태평한 모습이었다.

"그나저나," 홈즈가 조셉 해리슨에게 말했다. "듣자하니 그놈이 담을 넘은 장소를 찾아냈다고 하더군. 우리도 그곳을 한번 가보세!"

통통한 체격의 젊은 남자는 우리를 나무 난간 중 하나가 깨져 있는 곳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나무 파편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다. 홈즈는 그 파편을 떼어내더니 날카로운 눈빛으로 살피기 시작했다.

"어젯밤에 한 일이라고 생각하나? 보기에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

"글쎄요, 아마 그럴지도 모르죠."

"반대편으로 뛰어내린 흔적은 전혀 없군. 그래, 여기서 더 알아낼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네. 침실로 돌아가서 다시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

퍼시 펠프스는 곧 처남이 될 사람의 팔에 몸을 기댄 채 아주 느린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반면 홈즈는 잔디밭을 가로질러 빠르게 걸어갔다. 덕분에 다른 사람들이 도착하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침실의 열린 창가에 다다라 있었다.

"해리슨 양," 홈즈가 아주 절박한 기색으로 말했다. "오늘 하루는 반드시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리를 뜨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이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원하신다면 기꺼이 그러겠습니다, 홈즈 씨." 소녀가 깜짝 놀라 대답했다.

"잠자리에 들 때는 이 방 문을 밖에서 잠그고 열쇠는 꼭 가지고 있게.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게."

"하지만 퍼시는요?"

"그도 우리와 함께 런던으로 갈 겁니다."

"그럼 저는 계속 여기 남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예요. 당신이 그를 도와줄 수 있어요. 어서요! 약속해 주세요!"

다른 두 사람이 다가오는 순간, 그녀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동의를 표했다.

"애니, 왜 거기 그렇게 우울하게 앉아 있니?" 오라비가 외쳤다. "어서 나와서 햇볕 좀 쬐렴!"

"아니, 괜찮네, 조셉. 머리가 좀 지끈거려서 말이야. 이 방은 아주 시원하고 아늑해서 딱 좋군."

"이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홈즈 씨?" 의뢰인이 물었다.

"자, 이 사소한 사건을 조사하느라 우리가 본래 목적이었던 주요 수사에서 눈을 돌려서는 안 되네. 자네가 우리와 함께 런던으로 올라와 준다면 내게 큰 도움이 될 것 같군."

"당장 말입니까?"

"글쎄요, 형편이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해주세요. 한 시간 뒤면 좋겠군요."

"제가 정말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충분히 힘을 보탤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가장 크게."

"혹시 오늘 밤 제가 그곳에 머물기를 바라십니까?"

"안 그래도 막 제안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찾아왔던 그 친구가 다시 나를 보러 온다면 이미 새는 날아가 버린 뒤겠군요. 홈즈 씨, 모든 것이 당신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조셉이 저를 돌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보내는 편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제 친구 왓슨은 의사니까 당신을 잘 돌봐줄 겁니다.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우리 세 사람이 함께 시내로 출발하도록 하죠."

모든 일은 홈즈의 제안대로 진행되었다. 다만 해리슨 양은 홈즈의 권고에 따라 침실을 떠나지 않기로 했다. 내 친구가 왜 이런 기묘한 움직임을 보이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그저 해리슨 양을 펠프스에게서 떼어놓으려는 의도뿐이라면 모를까. 한편 펠프스는 건강을 회복한 기쁨과 곧 사건에 뛰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우리와 함께 식당에서 점심을 먹었다.

하지만 홈즈는 우리에게 훨씬 더 놀라운 소식을 전했다. 그는 역까지 우리를 배웅하고 마차에 올라타는 것까지 확인하더니, 아주 태연하게 워킹을 떠날 생각이 없다고 선언했다.

"떠나기 전에 명확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사소한 점이 한두 가지 있습니다." 그가 말했다. "펠프스 씨, 당신이 자리를 비워주는 것이 여러모로 제게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왓슨, 런던에 도착하면 여기 있는 우리 친구와 함께 곧장 베이커가로 가 주게. 그리고 내가 다시 만날 때까지 그와 함께 있어 주면 고맙겠네. 두 사람이 옛 학교 동창이라 다행이야. 나눌 이야기가 아주 많을 테니까. 펠프스 씨는 오늘 밤 남는 침실을 사용하면 됩니다. 나를 8시에 워털루에 데려다줄 열차가 있으니, 아침 식사 시간에는 맞춰 갈게요."

"하지만 런던에서의 수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펠프스가 후회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 일은 내일 해도 됩니다. 지금은 이곳에서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일을 하는 게 나을 것 같군요."

"브라이어브레이에 가서 내일 밤에는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해 줘요!"

우리가 승강장을 벗어나기 시작할 때, 펠프스가 외쳤다.

"브라이어브레이로 다시 돌아갈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군."

홈즈가 대답했다. 우리가 역을 빠져나오자 그는 우리를 향해 유쾌하게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이동하는 동안 펠프스와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우리 중 누구도 이 새로운 전개에 대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아내지 못했다.

"어젯밤에 일어난 도둑질에 대해 어떤 단서라도 찾아내고 싶은 모양이야. 만약 그게 정말 도둑질이었다면 말이지. 내 생각엔 평범한 좀도둑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이지, 제 신경이 약해져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서 어떤 거대한 정치적 음모가 꾸며지고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에, 공모자들이 제 목숨을 노리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거창하고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사실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도둑이 왜 약탈할 물건도 없는 침실 창문으로 침입하려 하겠습니까? 게다가 왜 손에 긴 칼까지 들고 나타났겠느냐 말입니다."

"그게 확실히 빈집털이범이 쓰는 지렛대는 아니었습니까?"

"아니요, 칼이었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는 걸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적대감을 사며 쫓기는 것입니까?"

"아,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글쎄요, 홈즈도 같은 생각이라면 그의 행동이 설명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가설이 맞다는 전제하에, 만약 홈즈가 어젯밤 당신을 협박한 그자를 찾아낼 수만 있다면 해군 조약을 훔쳐 간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는 데 아주 큰 진전을 이루게 될 겁니다. 당신에게 적이 둘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말도 안 됩니다. 한 명은 물건을 훔쳐 가고, 다른 한 명은 당신의 목숨을 위협한다니 말입니다."

"하지만 홈즈는 브라이어브레이에는 가지 않겠다고 말했네."

"그를 안 지는 꽤 되었지만, 아주 타당한 이유 없이 움직이는 모습은 아직 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말했다. 그 말을 끝으로 우리의 대화는 다른 주제로 흘러갔다.

하지만 내게는 참으로 고단한 하루였다. 펠프스는 오랜 투병 끝에 여전히 기력이 쇠약해져 있었고, 불운한 처지 탓에 신경이 날카롭고 예민해져 있었다. 나는 아프가니스탄이나 인도 이야기, 혹은 사회 문제 같은 주제를 꺼내며 그의 주의를 돌려보려 애썼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는 어떻게든 잡념을 떨쳐내 보려 했으나, 결국은 늘 잃어버린 조약 이

야기로 되돌아오곤 했다. 그는 홈즈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홀드허스트 경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내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려올지 궁금해하며 끊임없이 추측하고 짐작할 뿐이었다. 저녁이 깊어갈수록 그의 흥분 상태는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심해졌다.

"홈즈를 전적으로 신뢰하나?" 그가 물었다.

"그가 놀라운 일들을 해내는 것을 몇 번이나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토록 어두운 사건에 빛을 비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단 말입니까?"

"아, 물론이죠. 그가 당신의 사건보다 훨씬 단서가 적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도 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막대한 이권이 걸린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군요. 하지만 제가 확실히 아는 바로는, 그는 유럽의 세 왕실을 대신해 매우 중대한 사안들을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자네는 그를 잘 알지 않나, 왓슨. 그는 워낙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 나조차도 그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단 말일세. 자네가 보기에 그는 희망을 품고 있는 것 같은가? 그 일이 성공할 거라고 믿고 있는 것 같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징조로군요."

"그 반대라네. 홈즈는 단서를 놓쳤을 때는 대개 솔직하게 말하곤 했지. 오히려 냄새를 맡았는데도 그게 확실한 단서인지 아직 확신이 서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입을 꾹 다물고 침묵하는 때라네. 자, 이보게. 우리가 불안해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으니, 제발 이제 그만 잠자리에 들게나. 그래야 내일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닥치든 맑은 정신으로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

결국 나는 동료를 설득해 내 조언을 따르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의 흥분한 기색을 보니 잠을 이루기는 쉽지 않아 보였다. 사실 그의 기분은 나에게까지 전염되었다. 나 역시 밤의 절반을 뒤척이며 이 기묘한 문제에 몰두했다. 수백 가지 가설을 세워 보았지만, 하나같이 앞선 것보다 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뿐이었다.

왜 홈즈는 워킹에 머물렀을까? 왜 해리슨 양에게 하루 종일 병실에 머물러 달라고 부탁했을까? 그리고 왜 브라이어브레이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근처에 머물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 그토록 조심했던 것일까? 이 모든 사실을 관통하는 설명을 찾아내려 머리를 쥐어짜다 보니, 어느덧 잠이 들고 말았다.

일곱 시에 잠에서 깨어난 나는 곧장 펠프스의 방으로 향했다. 그는 밤을 꼬박 새운 탓에 몹시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물어온 것은 홈즈가 벌써 도착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올 겁니다.” 내가 말했다. “단 일 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게 말이죠.”

내 말은 틀리지 않았다. 8시가 조금 지나자 한 대의 한섬 마차가 문 앞에 급히 멈춰 섰고, 우리의 친구가 마차에서 내렸다. 창가에 서서 지켜보니 그의 왼손은 붕대로 칭칭 감겨 있었고, 얼굴은 몹시 창백하고 엄숙한 표정이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왔지만, 위층으로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렸다.

“패배한 사람처럼 보이는군요.” 펠프스가 외쳤다.

그가 옳다는 사실을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내가 말했다. "사건의 실마리는 아마도 이곳 런던에 있을 겁니다."

펠프스는 신음 섞인 탄식을 내뱉었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네.” 그가 말했다. “그가 돌아오기만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는데 말이야. 하지만 어제만 해도 분명히 이렇게 손이 묶여 있지는 않았어.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거지?”

“홈즈, 다친 데는 없나?”

친구가 방으로 들어서자 내가 물었다.

“에이, 제 서투름 때문에 생긴 가벼운 상처일 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가볍게 아침 인사를 건네며 대답했다. “펠프스 씨, 당신이 가져온

이번 사건은 제가 지금까지 다뤄본 사건 중 단연 가장 미궁에 빠진 사건 중 하나군요."

"당신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일까 봐 걱정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경험이었네."

"그 붕대를 보니 모험을 겪으신 모양이군요." 내가 말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에게 들려주시겠습니까?"

"아침 식사 후에 하세, 친애하는 왓슨. 내가 오늘 아침 서리주의 공기를 서른 마일이나 들이마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나. 그 마부를 찾는다는 내 광고에는 답장이 없었나 보군? 뭐, 어쩔 수 없지. 매번 승리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

식탁에는 음식이 모두 차려져 있었다. 내가 막 벨을 울리려던 참에 허드슨 부인이 차와 커피를 들고 들어왔다. 몇 분 뒤 그녀가 식기 세트를 더 가져오자 우리는 모두 식탁으로 모여 앉았다. 홈즈는 몹시 허기진 상태였고, 나는 호기심이 일었으며, 펠프스는 형언할 수 없는 우울함에 빠져 있었다.

"허드슨 부인이 아주 제대로 실력을 발휘했군."

홈즈가 커리 치킨 접시의 덮개를 열며 말했다.

"요리 가짓수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스코틀랜드 여인답게 아침 식사 메뉴를 짜는 안목만큼은 훌륭해. 그나저나 왓슨, 자네가 가진 건 뭔가?"

"햄과 달걀 요리요." 내가 대답했다.

"좋습니다! 펠프스 씨, 메뉴는 무엇으로 하시겠습니까? 커리 치킨과 달걀 요리 중 고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접 가져다 드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못 먹겠군요." 펠프스가 말했다.

"자, 어서요! 앞에 놓인 음식부터 좀 드셔 보세요."

"고맙지만, 정말 그러고 싶지 않군요."

"그럼 됐군요." 홈즈가 장난기 어린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다. "나를 도와주는 데 별다른 불만은 없으시겠지요?"

펠프스가 덮개를 들어 올리던 순간,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눈앞의 접시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접시 한가운데에는 청회색 종이로 된 작은 원통형 쪽지가 놓여 있었다. 그는 쪽지를 집어 들더니 게걸스럽게 눈으로 읽어 내려갔다. 그러더니 쪽지를 가슴에 꼭 품은 채 기쁨에 겨워 비명을 지르며 방 안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다. 이윽고 그는 안락의자에 몸을 던지듯 쓰러졌다. 감정이 너무 격해진 나머지 몸에 힘이 다 빠져버린 탓에, 우리는 그가 기절하지 않도록 브랜디를 입안에 부어 넣어줘야만 했다.

“자, 자, 진정하게.” 홈즈가 그의 어깨를 다독이며 달래듯 말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일을 터뜨려 미안하네. 하지만 왓슨이 잘 알다시피, 나는 이런 극적인 연출을 참지 못하는 성격 아닌가.”

펠프스는 그의 손을 덥석 붙잡고 입을 맞췄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그가 외쳤다. "당신이 내 명예를 구해주셨소."

“글쎄, 내 명성도 걸린 문제였으니까.” 홈즈가 말했다. “장담하건대,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건 자네가 업무에서 실수하는 것만큼이나 나에게도 끔찍한 일이라네.”

펠프스는 그 귀중한 문서를 코트 안쪽 깊숙한 주머니에 급히 밀어 넣었다.

“더 이상 당신의 아침 식사를 방해할 마음은 없습니다만, 도대체 그걸 어떻게 구했는지, 그리고 어디에 있었는지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셜록 홈즈는 커피 한 잔을 들이켜고는 햄과 달걀 요리로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파이프에 불을 붙인 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앉았다.

“먼저 제가 무엇을 했는지부터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드리지요.” 그가 말했다. “역에서 당신과 헤어진 뒤, 저는 서리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리플리라는 예쁜 마을까지 산책을 했습니다. 그곳 여관에서 차를 마시면서, 만약을 대비해 플라스크에 술을 채우고 주머니에는 샌드위치도 챙겨 두었습니다.

저녁때까지 그곳에 머물다가 다시 워킹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해가 진 직후, 저는 브라이어브레이 외곽의 대로변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음, 길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없을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제 생각에 그 길은 원래도 통행량이 그리 많지 않은 곳 같더군요. 그러고 나서 울타리를 넘어 부지 안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대문은 열려 있었다고요!" 펠프스가 외쳤다.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좀 독특한 취향이 있습니다. 저는 전나무 세 그루가 서 있는 곳을 미리 골라 두었습니다. 그 나무들이 가림막 역할을 해준 덕분에, 집 안에 있는 그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몰래 들어갈 수 있었죠. 저는 반대편 덤불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저쪽 덤불에서 이쪽 덤불로 기어갔습니다. 제 바지 무릎이 이토록 엉망이 된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그렇게 기어서 당신의 침실 창문 바로 맞은편에 있는 만병초 덤불까지 도달했습니다. 거기서 몸을 낮게 웅크린 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보았습니다."

"당신 방의 블라인드는 내려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테이블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해리슨 양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가 책을 덮고 덧창을 잠근 뒤 방으로 들어간 건 10시 15분쯤이었어요."

"그녀가 문을 닫는 소리를 들었고, 자물쇠에 열쇠를 돌려 문을 잠갔다고 확신했습니다."

"열쇠요!" 펠프스가 외쳤다.

"네, 맞습니다. 해리슨 양에게는 잠자리에 들 때 문을 밖에서 잠그고 열쇠를 챙겨 가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녀는 제 지시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랐지요. 분명 그녀가 협조해주지 않았다면, 당신의 코트 주머니에 그 종이가 들어있을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 후 그녀가 방을 나가고 불이 꺼지자, 저는 진달래 덤불 속에 웅크리고 앉아 있게 되었습니다."

밤은 화창했지만, 기다림은 무척이나 고단했습니다. 물론 스포츠맨이 물가에 엎드려 커다란 사냥감을 기다릴 때 느끼는 것과 같은 특유의 흥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왓슨, 우리가 '얼룩무늬 띠' 사건을 다룰 때 그 죽음의 방에서 함께 기다렸던 시간만큼이나 길게 느껴졌습니다. 워킹에 있는 어느 교회 종이 15분마다 종을 울렸는데, 나는 종이 멈춘 게 아닌가 하고 몇 번이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새벽 2시쯤 되었을 때, 갑자기 문빗장이 부드럽게 밀려나고 열쇠가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하인용 문이 열리더니, 조셉 해리슨 씨가 달빛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조셉!" 펠프스가 외쳤다.

그는 모자를 쓰지 않은 맨머리였지만, 어깨에는 검은 코트를 걸치고 있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즉시 얼굴을 가릴 수 있도록 말이다. 그는 담장 그림자를 따라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레 걸어갔다. 창가에 다다른 그는 긴 칼날을 창틀 사이로 밀어 넣어 걸쇠를 밀어 올렸다. 그러고는 창문을 확 열어젖혔다. 이어 덧창 틈새로 칼을 집어넣어 걸쇠를 밀어 올린 뒤, 덧창을 활짝 열었다.

내가 누워 있던 자리에서는 방 안 내부가 훤히 보였고,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지켜볼 수 있었다. 그는 벽난로 선반 위에 놓인 양초 두 개에 불을 붙이더니, 문 근처의 카펫 모서리를 들추기 시작했다. 잠시 후 그는 동작을 멈추고 사각형 모양의 판자 하나를 집어 들었다. 배관공들이 가스관 연결 부위를 손볼 수 있도록 보통 그렇게 만들어 두곤 하는 판자였다. 사실 그 판자 아래에는 아래층 주방으로 이어지는 가스관의 T자형 연결 부위가 숨겨져 있었다. 그는 그 은밀한 장소에서 작은 종이 원통을 꺼냈다. 그러고는 판자를 덮고 카펫을 다시 정리한 뒤, 양초를 불어 끄고는 창밖에서 기다리던 내 품으로 곧장 걸어 들어왔다.

"글쎄요, 조셉 녀석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나운 구석이 있더군요. 그놈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바람에 두 번이나 붙잡아야 했습니다. 겨우 제압하고 나니 손가락 마디에 베인 상처가 남았더군요. 상황이 정리된 뒤에 그놈이 남은 눈 하나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긴 했지만, 결국 제 말을 듣고 서류를 내놓았습니다. 서류를 챙긴 뒤에 제가 붙잡은 그자를 놓아주긴 했습니다만, 오늘 아침 포브스에게 자세한 경위를 전보로 보내두었습니다. 그가 재빨리 범인을 붙잡는다면 다행이겠지만, 제 예리한 직감으로는 그가 도착하기도 전에 둥지가 비어 있을 것 같군요. 만약 그렇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홀드허스트 경이나 퍼시 펠프스 씨 같은 분들은 이 사건이 경찰 법정까지 가는 일 자체가 없기를 간절히 바랄 테니까요."

"세상에!" 의뢰인이 숨을 헐떡이며 외쳤다.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열 주라는 시간 동안, 도난당한 서류들이 바로 내가 있던 그 방 안에 줄곧 있었다는 말씀입니까?"

"정말 그랬었지."

"그리고 조셉이라니! 조셉이 악당에 도둑놈이었다니!"

"흠! 조셉이라는 친구,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기에는 성격이 훨씬 더 음험하고 위험한 사람인 것 같군요. 오늘 아침 그에게 직접 들은 바로는, 주식 투기에 손을 댔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형편을 되돌려 보려고 무슨 짓이든 할 기세더군요. 워낙 이기적인 사람이라, 기회가 오자마자 누이의 행복이나 당신의 명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모양입니다."

퍼시 펠프스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었다. "머리가 어지럽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의 말을 듣고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난관은," 홈즈가 특유의 가르치려는 듯한 말투로 입을 열었다. "증거가 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결정적인 단서들이 무관한 정보들에 덮여 가려져 있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사실 중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골라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들을 순서대로 맞추어 나가며, 이 놀라운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해야 했지요.

저는 이미 조셉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날 밤 그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사실 때문이었죠. 조셉은 외무부를 잘 알고 있

으니, 돌아가는 길에 당신을 데리러 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다 누군가 침실에 들어가려고 필사적으로 시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침실은 조셉 말고는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는 곳이었으니까요. 당신이 의사를 데리고 도착했을 때 조셉을 쫓아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특히 간호사가 자리를 비운 첫날 밤에 범행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보면, 침입자가 이 집의 사정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내가 얼마나 눈이 멀어 있었던가!"

"제가 파악한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습니다. 조셉 해리슨이라는 자는 찰스 스트리트 쪽 문을 통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길을 잘 알고 있었던 그는 당신이 방을 나가자마자 곧장 당신의 방으로 향했지요. 방 안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즉시 벨을 눌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의 눈에 탁자 위에 놓인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훑어보는 것만으로도 우연히 아주 귀중한 국가 기밀 문서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순식간에 서류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졸음이 가득한 안내원이 벨 소리를 듣고 당신에게 알리기까지 몇 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도둑이 도망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셈입니다."

"그는 첫차를 타고 워킹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전리품을 살펴본 뒤, 그것이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아주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곳에 물건을 숨겨두었지요. 하루 이틀 뒤에 다시 꺼내서 프랑스 대사관이나, 혹은 비싼 값을 쳐줄 만한 곳으로 가져갈 생각

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갑자기 돌아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방에서 쫓겨나야 했고, 그날 이후로는 그가 보물을 되찾지 못하도록 당신들 중 적어도 두 명은 항상 그곳을 지키고 있었지요. 그에게는 미칠 노릇이었을 겁니다.

그러다 마침내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모양입니다. 몰래 잠입하려 시도했지만, 당신이 깨어 있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지요. 그날 밤 당신이 평소처럼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사실, 기억하시지요?"

"기억납니다."

"그가 그 약효를 높이려고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신이 의식을 잃고 있을 거라 확신했겠지요. 당연히 저는 그가 안전이 확보될 때마다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방을 비운 것이 그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가 우리보다 먼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루 종일 해리슨 양을 방 안에 머물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상황이 안전하다는 인상을 심어준 뒤, 앞서 설명한 대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아마 이 방 안에 있을 거라는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찾겠다고 방 안의 판자며 벽면을 전부 뜯어낼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은닉처에서 서류를 직접 꺼내 가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엄청난 수고를 덜 수 있었지요. 더 명확히 설명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그가 문으로 들어올 수도 있었는데, 왜 첫 번째 시도에서는 창문을 건드렸던 겁니까?" 내가 물었다.

"문까지 가려면 침실 일곱 개를 지나야 합니다. 반면 잔디밭으로는 아주 쉽게 빠져나갈 수 있지요. 그 밖에 더 궁금한 점이 있습니까?"

"그에게 살의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는군요?" 펠프스가 물었다. "그 칼은 그저 도구로 쓰려던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럴지도 모르지." 홈즈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다.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조셉 해리슨 씨는 결코 자비심을 기대할 수 없는 인물이라는 점뿐이라네."

마지막 사건

XII. 마지막 문제

무거운 마음으로 펜을 든다. 내 친구 셜록 홈즈 씨가 지녔던 그 특별한 재능을 기록하는 마지막 글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와 함께 했던 기이한 경험들을 두서없고,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방식으로 기록해 왔다. 『주홍색 연구』 시절 우리를 처음 맺어준 우연한 만남부터, 국제적인 중대 사태를 막아낸 것이 분명한 『해군 조약』 사건에 그가 개입하기까지의 과정을 담아왔다.

원래는 거기서 멈출 생각이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내 삶에 남은 커다란 공허를 채우지 못한, 그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으려 했다. 하지만 최근 제임스 모리아티 대령이 보낸 편지들이 내 손을 움직이게 만들었다. 그는 편지에서 자기 형의 명예를 변호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사건이 일어난 그대로의 사실을 대중 앞에 밝힐 수밖에 없다. 이 일의 절대적인 진실을 아는 사람은 나뿐이며, 이제는 진실을 숨겨봐야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시점이 왔다고 확신한다.

내가 알기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은 세 가지뿐이다. 1891년 5월 6일자 『쥐르날 드 제네브(Journal de Genève)』의 기사, 5월 7일 영국 신문들에 실린 로이터 통신 특보, 그리고 방금 언급한 최근의 편지다. 앞의 두 기사는 내용을 극도로 축약했고, 마지막 편지는 이제부터 밝히겠지만 사실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다. 모리아티 교수와 셜록 홈즈 씨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 진상을 처음으로 밝히는 것은 이제 나의 몫이다.

내가 결혼을 하고 개인 병원을 차린 뒤, 홈즈와 나 사이의 매우 긴밀했던 관계도 어느 정도 변했다는 사실을 기억할지도 모르겠다. 홈즈는 수사 과정에서 동료가 필요할 때면 여전히 종종 나를 찾아왔지만, 그런 일은 점점 드물어졌다. 1890년 한 해 동안 내가 기록으로 남겨둔 사건은 고작 세 건뿐일 정도였다.

그해 겨울부터 1891년 초봄 사이, 나는 신문을 통해 홈즈가 프랑스 정부로부터 지극히 중요한 사건을 의뢰받았다는 소식을 접했다. 또한 나르본과 님에서 온 홈즈의 쪽지 두 통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보니 프랑스 체류가 꽤 길어질 것 같았다.

그러던 중 4월 24일 저녁, 홈즈가 내 상담실로 걸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나는 적잖이 놀랐다. 그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수척해 보였다.

"그래, 내가 나 자신을 너무 무리하게 몰아붙인 모양이야."

그는 내 질문에 대답했다기보다, 내 눈빛에 반응하듯 덧붙였다.

"최근 들어 일이 좀 몰렸거든. 실례가 안 된다면 창문의 덧창을 좀 닫아도 되겠나?"

방 안의 유일한 빛은 내가 읽고 있던 탁자 위 램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홈즈는 벽을 따라 조심스레 움직이더니, 창문의 덧창을 힘껏 밀어 닫고는 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갔다.

"무언가 두려운 것이라도 있소?" 내가 물었다.

"글쎄요, 저는 그렇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입니까?"

"공기총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보게, 홈즈. 그게 무슨 말인가?"

"왓슨, 자네는 나를 충분히 잘 아는 사이니 내가 결코 겁쟁이가 아니라는 점도 잘 이해하겠지. 하지만 위험이 코앞까지 닥쳤는데도 그것을 외면하는 건 용기가 아니라 어리석음일세. 실례지만 성냥 하나만 빌려 줄 수 있겠나?" 홈즈는 담배 연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마치 그 연기가 주는 안도감이 간절하기라도 한 듯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찾아와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결례인 줄은 알지만, 잠시 후에 뒷마당 담장을 넘어 몰래 빠져나가게 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 모든 게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가 물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램프 불빛에 비친 그의 손을 보니, 손가락 마디 두 곳이 터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보시다시피, 이건 실체 없는 허상이 아닙니다." 그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히려 사람이 손을 부딪쳐 다칠 정도로 아주 단단한 물건이지요. 왓슨 부인께서 계십니까?"

"그녀는 지금 다른 곳에 방문 중이라네."

"정말입니까! 혼자 계신단 말입니까?"

"그렇고말고요."

"그렇다면 차라리 잘됐군요. 당신이 나와 함께 일주일 정도 유럽 대륙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디입니까?"

"아, 아무 데나 좋습니다. 저는 상관없으니까요."

이 모든 상황에는 무언가 매우 기묘한 구석이 있었다. 목적 없는 휴가를 즐기는 것은 홈즈의 성미가 아니었다. 게다가 창백하고 초췌해진 그의 얼굴을 보니,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진 상태라는 사실을 직감할 수 있었다. 내 눈빛에서 의문을 읽어낸 홈즈는 양 손가락 끝을 맞대고 무릎 위에 팔꿈치를 올린 채,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설명하기 시작했다.

"아마 모리아티 교수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겠지?" 그가 물었다.

"한 번도 없네."

"그래, 바로 그 점이 이 사건의 천재성이자 경이로운 부분이라네!" 그가 외쳤다. "그자가 런던 전역을 휘젓고 다니는데도 아무도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어. 범죄 기록에 남을 만큼 독보적인 존재가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단 말일세. 왓슨, 진심으로 말하건대, 만약 내가 그자를 이길 수만 있다면, 그자로부터 사회를 구할 수만 있다면, 내 경력도 정점에 도달했다고 느낄 것이네. 그러고 나면 인생의 좀 더 평온한 길로 돌아갈 준비가 되겠지.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최근 스칸디나비아 왕실과 프랑스 공화국을 도왔던 사건들 덕분에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조용한 생활을 유지하며 화학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형편이 되었네. 하지만 왓슨, 만약 모리아티 교수 같은 자가 런던 거리를 아무런 제지 없이 활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도저히 마음 편히 앉아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네."

"그래서, 그가 대체 무슨 짓을 저질렀다는 겁니까?"

"그의 경력은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그는 명문가 출신에 교육도 훌륭히 받았으며, 타고난 수학적 재능 또한 경이로운 수준이었죠. 스물한 살 무렵에는 이항정리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은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성과를 바탕으로 그는 영국의 한 소규모 대학에서 수학 교수직을 맡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찬란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주 악랄한 유전적 성향이 있었습니다. 혈통에 흐르는 범죄자적 기질이 문제였죠. 그 기질은 억제되기는커녕, 그의 비범한 지적 능력과 결합하면서 오히려 더욱 증폭되어 무한히 위험한 것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학가에는 그를 둘러싼 어두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런던으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육군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시 지도 교사로 자리를 잡았지요.

세상에 알려진 사실은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알아낸 사실들입니다."

"왓슨, 자네도 알다시피 런던의 고도화된 범죄 세계를 나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범죄자 뒤에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느껴왔네. 법의 앞길을 가로막고, 악당의 방패가 되어주는 거대하고 치밀한 조직적 힘 말일세. 위조 사건부터 강도, 살인에 이르기까지 온갖 종류의 사건을 거치며 나는 이 힘의 존재를 반복해서 실감했네. 내가 직접 의뢰를 받지 않은 미제 사건들에서도 이 힘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추론해낼 수 있었지. 나는 오랫동안 이 힘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벗겨내려 애써왔네. 그리고 마침내 실마리를 붙잡아 그 뒤를 쫓기 시작했지. 수천 번의 교묘한 굴곡을 지나 마침내 그 실마리가 나를 이끌어준 곳은, 수학계에서 명성을 떨쳤던 모리아티 전 교수였네."

"그는 범죄계의 나폴레옹이라네, 왓슨. 이 거대한 도시에서 벌어지는 악행의 절반은 그가 조직한 것이고, 발각되지 않은 범죄는 거의 전

부 그의 손을 거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그는 천재이자 철학자이며, 추상적 사고에 능한 인물이라네. 그가 가진 두뇌는 일류 중의 일류지. 그는 마치 거미줄 한가운데 앉아 있는 거미처럼 미동도 하지 않지만, 그 거미줄은 수천 갈래로 뻗어 나가 있고 그는 그 줄기 하나하나가 떨리는 것까지 모두 꿰뚫어 보고 있다네.

그는 직접 움직이는 법이 거의 없네. 오직 계획만 세울 뿐이지. 하지만 그의 수하들은 수가 아주 많고 조직력 또한 대단하네. 범죄를 저질러야 하거나, 서류를 가로채야 하거나, 집을 털거나, 혹은 누군가를 제거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 명령은 교수에게 전달되고 사건은 조직적으로 기획되어 실행에 옮겨진다네.

수하가 붙잡힐 수도 있겠지. 그럴 경우엔 보석금을 내거나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마련되네. 하지만 그 수하를 부리는 중심 세력은 결코 붙잡히지 않네. 의심조차 받지 않지. 왓슨, 이것이 바로 내가 추론해낸 조직의 실체라네. 나는 이 조직을 폭로하고 무너뜨리기 위해 내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었네."

"하지만 그 교수는 아주 교묘한 방책들로 자신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법정에서 유죄를 끌어낼 증거를 찾는 건 불가능해 보일 정도였지. 자네도 내 능력을 잘 알지 않나, 왓슨. 그런데도 석 달이 지난 끝에 나는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었네. 내 지적 능력과 대등한 숙적을 만났다는 사실을 말이야. 그의 범죄에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수법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네.

하지만 마침내 그가 실수를 저질렀네. 아주 작은 실수였지. 하지만 내가 그를 코앞까지 추격하던 상황에서 그 실수는 치명적이었네. 나는 기회를 잡았고, 그 지점을 시작으로 그를 가둘 그물을 촘촘히 짜왔네. 이제 그물을 좁혀 닫기만 하면 되네.

사흘 뒤,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이면 모든 준비가 끝날 걸세. 그러면 교수와 그의 조직 핵심 인물들은 모두 경찰의 손에 넘어가게 되겠지. 그때가 되면 세기 최대의 범죄 재판이 열릴 것이고, 마흔 가지가 넘는 미제 사건들이 해결됨과 동시에 그들 모두는 교수형에 처해질 것이네. 하지만 자네도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급하게 움직였다가는 마지막 순간에 그들을 놓쳐버릴 수도 있네."

"모리아티 교수를 눈치채지 못한 채 이 일을 끝낼 수 있었다면 모든 게 순조로웠을 거네. 하지만 그는 너무나 교활했지. 내가 그를 옭아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는 그 움직임을 모두 지켜보고 있었어. 그는 끊임없이 빠져나가려 발버둥 쳤지만, 그때마다 내가 먼저 앞질러 차단했지. 친구여, 장담컨대 그 소리 없는 격돌을 상세히 기록할 수만 있다면, 그것은 탐정 역사상 가장 눈부신 공방전으로 기록될 것이네. 나는 단 한 번도 이토록 높은 경지에 올라본 적이 없었으며, 이토록 강력한 적수에게 몰린 적도 없었네. 그는 날카롭게 파고들었지만, 나는 그보다 한발 앞서 그를 제압했지. 오늘 아침에 드디어 마지막 단계가 이루어졌네. 이 일을 마무리하는 데는 단 사흘이면 충분했지. 방에 앉아 지난 일을 되짚어보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모리아티 교수가 내 앞에 나타났네."

“내 신경은 꽤나 강인한 편이라네, 왓슨. 하지만 내 머릿속을 온통 차지하고 있던 바로 그 남자가 문턱에 서 있는 것을 보았을 땐, 나도 모르게 움찔하고 말았음을 고백해야겠군. 그의 모습은 아주 익숙했네. 키가 굉장히 크고 말랐으며, 이마는 하얗고 둥스름하게 솟아 있고, 두 눈은 머리 깊숙이 움푹 들어가 있었지. 수염을 깔끔하게 깎은 그는 창백하고 금욕적인 인상이었는데, 이목구비에는 교수 특유의 분위기가 남아 있었네. 오랫동안 책을 탐독한 탓에 어깨는 굽어 있었고, 앞으로 툭 튀어나온 얼굴은 마치 파충류처럼 기묘하게 좌우로 천천히 흔들거렸지. 그는 주름진 눈으로 아주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내며 나를 빤히 들여다보았네.”

“생각했던 것보다 전두엽 발달이 덜 되어 있군.”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가운 주머니 속에 장전된 총을 넣고 만지작거리는 건 아주 위험한 습관이야.”

"사실 그가 들어서는 순간, 나는 내가 처한 극심한 신변의 위협을 즉각 알아차렸다. 그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는 내 입을 막는 것뿐이었다. 나는 찰나의 순간에 서랍 속의 권총을 꺼내 주머니에 넣었고, 천 너머로 그를 겨누고 있었다. 그가 말을 건네자 나는 총을 꺼내 공이치기를 당긴 채 탁자 위에 올려두었다.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눈을 깜빡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내가 총을 준비해 두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었다."

“당신은 분명 나를 모르는 모양이군.” 그가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제 생각에는 제가 그렇다는 사실이 아주 명백해 보이는데요. 우선 의자에 앉으시지요. 하실 말씀이 있다면 5분 정도는 내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은 이미 당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가 말했다.

"그렇다면 아마 제 답변도 당신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겠군요." 내가 대답했다.

"결심이 확고한가?"

"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가 주머니 속으로 손을 잽싸게 집어넣자, 나는 탁자 위에 있던 권총을 들어 올렸다. 하지만 그는 그저 날짜 몇 개를 휘갈겨 적은 수첩을 꺼냈을 뿐이었다.

"당신은 1월 4일에 내 앞길을 막아섰지." 그가 말했다. "23일에는 나를 번거롭게 했고, 2월 중순에는 나에게 심각한 지장을 주었어. 3월 말에는 내 계획을 완전히 망쳐놓더니, 이제 4월이 저물어가는 지금은 당신의 끊임없는 괴롭힘 때문에 자유를 잃을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군.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

"제안할 만한 의견이라도 있소?" 내가 물었다.

"홈즈 씨, 이 일은 그만두셔야 합니다." 그가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며 말했다. "정말로 그만두셔야 한다는 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월요일 이후라면 괜찮습니다." 내가 말했다.

"허허, 아니 그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처럼 명석한 분이라면 이 사건의 결말이 단 하나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실 겁니다. 그러니 이제 물러나 주셔야겠습니다. 당신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몰고 가는 바람에, 이제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하나뿐입니다. 당신이 이 사건을 어떻게 헤쳐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제게도 지적인 즐거움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건대, 만약 제가 극단적인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면 그것은 제게도 큰 슬픔이 될 것입니다. 웃으시지만, 선생님, 정말로 그렇단 말입니다."

"위험은 제 직업의 일부니까요." 내가 말했다.

"그건 단순한 위험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피할 수 없는 파멸이지요. 홈즈 씨, 당신은 지금 한 개인을 막아서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그 명석한 두뇌로도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거대한 조직에 맞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장 물러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짓밟히고 말 겁니다."

"대화가 즐거워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하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다른 곳에서 기다리는 중요한 업무를 놓칠 것 같아 걱정되는군요."

그도 자리에서 일어나 슬픈 기색으로 고개를 저으며, 한동안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자, 자."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도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 했습니다. 당신이 어떤 수를 쓰려는지 난 이미 훤히 꿰뚫고 있습니다. 월요일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할 겁니다. 홈즈 씨, 당신과 나는 결투를 벌인 셈이군요. 당신은 나를 피고인석에 앉히고 싶어 하겠지만, 분명히 말해두건대 난 절대로 그 자리에 서지 않을 겁니다. 나를 이기려 들겠지만, 당신은 결코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나를 파멸시킬 만큼 영리하다면, 나 또한 똑같이 당신을 파멸시킬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모리아티 씨, 저를 아주 높게 평가해 주시는군요." 내가 말했다. "그럼 저도 답례로 찬사를 하나 보내겠습니다. 만약 전자의 상황이 확실해진다면, 저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기꺼이 후자의 상황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만은 약속할 수 있어도, 다른 하나는 장담 못 하네."

그는 으르렁거리듯 내뱉고는 둥근 등을 돌려 나를 등졌다. 그러고는 눈을 가늘게 뜨고 깜빡이며 방 밖으로 나갔다.

"모리아티 교수와 나눈 기이한 면담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건대, 그 만남은 제 마음에 불쾌한 잔상을 남겼습니다. 그는 부드러우면서도 정교하게 말을 하는데, 그 말투에는 단순한 불량배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진실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물론 당신은 '그

렇다면 왜 경찰에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느냐'고 묻겠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를 공격할 자들은 그가 직접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수하들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습격을 당했다는 말입니까?"

"여보게, 왓슨. 모리아티 교수는 결코 시간을 허비할 사람이 아니야. 정오쯤 옥스퍼드가에서 볼일을 보려고 길을 나섰지. 벤팅크가에서 웰벡가로 이어지는 모퉁이를 돌 때였네.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맹렬한 속도로 달려오더니 순식간에 내 앞을 스쳐 지나가더군. 나는 찰나의 순간에 보도로 몸을 날려 겨우 목숨을 건졌네. 마차는 메릴본가를 지나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지.

그 후로는 계속 인도 쪽으로만 붙어서 걸었네, 왓슨. 그런데 비어가를 따라 걷고 있는데, 어느 집 지붕에서 벽돌 하나가 떨어져 내 발치에서 산산조각이 나지 않겠나? 그래서 경찰을 불러 현장을 조사하게 했네. 지붕 위에는 수리 준비를 위해 슬레이트와 벽돌을 쌓아두었더군. 경찰들은 바람 때문에 그중 하나가 쓰러진 것이라고 주장하더군. 물론 나는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네. 나는 곧장 마차를 잡아 펠멜에 있는 형의 거처로 가서 하루를 보냈지.

방금 자네를 찾아오는 길에도 몽둥이를 든 불한당에게 습격을 당했네. 내가 그놈을 때려눕혔고 경찰이 연행해 갔지만, 자네에게 확신하며 말할 수 있네. 내 주먹이 닿아 앞니가 나간 그 불한당과, 지금쯤 10

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고 있을 그 은둔 중인 수학 교수는 결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말이야.

자네도 놀라지는 말게. 내가 자네 방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창문을 닫는 것이었던 이유를, 그리고 왜 정문이 아닌 눈에 덜 띄는 출구로 나가도 되겠냐고 허락을 구하는지 말일세."

나는 친구의 용기를 자주 높이 평가해 왔지만, 지금처럼 절실히 느낀 적은 없었다. 그는 마치 공포로 가득했던 그날의 사건들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듯, 조용히 앉아 일련의 일들을 차분히 정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밤을 지내시겠다는 건가요?" 내가 물었다.

"아니네, 친구. 자네가 나를 위험한 손님으로 여길지도 모르겠군. 이미 계획은 다 세워두었으니 모든 일은 잘 풀릴 걸세. 상황이 이미 진전되어, 체포 단계까지는 내 도움 없이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네. 다만 유죄 판결을 끌어내려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네. 그러니 경찰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전까지 남은 며칠 동안은 잠시 자리를 비우는 게 최선일 것 같네. 그래서 말인데, 괜찮다면 자네도 나와 함께 유럽 대륙으로 떠나주지 않겠나? 자네와 함께할 수 있다면 내게는 큰 즐거움이 될 걸세."

"진료가 한가한 편이라서요." 내가 말했다. "게다가 이웃들도 아주 협조적이고요. 기꺼이 가겠습니다."

"그럼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자는 말씀입니까?"

"필요하다면 말이지요."

"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지침을 알려 드릴 테니, 나의 친애하는 왓슨,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그대로 따르셔야 합니다. 당신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영리한 악당이자 가장 강력한 범죄 조직을 상대로 나와 함께 이중 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니까요. 잘 들으세요! 오늘 밤, 가져가려는 짐은 주소를 적지 않은 채 믿을 만한 심부름꾼을 시켜 빅토리아 역으로 보내십시오. 내일 아침에는 한섬 택시를 부르되, 마부에게 처음이나 두 번째로 나타나는 택시는 절대 타지 말라고 당부해야 합니다. 택시가 오면 바로 올라타서 로더 아케이드의 스트랜드 쪽 끝으로 향하십시오. 이때 마부에게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네며, 절대로 버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해야 합니다. 요금은 미리 준비해 두시고, 택시가 멈추는 즉시 아케이드 안을 가로질러 달려가십시오. 9시 15분에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길가에 작은 브룸(brougham) 마차가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깃에 붉은 장식이 달린 두툼한 검은 망토를 입은 남자가 몰고 있을 테지요. 그 마차에 올라타면 대륙행 급행열차 시간에 맞춰 빅토리아 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만나면 되겠습니까?"

"역에서 만납시다. 맨 앞쪽에서 두 번째인 1등석 객차를 우리 자리를 위해 비워두겠습니다."

"그럼 그 객차에서 만나기로 한 건가요?"

"네."

그날 저녁이라도 함께 있어 달라고 홈즈에게 간청해 보았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자신이 머무는 곳에 화를 불러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그것이 바로 그를 떠나게 만든 동기임이 내 눈에는 분명히 보였다. 홈즈는 내일의 계획에 대해 서둘러 몇 마디를 남기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나와 함께 정원으로 나갔다. 그는 모티머가로 이어지는 담을 타고 넘어간 뒤, 즉시 한섬 택시를 불렀다. 곧이어 택시가 멀어져 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침이 되자 나는 홈즈가 당부한 사항을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따랐다. 혹시라도 우리를 기다리던 마차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지 않도록, 아주 신중하게 한섬 택시를 수배했다.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나는 곧장 로더 아케이드로 향했고, 최대한 속도를 내어 서둘러 달려갔다. 그곳에는 검은 망토를 두른 거구의 마부가 기다리는 브루엄 마차가 한 대 있었다. 내가 마차에 올라타자마자 마부는 즉시 말에 채찍질을 가했고, 마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빅토리아 역을 향해 질주했다. 역에 도착해 내가 내리자, 마부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곧장 마차를 돌려 멀리 사라져 버렸다.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내 짐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홈즈가 알려준 객차를 찾는 것도 어렵지 않았다. 마침 그 칸은 열차에서 유일하게 '예약됨' 표시가 붙은 칸이었으니 더더욱 그랬다. 이제 내 유일한 걱정거리는 홈즈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뿐이었다. 역의 시계는 우리가 출발하기까지 고작 7분 남았음을 가리키고 있었다. 나는

여행객과 작별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사이에서 친구의 날렵한 체구를 찾아 헤맸지만, 홈즈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잠시 동안은 짐을 파리까지 부치려 애쓰는 한 노신사 이탈리아 신부를 도와드렸다. 신부는 서툰 영어로 짐꾼에게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려 애쓰고 있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둘러본 뒤 객차로 돌아왔을 때, 나는 황당한 광경을 목격했다. 짐꾼이 표를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낡은 가방을 든 이 이탈리아 노신사를 내 여행 동반자로 붙여준 것이었다. 내가 그에게 이 상황이 결례라고 설명하려 했으나 소용없었다. 내 이탈리아어 실력은 신부의 영어 실력보다도 형편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체념하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고는, 다시 초조하게 친구를 찾아 나섰다.

혹시 밤사이에 무슨 변고라도 생긴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한기가 느껴졌다. 이미 열차의 모든 문이 닫히고 경적 소리가 울려 퍼졌을 때, 바로 그때—

"이보게, 왓슨."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조차 건네지 않는 건가?"

나는 걷잡을 수 없는 경악에 휩싸여 몸을 돌렸다. 노쇠한 성직자가 나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그 찰나의 순간, 노인의 얼굴을 뒤덮었던 주름이 마법처럼 펴졌다. 턱으로 처졌던 코가 제자리를 찾았고, 툭 튀어나왔던 아랫입술과 웅얼거리던 입매도 평범하게 돌아왔다. 흐릿하던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았으며, 구부정했던 체구는 당당하게 펴졌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 형체는 다시 무너지듯 쪼그라들었고, 홈즈는 나타났을 때만큼이나 빠르게 사라져 버렸다.

"세상에!" 내가 비명을 지르듯 외쳤다. "정말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여전히 만전을 기해야 하네."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놈들이 우리 뒤를 바짝 쫓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 아, 저기 모리아티가 직접 나타났군."

홈즈가 말을 마칠 무렵, 열차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키가 큰 사내 하나가 열차를 세우려는 듯 손을 흔들며 인파를 거칠게 헤치고 달려오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늦은 상태였다. 열차는 속도를 높이며 빠르게 움직였고, 잠시 후 역을 완전히 벗어났다.

"아무리 조심한다 해도, 정말 아슬아슬했지 않나?" 홈즈가 웃으며 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변장용으로 입었던 검은 사제복과 모자를 벗어 던지더니, 그것들을 핸드백 안에 챙겨 넣었다.

"오늘 아침 신문 봤나, 왓슨?"

"아니오."

"그럼 베이커가 쪽은 알아보지 않은 건가?"

"베이커가요?"

"어젯밤에 우리 방에 불을 질렀어요.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맙소사, 홈즈!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군."

"그들의 몽둥이잡이가 체포된 뒤에 내 행방을 완전히 놓친 게 분명하군.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다시 내 방으로 돌아왔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을 테니까. 하지만 그들이 당신을 감시하는 조치를 취해둔 모양이야. 그 덕분에 모리아티가 빅토리아 역까지 나타난 것이고. 오는 길에 실수한 건 없었겠지?"

"당신이 조언한 대로 정확히 했습니다."

"브루엄 마차는 찾으셨습니까?"

"그래, 기다리고 있었지."

"마부의 얼굴을 알아봤습니까?"

"아니오."

"내 형 마이크로프트였네. 이런 상황에서는 돈을 주고 고용한 사람에게 속내를 털어놓는 것보다 형을 이용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 하지만 이제 모리아티를 어떻게 상대할지 계획을 세워야 하네."

"이건 급행열차인 데다 그에 맞춰 연결편 배가 운행되니까, 우리가 아주 효과적으로 그를 따돌린 것 같군."

"여보게, 왓슨. 내가 이 남자를 나와 거의 대등한 지적 수준을 가진 인물이라고 말했을 때, 자네는 내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모양이군. 내가 추격자였다면 고작 이런 사소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헤맸을 거라고 생각하나? 그런데 어째서 그를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건가?"

“그가 대체 어떻게 나올까요?”

"내가 할 법한 일을 하겠지."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특별 열차를 한 대 잡는 거지."

“하지만 시간이 꽤 늦었을 텐데요.”

“그럴 리 없습니다. 이 열차는 캔터베리에서 정차합니다. 게다가 배를 갈아탈 때면 항상 적어도 15분은 지체되기 마련이죠. 그자가 캔터베리에서 우리를 따라잡을 겁니다.”

“마치 우리가 범죄자라도 된 것 같군요. 그가 도착하는 대로 바로 체포합시다.”

“그렇게 하면 석 달 동안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리는 꼴이 됩니다. 큰 물고기는 낚을 수 있겠지만, 작은 놈들은 그물 사이로 요리조리 빠져나갈 겁니다. 월요일이면 놈들을 전부 잡아넣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아니요, 지금 체포하는 건 결코 안 될 말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캔터베리에서 내릴 겁니다.”

"그럼 그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뉴헤이븐까지 육로로 이동한 뒤, 디에프로 건너가야겠군. 모리아티는 내가 하려던 짓을 똑같이 되풀이할 거야. 그는 파리로 가서 우리 수하물을 기록해 두고, 역에서 이틀 정도 기다리겠지. 그동안 우리는 카펫백 두어 개를 새로 장만해서, 우리가 지나가는 나라의 제조업자들을 도와주는 셈 치며 여유롭게 스위스로 향하자고. 룩셈부르크와 바젤을 거쳐서 말이야."

결국 우리는 캔터베리에 내렸지만, 뉴헤이븐행 열차를 타려면 한 시간이나 더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 옷가지가 실린 수하물차는 빠르게 멀어져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여전히 몹시 속상한 마음으로 서 있었다. 그때 홈즈가 내 소매를 잡아끌더니, 기차가 달려가는 선로 쪽을 가리켰다.

"벌써 오는군, 보다시피." 그가 말했다.

멀리 켄트의 숲 사이로 가느다란 연기 줄기가 피어올랐다. 잠시 후, 역으로 이어지는 탁 트인 곡선로를 따라 객차 한 량과 기관차가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우리가 짐더미 뒤에 자리를 잡기가 무섭게, 열차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우리 앞을 지나갔다. 열차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뜨거운 바람이 몰아쳐 우리 얼굴을 때렸다.

"저기 가는군." 객차가 분기점 위에서 흔들리고 덜컹거리며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던 홈즈가 말했다. "보다시피, 우리 친구의 지능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야. 만약 그가 내가 추론해낼 것을 미리 추론해내고 그에 맞춰 행동했다면, 그건 정말이지 대단한 묘수였을 텐데 말이지."

"만약 그가 우리를 따라잡았다면, 대체 무엇을 하려 했을까요?"

"그자가 나를 죽이려 들었으리라는 데에는 한 치의 의심도 없네. 하지만 이건 나 역시 똑같이 맞받아칠 수 있는 게임이지. 이제 문제는 하나뿐이야. 여기서 너무 이른 점심을 먹을 것인가, 아니면 뉴헤이븐의 매점에 도착할 때까지 굶주림을 견디며 운에 맡겨볼 것인가 하는 문제 말일세."

그날 밤 우리는 브뤼셀로 향했고 그곳에서 이틀을 머물렀다. 사흘째 되는 날에는 스트라스부르까지 이동했다. 월요일 아침, 홈즈는 런던 경찰 측에 전보를 보냈다. 저녁 무렵 호텔에 도착하니 답신이 도착해 있었다. 홈즈는 전보를 거칠게 뜯어 보더니, 이내 저주 섞인 욕설을 내뱉으며 벽난로 화로 안으로 집어 던져버렸다.

"이럴 수가, 내 이럴 줄 알았네!" 그가 신음하듯 내뱉었다. "그자가 탈출했어!"

"모리아티라고?"

"그놈을 제외한 나머지 일당은 전부 잡혔다네. 하지만 그놈은 교묘히 빠져나갔어. 물론 내가 영국을 떠났을 때는 그를 상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만 말이야. 그래도 나는 스코틀랜드 야드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라 믿었네. 왓슨, 자네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이유가 뭡니까?"

"이제 자네는 내가 위험한 동행이라는 걸 알게 될 테니까. 이 남자는 이제 직업을 잃었네. 런던으로 돌아간다면 그는 파멸하고 말 거야. 내가 그의 성격을 제대로 파악한 것이라면, 그는 오로지 나에게 복수하는 데에만 온 힘을 쏟아부을 걸세. 짧은 면담 중에 그가 직접 그렇게 말했으니, 빈말은 아닐 거야. 그러니 자네는 다시 본업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

그것은 오랜 전우이자 오랜 친구인 사람에게는 좀처럼 통할 리 없는 설득이었다. 우리는 스트라스부르의 식당에 앉아 그 문제를 두고 삼십 분 동안이나 논쟁을 벌였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다시 여정을 재개했고, 제네바를 향해 한참 나아가 있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론 계곡을 따라 올라갔다. 그러고 나서 로이크에서 길을 갈라 젬미 고개를 넘었다. 고개에는 여전히 눈이 깊게 쌓여 있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 인터라켄을 거쳐 마이링겐으로 향했다. 발아래로는 봄의 화사한 초록빛이 펼쳐지고, 머리 위로는 겨울의 순백색이 내려앉은 참으로 아름다운 여행이었다. 하지만 홈즈가 자신을 짓누르는 그림자를 단 한 순간도 잊지 않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내게도 명확히 느껴졌다. 소박한 알프스의 마을에서도, 혹은 적막한 산길에서도 그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의 얼굴을 날카롭게 살피고 눈을 빠르게 굴리는 그의 모습에서 나는 알 수 있었다. 우리가 어디를 걷든, 우리 뒤를 끈질기게 쫓는 저 위험으로부터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역시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언젠가 우리가 젬미를 건너 우울한 분위기가 감도는 다우엔제 호숫가를 따라 걷고 있을 때의 일이다. 오른쪽 능선에서 커다란 바위 하나가 떨어져 나오더니, 우리 뒤편에 있는 호수를 향해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굴러떨어졌다. 그 순간 홈즈는 곧장 능선 위로 달려 올라갔다. 그는 높은 바위 꼭대기에 서서 사방을 유심히 살피며 고개를 길게 뺐다. 가이드가 이 근방에서는 봄철에 돌이 떨어지는 일이 흔한 일이라고 안심시키려 했지만, 홈즈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홈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이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실현된 것을 목격한 사람처럼, 나를 향해 미소를 지어 보일 뿐이었다.

그토록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서도 그는 결코 낙담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활기찬 모습이었다고 기억할 정도다. 그는 입버릇처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만약 사회에서 모리아티 교수를 완전히 몰아낼 수 있다는 확신만 든다면,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탐정 경력을 마무리하겠노라고 말이다.

"왓슨, 내 인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고 말해도 될 것 같네." 홈즈가 말했다. "오늘 밤 내 생애가 끝난다 해도, 나는 평온한 마음으로 지나온 길을 되돌아볼 수 있을 거야. 내가 존재함으로써 런던의 공기마저 더 달콤해졌으니까 말이야. 천 건이 넘는 사건을 해결하는 동안, 내 능력을 잘못된 쪽에 사용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네. 최근에는 인위적인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피상적인 문제들보다는, 자연이 던져주는 난제들을 탐구하고 싶다는 유혹을 느끼곤 하네. 왓슨, 자네의 회고록은 유럽에서 가장 위험하고 유능한 범죄자를 붙잡거나 소탕함으로써 내 경력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날, 비로소 끝을 맺게 될 걸세."

남은 이야기를 전하는 데 있어,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굳이 길게 늘여 말하고 싶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단 하나의 세부 사항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저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5월 3일, 우리는 마이링겐이라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우리는 그곳의 잉글리셔 호프 여관에 짐을 풀었는데, 당시 그곳은 피터 슈타일러 노인이 운영하고 있었다. 주인은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런던의 그로브너 호텔에서 3년 동안 웨이터로 일한 경험이 있어 영어 실력이 아주 뛰어났다. 그의 조언에 따라 우리는 4일 오후에 함께 길을 나섰다. 언덕을 넘어 로젠라우이 마을에서 하룻밤을 보낼 계획이었다. 다만 주인은 우리에게 한 가지 엄중히 당부했다. 언덕 중간쯤에 있는 라이헨바흐 폭포를 구경하러 잠시 우회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폭포를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참으로 공포스러운 곳이었다. 녹아내린 눈 때문에 불어난 급류는 거대한 심연 속으로 곤두박질쳤고, 그곳에서 솟구치는 물보라는 마치 불타는 집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처럼 허공으로 흩어졌다. 강물이 몸을 던지는 곳은 끝을 알 수 없는 거대한 협곡이었다. 매끄럽게 빛나는 칠흑 같은 바위들이 벽을 이루었고, 그 아래로 갈수록 물살은 거품을 일으키며 끓어오르는 구덩이로 좁아졌다. 그 구덩이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까지 이어져 있었으며, 넘쳐흐른 물줄기는 들쭉날쭉한 바위 끝을 타고 다시 앞으로 쏘아져 나갔다. 끊임없이 포효하며 아래로 쏟아지는 초록빛 물줄기와, 쉼 없이 쉿쉿 소리를 내며 위로 치솟는 두터운 물보라의 장막은 그 끊임없는 소용돌이와 굉음만으로도 사람의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 정도였다. 우리는 가장자리에 서서 저 멀리 검은 바위 위로 부서지는 물결의 번뜩임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심연에서 물보라와 함께 웅웅거리며 울려 퍼지는, 마치 사람의 비명 같은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폭포를 한 바퀴 돌아 전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았으나, 길은 중간에 갑자기 끊겨 버렸다. 그래서 여행객은 왔던 길을 되돌아 나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막 발길을 돌리려던 참에, 손에 편지를 든 스위스 소년 하나가 그 길을 따라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편지에는 방금 우리가 떠나온 호텔의 인장이 찍혀 있었고, 주인장이 나에게 보내는 내용이었다.

사연인즉 이러했다. 우리가 떠나고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 폐결핵 말기 증상을 보이는 영국인 여성이 도착했다는 것이다. 그녀는 다보스 플라츠에서 겨울을 보낸 뒤 루체른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각혈이 시작되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몇 시간도 더 버티기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영국인 의사를 만나는 것이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될 것이니, 제발 한 번만 돌아와 달라는 간곡한 부탁이 담겨 있었다. 친절한 슈타일러 주인은 추신을 통해, 여성이 스위스 의사는 절대로 만나지 않겠다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 자신이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니 내가 응해준다면 자신에게도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가 될 것이라며 거듭 당부했다.

그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낯선 타국에서 죽어가는 동포의 요청을 거절하기란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홈즈를 두고 떠나

려니 마음 한구석이 영 편치 않았다. 결국 나는 마이링겐으로 돌아가기로 했고, 홈즈는 길잡이 겸 동행으로 젊은 스위스 전령을 곁에 두기로 합의했다. 홈즈는 폭포 근처에서 잠시 머물다가, 언덕 너머 로젠라우이까지 천천히 걸어갈 테니 저녁에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다. 내가 몸을 돌려 떠나려 할 때, 홈즈가 바위에 등을 기대고 팔짱을 낀 채 세차게 몰아치는 물줄기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본 장면이었다.

내리막길 거의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그 위치에서는 폭포를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언덕 어깨를 타고 굽이굽이 흘러 폭포로 이어지는 길만큼은 보였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한 남자가 그 길을 따라 아주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검은 형체가 뒤편의 초록빛 배경과 대비되어 선명하게 눈에 들어왔다. 나는 그를 눈여겨보았고, 그가 걷는 모습에서 느껴지는 활기찬 기운에도 주목했다. 하지만 볼일을 서둘러 가던 중, 그는 다시 내 머릿속에서 잊혔다.

마이링겐에 도착하기까지 한 시간 남짓 걸린 듯했다. 슈타일러 노인이 자기 호텔 현관에 서 있었다.

"그렇군요." 내가 서둘러 다가가며 말했다. "상태가 더 나빠지지는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그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스쳤다. 눈썹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본 순간, 내 가슴은 납덩이를 매단 듯 무겁게 내려앉았다.

"이 편지, 당신이 쓴 게 아니군요?" 나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며 물었다. "호텔에 아픈 영국인 여성이 있다는 말도 사실이 아니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가 외쳤다. "하지만 여기 호텔 표시가 찍혀 있잖아요! 하, 이건 분명 당신이 떠난 뒤에 들어온 그 키 큰 영국인이 쓴 게 틀림없군요.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하지만 집주인의 설명 따위는 들을 겨를이 없었다. 공포로 온몸이 떨리는 가운데, 나는 이미 마을 길을 따라 달리고 있었다. 조금 전 내려왔던 그 길을 향해 필사적으로 발을 옮겼다. 내려올 때는 한 시간이나 걸렸던 길이었다. 온 힘을 다해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라이헨바흐 폭포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시간이 더 지나 있었다. 홈즈가 기대어 놓았던 알펜 지팡이가 그가 남겨진 바위 곁에 여전히 놓여 있었다. 그러나 홈즈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목이 터져라 외쳐 보았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돌아오는 대답이라고는 주변 절벽을 타고 굴러가는 나의 메아리뿐이었다.

그 알펜스톡을 본 순간, 나는 온몸이 얼어붙고 속이 메스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렇다면 그는 그때 로젠라우이로 가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한쪽은 깎아지른 절벽이고 다른 한쪽은 아찔한 낭떠러지인 그 좁은 길 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결국 적에게 붙잡히고 만 것이다. 그 젊은 스위스인도 함께 가 버렸다. 아마도 그는 모리아티에게 돈을 받고 움직이는 자였을 것이고, 두 사람을 남겨둔 채 자리를 떠났을 것이다. 그다음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대체 누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단 말인가?

나는 한두 분 정도 가만히 서서 마음을 가다듬었다. 눈앞에 펼쳐진 참혹한 광경에 정신이 아득했기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나는 이 비극을 읽어내기 위해 홈즈가 쓰던 방식대로 생각하며 관찰을 시작했다. 슬프게도, 그 과정은 너무나 쉬웠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느라 길 끝까지 가지 못했기에, 홈즈가 짚고 있던 알펜스톡이 우리가 서 있던 자리를 표시해주고 있었다. 끊임없이 튀어 오르는 물보라 덕분에 검은 흙은 늘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했고, 새 발자국조차 선명하게 남을 정도였다. 길의 먼 쪽 끝을 따라 두 줄의 발자국이 뚜렷하게 찍혀 있었는데, 두 발자국 모두 나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이었다. 되돌아온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길 끝에서 몇 야드 떨어진 곳은 흙이 진흙탕처럼 완전히 뒤엎어져 있었고, 협곡 가장자리를 둘러싼 나뭇가지와 고사리들은 갈가리 찢겨 엉망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바닥에 엎드려 사방으로 솟구치는 물보라 사이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내가 이곳을 떠난 뒤로 주위가 어두워진 탓에, 검은 절벽 벽면에서 이따금 번뜩이는 물기만 겨우 보일 뿐이었다. 저 멀리 수직 통로 끝에는 부서지는 물줄기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질러 보았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폭포가 내뱉는, 사람의 울음소리 같은 기괴한 굉음뿐이었다.

하지만 결국 내 친구이자 동료로부터 마지막 인사를 건네받는 운명이었다. 앞서 말했듯, 그의 알펜스톡(등산용 지팡이)은 길가로 툭 튀어나온 바위에 기대어 있었다. 나는 그 바위 위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하고 눈을 가늘게 떴다. 손을 뻗어 확인해 보니, 그것은 그가 늘 지

니고 다니던 은제 담배 케이스였다. 내가 케이스를 집어 들자, 그 위에 놓여 있던 작은 종이 한 장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종이를 펼쳐 보니 그의 수첩에서 찢어낸 세 페이지 분량의 글이 나를 향한 메시지로 적혀 있었다. 주소까지 정확히 적힌 그 글씨체는 마치 그가 서재에서 글을 쓰듯 단호하고 명료했다. 그야말로 그 사람다운 모습이었다.

"나의 친애하는 왓슨," 홈즈가 말했다. "이 짧은 글을 남기는 것은 모리아티 씨의 배려 덕분이네. 그는 우리 사이에 남은 문제들을 최종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내가 시간을 내기를 기다리고 있다네. 모리아티 씨는 자신이 어떻게 영국 경찰을 따돌렸는지, 그리고 우리의 움직임을 어떻게 파악해 왔는지 그 수법을 내게 설명해 주었네. 그가 보여준 행적은 내가 그에 대해 가졌던 높은 평가를 확실히 뒷받침해주더군. 그의 존재로 인해 사회가 더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직접 나서게 되어 기쁘네. 다만 이 일이 내 친구들에게, 특히 나의 친애하는 왓슨, 자네에게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이 걱정될 뿐이라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내 경력은 어떤 식으로든 중대한 전환점에 도달해 있었네. 따라서 이번 일이 내 경력의 결말로서 이보다 더 나에게 어울리는 일은 없을 것이네. 사실 자네에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나는 마이링겐에서 온 편지가 가짜라고 확신했었네. 그래서 이런 식의 전개가 뒤따를 것이라 믿고 자네를 그 심부름에 보냈던 것이라네. 패터슨 경위에게 전해주게. 그 범죄 조직을 유죄로 입증하는 데 필요한 서류들은 M번 서랍 안에 들어 있다고 말일세. 파란 봉투에 담겨 있고 겉면에는 '모리아티'라고 적혀 있을 것이네. 나는 영국을 떠나기 전 이미 모든 재산을 정리하

여 형 마이크로프트에게 넘겨두었네. 왓슨 부인께도 내 안부를 전해주게. 자네의 친애하는 친구로부터,"

"셜록 홈즈 올림."

남은 이야기를 전하기에는 몇 마디 말로도 충분할 것이다.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두 사람의 사투가 서로를 붙든 채 함께 휩쓸려 떨어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결말이었을 것이다. 시신을 수습하려는 모든 시도는 완전히 수포로 돌아갔다. 소용돌이치는 물살과 거친 거품이 뒤섞인 그 끔찍한 심연 속에는, 당대 최고의 범죄자와 법을 수호한 가장 위대한 인물이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 스위스 청년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는데, 그 역시 모리아티가 부리던 수많은 수하 중 한 명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범죄 조직에 대해서는, 홈즈가 수집한 증거들이 그들의 체계를 얼마나 철저히 폭로했는지, 그리고 죽은 자의 손길이 그들을 얼마나 무겁게 짓눌렀는지를 대중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재판 과정에서 그 무시무시한 우두머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내가 이제 와서 그의 생애를 명확히 진술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은, 모리아티의 명예를 회복시키겠다며 내가 평생 가장 훌륭하고 현명한 사람으로 기억할 그분(홈즈)을 공격해 온 경솔한 옹호자들 때문이다.